

2300 THE COMET

코메트

第 三 種 郵 便 物 取 扱 認 可
創 刊 四 二 八 七 年 四 月 九 日



작전교육과

第 26 號



△目次卷·扉卷▽

★ 靜物

△趣味의 美術鑑賞▽……………李 喜世

報 叢

◇ 張參謀總長閣下 國府軍을 視察
◇ 四月一〇日 鎮海 空軍士官學校서 第五期 卒業式을 盛舉
◇ 二月九日 空軍大學 第一回 卒業式을 舉行
◇ 自由越南에서 開催한 亞細亞反共大會에 우리代表를 選送한 C-46
◇ 美國空軍軍樂隊 行進軍樂 吹奏를 盛了

△卷頭言▽

春來不似春……………李 鍾勝 (二)

國際聯合의 課題……………尹 致暎 (四)

國際政治와 軍事力……………李 相助 (八)

三次大戰과 空軍力……………崔 毅英 (六)

韓國의 工業化……………李 重宰 (三)

—主로 韓國經濟의 再建에 있어서—

☆ 詩 苑 ☆

귀 투 라 미……………李 雪舟 (九)
갈 보 리 의 노 래 II……………朴 斗鎮 (五)
과 이 프 20……………金 宗文 (三)

九萬呎高空을 날으다……………A·메어레이 (三)
—높은 高度에 올라가 經驗한 地球의 外界에 關하여—

人類의 美術과 現實의 小考……………韓 舜政 (스)

丁酉年史話……………李 弘植 (五)

—東方의 담의 信仰—

★ 海外漫畫選과 漫畫……………여 기 저 기

★ 가 위 와 풀 에 서……………중 간 중 간

★ 格言·名言……………이 저 곳

日本防衛廳技術研究所現況紹介……………(一〇)

自由에의 反應……………J·R·레이즈 (六)
—自由世界로 넘어온 前波蘭操縱士는 말한다—

空中危機에의 抵抗……………李 光來 (二)

筆 隨 冊 · 四 月……………郭 鍾元 (四)
나 의 空軍 時代……………金 東史 (七)

操縱士의 아내……………玄 勝鍾 (三)
金 泰 禧 (三)

養 軍人과 社會……………邊 時敏 (美)

웨익스피어眞否論……………李 允熙 (三)

現代詩와 詩調……………金 奎東 (三)

모짜르트의 生涯……………鄭 世文 (五)

銀幕위의 詩……………△伊太利映畫의 新寫實主義▽……………(二)

지붕<ILLETTO>……………朴 龍華 (二)

—「데·시카」監督의 新寫實映畫—

名將逸話……………白 大鎮 (六)

—李舜臣 將軍의 全人格을 말하는 逸話—

九死一生的生還記……………K·윗트니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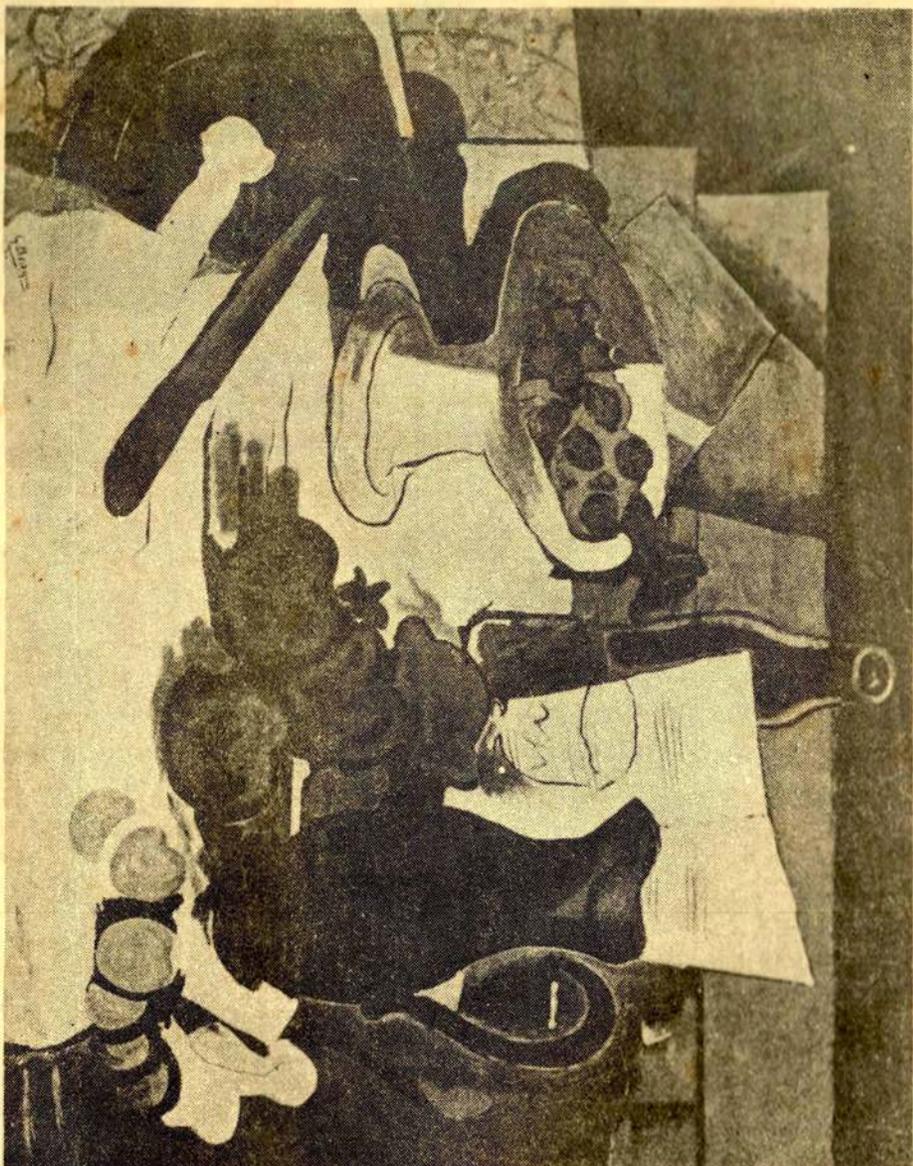
知性俳優……………△잉그리트·버어그만▽……………빌·데이슨 (二)

征服되지 않는 人民들……………△사마켈·모염▽……………李 基錫 譯 (五)

傷 痕……………△小 說▽……………朴 榮濬 (三)



Knoc kout



부라크 (Georges Braque) (一九二六年作)

靜物



제 란 드 에

△趣味의 美術鑑賞▽

靜 物

클루 부락크의 作品은 피카소와 같이 대담히 알기 어려운 그림이라고 느껴진다. 그리고反對로 요즘의 畫家들은 부락크야말로 現代繪畫의 아카데미의 巨匠이라고 생황하고 있습니다. 즉 부락크의 革命的인 新藝術은 모든 抵抗을 받아 제치고 豊醇한 藝術의 完成期로 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락크의 藝術을 모르면 모르는 것은 現代繪畫을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할 사람은 언제까지나 繪畫은 自然의 模寫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겠읍니다. 필연적이며한 觀念을 버리고 좀더 變換된 기분으로 이 作品을 다루기를 願합니다. 마치 音樂家가 自然과

人間으로부터 받은 感動을 스티의 맛음으로써 表現하듯이 現代繪畫은 藝術家의 感情을 純粹한 色과 形과 線으로 表現하는 것입니다. 세잔은 이러한 일에 着手한 最初의 畫家였으며 이어서 피카소, 부락크, 마리스가 各自의 個性에 따라 다시 純粹한 繪畫世界의 確立에 邁進한 것입니다. 이 作品은 一九二六年의 作品이며, 初期 立體派의 苦惱에 對한 探究가 겨우 한 體系를 發見하여 形式을 잡은 때의 作品입니다. 그래서 그 形式 위에 서서 한편 더 세잔과 對決하고 있을 뿐이며 세잔보다도 더욱 嚴格의 二次元의 世界를 意識하여 空間의 自由로운 맛음에 努力하고 있습니다.

부락크 (Georges Braque) (一九二六年作)

극自己感動을 아름다운 造形的인 맛음으로 다시 생자대르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作品의 큰 特徵은 光線이라는 것을 色素로 還元하여 色面의 均衡과 調和로 解決한 것입니다. 흔히 일련되는 色價라는 것은 이 作品의 白, 黑, 茶, 黃綠의 各色을 아름다운 形으로 表現한 調知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作品은 材料에서 보더라도 油繪具와 에나멜이 併用되어 있으며 구리 저어나 繪具 속에는 金剛砂가 섞여 있습니다.

부락크는 一八八二年 파리 近郊 알찬도이유에서 出生, 아버지 相當히 아름답게 裝飾者이며 그는 少年時代부터 變換의 여러가지 技術을

體得하고 있었다. 一九〇二年 파리로 나왔다. 口實은 자기 裝飾을 하기 위해서 있으나, 실은 最初부터 繪畫을 공부하였다. 피카소를 알게 되어 함께 새로운 美術의 研究에 參與하였으며 一九〇八年 立體派의 最初의 形式을 發見하였다. 그것은 南佛에서 그리고 있던 세잔의 作品을 더욱 發展시켰다. 風景畫였으나 피카소도 同時에 니구로 藝術에서 影響된 立體派風의 作品을 그렸다. 最初의 開展은 一九〇八年 칸뒤에 畫廊에서 열렸으며 一九一一年의 살롱·데·장테판 단에서는 立體派의 特別室이 開設되었다. 그後 끊임 없는 畫業의 進展에 의하여 오늘날의 豊醇한 부락크 藝術에 이르렀다.

張參謀總長閣下 國府軍 視察



出發直前の張參謀總長閣下



舉盛式業卒

—



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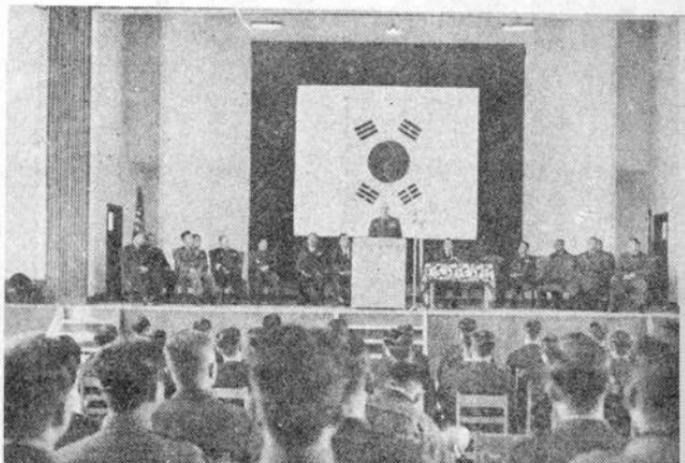
大統領閣下の訓示



前美八軍司令官「ペンプレット」將軍の祝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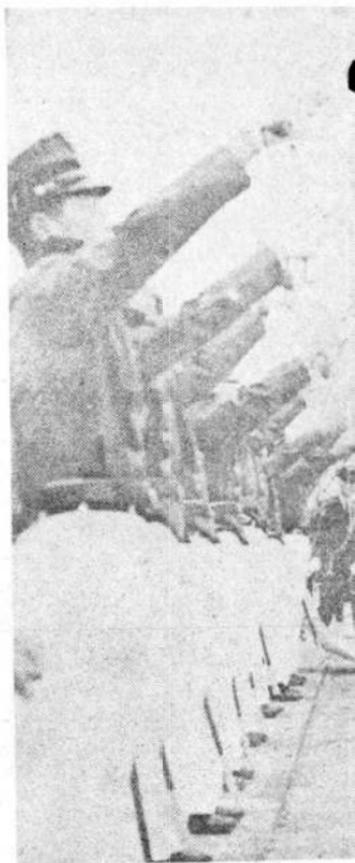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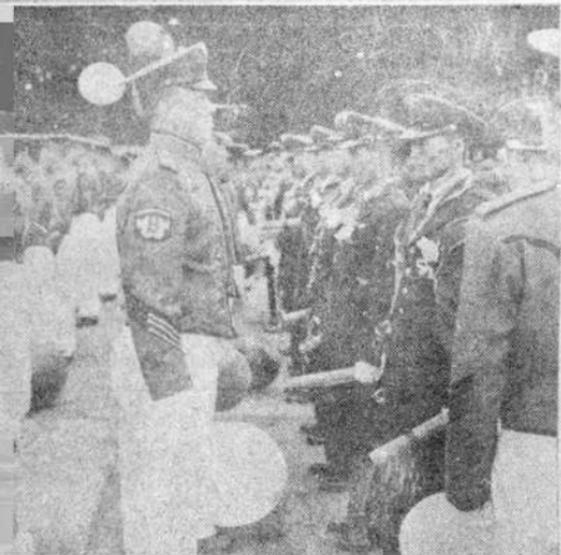
空軍大學第1回卒業式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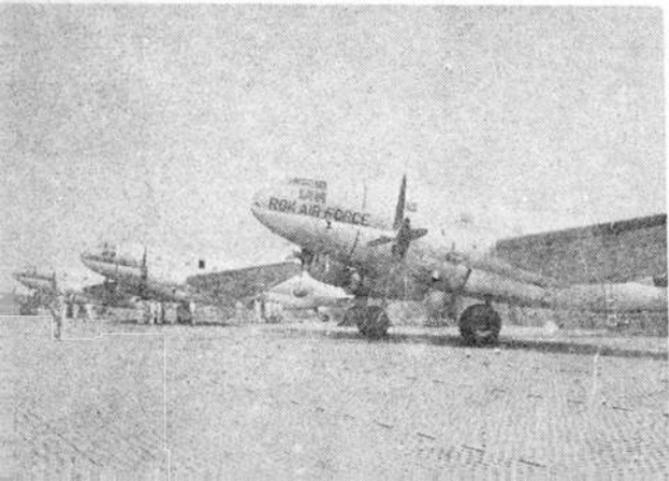
指環門을 나오는 卒業生들



卒業生과 在學生의 作別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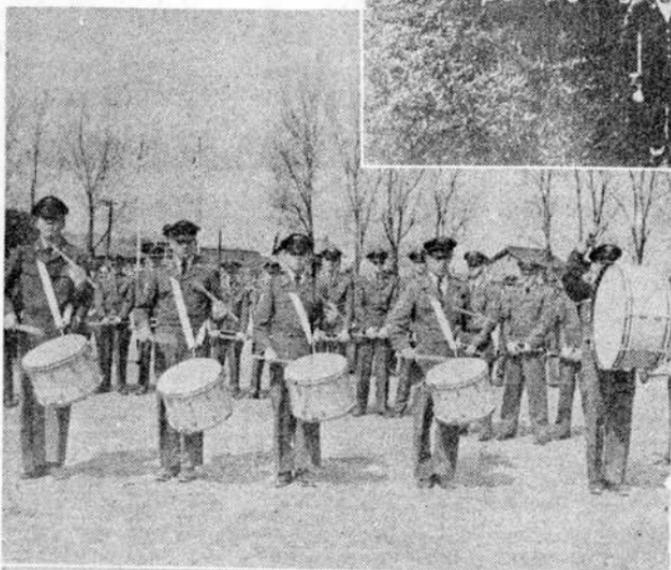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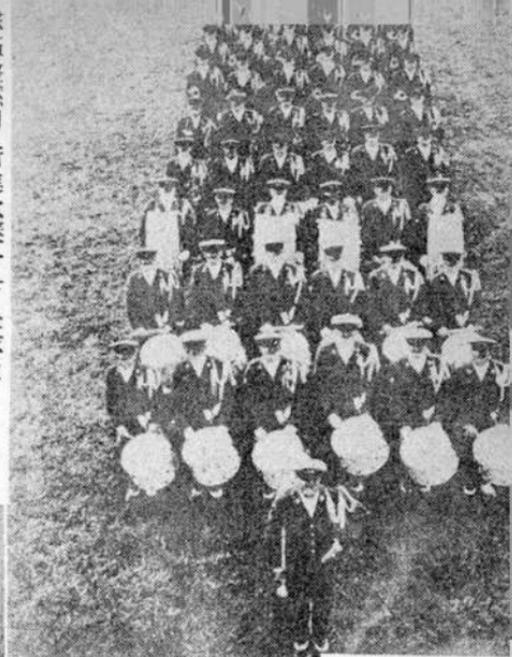


在校生



自由越南「사이공」에서 開催한
亞細亞反共大會에 우리 代表를
還送한 C-46

隊伍整然司令行進吹奏하는全隊員



북을 치며 妙技를 보여 주는場面



칼춤을 주는場面

美國 空軍 行進軍樂 吹奏盛了

코 메 트
THE COMET



第 26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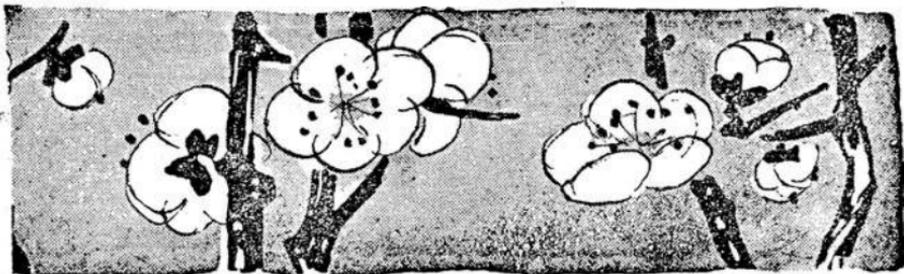
★卷頭言★

春來不似春

政訓監 李鍾勝

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을 많이 들 쓰고 있다. 心境과 環境이 찾아온 봄을 느끼기 어렵고, 즐기기 힘든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春來不似春이란 말 自體에 이미 봄은 感覺되는 것이라 하겠다. 自然의 봄은 왔는데 마음은 봄과 같이 華麗하지 못하다는 것을 吐露하는 것이다. …… 허나 意慾을 돌고 舊殼을 떨치게 봄은 絶好의 季節이니 우리 周圍에 春困、春窮、春愁、春旱、春浪、春眠 등이 있어 마음의 日月이 밝지 않다 하더라도, 春分도 지나면 春雉自鳴格으로 느끼고 보고 행동하여 旺盛해 지는, 意慾은 人爲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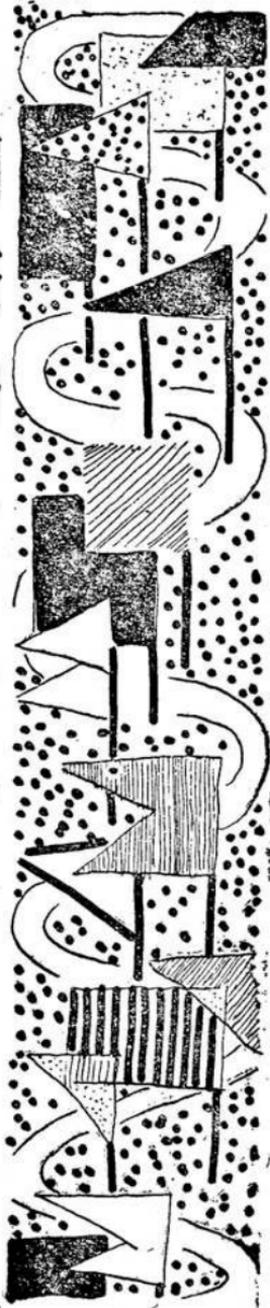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春來不似春——아에 克服해야 하겠다. 春水、春雪이 자취를 감추면
春梅、春麥이 눈을 떠서 春雨에 春機를 재촉하니 春景 春光을 春風과
더불어, 春夜 春月을 春宵에 비롯하여, 즐기고 싶은 것은 春季의 春
情이라 벗에게 春信을 傳하여, 春興을 春花 밑에서, 春思를 春江 위
에서, 春夢을 春草 위에서 滿喫하는 것도 좋으려니와 春水 흥건하면
春耕을 急히 해야 하겠다. 어찌 어느 사람치고 봄을 싫다 하겠는가.

여기 「코메트」、春信을 傳하여 春空에 死活을 맹세하는 同志들에게
一舌을 묻하기를, 青春 뜻을 決하였거든 이 봄을 機하여 應報 壯하고
舉事 功 있도록 力躬 愴慢없이 합시다라고 한다면 이 어찌 春日의 閑
暇로운 弄說이라 하겠는가.

자칫 얼굴 보이기를 게을리 하는 「코메트」子、 스스로 봄타령을 엮
어 新春初號의 卷頭言을 破格하니 이 또한 春意의 作亂이라 탓하기
躊躇있기를 바란다.





國際聯合의 課題

— 共產勢力의 防止와 平和維持에 言及하여 —

尹 致 曠

自然界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高貴하다고 일컫는 것은 文化의 創造와 그 進歩에 있다 할 것이다。그러면 이 文化의 創造와 進歩는 어떻게 始作되었는가? 이는 오로지 智慧와 聰明을 所有한 人間으로서 自己의 결어은바 過去를 回顧·反省·批判하는 데서 비로소 빛어내게 된 것이며, 이것이 또한 이 우주 안에 있어서, 生에 意識을 가졌다는 動物과 사람과 크게 다른 점을 우리 스스로 區別하게 되는 것이다。動物이라 할지라도 生에 對한 意識과 欲望은 있으나 그들의 움직이는 生態로 보아서 그들의 過去 經驗한 바를 回顧 反省하는 일이 없고, 따라서 그

를 世界에게는 創造와 進歩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우리 人生生活에 있어서 元來 過誤와 缺點은 많았었지만 그 잘못된 것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애쓰며 또한 보다 나은 데로 向上시키려고 努力하는 것이 오직 人間으로서 今日的 進歩 發展이 있게 한 根本이며, 이터 함으로써 우리의 文化가 創造되고 發達하게 된 것이다。그러므로 이 自然界의 歷史는 그 누구에게든지 다 있지 마는 그것을 살리어 토대 삼아, 지나간 일을 거울 삼아서 自己를 보다 더 나은 데로 發展시키며 不完全에서 完全한 것으로 이룩하려는 이 聰明스러운 努力이야말로 오직 우

리人間에게만 許諾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世界의 平和와 人類의 幸福을 爲한 『國際聯合』의 聖스러운 主張과 그 目的達成을 爲하여 그 會員國이 되건 아니되건 間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繁榮과 發展을 爲하여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第一次 世界大戰이 끝나자 美國의 「윌슨」 大統領은 그 當時의 經驗에 依하여 이 世界에 다시는 戰爭이라는 禍가 없게 할뿐만 아니라 人類 社會의 共存共榮을 爲하여서는 오직 強力한者가 弱한者를 征服하는 것보다 强者가 弱者를 도와 주며 또한 勢力있는 사람이 勢力없는 사람을 짓밟을 것이 아니라 이를 同情하며,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이를 補助해주는 것이 고만하고 冷情하게 서로 다루는 것보다 確實의 平和와 幸福을 가져올 것임을 깨닫고, 全世界 모든 나라에 呼訴하여 서로 서로 權利를 尊重하고 義務를 다하며 法的 秩序를 지키는 것이 우리 人類로 하여금 繁榮과 發展으로 이끌 것이며 저마다 幸福스러운 生을 누릴 수 있다 하여 마침내 『國際聯盟』을 빚어 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佛蘭西나 英國等等 나라의 指導者들이 싸움에 이겼다는 自負心과 惡感情에 사로잡혀 一九一九年과 리에서 열린 所謂 平和會議라는 것이 平和會議가 아니라 敗戰國인 獨逸로 하여금 不幸에 빠진 그들에게 너무나

나 苛酷한 條約을 強制함으로써 그 나라로 하여금 強力한 복수심을 품게 하였고, 그들 戰勝國의 無慈悲한 處事는 벌써 그때부터 第二次 世界大戰의 씨를 뿌렸다 할 것이나。 第二次 世界大戰이 생겨난 것을 歷史上으로 고찰할 때 이와 같이 獨逸國民의 복수심에서 系統있게 빚어내려 왔다는 確實한 證據를 볼 수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第二次大戰이 끝나고 『國際聯合』을 다시 빚어낼 때에 지나간 『國際聯盟』에서 體驗한 不足한 點을 修正 補強해서 第三次大戰을 없이 하기 爲하여 全力을 다한 것이 바로 日本과 같이 많은 過誤를 犯한 敗戰國에 對하여 歷史上 처음으로 自由와 平等과 모든 問題를 便利보다 주면서 講和條約을 맺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多幸히도 이 世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眞理로서 人類의 참다운 平和와 幸福을 爲하여 똑같이 살아가려고 努力하는 自由主義陣營에 美國을 비롯하여 크리스트 敎의 精神이 그 生活面에와 憲法 機構와 또는 政治線으로 아름답게 나타나 있으며, 共產主義 惡徒들의 악착스러운 宣傳 組織 冷戰 熱戰을 물리치면서 今日에 第三段階에 이르기까지 오직 善으로써 主義를 삼으며 眞理로서 二十五億의 人類를 自由와 平和속에서 다 같이 잘 살자는 큰 使命을 達成하려고 努力하는 美國을 비롯하여 八十餘個國의 UN 會員國들은 各各 自己의 利益만 主張

一 하지 아니하고 國際社會 共同生活를 爲해서 끊임 없이 努力하는 것만은 事實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共產勢力은 「스탈린」이 暗殺을 當하고 그들안에 많은 政治的變動이 생기며 一億六千萬에 가까운 人口中 겨우 五百萬 共產黨員의 우서운 組織體와 工場, 農場 또는 鑛山等에 보내어 노예와 같이 使役시키며 말할수 없는 不自然하고 不安全한 狀態에서 그들은 오직 힘으로써 衛星國家를 獨裁해 가면서 國民을 속이고 마음껏 착취하기 爲하여 그 우서운 철의 장막을 느티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歷史上 일찌기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矛盾性과 強壓政策은 이 以上더 支撐할 길이 없어 이미 卍聯 自體와 그 衛星國家인 여러 나라에서 파짐없이 暴動이 일어났고 特히 『폴란드』와 또한 『헝가리』 등의 義學를 철의 장막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주저 앉히려 했으나 너무도 힘차게 터져나오는 이 事態는 마침내 막을 길이 없었으니 이것이야말로 共產惡黨에 第二期가 지나 三期가 到達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實證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共產政治가 『순진한 거짓』으로 國民을 속이고 한黨과 몇 사람을 爲하여 全國民을 奴隸化하고 너무나 過度한 착취를 恣行한 結果가 그 自體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번 『헝가리』의 義學問題가 英國·佛蘭西로 하여금, 이 스탈린과 같이 애급을 强打케 하였지 마는 卍聯의 中

東亞細亞 침투 計劃과 그 戰法은 美國의 아이젠하워 大統領의 對 中東經濟援助와 軍事的으로 가장 強力한 政策을 取함으로써 擊退하였으며 中東에 있어서의 自由主義陣營의 基盤을 다시금 確固한 자리에 서게 한 것이다.

이것은 美國이 六·二五戰亂을 契期로 韓國에서 겪은 혼란한 經驗과 中華民國 臺灣에서와 또는 佛蘭西로 하여금 越南에서 體験한 結果로서 取하여진 適切한 施策인 동시에 온 世界로 하여금 三次大戰의 무참한 희생을 防備하고 全人類의 幸福을 爲하여 그 尊貴한 生命과 재물이며 헛된 수고를 避하는 한편 惡毒한 共產主義가 그 自體의 罪惡과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머지게 하는 政策 즉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는 戰法으로 代置하는 것이니 이 戰法이야말로 앞으로 가장 興味있는 國際的인 政治動向의 한 초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찌기 이 스탈린 經驗을 맛보았으며 또한 이 世界를 움직이는 政治人들이 指向하는 바 그 政策·政略 또는 方法·理想·目標가 大韓民國으로부터 그 초점을 받고 있으며 또한 完全하게 이 問題를 解決하게 되는 것이 國際聯合 그 自體에 있으면서 오히려 促進적 運營線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週日 美國 아이젠하워 大統領이 發表한 中東 政策이나, 또는 펠레스 美國務長官이 美國 國會에서 答辯한 그 內容이야말로 確實히 卍聯으로 하여금 가슴이 새늘게 하였을 것이요 또한 크레프린 指導者의 무리를

에게 警鐘이 되었으리라 믿는 바이다. 그들이 萬一 잘못
을 저킨다면 이 地球上 그 어느 便에서든지 美國의 完全
히 準備된 原子彈 세테나 또는 水素彈의 總攻擊을 免치
못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또한 美國이 아라스카를
起點으로 하여 二萬哩 以上되는 公聯國境線을 完全히 포
위하고 嚴重한 監視狀態에 있을뿐 아니라 現在 美國은
原子彈이나 水素彈을 싣고 이 地球를 一週할 수 있는 것
트 機關 가졌으며 또한 가장 完備한 海軍과 人的資源에
있어서도 第二次大戰에 完全對抗할 수 있는 狀態에 있는
것을 公聯으로서 잘 認識하게 되었을 것이다. 印度의 備
두는 스스로 中間的 處地를 取하면서 自己나라 안에서
共産黨을 원수 같이 對하며 方便으로 中共과 公聯을
通하여 中共과 公聯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였지마는 그
가 直接 美國을 訪問함으로써 完全히 自己의 망녕된 생
각과 그 政策이 失敗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지금 美國이 三次大戰을 對備한다는 것은 순전히 共産
主義國家를 對抗하는 것이요 共産主義國家를 對抗한다
는 것은 크메르인의 몇사람을 相對로 하는 것이다. 그런
에 이것은 이미 크메르인안에 三派의 對立이 생겼고,
人間性으로서 더 참고 더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도달한 證據로서는 후부시초푸로 하여금 유고스타비아에
 리트를 찾아 가게한 것이며 또한 리트를 黑海沿岸으로
 送請하였고, 다시금 中共의 周恩來를 急히 모스크로 불

려서 폴덴드를 訪問시킨 것이 그들의 政治的 움직인
바 그 裏面을 속일래야 속일수 없는 表現인 것이다.

지금 우리 大韓民國은 自由主義陣營의 第一線에서 重
大한 責任을 지고 있으니 첫째 우리의 目的을 達成하
며 全世界의 繁榮·發展·幸福의 使命을 이기기 爲하
여 大義上 勇을 들고 치우나 더우나 피로우나 즐거우
나 黙黙히 嚴然한 態勢를 取하고 前進命令을 기다리는
이나라의 中堅이요 千城인 百萬의 靑壯年이야 말로 二
十五億 人類의 生存權을 擁護하는 聖스러운 存在로서,
一毫의 私心이 없이 오직 公明正大하신 하나님 善을
찾으며 眞理로써 싸우려는 우리 참된 人類에게 사랑의
裁判을 내리실 것을 믿고 또 求하고 있는 것이다.

마야호르고요한등하나 미묘히 움직이는 國際情勢가
가장 우리에게 福되고 有利하게 비추어 오는 이때에 우
리는 먼저 原理原則에 있어서 變할수 없는 第一 첫째 條
件인 그 나라의 國內態勢를 整備·強化·擴充하여 將次
의 大發展의 土臺를 確立할 것이며 또 우리는 이 重大
한 때와 곳에 있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단정
히하여 眞理를 宣布하는 使徒의 心境으로 정과 사를 區
別하고 오직 公平을 불으심으로써 天時 地利 人和를
完成시킬 때에 大韓民國은 스스로 만세반석 위에 설 것
이요 三千萬 우리 겨레는 하늘이 주시는 그 永遠한 福
樂을 이루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筆者 民議員)



國際政治와 軍事力

李 相 助

一、緒 說

一般으로 國際政治라 하며는 그것은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政治現象을 指稱하는 것이나 今日的 國際政治는 「 힘의 政治」即 權力政治(power politics)로 되어 있는 까닭에 國家間에 있어서의 權力政治를 中心으로 하는 一切의 國際關係를 包括的으로 稱하게 되었다. 勿論 國際關係는 반드시 國家間的 政治關係만에 限하지는 않는다. 國家에

屬하는 個人間的 問題도 國際關係로 되는 境遇도 있고 또 國家內的 어느 社會集團이 國際關係에 連結되어 對象이 되는 境遇도 있다. 그것은 國際結婚이라든지 國際企業聯合같은 私法的인것 經濟的인 關係等이 包含된다. 그러나 國際關係中에 가장 重要한 것은 國家間的 政治關係로서 그것은 「 힘과 힘의 關係」에 있어서 끊임없는 鬭爭으로 展開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際政治는 國家間에 있어서의 勢力鬭爭을 中心으로 하는 國際關係를 包括的으로 指稱하는 것이 되

있다. 그러나 國家間에는 戰爭만으로 始終할 수는 없는 것이니. 비록 戰爭의 可能性을 背後에 豫想하여 끊임없는 軍備擴張과 國際競爭을 展開하면서도 直接 戰爭에 까지는 이르지 않고 어느 程度것은 그것을 回避하려고 摸索하며, 또 國際間에 어떠한 秩序를 形成하려는 行動이 出現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國際關係는 勢力鬭爭만이 아니라 勢力均衡에 依한 武裝平和도 있게 되고, 或은 國際協力乃至 連帶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今日的 國際關係는 戰爭이라는 極端的인 武力的 對立鬭爭에서 부터 平和의인 共存協力이라는 秩序形成의 過程에 이르기까지 不安定한 關係가 示顯되는 것이다.

如斯한 國家間의 政治的 關係를 이른바 國際政治關係라고 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際政治를 診斷하는데 있어서 根本的으로 對立되는 二見解가 있다. 卽 國際政治를 「權力的」으로 解釋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理念的」으로 解釋할 것이냐? 하는 對立된 見解이다. 前者는 國際政治의 基調를 「權力的 優越에의 鬭爭」이라고 解釋하는 것이고 後者는 「國際的 新秩序의 探求」하는 것이라고 解釋하는 것이다.

事實 現代의 國際政治關係는 強大한 二大國家 또는 그 大國을 中心으로 하는 國家群間의 世界的 優越을 追求하는 鬭爭으로도 解釋할 수 있는가 하면 或은 民主主義와

共產主義(또는 全體主義)와의 對立이라는 이데오로기(Ideology)의 面에서도 解釋할 수 있다. 「이데오로기」에 依한 解釋은 理想主義的인 平和的 解釋도 있고 또는 戰鬭的인 狂信的 解釋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모두 人間과 集團과 勢力이라는 것을 理念에 奉仕하는 道具로 看做하는 것이니 「이데오로기」에 對한 所信을 確保하기 위하여 取하는 手段 例가 「나치스」에 依한 征服은 劣等種族에 對한 優等種族이라고 自負하는 「켈만」種族의 優越을 確保하기 위한 手段이라는 것이며 西方民主主義諸國에 對한 蘇聯「롤러」의 鬭爭은 階級없는 社會建設을 위한 鬭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데오로기」라 하여도 假想的으로 別天地의 雲上에서 相互鬭爭하는 것이 아니고 組織된 集團을 通하여 鬭爭하는 것인즉 어느 集團에 依한 他集團의 支配를 意味하는 것이다. 「스타—린」은 그 自身과 政治局의 小數者에 依한 絕對的 統治가 없이는 世界社會主義의 達成은 不可能하다고 確信하였던 것이며 美國의 將星과 產業界의 巨頭들은 軍備와 原爆使用에 對한 自己들의 斷乎한 發言力이 없이는 侵略的 共產主義에 依한 民主主義의 破滅을 阻止할 수 없다고 思惟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際政治는 權力的인 側面과 現念의인 側面 그리고 그것의 相互反應關係에 있어서 理解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그것은 또한 權力政治로서 「軍事力」과는 分

離하여 考察할 수 없다는關係에 있는 것이다.

權力政治란, 勢力的 獲得, 維持 및 擴張을 指向하는 政策과 그 政治의 本質이 權力的 契機에 있어서 露骨의 으로 示現되는 것을 말한다. 卽 今日의 多數의 主權國家가 國際正義나 倫理的 契機에서 存立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自身の 實力(權力)에 依해서만 存立을 保持할 수 있는 그러한 國家間의 政治關係 따라서 끊임없는 勢力鬭爭으로 特質을 이루는 政治現象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國際政治를 如斯한 權力政治로서 理解할 때 그것과 軍事力과의 關係를 考察한다는 것은 絶對의 으로 緊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國際政治를 더욱 正確히 또 本質的으로 把握하는데 捷徑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國際政治를 規定하는 根本法則부터 究明하기로 한다.

二、國際政治를 規定하는 法則

1. 生存競爭의 法則(Principle of struggle for existence) 國際政治의 理念은 國際平和主義 國際協力主義 國際民主主義 等으로 表現되는 共存의 理想에 結付되지는 않는 現實의 國際政治는 生物社會를 支配하는 根本法則 卽「生存競爭의 法則」에 依하여 規定된다.

이 法則은 鬭爭主義의 原理로 되어 여러 가지 形態로 國

際政治에 發現되는 것이니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勢力鬭爭은 아 法則에 基因하는 것이다. 個人에게도 不斷히 發展하고 勝者가 되려는 自由競爭의 自然的 傾向이 있거나 는 國家 또는 民族間에는 더한층 露骨의 으로 끊임없는 生存競爭이 展開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根源은 무엇인가? 그것은 生物界에는 「好鬭의 本能」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好鬭의 本能(The Instinct of pugnacity)의 慾望의 起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食慾根源說과 性慾根源說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 食慾과 性慾은 人間の 慾望中 가장 根本的인 것으로서 排他性이 多分히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食慾根源說에 있어서는 同種類의 다른 食物을 代替할 수도 있어서 그것으로 要求者의 慾望을 滿足할 수도 있으나 이에 反하여 異性에 對한 慾望은 本來 어느 特定の 異性에 偏傾하는 傾向이 있어서 容易하게 代換할 수 없다는 것이 特質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存競爭에 있어서 露現되는 樣相은 同種族間에 있어서는 異性에 對한 競爭이 더한층 顯著하고 異種族間에 있어서는 食慾에 對한 鬭爭이 強烈하다는 것이다. 人間에게 이러한 生存競爭의 法則이 露現되는 理由는 自己의 生存을 維持하여 子孫을 蕃殖하는데 그 本能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人口가 增加함에 따라 食物의 缺

은 漸次 深刻化하며 同時에 그들의 生存하는 場所가 狹少해짐에 따라 場所에 對한 慾求도 強烈해 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異性에 對한 獨占競爭은 同族間에 있어 서만 多少 變할 수 있고 異種族間에는 그다지 顯著하지 않으나 反對로 民族間 또는 國家間에 있어서는 鬪爭의 本能이 食欲과 場所의 兩面에서 激化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發達된 言辭로 表現하면 食欲은 經濟的 利權의 鬪爭으로 展開되고 場所는 領土的 野望으로 表現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國家間 또는 民族間의 鬪爭은 經濟的 利權에 對한 鬪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領土에 對한 鬪爭으로 되어 있고 或은 經濟的 利權과 領土的 野望이 同時에 鬪爭의 對象이 되며 이 兩者를 떠난 純粹한 理念上의 鬪爭은 事實上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考察할 때 國際政治는 結局 勢力鬪爭에 對한 辯明 乃至 口實에 不 過한 것이고 究極적으로는 自國의 生存維持와 더불어 經濟的 利權과 領土的 野心을 追求하는 것이라고 理解할 수 있다. 그러므로 國際關係에 있어서 어떤 國家間의 紛糾를 診斷할 때는 먼저 그것이 「經濟的 利權」을 對象으로 하느냐 「領土上의 權利」를 對象으로 하느냐 하는 判斷을 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 紛爭이 「法律的 紛爭」으로主張되느냐 「政治的 紛爭」으로主張되느냐 하는 點을考

察해야 되는 것이니 同一한 領土歸屬問題에 關한 紛爭도 一方의 當事國은 法律的 問題로서主張하는가 하면 他方의 當事國은 政治的 問題로서主張하는 境遇가 例事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國際裁判의 義務와 關聯하여 當事國이 法律的 拘束力 있는 國際裁判의 司法的 解決을 願치 않을 境遇에 政治的 問題로서主張하며 그 背景에 는 實力的 自救手段을 豫見하는 意味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如何間에 國家間의 政治的 關係는 表面上으로는 國際平和니 協力이니 하며 政治外交家들의 허울 좋은 理想論을 내세워 論爭하고 「共同的 利益」과 「經濟的·文化的 發達」과 「共存共榮」의 具現을 促進하느니 云云 하지만 그 內實은 自國의 利益과 必要에 限해서만 主張하는 것이고 自國本位로 行動하는 것이며, 自國의 目的達成이라는 見地에서만 他國의 立場도 어느 程度 考慮하는데 끝 이는 것이다. 그것은 他國과의 關聯이 自國의 生存과 發展에 必要하고 有用할 境遇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取하는 態度이고 他國을 爲하여서가 아니다. 이러한 國家主義는 國際政治의 理念과는 相反되는 것이지만 現實로 모든 國家는 國家主義를 버리지 않는 까닭에 이른바 權力政治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國家는 原則적으로 帝國主義的 膨脹을 政治의 基本理念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自國의 利益만을專

念하며 他國 또는 그것과의 共同生活를 爲한 價値는 考慮하지 않는 것이 常道로 되고 있다. 萬若에 自國의 利益이 되는 일이라면, 相對方 他國을 犧牲하는 것도 躊躇하지 않는다. 그 위에 他國의 領土를 侵害하며 그 獨立까지도 剝奪하는 것도 辭讓치 않는다. 다만 現實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國際道義나 正義를 遵守하겠다는 立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自國의 實力이 아주 그토록 優勢하지 못하다는 데 끌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自國의 實力이 如何한 抗拒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侵略하려고 서둘러 그것을 不正이나 不當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現實의 國際關係인 것이다. 따라서 國際政治를 規定하는 根本法則은 生存競爭의 法則이며 「힘과 힘의 關係」에 있어서 勢力鬭爭으로 表現되는 것이다.

2. 連帶의 法則(Principle of Solidarity) 生物社會를 支配하는 또 하나의 基本法則은 「連帶의 法則」인바 이 法則은 亦是 國際政治를 規定하는 根本法則의 하나로 되고 있다. 여기에서 國際協力主義의 理論도 나오고 있는 것이니 國家間에는 끊임없는 勢力鬭爭의 一面이 있는 反面에 相互依存 或은 相互聯關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個人에게도 一面에는 排他的 獨自性에서 自由競爭을 하면서도 다른 一面에는 相互依存關係를 가지고 社會生活를 하는 社會性을 가진 것과 다를바가 없다.

는 것이다. 國家間에도 對立과 鬭爭을 하면서도 一方에서는 萬國赤十字社나 萬國郵便機關이니 萬國無線通信聯盟이니 하는 機關을 通하여 相互의 利益과 調和의 發達을 圖謀하며 現代에 와서는 國際聯盟이니 國際聯合이니 하는 國際平和機構를 通하여 더한층 多角의 으로 連帶 또는 協調를 圖謀하려는 自然的 傾向이 있다.

이것은 國際政治가 「힘의 鬭爭」만이 아니고 共同的 利益과 發展을 爲하여 共同努力한다는 一面을 示顯하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의 國際關係는 連帶의 法則보다 生存競爭의 法則이 一層 優位를 占하고 顯著하므로 國際政治는 結局 「强者 對 强者의 關係」를 露現하는 것이라는 見地에서 理解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3. 勢力均衡의 原理(Principle the Balance of Power) 勢力均衡이란 政治的 勢力이 平均하여 優劣輕重의 差가 없는 狀態를 意味하는 것이니 本來 政治社會는 諸社會集團의 「勢力의 動的인 對立과 均衡」과의 過程으로 成立하는 것이며, 따라서 勢力均衡은 國內政治나 國際政治나를 莫論하고 遍在하는 現象이다. 그러나 國內政治는 「支配와 服從」의 關係에 「牽制와 均衡」이라는 格率로 示現되는 것임에 對하여 國際政治의 境遇에는 權力手段의 多元性에 依하여 「支配」라는 것을 缺如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事實에 對應하여 國際政治를 權力政治로

解釋하며 原理的으로 支配를 否定하려는 政策으로서의 勢力均衡이 生하여 唯一한 「武裝平和의 維持原理」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簡單한 形式으로서는 어느 一國 (또는 國家群)이 勢力을 膨脹하고 強大해짐에 따라 다른 어느 國家(또는 國家群)가 그 侵略의 威脅을 느끼며 餘 他的 國家와 同盟提携하여 勢力을 糾合하므로써 雙方の 勢力이 對等하게 平均狀態를 이룰 境遇이다.

換言하면 一方에 強者が 擡頭하여 優越한 勢力을 保有하게 되는 境遇에는 반드시 弱者를 侵略하게 되므로 그러한 侵略의 威脅을 느끼는 弱者들은 相互提携하여 同盟을 締結하고 侵略에 對抗하려고 勢力을 糾合하게 된다. 이러한 境遇에 兩者의 勢力은 優劣의 差가 없는 狀態로 된다. 여기에 勝算이 없음을 認識하게 되면 어느 쪽도 攻擊을 敢行하지 못하므로 戰爭은 勃發하지 않고 自然히 武裝平和가 維持된다.

이것은 近代國家의 外交原理로서 特히 英國이 外交原理로서 오랫동안 堅持해 왔는 것이다. 그 顯著한 例로서는 第一次 大戰前에는 獨逸 奧洪帝國 및 伊太利가 「三國同盟」을 締結하게 되자 이에 威脅을 느끼는 老大帝國 即 英·佛·露는 「三國協商」으로 對峙하였는 것이며 第二次 大戰前에는 日本·獨逸·伊太利가 三國樞軸同盟을 締結하자 이에 對抗하기 爲하여 英·佛·美·中國 및 和蘭이

五國同盟을 締結하였는 것이다. 여기에 蘇聯이 聯合國側에 加擔하므로써 樞軸同盟은 勢力均衡을 維持하지 못하고 結局 敗戰으로 된 것이다.

또 第二次 大戰後에는 蘇聯이 東歐로부터 極東에 이르러 까지 巨大한 衛星國을 建設하여 勢力圈을 擴大하므로써 共產侵略의 威脅을 느끼는 自由國家群은 美國을 先頭로 하여 民主陣營의 結束으로 反共態勢를 가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共產陣營 對 民主陣營의 對立은 勢力均衡原理에 立脚한 二個의 世界라 하겠다.

以上에서 考察한 건대 國際政治를 規定하는 根本法則은 生存競爭의 法則이요 連帶의 法則이요 勢力均衡의 原理에 依하여 規律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現實의 國際政治는 權力政治로서 그 內實은 a、勢力鬭爭의 過程과 b、國際協力 또는 連帶의 行動과 c、勢力均衡의 不安定한 關係等으로 錯綜狀態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三、國際政治와 軍事力

이 미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今日的 國際政治는 勢力鬭爭과 勢力均衡이 主內容으로 되고 있으므로 비록 國際平和和 機構로서 「國際聯合」이 樹立되고 있다 할지라도 根本的으로 對立鬭爭이 終熄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近代國家가 「나쇼나리즘」(民族主義 또는 國民國家主義)과 「인더스트리아리즘」(產業主義)과 「메모크라시」(民主主義)로 發展해 왔고, 그것을 近代國家의 形成 諸力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아무리 表面上으로는 國際平和主義나 國際協力主義나 國際民主主義나 하여도 根本的으로 自國의 優越的 霸權獲得의 意慾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끊임없는 勢力鬭爭을 終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戰爭은 回避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今日的 戰爭은 彼我間에 莫大한 犧牲과 損失을 齎來할 뿐 아니라 原爆 水爆等의 熱量子武器는 萬若 大戰으로 發端되면 人類의 破滅 或은 地球의 終焉을 豫想케 하므로 雙方은 모다 慎重을 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共產陣營이나 民主陣營은 相互 相對方의 軍事力과 新武器의 保有量 및 生産力을 探索하기에 奔忙하며 相對方에 優越한 軍事力을 確保하려고 血眼이 되고 있다. (萬若에 어는 쪽이나 相對方이 弱하다고 看取되어 自己側에 勝算의 確信만 갖게 되면 直時로 攻擊을 敢行하게 될 것은 明觀火한 일이다. 그러므로 國際關係는 元來 勢力均衡을 基調로 하는 것이며 어는 쪽이나 弱하게만 보이면 攻擊이 敢行되는 것이므로 軍事力을 背景으로 多樣한 關係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今일에 있어서는 어느 國家나 單獨으로 孤立할 수는 없는 것이니 對立된 두 個의 世界에서 自國의 處할바를 擇하지 않고는 그 存立을 保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所謂 中立國家群은 不偏不黨式的 中間路綫을 堅持하려 하지 않는 그것도 十三個國이라는 巨大한 數字와 勢力圈을 이루고 있으므로서 可能한 것이고 決코 個個國家가 孤立하여 中立主義를 堅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中立國家群이 어는 쪽으로 牽引되는나 하는 것은 確實히 重大한 影響力이 미칠 것은 疑心할바 없다. 그러므로 中立國家群을 自己陣營으로 牽引하기 爲하여 西方側과 共產側間에 冷戰의 對象이 되고 있다. 勿論 中立國家群의 軍事力은 現在로서는 大端치는 않치만은 政治的 經濟的 戰略的인 面에서는 重視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雙方은 앞으로도 더욱 熾烈한 冷戰을 展開하게 될 것이며 또한 中立國家群은 兩陣營의 對立을 利用하여 自身들의 國際的位置을 높히는 同時에 早晚間 반드시 避치 못하리라고 豫想되는 第三次大戰에 있어서 戰爭에 휩쓸려 들어가는 危險을 冒免해 보겠다는 心算도 있음이 明白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國際政治關係를 말해주는 現象이라 할 것이니 卽 中立主義는 戰爭에 際하여 中立을 標榜하므로서 雙方에 商品未來를 할 수 있다는 經濟的 追利條件과 強大國間의 戰爭에 휩쓸리지 않을 傍觀的 態度를 取하므로서 危險을 免할 수 있다는 것과 또 雙方間에 氣盡脈盡하였을 境遇에 第三國의 居中 調停者로 介入하여 「漁夫之利」를 求得한다는 打算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勢力鬭爭에 依한 勢力擴大의 可能性이 稀薄한 國家들이나 或은 前記한 「漁夫之利」를 求하는 國家들이 直接的인 權

性을回避하면서對立된兩陣營의鬭爭에便乘하여國家的利益을圖謀하려는하나의手段인것이다。그러나 이것은앞으로第三次大戰이勃發하게될境遇에는中立路線을堅持하기는極難할것이다。

如何間國家間の政治關係는國內政治와같이支配와服從의關係라는것은없으므로오직實力만이最後의解決을가져오게되어있다。따라서現實로서는軍事力의壓倒的인優越이背景으로되어있지않고는國家의目的은達成할수없게되어있다。비록「이베오르기」에있어서아무리卓越한理論을가지고있다 할지라도國家間の關係는力學的인物理力即軍事力이相對方을壓倒할수있어야만發言權이重視되며,따라서軍事力을前提로하는國력이弱해가지고는決코어디서도通하지않는것이다。國力の基準에對하여「모르게소」(Dahlgren)는軍事力以外에도그國家의天然的資源地理的條件人口産業生産力經濟金融力國民的團結力文化的生活水準政治的力量外交의力量等을列舉하여綜合的인國家總力을測定해야만된다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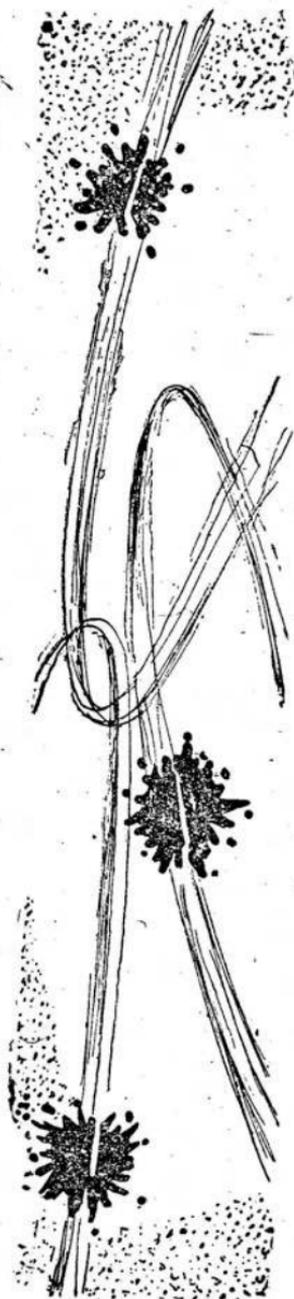
確實히今日의外交는「全體外交」라稱하여國力을總體的으로傾注하고있는것이지만은國際政治에있어서國家總力의發現特히軍事力의優越은우엇보다도重要한것이다。여기에今日의國際政治가權力政治라는特質을如實히雄辯해주고있다。現在蘇聯의軍事力은百七十五個의戰鬭師團과四萬臺의戰車二萬臺의航空

機그리고近代式潛水艦隊의強大한保有整備가그들의背景으로되어있다。이밖에東歐의衛星國軍隊가約六十個師團으로서蘇聯製武器로裝備되고蘇聯將校로부더訓練을받고있다。

또中共의軍事力은正確히測定할수는없으나大略地上部隊로서五百萬의所謂人民解放軍과一千三百萬의民兵그리고公安部隊로서二百萬義勇軍으로서約二百萬이推算되며空軍力은約二千臺의飛行機와二萬五千名의空軍兵이있으며海軍은各種의艦艇三百四十隻이있으며若干의潛水艦을保有하고있다는것이다。人口는蘇聯이二億七百萬中共이四億四千五百萬이라고하므로相當한人的資源의豊富함을誇示하고있다。自由陣營이共產陣營을壓倒하기爲하여는軍事力에있어서이것을壓倒할수있는優勢를가추어야할것은勿論이요또한強力한結束으로集團的安全保障制를確立하여야할것이다。

西方側의弱點은佛蘭西가또다시本土의戰爭場化한것을두려워하여直接蘇聯과對峙할것을回避하는것이요또英國이蘇聯空軍의爆擊을두려워하여慎重을期하여야한다고表面으로도내세우는點에強力한結束團結이如意치못한것이다。이點에留意하여考察할必要가있다。

(筆者 法大教授)



三次大戰과 空軍力

崔 毅 英

一、未來戰의 形態

國際聯合調查統計委員會의 發表에 依하면 世界의 人口는 每年 約 千萬名 以上이 늘어가는 反面에 地球의 面積은 사람이 起居動作할 수 있는 部分이 九百에카 程度로 縮少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故로 해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덩어리의 人口密度는 上昇하여가고 있기 때문에 生存競爭의 度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生存競爭이 甚하다는 것은 곧 人類의 戰爭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歷史가 되풀이 하는 가운데서 數 많은 鬪爭의 經歷을 體驗하여 왔지만 앞으로 如斯한 戰爭型은 誘發과 리라는 必發的인 運命에 놓여있는 것이다. 第二次大戰을 經驗한 우리들은 그 戰爭에서 第一次大戰當時보다 空軍力의 作用하는 힘이 絶對的으로 컸었다는 事實을 記憶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戰爭을豫想한다면 반드시 空軍力의 作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果然 三次大戰이 勃發하였다고 假定할 때 陸軍 海軍 空軍中에 어느 部分이 戰爭의 核心을 掌握하는가?

가問題이다。軍事專門家들의 共通된 見解는 앞으로의 戰爭은 반드시 空軍이 戰勝의 霸權을 左右할 것으로 보
고 있다。軍事專門家들의 見解가 空軍이 戰勝의 霸權을
잡으리라는 共通된 理論은 다음과 같은데 基因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앞으로의 戰爭은 少規模의 陸軍部戰이 아니라
戰場의 規模가 尙大하기 때문에 步兵部隊의 徒步作戰으
로서는 勝敗의 決戰을 解決할 수 없으며 長距離作戰에는
速度가 빠른 空軍部隊가 必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近代戰爭의 小銃이나 砲彈 또는 人海戰術로서
는 勝敗를 겨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原子彈이나 水素
彈이 어느 나라의 獨占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戰
爭은 熱核武器 以上の 것이 아니면 敵의 모든 戰力이 될
수 있는 核心을 破壞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熱核
武器를 地上軍이 乘用車로 運搬한다던가 또는 艦艇을 가
지고 長距離 長時間 동안 輸送할 수는 없으며 萬若 이런
計劃을 세웠다가는 敵에 巧妙한 探索戰에 依하여 모든
計劃은 挫折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近代戰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
보다도 物과 物의 競爭이기 때문에 物量戰에는 大規模의
인 破壞能力이 없이는 敵의 物量攻勢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卽이 이러한 破壞能力을 가지고 있는 것은 戰略爆

擊機群의 後方 攪亂作戰에 絕對的인 成功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넷째로 現代戰은 民族과 民族 또는 國家와 國家의 相
互鬭爭은 아니다。 思想과 思想의 對峙戰이다。 故로 敵의
思想의 解弛를 釀成하기 爲하여는 心理作戰의 奏効을 견
우워야겠다는 것이다。 이렇기 爲해서는 強力한 空中攻擊
能力을 가지고 敵地의 住民生活을 破壞시키는 方法으로
交通網을 破壞하고 生産機能을 癱瘓시키며, 住宅을 破壞
시킬 수 있는 戰略空軍의 活動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近代戰에서의 勝敗는 規模가 큰 空軍力이 核心을 堅持
하리라는 것과 또한 熱核武器의 競爭에 달려있다는 것,
卽 現代戰은 物資戰이며 思想戰이라는 基礎아래 絕對的
으로 空軍力이 優越한 地位를 占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可恐할 三次大戰에서 空軍이 熱核武器를 裝
備하고 戰鬪에 臨하리라는 必然的 事實이 未來戰의 形態
라고 할 것이다。 未來戰의 樣相 가운데서도 空軍이 活動
할 수 있는 모든 規範이 爆擊機나 戰鬪機의 對戰에 앞서
서 地上軍이나 海軍도 原子裝備로 再改編되어 教育 訓練
等 各方面으로 戰爭形態를 再調整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國際的으로 軍縮問題가 重要할 課題로 登場하
게 된 理由도 熱核武器가 나뉘을 뿐이지 이를 防備할 만
한 無防備戰爭은 오히려 人類의 모든 文化財를 破壞하고

人類의 生命을 滅殺하리라는 더 무니 없는 無計劃 戰爭은 避하는게 좋다는데서 推進과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熱核武器와 空軍이나 地上軍 海軍의 發展的 傾向을 形成하기爲하여는 一定한 時日도 必要하겠지만 거기에는 莫大한 經濟力이 持續되지 않는 限不可한 것이다. 三次大戰의 形態는 어느냐라 또는 어느 物量을 가지고 洗練된 技術을 發揮하여 優秀한 飛行機와 熟練된 操縱士를 많이 排出하느냐? 에 모든 勝負는 決定될 것이다.

二、現有 空軍力

第二次大戰後 美國은 每年 支出되는 國防豫算을 減少하고 國家 產業動員能力이 軍隊라는 消費體에 凍結시키느니 보다는 凍結된 勞力資源을 戰後 產業經濟部門에 轉用할 目的으로 豫備役에 編入한 數가 數百萬名에 達한다. 그러나 의 數字는 主로 陸軍部隊에서 轉用되었지 空軍이나 海軍은 極히 적은 數字에 지나지 않는다. 海軍보다도 空軍은 또 적은 便이다. 그러나 蘇聯은 繼續하여 地上軍의 兵力도 大量 確保하고 世界赤化政策을 持續시켜 왔었다. 그러기 때문에 一九五〇年 韓國戰爭이 共產主義者들에 依하여 誘發되었을 때는 美中間의 兵力이 大端한 差異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에 唐慌한 美國을爲

始로 自由陣營은 急速히 豫備軍을 召集하기 始作하여 國防豫算은 늘라운 上昇指數를 表示하게 되었었다. 故로 自由陣營과 共產陣營間의 兵力을 基礎로한 軍事力對比는 共產陣營이 훨씬 優勢한 때가 있었다. 이것을 背景으로 共產北韓傀儡는 安心하고 南侵하여 韓國 全域을 赤化할라는 野慾을 煽發시키게 되었었던 것이다.

現在 世界各國의 空軍力을 自由陣營과 共產陣營別로 對比한다면 自由陣營이 優勢하다. 航空機의 數字도 그러 하지만 技術의 인面에서도 共產陣營은 自由陣營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共產陣營이 自由陣營에 比하여 空軍力이 劣等하다는 것은 航空機나 兵力이 적기 때문에 劣等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諸條件이 介在하고 있기 때문에 劣等하다는 結論을 내릴 수 있다.

첫째로 自由陣營의 空軍은 實際 戰術面에서 第二次大戰後 戰鬪에 參加하였던 經驗있는 操縱士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共產陣營은 空軍이 近代化되기는 하였으나 出擊經驗이 적기 때문에 訓練만 가지고는 萬若 全面戰爭이 일어났다고 假定할때 戰術面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둘째로는 自由陣營은 集團的 軍事團體 卽 北大西洋同盟 또는 東南亞防衛條約機構 『마그나트』條約機構 남간同盟 其他 個別的 軍事同盟에 依하여 廣範한 出擊基地를

가지고 있으며, 共產陣營을 完全히 包圍狀態에 있는 戰路基地가 있다. 卽 戰略基地가 共聯國의 周邊에 群在하고 있다는 것은 萬若 全面戰爭이 일어났을적에 出擊하는 航空機들이 敵의 心臟部를 攻擊하고 돌아오는 時間이 縮少되며 攻擊目標을 破壞하고 出擊基地에 돌아올수 있는 好條件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는 近代空軍이 熱核武器로 再改編되고 訓練의 確度を 提高시킬라면 尨대한 國防豫算이 所要되리라 고 믿어진다. 이렇기 爲하여는 財政的 保障이 必要하게 되는데 自由陣營의 各國은 大體의 所以 共產陣營에 比하여 國民所得이 많을 뿐더러 産業生産量과 技術革新方面에 優勢하다.

넷째로는 共產陣營에 對한 出擊地域이 自由陣營으로서 는 狹少하기 때문에 容易하지만 共產陣營으로부터 自由陣營 諸國에게 攻擊을 加할라면 東西洋을 通하여 廣範한 目標의 分散으로 進擊에 不便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自由陣營의 各國 空軍은 저마다 特殊한 戰術構造를 가지고 있지만 共產陣營은 全部가 共聯의 空軍機에다가 共聯의 操縱戰術을 習得한 操縱士들이기 때문에 攻擊方法이 一定하다.

이러한 好條件으로 自由陣營의 空軍力은 共產陣營에 比하여 優勢하다는 結論을 내릴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現在 歐羅巴에 東西歐가 保有하고 있는 重要各國의 空軍力은 다음과 같다. 自由陣營은 다음의 統計에서 集計된 外로도 많이 있으나 東歐諸國은 全部 集計된 數字이다.

自由陣營의 空軍力

區別 國別	航空機	兵力	備考
美國	22,900	975,000	戰爆機 36聯隊 重爆機 50聯隊 本土防衛輸送 44聯隊
英國	5,000	254,000	英國은 1939~1945년까지 全盛時 에는 43,000臺를 保有하였었음
佛國	1,000	138,000	51個聯隊
카나다	2,800	49,500	防空 21個中隊 NATO派遣 12個 中隊 其他 8個中隊
和蘭	525	18,000	21個中隊
伊太利	350	25,000	制限되었음
西獨	1,200	7,000	西獨은 以上은 禁止되었음
希臘	250	12,000	7個戰術中隊

資料 1957年度 外國年鑑에서

東歐陣營의 空電力

區別	航空機	兵力	備考
東 獨	300	8,000	大部分이 練習用 戰鬥機인
소 聯	23,430	800,000	18個航空軍
波 蘭	800	70,000	一線機 300 豫備機 500
체 코	1,000	25,000	四個師團
헝 가 리	500	15,000	
불가리아	100	6,000	
루마니아	300	18,000	

資料 民主主義와 軍事力 (1956年 外國版)

韓國을 中心으로 하고 있는 亞細亞地域의 空軍力을 自由陣營 共產陣營 中立陣營別로 集計하면 航空機가 自由陣營이 二,一五八台 共產陣營이 四,〇五〇台 中立陣營이

亞細亞空軍勢力的 對比

區別	航空機	兵力	備考
自由陣營	2,158	137,369	美極東空軍의 勢力은 除外하였음
共產陣營	4,050	253,010	소聯極東地區 空軍 勢力도 除外하였음
中立陣營	185	16,000	
計	6,393	406,379	

資料 自由中國 國防大學校教材 (1956年版)
世界統計年鑑 (1956年 外國版)

一八五台總計六,三九三台가 있다. 이 外에도 亞細亞地域에는 美空軍機 또는 美海軍機 美海兵機가 自由陣營을 掩護하고 있다. 共產陣營도 소聯의 極東空軍이 中共北韓 外蒙古 등의 諸空軍을 掩護하고 있다.

三、未來戰과 空軍의 任務

未來戰의 形態는 廣範한 地域에서 民族과 民族의 戰鬥

가 아니라 思想과 思想의 對峙에서 오는 陣營別 戰爭이라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이러한 戰鬪形態가 地上軍이나 海軍에 依하여 決戰되고 勝敗의 關鍵이 解決되지 못하리라는 事實을 指摘한 바 있다. 그러면 未來戰의 어떠한 形態가운데서 空軍이 擔當하는 使命이 무엇인가?

未來戰의 空軍은 두가지 使命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地上軍이나 海軍의 作戰을 掩護하고 國家와 民族의 安全保障을 期하는 防空任務等 卽 制空權을 掌握하기 爲한 戰術空軍이 있으며 또 하나는 敵의 補給路를 破壞하고 國內產業神經을 杜絕시킬 수 있는 戰略空軍이 擔當하는 任務가 있다. 未來戰에서 戰術空軍과 戰略空軍이 活動하는 力量如何가 戰勝의 基本要素로 되리라는 것이다.

이를 다시 戰術空軍과 戰略空軍別로 나누어 그 任務를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戰術空軍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地上軍과 海軍의 作戰을 掩護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敵의 空軍機들이 我軍의 作戰을 阻害시키거나

또는 敵의 戰略空軍機들이 侵透하여 我方의 生産施設 交通施設 通信施設 文化施設 醫療施設 社會保障施設을 破

壞하려고 하는 侵略意圖를 防禦하는데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我空軍機들이 作戰할 수 있는 作戰地域의 空 中安全保障과 敵機活動을 制壓할 수 있는 制空權을 掌握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戰略空軍이 擔當하고 使命을 完遂하여야 할 任務는 極히 重要한 바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敵의 産業生産技能을 癱痺시키여야 할 것이다. 이러기가 爲하여는 高性能 原子武器를 가지고 對地攻擊을 敢行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敵地住民으로 하여금 壓戰思想 또는 戰爭에 對한 恐怖心을 惹起시킬 수 있는 心理作戰의 奏效를 期하기 爲하여 住宅의 破壞 農牧場 道路 橋樑 鐵道 汀隄 概水利施設等 如何든 住民의 不安定한 生活要件을 加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敵地에 對敵心理作戰의 一部로서 戰況의 報道 비타의 散布 救護物資이 投入等으로 戰爭小兒病을 誘發시키여야 한다.

이 외에도 空軍輸送의 圓滑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며, 空中防疫事業을 徹底히 하고 防波作業을 企圖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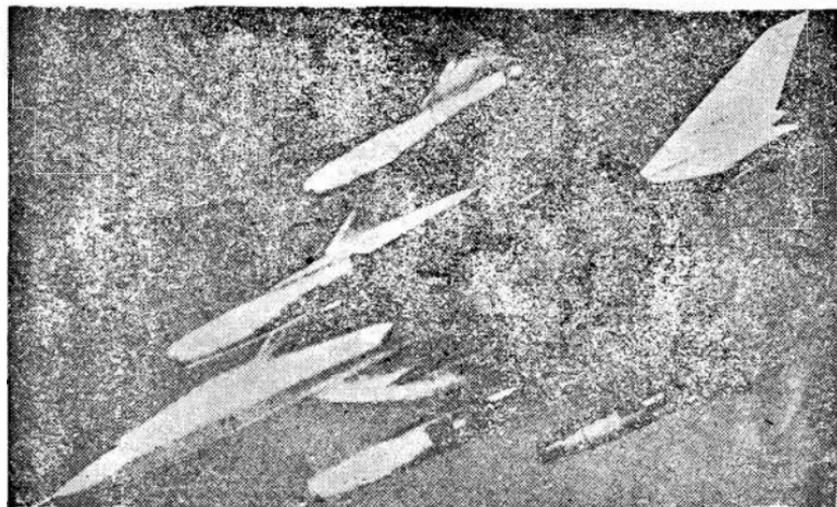
實로 앞날에 있어서 全面戰爭이 일어났다고 假想한다면 空軍이 擔當하여야 할 任務는 戰爭의 核心要素 大部分을 遂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앞으로의 戰爭은 반드시 空軍만 가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 空軍이 敵의 後方을攪亂시키고 前線의 地上軍을 掩護하고 敵地上軍이나 海軍의 進出을 阻止시키며 敵空軍의 攻擊을 防禦하는 데 끌이는 것이지 占領된 地域의 安全을 保障하고 對敵 占領地域의 軍政이라던가 宣撫工作같은 것 까지도 空軍이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陸軍이 必要하고 海上의 領域保護라던가에 對하여 亦是 海軍이 하여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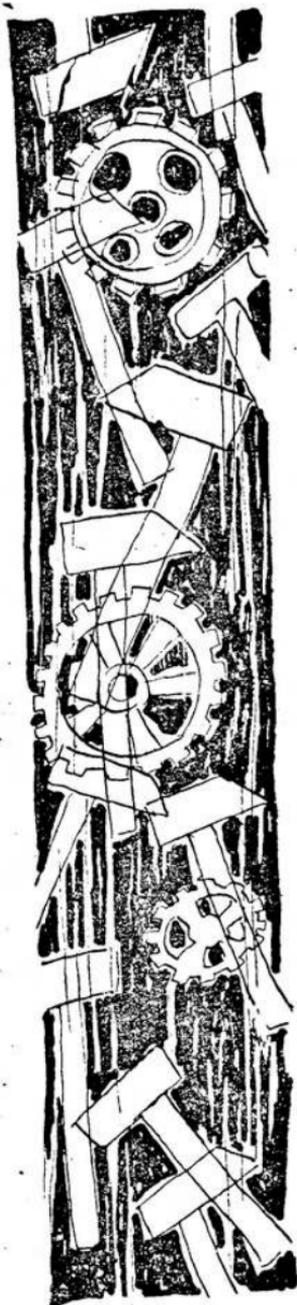
故로 앞으로 未來戰 적어도 水素彈이 戰爭武器로서 最高領域을 차지하는 現實情下에서는 數個의 熱核彈을 이 地上에 爆發시킴으로써 모든 生物의 生命을 死滅시킬수 있는 現條件으로는 戰爭의 可能性은 極히 稀薄할뿐더러 거의 戰爭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水素彈이나 原子彈의 攻擊을 防禦할수 있는 防空能力이 생긴다고 하 있을 적에도 空軍이 차지하는 戰場領域은 極히 廣範하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客觀的 條件下에서 釀成과는 戰爭觀을 認識한 우리 나라에서도 空軍의 急進的인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祖國統一이란 目的을 이룩하는데도 空軍의 優勢한 地位를 確保하여야 할것임을 再三 強調하는 바이다.

— (끝) —



☆超音速爆擊機出現☆ 「圖」圖과 白色機首를 갖은 美國最初の 超音速爆擊機가 「멕시코」州 「포인트·워즈」基 地上空에서 試驗飛行을 하는 중 그 威力을 誇示하고 있다. 成層圈까지도 上昇할 수 있는 이 「콘베아」 B-58 「후슬러」 (Husler) 爆擊機는 四發의 「라보·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世界에서 가장 優秀한 爆擊機인 것이다.



韓國의工業化

—— 주로 韓國經濟의 再建에 있어서 ——

李 重 宰

— 23 —

韓國의 總人口를 三千萬으로 推定하고 農民의 數를 八〇%로 推定하여 現在の 우리나라 食糧狀態를 보면 全體人口의 八〇%의 人員으로서도 食糧問題를 解決 못하고 있는 現狀이나 美國의 例를 보면 全體人口의 四〇%未滿의 人員으로서도 全體人口의 食糧을 補給할뿐만 아니라 剩餘農產物을 全世界에 供給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八〇%의 農民을 가진 우리나라 이면서도 美國의 農業에는 到底히 未及하는 現狀이니 이 點을 考慮한다면 韓國產業의 方向은 高度의 工業化도 要望되지만 于先 現實적으로 自給自足할수 있는 最少限度의 農業國이 되어야 할 것이다.

即 先決問題인 農業의 自給自足이 解決된다면 年間數

千萬弗의 外穀을 導入하는 弗貨를 工業의 原料 또는 生産機關用 資材를 導入하는 것으로 代置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簡單히 韓國의 正業化 農産物의 自給自足이 數年 內에 達成할 수 있다는 前提下에 말한다면,

첫째로 産業基礎의 第一位를 차지하는 肥料生産 工場

의 建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筆者>

이 肥料工場의 設置는

現在年間數千萬弗의 農産物과 年間五千萬弗以上

의 化學肥料를 導入하는 外貨가 節約되며 이에 따르는 化學藥品工場 機械工場等의 中小企業이 育成되며 維持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注意할 것은 基礎工業을 支持하는 中小企業의 育成이란 一朝一夕에는 成立될 수 없겠으나 初期에 있어서의 製品の 粗惡 또는 生産價의 高率은 國內技術의 育成 國內資本의 蓄積과 製品の 競争等에 依하여 自然消滅될 것으로 믿는다. 勿論이 狀態에 到達하기 까지에는 이 方面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誠心과 方法에

따라 時間과 金額의 差異는 있을 것이나 工業化를 指向하는 指導者는 이러한 時間的 間隔과 金額의 差異에서 오는 困難을 克服하여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電源開發을 들고자 한다.

現在 建設中에 있는 忠州肥料工場만 하더라도 二〇〇〇〇 Kw의 自家發電施設을 가지고 있는 實情이며 其外 에도 카바이드工場 알미늄工場 製紙工場等 大部分의 工場이 電力을 原料로 하고 있는 것이다.

日帝末期의 工業化時代와 現在의 美國 日本 其他 高度로 工業化한 諸國家의 電力開發은 諸般工業의 前提條件이 되고 있으며 電力需用과 生産은 競争의 으로 增加되고 있는 實情이다. 美國에 있어서 는 年間 一、〇〇〇萬 Kw 以上の 發電能力이 增加되며 日本에서도 年間 三、四十萬 Kw의 新規電源을 開發하고서도 工業의 進도에 따르는 電力需用에 未及한 것을 볼 때 絶對的으로 先行되어야 할 工業은 電力開發이라 確信하는 바이다. 現在 美國과 日本의 發電能力을 본다면 美國이 一億二千萬 Kw 日本이 一、三〇〇萬 Kw 即 國民一人當 平均電力으로 美國은 約 一 Kw 日本은 約 〇、二 Kw 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現實에 비추어 보면 南韓 總發電施設 三〇萬 Kw로 南韓 人口二千萬에 對하여 一人當 平均一五 W의 極少한 電力頒布이니 이것은 到底히 工業化의 뒷바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日帝末期에도國民一人當平均 七五W의 電力을 貰이고 서야 興南肥料 카바이트 人造石油 마구네송 알미늄工場等 電力을 原動力으로 하는 諸工業의 뒷바침을 한것을 想起할때 今年度부터 漸次로 完成되어가는 ICA 資金에 依한 紡織工業 其他 中小工業施設의 運營을 開始할수 있는 此際 電力의 生産이 여기에 未及한 狀態이니 工業化의 絕對緊急한 第一段階는 電源開發에 있으며 電力增強으로서 만이 工業化의 前提를 期하여야 할것이다.

셋째로 交通機關의 完備를 말하고저한다. 現在와 같이 發電所는 있어서도 燃料輸送이 圓滑치 못하여 所期의 目的을 達할수 없는 境遇를 볼때 諸般工業에 있어서도 原料 및 生産品運搬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을것은 不問可知이며 이와 同時에 諸般 生産價格에 있어서도 輸送費와 輸送의 不圓滑로 因한 生産의 支障에 따르는 金利의 損失 途中紛失의 頻發等은 現在 우리나라의 工業發展에 一大癘이 되고 있으니 運輸에 있어 鐵道를 爲主로 하는 것은 現實上 不可避하겠으나 補助機關으로서 道路網을 利用하는 自動車運送 河川 및 沿岸을 利用하는 海上輸送等을 多角的으로 擴充하여 때때로 이러나는 列車運行減少를 相互補充하여 輸送의 圓滑을 期하여야 할것이다.

넷째로는 燃料問題解決을 들고저한다. 現在 交通發電 其他 工業의 原動力을 주는 燃料問題를 解決치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工業化는 實現하기 困難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燃料生産은 主로 無煙炭인바 其質은 비록 좋지 못하나 埋藏量이 많음으로 發掘과 輸送의 合理化를 期한다면 燃料問題는 殆半解決될 것으로 믿는다.

有煙炭과 重油 輕油 揮發油等 外貨로 導入하는 燃料消費가 年間 數千萬弗에 達하고 있으니 埋藏量이 豊富한 無煙炭의 積極的使用과 研究를 強行하여 有煙炭의 消費를 減少시키고 또 豊富한 原料를 貰인 澱粉으로 알콜生産을 獎勵하여 揮發油의 消費量을 減少시킨다면 外貨의 節約은 勿論 燃料工業의 發展도 成立될 것이다. 要는 無煙炭의 使用範圍를 넓이며 언제든지 要求되는 場所에 廉價로 供給할수 있는 態勢가 完備되어야 韓國工業化의 基礎는 이루어질 것이다.

以上을 要約하면 韓國工業化의 前提條件은 農産物의 自給自足이 先決問題이며 肥料工場設置 및 이에 따르는 諸工業電力의 增強 運輸의 強化 또한 燃料의 補充이 그것 이 完成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工業은 飛躍的인 發展을 貰어올수 있을 것이기에 이의 解決에 萬全을 期하여야 할것이다. (筆者 京電社長)

自由에의反應



|| MIG-15를 들고 自由世界로 넘어온

波蘭前「젠티」操縱士는 말한다 ||

조오지·R·레이스

空機라도 이를 擊墜할 것을 노리고 있던 共產主義教育을 받은 頑固한 戰鬪機 操縱士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快活하고 마음이 便한 代表的인 美國의 大學生이다. 그는 自信을 가지고 한동안 美空軍에서 活躍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으며 마침내 美國에서 實業家가 되기를 願하고 있다. 現在 그는 「펜실베이니아」州의 조그만한 마을 「캠브릿지·스프링스」에 있는 「엘리아스」大學에서 事業經營學을 工夫하고 있는 三年生이다.

「젠티」操縱士 「프란시스제쿠·자펙키」는 사람이 美國에서 어떻게 變하느냐에 對한 가장 좋은 實例일 것이다. 數年前만 하더라도 그는 蘇聯의 支配를 받고 있는 波蘭空軍中尉였으며 鐵의 帳幕뒤에서 MIG-15란에 얽아 如何한 自由西方側의 航

「그러니까 내가 大學을 卒業하고

美國市民이 되어 空軍에 入隊하게 될 날도 머지 않았읍니다. 그렇게 되면 F-100이나 F-102 或은 F-104를 操縱할 수 있게 될지도 모읍니다.」 「자펙키」는 MIG-15A를 타고 다른 波蘭空軍操縱士 셋과 함께 「발티」海上을 哨戒飛行하고 있을때 突然 編隊에서 離脫하여 鐵의 帳幕을 뚫고 나와 丁抹領土인 「보른홀름」島의 짧은 草原滑走路위에 着陸을 하였던 것이다. 最新型 蘇聯空機의 하나였던 그의 飛行機는 自由西方側으로 넘어온 最初의 損傷되지 않은 MIG機였다.

이 飛行機는 聯合國의 가장 優秀한 「메스트·과일롯트」들에 依해서 屢次 操縱되었으며 또한 航空機設計家들에게 그 性能을 研究할 수 있는 機會를 주기 爲해서 分解와 再組立이 거듭되었다. 그러한 情報은 美國의 航空機設計家들과 韓國의 自由世界 操縱士들에게 MIG機의 弱點에 對

한 많은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는 同時에 MIG機에 對한 最善의 戰術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많은 美國人의 生命을 救했을 것이며 將次에도 더욱 많은 生命을 救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操縱士인 「자베키」도亦是 自由世界에 對해서 貴重한 貢獻을 하였다. 그는 共聯 및 波蘭空軍에 對한 많은 重要한 情報을 提供하였으며 아직도 鐵의 帳幕 뒤에서 呻吟하고 있는 數 많은 사람들의 士氣를 鼓舞하기 爲해서 「自由歐羅巴放送」을 도왔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飛行機를 操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다. 「나는 波蘭을 奴隸化한 나의 以前의 上典을인 共聯人들과 空中에서 싸우고 싶습니다. 나는 머리에 飛行機스티를 들을때 마다, 特別히 「젯트」機의 스티를 들을때 마다 悲壯해 못견디겠습니다.」

「자베키」는 波蘭의 「스타나슬로우

오우」라고 하는 곳에서 한 波蘭軍將校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第二次大戰이 勃發하기 直前に 殺害되었다. 그는 共聯이 그의 祖國과 學校를 占領하게되자 共產主義 教育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 波蘭政府에서 運營하는 「말라이더」學校에서 飛行術을 배웠으며 一九五〇年十月에 二、〇〇〇名의 志願者 가운데 選拔된 一五〇名의 合格者의 한사람으로서 波蘭「메블린」에 있는 國立航空大學에 入學하였다.

「자베키」는 波蘭士官生徒의 訓練을 想起하면서 그것은 美空軍에 있어서의 訓練과 매우 恰似하다고 말하고 있다. — 物理學, 航法 및 그 밖의 學科에 對한 많은 學術工夫에 이어서 YAK-9 「프로펠러」練習機로, 그 다음에는 「젯트」機로 飛行訓練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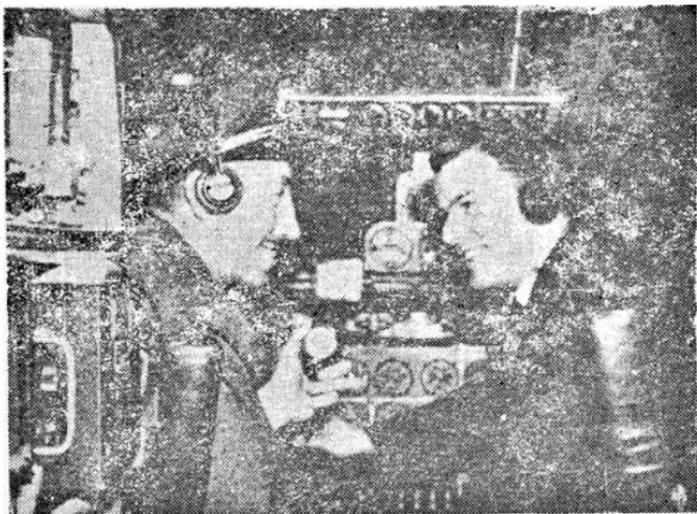
그는 처음에 「와르소」郊外에 配置되어 있는 戰鬥機隊에 配屬되었는

메이 部隊는 初期型의 MIG-15로 裝備되어 있었다.

「그건 나루지 않은 事였을 것입니다.」하고 그는 回想한다. 「俸給은 많이 받았읍니다. — 한달에 二、四五〇〇「슬로티」를 받았는데 이것은 六〇〇弗에 該當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波蘭空軍의 共聯人들에 依해서 完全히 支配當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았을때 나는 속으로 크게 憤慨하였읍니다. 少領級以上將校의 約九十九%가 共聯인이었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共產主義者로 만들려고 했읍니다. 그건 그렇다고, 나는 到底히 나의 同僚將校들에 對해서 「스파이」行爲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共產主義의 因緣을 끊고 自由世界로 넘어올 것을 決心하였던 것입니다.」

「자베키」는 그가 「단지」에서 西方으로 五〇哩 떨어져 있는 「슬러로스크」에 配置되어 있는 戰鬥機大隊로

配屬되었을 때 드디어 그機會를 얻게 되었다. 이部隊는 MIG-15 最新型으로 裝備되어 있었다. 그와 그의 同僚들은 西方側의 攻擊이 切迫해 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自由世界



<「유나이티드」航空會社の 機長이 DC-7旅客機의 操縱室에서 「프란시스제크·자텍키」에게 内部를 説明하고 있었다>

의 攻擊을 擊退하기 爲해서 瞬息間의 命令으로 離陸할 수 있도록 그 酷寒 속에서 몇時間 동안이나 邀擊機안에 들어가 待機하고 있었다.

一九五三年三月五日、「자텍키」는 마침내 脫出의 機會를 얻었다. 그는 哨戒飛行에 四臺의 飛行機를 指揮하라는 任務을 받았다.

「高度 一八、〇〇〇의 高度로 飛上하여 上空을 巡航中 突然 나는 바로 只今이다. 그렇지 않으면 永遠히 機會는 오지 않을 것이다. 萬一 失敗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였읍니다.」

「자텍키」는 「보턴」을 불러 달개 끝에 달린 燃料「탱크」를 머더로리고 急降下를 하기 始作하였다. 잠잠하던 그의 同僚들은 곧 멀리 뒤

떨어져갔다. 그 다음 그는 한 同僚가 「라디오·마이크」를 向해서 이렇게 웨치는 소리를 들었다. 「노샘버어」(基地本部의 暗號) 七三一號가 逃走하고 있다! 七三一號는 「자텍키」의 MIG機 番號였다.

그때 「자텍키」는 妙한 衝動에서 「마이크」를 向해서 이렇게 빈정대는 말을 하였다. 「그렇다, 나는 「스탈린」을 爲해서 藥을 求하러 간다!」고 當時 「스탈린」은 病으로 몹시 앓고 있었으며 그後 얼마안되어서 죽었다.

「자텍키」는 「抹領土인 「보른홀트」島를 向해서 날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巨大한 美空軍基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勿論 그자들은 情報는 虛構였으나 그는 그곳에 三、〇〇〇呎에 達하는 草原滑走路를 發見하였다. 바로 그때 그는 「슬터프스크」(基地本部의 「라디오」가 다시 四臺의 MIG機를 出擊케 하고 「자텍키」를 擊墜하라는 命令을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곳에 三、〇〇〇呎에 達하는 草原滑走路를 發見하였다. 바로 그때 그는 「슬터프스크」(基地本部의 「라디오」가 다시 四臺의 MIG機를 出擊케 하고 「자텍키」를 擊墜하라는 命令을 내리고 있는 것을

물었다.

그 草原滑走路는 너무도 짧았다.

「그러나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餘地가 없었습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그는 숲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의 MIG 機를 着陸시켰다. 飛行機는 樹木 밑을 穿살같이 滑走하고 머티위에 서 爆音이 들려 오는 追擊戰鬪機들의 눈을 避하였다.

丁抹人들은 調査를 끝마친 다음 「자택키」를 釋放하였고 그의 MIG

15는 西方側으로 移讓되었다. 그는 美國으로 건너왔으며 「위스콘신」州 出身의 國會議員 「알빈·오른스키」氏는 그에게 永久的 亡命을 許容하는 法案을 國會에 提出하였다. 「자택키」는 그가 大學에서 工夫할 때와 美空軍과 海軍當局者들과 함께 旅行할 때를 除外하고는 이 國會議員과 함께 살고 있다. 現在 그는 「릴리웃드」에서 그의 劇的經驗에 關한 映畫에 演出하고 있다.

小兒 훔친 盜女에게.....☆

☆.....小兒提供 殺到

도린·하리스라는 二十三歲되는 婦人·夫은 氏間에 어린애를 낳을수 없음을 알고 生後 十六日되는 小兒를 훔친지 二日後 이 消息이 新聞紙上에 報道되자 「그런 애기를 탐내거든 나의 애기를 들이겠다」는 便紙가 十餘通이나 보내왔다.

그中 한두장의 便紙 內容을 소개하면 「나에게는 어린애가 四名있는 데이 中어느애는 저중다는애를 들이겠읍니다.」또한 장은 「나는 來月에 解産하니 애를 들이겠오」 이것은 英國하리혹 스의 이야기.



그는 아직도 飛行에 興味를 가지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州 「메드바일」의 「웨이·B·스팔딩」이라는 親舊와 함께 흔히 「비이지·보난자」機로 飛行하고 있다. 그는 波蘭系 美空軍 勇士인 「프란시스·가브레스키」大領과 함께 T-33 「젯트」練習機를 操縱하였는데 「가브레스키」大領은 그에게 一部分의 가장 優秀한 美國 「젯트」機를 研究하고 操縱할 機會를 주었던 것이다. 最近에 그는 「펜실베이니아」州 「에리」에서 飛行試驗을 받고 個人免許를 얻었으며 美國內에서의 個人飛行과 事業飛行에 對해서 크게 感激하고 있다. — 特히 그러한 飛行의 自由에 對해서, 「鐵의 帳幕」뒤에서는 到底히 그러한 光景을 볼수 없읍니다.」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다. 「政府管理의 事業以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事業을 爲한 飛行이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個人의 飛行은 政府後援의 「클럽」에

서나 있을 수 있고 그것도結局에는 軍隊에 들어갈 사람에게만 局限되어 있습니다。」

「자택키」는 市民權을 얻는 即時로 美空軍에 入隊할 것을 願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戰鬪機에 對한 美國人의 生覺에 對해서 率直하게 半信半疑의 態度를 表明하고 있다. 卽 美國戰鬪機에는 不必要한 裝飾이 너무도 많으며 따라서 不利하다는 것이다. 「萬一 내가 美國의 旗號아래서 할 수 있다면, 戰鬪하는데 F-86 보다는 오히려 가볍고 上昇速度가 빠르고 旋廻速度가 빠른 MIG-15A를 操縱하겠읍니다.」 이렇게 그는 말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軍事理論이지만, 훌륭한 攻擊은 最善의 防禦인 것이며 MIG-15A는 바로 이 目的을 爲해서 準備된 것입니다. MIG機에는 重量이 加해서 不必要한 裝飾의 없읍니다. — 防禦具도 없고 「캐노피」를 울리고 내리는 멋진 裝置도 없으며 優秀하고도

重量이 가벼운 「라디오」를 裝置하고 있습니다.」

「많은 美國人은 舊式 聯戰鬪機 MIG-15가 보잘것 없는 簡單 飛行機라고 生覺하고 있었지만 事實은 그렇지 않았읍니다. 나는 이 飛行機로 時速 七〇〇哩以上을 飛行하였으며 이 飛行機는 「제이버젯」機보다 높고 그리고 빨리 上昇하였읍니다. MIG-15機의 上昇限度는 五一、〇〇〇呎인데 反해서 「제이버젯」機는 四五、〇〇〇呎입니다. 그 重量은 不過 一一、〇〇〇「파운드」이며 五、八〇〇「파운드」의 推力을 가지고도 輕장한 推進力과 上昇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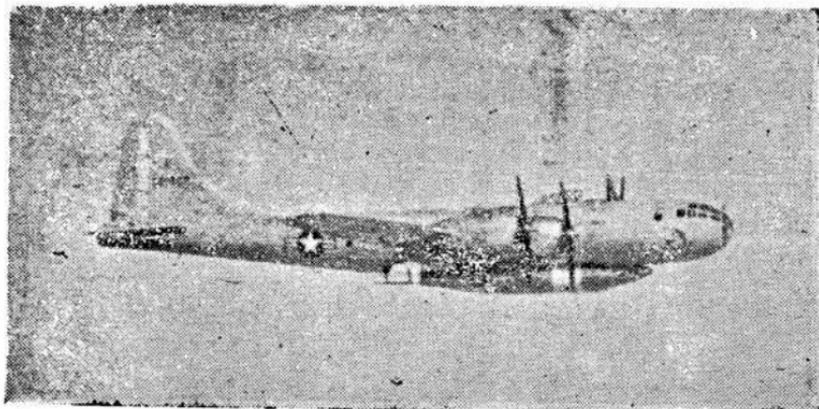
「萬一 나 같은 相對方的 飛行機보다 높이 그리고 빨리 上昇할 수 있고 빨리 旋回할 수 있는 飛行機만 있다면 防禦具는 없애버려도 좋습니다. 나는 防禦具를 주고, 敵機의 뒤와 위로 달라 볼 수 있는 機會와 바꾸겠습니다. — 防禦具는 어차피

機關砲彈이나 「로켓」彈에는 건디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韓國戰爭에서 F-86 一臺가 十三臺 乃至 十四臺의 比率로 MIG機을 擊墜한 事實에 對해서는 무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택키」는 이 數字를 깔보는 듯이 無視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韓國戰線에서 F-86을 操縱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 大部分의 사람이 나와 같은 意見이 있습니다.」

우리의 F-86 操縱士는 훌륭하게 訓練되었으며 그 大部分은 第二次大戰의 經驗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MIG-15機는 美聯이 中共軍과 北韓傀儡軍에게 讓渡한 舊式機였다.

「농군으로부터 操縱士가 된 그들은 不過 數百時間의 飛行經驗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읍니다. 그들은 美國操縱士들에 依해서 쉽게 擊墜當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鐵의 帳幕뒤에서는 人的資源과 人命이 몹시 값싼 것입니다.」



<母機 B-29에 의해서 高度 六「마일」까지 運搬되는 「벨」X-1A>

△航空實話▽

九萬呎 高空을 날으다

美空軍少領

아더.머어레이

세계항공사상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고도에 올라갔던 한 「로켓트」 시험기의 「테스트·파일럿」이 그가 경험한 정막(靜漠)한 지구의 외계(外界)에 관해서 말한다.

(쟁) 크. 티틀리「중령은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띄우면서 나의 비행계획서를 내민다. 나는 그것을 드려다 보고 가볍게 휘파람을 분다. 짐은 연필로, 위로 올라가는 선(線)이 그려져 있다. 선은 三〇,〇〇〇「피트」에서 시작하여 한없이 위로 올라간다. 「티틀리」중령이 머 큰 종이 위에 그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만 큼.....

「최고의 모도일세.」

하고 그가 말한다.

「할수 있겠나?」

「티틀리」중령은 「벨」X-1A 「로켓트」 시험기의 계획기사(計劃技師)이다. 이 고도(高度) 시험기는 남부 「캘리포니아」 주의 「모하브」 자막에 있는 거대한 비행시험소, 「에드워더즈」 공군기지에서 시험되고 있다.

「당신이 내가 할수 있다고 말한다면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말한다.

최고의 모도는 九〇,〇〇〇「피트」이다. 十七「마일」이다. 아무도 일찍이 그만한 고도에는 올라가본적이 없다. 「티틀

리「중령도」...

그런 고도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우주(宇宙)로 통하는 그 입구를 지나가면 최초의 인간에게 어떠한 예기(豫期)치 않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공기는 사람의 피(血)를 추진자의 물처럼 쉽게 할만큼 희박하고, 온도는 한난계의 수은(水銀)을 얼어붙일 만큼 차고, 우주선(宇宙線)이 방사하고, 운석(隕石)이 날라오고, 이상하게도 중량감(重量感)이 없어진다.

「공군에서는 꼭 한번만 더 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네. 잘해보세.」

△高度與壓服을 입고 F100 超音速 戰鬥機앞에 서 있는 「머어레이」少領



「리틀리」중령은 말한다.

(나)는 그가 말하는 뜻을 알고 있다.

조음식 조음식 X-1A와 같은 「로켓트」기는 우주(宇宙)를 향하여 높이,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는 자연폭발지구에 들어가기 전에 조종능력 한계(操縱能力限界)라는 무서운 「피롤」이 존재한다.

「자네는 곤三〇,〇〇〇에서 모기(母機)로부터 나와된다.」

「리틀리」중령은 계속해서 말한다. 나는 그의 손가락을 따라서 점은 선(線)을 주시한다.

「아음속(亞音速)에서 三〇도의 상승을 한다. 이때 자네는 三개 「로켓트」. 챔버」로 비행한다. 五〇,〇〇〇에서 제四의 「로켓트」에 점화(點火)하고 연료의 흐름을 주시한다. 그 다음에 약간 상승도(上昇度)를 감하여 조음속으로 날은다. 신속의 고향력범위(高抗力範圍)를 탈출한 다음에 다시 기수(機首)를 든다.」

바로 여기에서 二분동안의 상승으로 나의 연료는 절반이 소모된다고 「리틀리」중령은 말한다.

「비행기는 총알같이 빨라질 것이다. 자

네는 五〇,〇〇〇에서 약 七〇,〇〇〇으로 상승한다. 연료압력의 동요를 「체크」하고 그 과산화물(過酸化物)의 온도를 주시한다. 속도는 「맞하」2를 유지한다.

자네는 八〇,〇〇〇에서 九〇,〇〇〇으로 올라가는 동안 조종성(操縱性)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자네는 가벼워진다. 연료는 거의 다 소모되고 추력(推力)과 중량의 비율은 거의 1대 1이다.

자네는 여기에서 더욱 속력을 내어 목표 고도에 도달하는 것이다.」

나는 「최크·이거」소령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一九五三年 十二月 十三일에 X-1A 시험기를 나에게 인계하였다. 十二月에 「이거」소령은 그 「로켓트」기를 물고 시속 一六〇〇「마일」이라는 세계속도기록(世界速度記錄)을 수립하였으나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생환(生還)하였던 것이다.

「이거」소령은 고도 약 七〇,〇〇〇에서 속력을 내어 「맞하·메터」의 바늘이 「맞하」2를 지나갈때까지 지속하였다. 음속의 二배이상을 날고 있을때 X-1A는

상부의 회박한 공기의 충격파(衝擊波)가 그 뜨거운 기체로 인하여 그림자처럼 내습하자 예기치 않은 힘에 의해서 심한 타격을 받았다.

「이거」소령은 조종간(操縱桿)이 굽힐 때까지 조종장치와 씨름을 하였다. 그는 심하게 「캐노피」에 부딪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가가 다시 그 전압을 수 없이 날뛰는 비행기를 다루게 되었을 때에는 그는 「에드워더스」를 향해서 五〇〇,〇〇〇 「피어트」나 추락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 다행이었다 — 당시 X-1A에는 사출식 좌석(射出式座席)이 없었던 것이다.

(그) 「이거」소령은 단순히 「라이트」형 제가 「키티·호오크」에서 비행에 성공한 이래 관세기(半世紀)의 항공발달을 훌륭하게 완결(完結)하는 세계속도기록을 수립하는 데만 골인 것이 아니다. 그는 그보다 六년전인 一九四七年十月十四일에 그가 최초로 돌파한 음의 장벽(音의障壁)보다 더 무서운 새로운 문제에 조우(遭遇)하였던 것이다.

고고도(高高度)에서 음속이상의 고속도로 비행할 때에는 또한 실속(失速)의 속

도도 커진다. 왜냐하면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더욱 희박하여 저속(低速)에서는 날개를 받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속하지 않도록 더욱 빨리 날아야 한다. 「리틀리」중령은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험기(試驗機)는 새로운 초음속설계문제물 야기(惹起)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그 이상 더 빨리 날을 수 없으며 더 빨리 날으다가는 충격파의 내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독자(讀者)는 「리틀리」중령이 말하는 「조종능력 한계」라는 기술용어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를 타고 일음으로 달린 「커어브」를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변하다. 오직 다른 점이라고는 「로켓」기르 비행할 때에는 일음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희박한 공기와 싸운다는 것 뿐이다.

「맛하」2 이상의 속도에서는 풍동시험(風洞試驗)에서 얻은 자료도 一〇〇%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X-1A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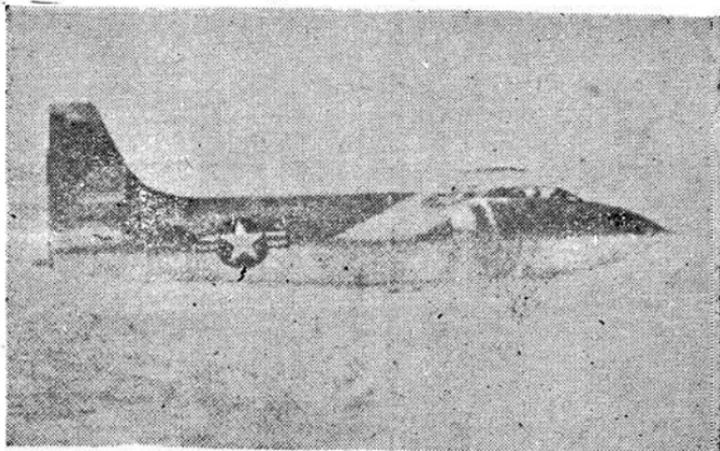
시험기는 기술자들이 예언(豫言)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하다. 한번 「로켓」시험기가 비행하느냐면 그때마다 초음속비행의 공기역학적(空氣力學的)인 자료가 조금씩 더는 다. 「이거」소령이 발견한 사실은 내가 말한 일을 더욱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할 것이고 내가 발견한 사실은 그 다음 사람이 풍중으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미 설계자들은 우주(宇宙)에 도달하기 전에 성층권(成層圈)상부를 날으는 신형기(新型機)를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켓트」기를 「코스」에 따라서 조종할 수 있는 나 없느냐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우주선(宇宙船) 설계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우주(宇宙)에 있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속인(俗人)이며 나는 피곤하다. 나는 「리틀리」중령에게 특별한사를 하고 기지(基地) 가까이 있는 집으로 자동차를 물고 돌아온다. 나는 아내 「페티」에게 어딘에 빛을 잠자리에 누

피도록 하고 일찍 자리에 눕는다. 잠자리에 누으니 내일의 문제가 불속

생각한다. 나는 「베리」가 그의 내강고(冷藏庫)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처럼 일음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오 내가 우리 의 시험비행 수석 「파일롯트」 「프랭크」

△飛行中인 X-1A▽



K·에버레스트 중령을 위해서 추적비행(追跡飛行)하던 때를 회상한다.

「에버레스트」중령은 X-1A의 전신(前身)인 X-1으로 고도비행을 하던 중 연료가 떨어져 기지(基地)를 향하여 땅장 한 속도로 활공(滑空)하고 있었다. 후한(酷寒)의 높은 공중으로부터 뜨거운 사막의 공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X-1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속을 들진하여 「에버레스트」중령의 풍방(風防)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두터운 서티(霜)로 덮이고 말았다. 그러나 풍방을 타는 장치가 없었다. 나는 그의 옆에 접근하여 장난을 인도하는 개(盲導犬)의 역할을 하였다. 「태디」 「돌」 봉하여 「에버레스트」중령을 「에드워드」에 있는 큰 건조호상(乾燥湖床)으로 유도하면서..... 그러나 그는 나에게 그 빛을 줘왔다. 나의 조기의 비행에서 X-1A의 풍방에 역시 일음이 들렸을 때 「에버레스트」중령은 나를 유도해 주었던 것이다.

기화같은 「팩스」 「파일롯트」의 「리입」 「위크」는 위기(危機)에서 살아나는 데 편된 것이다. 유능한 추적(追跡) 「파일롯트」

「나」는 사전에 사교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를 방지한다. 「로켓트」의 화열(火焰)을 「체크」하기 위하여 가까이 접근해서 비행할 때도 그렇다. 그 색깔로 그는 그 열도의 온합이 정확한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나도 「리틀리」중령에게 한번 조그마한 친절을 베풀적이었다. 그가 「마일」의 고도에서 모기(母機)의 폭탄창(爆彈倉)에 매달린 X-1B의 「리프트」안에 들어있어 있을 때이다. 투하되기 불과 「분전」에 나는 그 밑으로 비행하여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였는데 바로 그때 액체산소(液體酸素)가 몹시 심하게 세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태디」로 모기의 승무원에게 「리틀리」중령을 투하하지 말라고 일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그의 마지막 비행이었을런지도 모른다.

(나)는 조기의 X-1A 비행으로 액체산소의 상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직접 경험에서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추적 「파일롯트」 「이거」 소령을 뒤의 남기고 3개의 「로켓트」 「웹버」로 급상승을 하고 있었다. 그때 중심(重心)이 갑자기 불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탄 것이 아니다 내가

「엘름」 「로켓트」 연료를 연소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대체 산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급히 다른 「탱크」에서 충분한 연료를 찾아내므로써 위기일박(危機一髮)에서 지명적(致命的)인 「테일스핀」(尾部를 휘둘리며 돌뿔飛行을 하는 것)을 면하였다. 「테일스핀」이라도 보통 기수(機首)를 밑으로 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름이 끼치는 비범(非凡)한 통작이다. 미부(尾部)의 과도한 증상으로 말미암아 여제할길 없이 꺼꾸로 나선비행(螺旋飛行)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좀처럼 잠이 오질 않는다.

나는 잊지마 뒤치락 하면서 손을 내밀면 달을 것 같이 가까히 서있는 「그로메스크」한 「요슈어」나 무위에 떠오르는 「모하브」사막의 은빛처럼 맑은 달빛을 향해서 눈을 감는다. 나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비행에서의 위험한 지 얼마안되는 「베티」의 걱정을 한다. 우리의 다섯째 어린이는 사산(死産)을 하였다. 여덟살 난 「마이크」는 기관지염(氣管支肺炎)에서 회복

도중에 있다. 세살 먹은 「크리스」는 최근 넘어져서 잠시 머리를 깨었으나 그리 심한 증세는 아니다.

그럼 이제 달콤한 꿈나라로 드러간다. 피부를 즐락매는 T-11 여압복(與壓服)을 간신히 입고 모기(蚊)가 물어도 고통을 수도 없는 어항같은 「헬멧」을 쓰는 꿈을 꾸면서.....

사막의 눈부신 해가 떠오르고 햇빛이 비친다. 벌써 날이 셋다. 一九五四年八月二十六일이다. 운명의 날이다. 속히 목욕을 하고 아침밥을 많이 먹는다. 멀리 간을 요하는 비행이 끝날때까지는 음식물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베티」는 근심을 억제하고 미소를 띠운다. 「메스트 · 파일롯트」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의 결혼은 미디카오한 모험이다. 작별 「킷스」를 하고 아직 잠들어 있는 어떤것들을 힐끗 물어다 보고는 「미공군 연구발전사령부 비행 시험소」라는 어마어마한 잔판이 붙은 사무소를 향해서 집을 나온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 다만 나는 「메스트 · 파일롯트」이고

오할 九〇,〇〇〇 「피이르」의 고품을 몰라 간다는 것뿐이다. 「요슈어」나 무가 서있는 이 한적한 곳에서 활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스틸」을 느낀다.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주변(周邊)에는 「테이다 · 스테이츠」이 모독하게 서있고 그 전자안(電子眼)은 차거운 허공으로 나의 비행로를 따를 것이다.

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공기의 장막위에서 더욱 더 높이 진도를 타게 해나가고 있는 한 탐험가(探險家) 「티입」의 일원이다. 나는 최후의 미개지(未開地)로 올라가는 것이다. 한난계(寒暖計)가 화시(華氏) 영하 六十七도를 가리키는 추한과적(華氏)속으로.....

「집에 오실때 땅 한덩어리만 사가지주세요.」

하고 「베티」가 문간에서 말한다. 나는 골여압복(與壓服)을 입고 B-29 폭격기를 개조(改造)한 모기(母機)안에 올라탄다. 폭탄창에 X-1A를 끼고 할 주도를 달린다. 「킷스」처럼 물론 「대위의 승무원」이 나를 「마일」정도까지 끌고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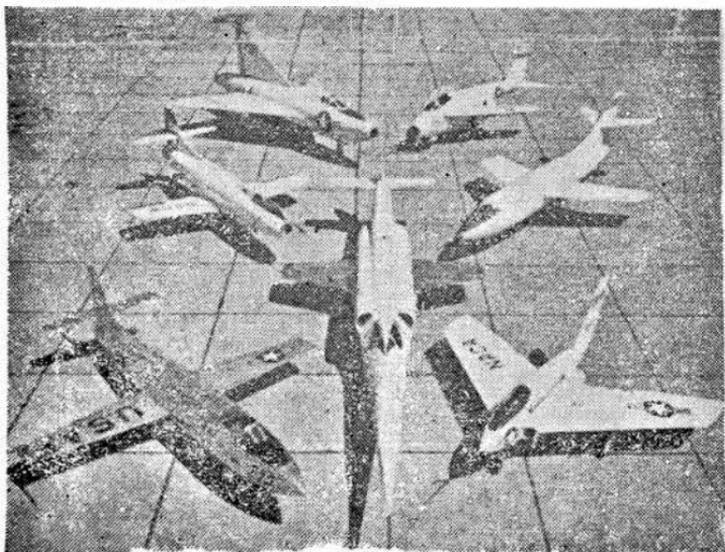
이것은 이 지구를 멀리 떠나서, 굉장한 속도로 비행하기 위해서,三日 동안, 七十二시간 동안 무자비(無慈悲)하게 준비하여 온 최후의 순간이다. 나는 지상에서 이 몇몇 시간 동안 「로켓트」기안에 앉아 눈을 감고 「커피트」를 마음속으로 더듬어 본 일이 있다.

(나)는 「델리케이트」한 압력(壓力) 조건에 대해서 예연한 감각(感覺)을 발달시켜 왔다. 나는 비행기의 여압장치(與壓裝置)를 조작하기 위하여 병(瓶)에 수천(數千) 「파운드」의 질소(窒素)를 소지하고 있다. 활성(活性)이 없는 질소는, 조종할 수는 있으나 연소(燃燒)를 도울기 때문에 위험한 산소(酸素)와 같은 그밖의 「가스」대신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커피트」안에 적당한 압력을 조성하도록 이 장치는 충분한 질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과열(過熱)되면 X-1A와 모기(母機)를 공중에서 폭발시키고 말. 과산화물(過酸半物)도 또한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연료들, 「로켓트」, 챔버(안으로 들어 보내는 과열된 증기(蒸氣)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

「폴론」대위는 그 대형 폭격기를 더욱더 높이 끌고 올라간다. 마치 사막상공을 올라가는 거대한 독수리 모양으로…… 고도 7,000에서 나는 X-1A의 조그마한 「커피트」안으로 기어 내려가면 승무원은 나폴리 안에 「가두어 버린다.」 「로켓트」기안에 잠금된 나는 의로운 생각이 든다. 그것은 마치 잠수함(潛水艦)속에 틀어앉은 것 같다. 폭탄창속 깊숙히 있기에 문에 하늘은 보이지 않지 만 「커피트」안에는 밝은 전등이 비치고 있다. 이것은 내가 투하될 때에 눈부신 자막의 태양에 익숙해져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의 맹목(盲目)으로 비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투하전(投下前) 한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커피트」를 「체크」하고 내가 <美國의 實驗機體. 中央 「더글라스」X-3, 左로부터, 「벨」X-1A, 「더글라스」D-558-1, 「컨베어」XF-92A, 「벨」X-5, 「더글라스」D-558-II, 「노오스론」X-4>



떨거다가 이런 직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는 다. 그리고 나는 혼자 빙그레 웃는다. 나는 이 직업을 사랑한다. 공군에서 「텍스트」 파일럿(생활을 해

은지 九日 동안 나는 언제나 위험과 싸우는 전투비행을 했다. 그것은 내가 제 2차대전중 「커터리스」 P-40으로 五〇회의 전투출격을 하는 동안에 조우(遭遇)한 위험에 조금도 못지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모고모고 속속도 비행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투) 하전 十분이다. 몇번이나 반복한 세밀한 조작절차를 다시 한번 외운다. 조그마한 「커핏트」안에 나즈막하게 앉아서 발을 방향타(方向舵)·페달 위에 얹는다. 지금 조종장치는 가볍게 움직이지만 떨지 않아 「티롤리」중령의 비행계획에 따라서 四분간의 굉장한 고속도 비행을 하게 되면 곧 어지고 말 것이다.

四분이란 얼마나 긴 시간인가? 시계의 초침(秒針)을 바라다 보면서, 여섯개의 「타이어」가 모두 「팡크」난 「휴먼」을 물고 움직일만한 산질을 二四〇초 동안 굉장한 속도로 내리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X-1A로 나의 목표고도까지 도달하자면 그 정도의 시간을 요한다. 그곳에서 나는 호(弧)를 그린다. 마치 부유(浮遊)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조종능력의

한계 근처에서, 거의 초음속의 실속상태에서.....

그 곳에서 나의 근육(筋肉)은 아프기 시작하여 조종장치를 움직이는 나의 동작은 몹시 심한 경련(痙攣)을 일으키고 떨 것이다. 그러나 나는 좌오를 하고 있다.

「이거」소령은 나에게 「오버콘트롤」을 말라고 주의해주었던 것이다.

루하전 五분이다. 승무원이 액체산소의 공급을 중지한다. 액체산소는 뜨거운데도 끊기 시작한다. 액체산소와 추운 박살공기와의 기온(氣溫)차이는 三〇〇도나 된다.

나는 조종석 루하전호 등을 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다. 너무도 순조롭게..... 비행이 실패에 몰아가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승무원의 진장을 느낄 수가 있다. 「플론」대위는 나를 三三三,〇〇〇 「피이트」까지 끌고 올라갔다.

나는 마치 「피아니스모」가 연주에 앞서 하듯이 손가락을 움직인다. 조종장치를 예민한 촉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는 넓은 장갑을 끼고 있다.

루하전 一分이다. 「테이타·스윗치」를

켄다..... 「카메라」를 돌아가게 한다.....

나는 진장한다..... 루하 五초전..... 四초

전..... 三초전..... 二초전..... 一초전.....

루하!

(비) 행기가 폭탄창에서 이탈하는 순간

갑작이 「부용」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대로 떨어진다. 이제 비행기를 조작한다.....

조심해야 한다..... 「플론」대위가

나에게 준 귀중한 고도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소령이 따라오고 있다.....

「세이버젯트」의 날개를 나의 「커핏트」

가까히 대고.....

제 1 「로켓트·젬버」의 점화(點火) 스위치

치를 돌린다..... 신음하는 듯한, 가는 듯

한, 불평을 말하는 듯한 굉장한 소리가

들린다.....

「제 1 점화!」

하고 나는 「테이타」에 대고 말한다.

「이거」소령은 나를 살펴 보며 말한다.

「보기에 괜찮다!」

「제 2 점화!」

나는 또 말한다.

그리고

「제 3 점화!」

나는 연도도 말미야마 부집지만 三개

「로켓트·젠퍼」로 추적기에서 서서히 떠나 높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서쪽으로六「단일」등 떨어진 곳에「에버레스트」등명이 보이나 나의 조위(照位)하는 F-86으로 F도 四五,〇〇〇에서 원(圓)을 그리고 있다. 「슬레이트·넛」는 셋째의「제이 버젯트」로「모하브」자막 상공에서 나를 기다린다. 지상에서는「메이다」의 눈이 나를 응시(凝視)한다.

동요하는 계기(計器)의 바늘이 안정된 파 더불러 나의 긴장도 완화된다. 「로켓트·엔진」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박을 내다볼 시간은 없다. 고도계(高度計), 속도계, 「맞하·메터」를 주시하는 데 바쁘다. 나는 아직 아음속(亞音速)으로 날고 있지만 속도는 증가되고 있다. 「이지」소령은 훨씬 밑에 떨어져 있다.

고도 五〇,〇〇〇…… 「리틀리」중령의 말대로 「알콜」과 액체산소의 연소(燃焼)에서 발생하는 우유(牛乳) 및 섞인 흰 비행운(飛行雲)이 뒤에 밀어났다. 지상에서 보면 마치 백면(白蠟)으로 푸른 하늘에 한 없이 위로 올라가는 한줄기의 줄을 그리

놓은 것 같을 것이다.

「제4 점파!」

하고 나는 말한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기대며 본다. 제4「로켓트·젠퍼」의 점파(點火)는 전체의「로켓트·엔진」을「스톱」시키는 수도 있다. 그러나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고 비행기는 다시 한번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약)간 기수(機首)를 숙

여 조음속으로 날은다…… 음의 장벽을 돌파할 때 조종장치가 흔들린다…… 다시 기수를 든다…… 수「톤」의 연료가 소모되었음으로 비행기는 훨씬 가볍다…… 나는 「맞하·메터」를 응시한다. 「맞하」…… 「맞하」

2…… 견지(堅持)한다…… 나는 이제 조종능력한게 근처에 접근하고 있다. 나의 밑에는 七〇,〇〇〇

「피이트」의 하늘이 가로

<「에드워드즈」空軍基地 將校俱樂部에서 「적·리틀리」中領, 「스튜어트·차일즈」少領, 「플랭크·에버레스트」中領等 同僚 「리스트파일롯트」들과 한때를 즐기는 「머어레이」少領(私服)과 그 夫人들>



놓여 있다. 조종장치가 다시 진동(振動)한다 이번에는 더욱 심하게. 조종장치가 떼뻑한 것 같다. 팔에 힘을 주어 조짐스텝 계을 직인다. 외부의 기압(氣壓)은 나의 피(血)를 끓게 할만큼 낮다는 것을 나는 안다.

고도 八〇,〇〇〇——아직도 상승한다. 여기서 연료가 다 소모되었다. 그러나 타력(推力)은 나뭇머옥 위로 상승시킨다.

(바)로 여기서 「리틀리」중령이 표시한 고도로 올라가고 있다. 역사적인 「말일스본」(路程標)을 지나서…… 八三,二三五 「피르도」에서 나는 새로운 세계도기목(世界高度記錄)을 수립한다. 一년전인 一九五三년 八월 二十一日에 「마티온」카알「해병중령이」 「미클라스」D-1588-11로 수립한 세계기목을 깨뜨리고……. 이제 나는 과거의 그 누구보다도 달(月世界)에 머옥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나는 중량감(重量感)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계기(計器)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빨리 나르고 있다——계기는 「그마일」전의를 일을 표시하고 있다. 나는 땅이 보이지 않을만큼 급상승을 하고 있고 정신이 혼동(混同)된 감이 온다.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뚜렷을 붙잡아 의지하고 싶다.

물건 「로켓트」기는 왼쪽으로 심하게 휘러고 전후, 좌우로 흔들린다! 나는 겨우 조종할 수 있는 X-1A의 신속도(失速

度)로 조종능력 한계를 향해서 물건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한쪽 날개가 떨어진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타(方向舵)에 힘을 주려고 애쓴다. 나의 조정은 정말 순간적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부드럽게 조작하려고 전력을 다하여 진땀을 흘리면서 애쓴다.

이어서 그것은 회복된다. 나는 겁잡을 수 없이 사납게 초음속으로 나선급강하(螺旋急降下)를 한다. 나는 위를 향한 채 도시속 一,四〇〇「마일」로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다!

(무)서운 충격파(衝擊波)가 격렬하게 나의 「로켓트」기를 강타(強打)함에 따라서 땅과 하늘이 빙빙 돈다. 긴 덜츠의 시간이 끝난다. 눈깜짝 할 사이에 운석(隕石)



운재(灰)로 덮여버릴 수 있는 예언(豫言)할 수 없는 자연력(自然力)을 품고 나는 홀로 투쟁한다. X-1A는 그 한계에 도달하였고 무서운 十五초동안 나는 그 「히스메릭」한 번의력을 역제할 길이 없다.

나는 그대로 붙잡고 눌러져서 날온다. 이윽고 나는 무거운 공기속을 근 七〇,〇〇〇까지 떨어진다. 여기에서 점차로 시간과 공간은 다시 한번 융합(融合)하여

九死一生的 生還記

—故障한 C-119輸送機에서 暗黑의 太平
洋海上으로 뛰어내린 飛行士의 手記—



美空軍中尉 케네스·윗트니

「해리·브리네가」와 「제어리·케이
우우드」와 나는 C-119輸送機의 뒷
門에 물려져 있었다. 「해리」는 門을
폐어버리고 우리 세사람은 尾翼이 두
個 달린 그 飛行機에서 뛰어내려 「과
타슈우드」로 太平洋위에 떨어질 準
備를 하였다.

열려 있는 門밖에는 바람이 쾅쾅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나의 심장은
목위에까지 치밀어 올라와 있었다.

똑같은 疑問이 자꾸만 나를 중얼거
리게 하였다. 너는 어떻게 이 캄캄한
어둠속을 뚫고 太平洋바다위에 降下
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大型輸送機로 太平洋을
斷하는 途中 「하와이」群島 東쪽에
서 突然 「엔진」에 故障이 일어났던
것이다. 高度 八,〇〇〇「피트」에
서 繼續 高度를 잃어 지금은 겨우 海
上 一,五〇〇「피트」의 上空을 날
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과일롯트」 「도날드·빌슨」

中尉는 우리 세사람에게 뒷門으로 가
라고 命令하였다. 그와 그의 「코·파
일롯트」 「레이비드·N·히바아르」
中尉는 아직도 「킷트」안에 있다.
우리가 뛰어 내리는 즉시로 그들은도
亦是 「킷트」안에 있는 脫出口를 열
고 뛰어 내릴 것이다.

나는 바로 내옆에서 있는 「브리
네가」를 쳐다 보았다.

그는 安心을 시키려는 듯이 빙그메
웃어 보였으나 그의 얼굴은 蒼白하
였다. 「케이우우드」는 아랫입술을 깨
물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세사람은 疑心할 餘地없이 똑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빌슨」은
飛行機 왼쪽에 있는 第二「엔진」을
「凍結」시킬 수 있을지도 묻는다. 그
렇게 되면 그 「프로펠러」는 回轉을
멈추고 한쪽 「엔진」만으로 「호놀룰
루」에 있는 「히캄」空軍基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묻는다.

「빌슨」은 警鐘을 울리지 않을지

「도물라。」 이렇게 나는 「브리네가」에
게 말하였다.

그는 어깨를 우뚝해 보이고는 如
前히 열린 門밖으로 어둡속을 노려
보고 있었다.

警鐘은 C-119의 뒷門에 달려 있
다. 「과일꽃」가 「커피트」안에서 단
추를 놓으면 그 「벨」은 울린다. 普通
때 같으면 그 信號는 待機中の 落下
傘兵들에게 飛行機가 豫定된 高度와
地點上空에 到達하였다는 것과 그들
이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브리네가」와 「케이우우드」와 나
는 이미 門앞에서 五分이라는 지리
하고도 焦燥한 時間을 보냈다.

나는 繼續해서 생각하였다. 「벨」은
이 그놈의 「엔진」을 얼어붙인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
다. 뛰어내리지 않아도 된다. 暗黒속
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想像할때 나는
은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생전

「파라슈우트」로 뛰어내려 본적이 없
는 것이다.

그 瞬間에 警鐘은 울렸다.

「브리네가」와 나는 七人用 救命뱃
목울 門밖으로 메밀고, 나는 뛰어내
려서 올라고 손을 흔드는 듯한 太
平洋의 波濤위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우리가 「켈리포니아」州 「사크라멘
토」近處에 있는 「맥클레란」空軍基地
를 出發하였을 때 갈아서는 우리 飛
行은 아무일 없을 것 같았다. 나는 美
空軍第一七〇八航空機運搬飛行團 第
一派遣隊에 所屬하고 있는 航法士이

며 派遣隊長「하워드·L·보오」少
領 밑에서 勤務하고 있다. 이 飛行團
은 몇個의 大隊과 派遣隊로 編成되
어 있다. 예를 들자면 「맥클레란」에
있는 우리 派遣隊는 極東에 있는 空
軍基地에 航空機를 運搬하는 乘務員
으로서 航法士와 通信士를 差出하고
있다. 運搬을 마치면 우리는 다시 美
國으로 돌아와 다시 同一한 任務에

對備하는 것이다.

「벨」은 中尉와 「히바드」中尉와 그
리고 「브리네가」는 等中士는 「텍사스」
州 「마마릴로」에 있는 第一七三九航
空機運搬大隊로부터 그 C-119를 「맥
클레란」까지 飛行하여 왔었다. 「맥
클레란」에 배속되어 있는 「케이우우
드」와 나는 그들이 一九五五年 十一
月 八日 일은 午後에 到着하였을때
처음 단났다.

그 이를날 아침 우리 다섯사람은
「찰스·워커디키」大尉와 「도날드·
모스」大尉의 「브리이핑」을 들었다.
金髮에 運動家처럼 훌륭한 體格을 한
「과일꽃」 「벨」은 中尉는 飛行計劃
書를 作成하고 그 밤의 書類를 記錄
하였는데 그 中에는 우리가 必要한
豫防注射을 맞았다는 것과 C-119自
體가 完全하다는 것을 陳述하는 것도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 飛行機는
우리의 目的地인 日本에 病菌을 가져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브리이핑」이 끝난後 나는 「과라 슈우트」와 고무로 만든 一人用 救命 밧목과 救命袋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 또 한 차거운 물속에 떨어질때 큰 도움이 되는 「고무」服도 집어들었다.

「넬슨」과 나는 또한 氣象에 對해서 「브리이핑」을 하였다. 氣象에 關한 限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할 必要가 없었다——日氣는 淸明하리라는 豫報였다.

正午 조금 後에 우리 다섯사람은 C-119에 올라 탔다. 「넬슨」과 그의 「코·과일뿔트」 「히바야드」는 操縱桿앞에 앉았다. 나는 壁을 맞대고 「메이불」에 자리잡았다.

우리 飛行機는 「맥클레란」의 滑走路를 달려 곧 空中에 떠났다. 三十分 마다 내가 우리의 位置를 記錄해서 그 종이 조각을 「케이우우드」에게 주면 그는 本基地로 連絡을 하는 것이었다. 以前에 한번 「케이우우드」와 나는 「필턴」까지 함께 飛行한 일

이 있었다.

太平洋의 中間 即 美國과 「하와이」 사이에는 海上에 固定되어 있는 船 舶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飛行機에 對한 「라디오」信號의 役割을 하고 있다. 「과일뿔트」들은 그 上空에 오면 그들의 位置가 어디인지 正確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間或이 船舶은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을때도 있지만 飛行士들은 그것이 바로 밑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의 C-119가 그 船舶上空을 지나가고 있을때 우리는 그 船舶을 볼 수 없었으나 나는 「메이다」로 우리의 位置를 確認하였다. 飛行機의 두 「엔진」은 輕快한 소리를 내면서 부드러운 진구름을 뚫고 나갔다.

나는 計器를 點檢하는데 꽤 바쁘다. 計器의 數는 相當히 많다. 나는 長距離航行法을 爲한 「로오란」(長距離 盲目飛行裝置) 飛行機의 바람에 對

한 角度를 測定하기 爲한 偏流計, 별(星)의 高度를 測定하기 爲한 六分儀, 飛行機의 方向을 測定하기 爲한 天體羅針儀, 高度計, 速度計等을 使用한다.

몇時間이 지나갔을때 太陽은 西北쪽으로 지기 始作하였다. 間或이 구름에 가리워진 일은 있었으나 햇빛은 大部分의 飛行中 우리를 비추주고 있었다.

「엔진」이 좀 異常하다. 「고」 「넬슨」 中尉가 말했을때는 이미 어두웠다.

나는 왼쪽 「엔진」에서 異常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하였으나 別로 關心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바쁘기 때문이다. 「各者 救命裝具를 입으라」고 「넬슨」이 命令하였다.

우리 네사람은 飛行機의 뒤로 가서 救命袋과 「과라슈우트」를 메었다. 一人用 救命밧목은 「과라슈우트」에 매달려 있다.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가飛行機의 位置를 記錄하였다. 우리는 「호놀룰루」東쪽 約八〇〇「마일」밖에 있었다.

나는 종이 조각을 「케이우우드」에게 주었고 그는 「타디오」로 本基地에 우리의 位置를 報告하였다.

나는 아직도 別로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 「넬슨」은 「엔진」을 「凍結」시키고 그로부터의 燃料을 遮斷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프로펠러」는 結局 回轉이 中止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飛行機에 미치는 抗力이 除去되어 運轉 停止하면 「엔진」만으로 「호놀룰루」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는 運이 없었다. 나는 눈앞에 있는 高度計를 보았다. 우리의 飛行機는 每分 三〇〇「피트」의 比率로 漸次로 하늘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다지 急激한 降下가 아니다. 旅客機가 着陸을 爲해서 降下할 때의 그 程度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太平洋上空에 떠 있는 것이다.

「넬슨」이 「엔진」을 「凍結」시킬 수만 있다면 高度가 낮을수록 有利하다. 왜냐하면 大氣가 더욱 濃厚하고 主翼에는 더욱 많은 空氣가 흡수되어 그 위에 眞空을 造成하기 때문이다.

「넬슨」은 곧 이와 같은 나의 希望을 깨뜨리고 말았다.

「우리는 飛行機를 拋棄해야겠네.」 하고 그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高度 二,〇〇〇「피트」上空에 내려와 있었다.

「자네를 세사람은 뒤로 가서 警鐘의 信號를 기다리게.」하고 「넬슨」은 말하였다. 「케이우우드」와 「브리케」와 나는 急히 뒤로 달려가서 門을 열었다. 警鐘이 울리자 우리는 뛰어들었다. 나는 이미 나의 救命綫의 한쪽을 부풀렸다.

나는 생전에 한번도 「파타슈우트」로 뛰어 내려본 적이 없었으나 只今 나는 空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飛行機에서 뛰어내리자마자 곧 오른쪽 어깨에 달린 꼬리를 잡아당겼다.

「파타슈우트」가 열렸다. 굉장한 힘이 全身을 잡작이 위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고 어깨의 關節이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았다.

「어이!」하고 나는 소리쳤다. 나는 「브리케」와 「케이우우드」가 나의 옆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은 뒤에서 소리쳤으며 나는 다소安心이 되었다.

墨을 풀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暗黒의 世界이다. 甚至於는 나의 손도 안 보인다. 오래지 않아 물위에 떨어지지겠지 하고 나는 生覺하였다. 잡작이 바다는 바로 내 밑에 있었다. 波濤가 나의 발을 할퀴려는 듯이

뛰어 올랐다.

나는 물에 철서 떨어져 그 속에 빠져 들어갔다.

太平洋의 물이 한꺼번에 나의 肺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다.

물위로 다시 떠올라 왔을 때 「과라슈우트」의 「캐노피」는 바람에 불려 나물, 얼굴도 못볼게 파장한 힘으로 끌

고 가기 始作하였다.

나는 큰 失手를 하였던 것이다. 나는 「과라슈우트」를 빼어버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위에 떠

지기 直前に 하여야 했을 일이다. 이제 바람이 나에게 덤벼들고 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뒤쳤다. 됐다, 이제는 등을 아태로 하고

海上에서 끌려가고 있다. 몇噸이나 되는 波濤에 부딪칠 때 以外에는 숨

을 낼 수가 있다.

— 45 —
꿈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가까이 있는 「과라슈우트」의 줄을 파잡아 당겨야 했을 것이다. 그렇

게 했더라면 「과라슈우트」를 움추려 들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과라슈우트」는 如前히 부풀어져 있었다.

波濤는 더욱 나의 얼굴위에 떨어

졌다. 그때 갑자기 一部の 波濤가 「과라슈우트」의 「캐노피」위에 부딪쳐 그

안에는 空氣를 빼어버렸다. 「과라슈우트」는 물위에 적으러졌고 나는

급히 다리와 허리에 서 척대를 붙였다.

나는 고무로 만든 救命 락을 빼어

내어 「실신더」裝置로 그것을 부풀어

올리게 하였다. 「파이트」의 길이를 가진 고무 락이 부풀어 올자 나

는 그 안에 기어들었다.

바닥 물은 파스했다. 그러나 일만 물에서 기어나와 바람을 맞으니 온 몸이 오싹 추워졌다. 나는 추위에 오를 오를 떨었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과라슈우트」와 적어도 십

分間은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時間은 되는 것 같았다.

나는 락목 안에서 「칸바스」의 덮개로 몸을 싸았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고 永遠히 나는 發見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있술에 피가 혼은 것 같았으며 나는 헛바닥으로 피를 밟아서 뻘었다.

飛行機에서 뛰어내릴 때 바람때문에 한쪽 손이 입을 때린 것 같다. 잇발

이 세個 손들거렸다.

나는 만 사람들이 無事히 물위에 떨어졌으며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있는 것일까? 「어이!」

하고 나는 소리쳤다. 아무런 對答도 없었다. 오직 생생거리는 바람소리와

부딪치는 波濤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後에 나는 「브리네가」가 물위에 떨어질 때, 그의 고무 락을 잃어버려서 救命袋만으로 떠있었다는 것을 알

았다.

이 親舊에게는 異常한 일이 있었다. 그는 飛行機에서 뛰어내리기 前에 眼鏡을 벗었었는데 물위에 떨어진 後에 다시 眼鏡을 썼던 것이다. 그의 眼鏡은 뛰어내릴 때 부서지지 않았다.

그러나 「케이우우드」는 運이 나뉘었다. 그는 물속으로 밀리 「과라슈우트」에 끌려가 溺死하고 만 것이 分明하였다.

「넬슨」中尉와 「히바아드」中尉는 「커피트」안에 있는 脫出口로 飛行機를 빠져나왔다. 「히바아드」는 잘 「과라슈우트」를 벗고 고무뱀목에 올라탔다. 그러나 「넬슨」은 물위에 떨어져 「과라슈우트」와 다리 척대를 붙여 버렸을 때 中의 하나가 미끌어져 내려가 구두위에 걸렸다. 「과라슈우트」는 물위에서 그 「과일꽃트」를 끌고 갔다. 그는 무척 애를 썼으나 구두위에 걸린 그 척대에 손을 뻗칠 수가 없었다.

그때 多幸히도 큰 波濤가 구두에 부딪쳐 自由롭게 되었으며 그는 미

친듯이 날뛰는 「캐노피」를 處置할 수 있었으나 그는 그통에 甚한 負傷을 입고 말았다.

한편 나의 고무뱀목은 높이 十五 「피트」로 올라갔다. 내려 갔다 하며 흔들리는 것이었다. 나는 꼼짝도 못하고 波濤가 내위에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물은 나의 배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吐하였다. 저어도 열두 번은 吐했을 것이며 나는 漸次로 氣盡脈盡해졌다.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지 나는 몰랐다. 波濤는 나의 조그만한 고무뱀목을 事情없이 후려 갈겨 뱀목은 마치 꿩이처럼 뱅뱅 돌았다.

몇時間이 흘러갔으나 바람은 끝일 줄을 몰른다. 마침내 뱀목이 큰 波에 부딪쳐 나는 다시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바닷물은 바람보다 따스했다. 나는 뱀목을 움켜쥐고 그 안에 올

라타 「칸바스」로 몸을 싸다. 나는 그 낭그대로 물속에 있을걸 그랬다. 왜냐하면 다음 瞬間 나는 다시 波濤에 부딪쳐 물속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고무뱀목에 기어올라 갔다.

나는 미칠것만 같았고 정말 氣盡脈盡하였다. 萬一 다시 한번 波濤에 부딪쳐 물속에 빠진다면 그대로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상어가 있건 없건 머리위에서 飛行機의 爆音が 들려왔다. 어둠속 어느 곳에 飛行機가 떠 있는 것이다.

나는 옷 호주머니를 뒤져 「플랫쉬라이트」를 고였다. 「보던」을 눌러 하늘을 向해서 「라이트」를 비쳤다. 나는 크게 圓을 그리며 「플랫쉬라이트」를 흔들었다.

「라이트」는 그다지 強하지 못하여서 나는 飛行機안에 있는 사람이 「라이트」를 發見할 수 있을지 疑心

이었다.

空軍 救助機의 着陸燈이 비쳤다. 나
는 發見 되었던 것이다.

그 飛行機는 繼續해서 나의 머리
위를 Ầ�Ầ� 돌았다. 當時 나는 물으
고 있었으나 우리의 C-119가 一五
〇〇피이로 떨어졌을 때 海軍水
上機의 附屬船 한隻이 우리에게서約
八十四「마일」밖에 떨어져 있었던 것
이다. 그 船舶은 이미 우리의 遭難
信號로 警戒中에 있던 다른 船舶을
과 함께 現場으로 달려오고 있는 중
이었다.

갑작이 強力한 「라이트」가 바로 海
상에 떠있는 나의 얼굴을 비쳤다. 그
것은 그 附屬船의 「썬어치라이트」였
다.

그 때와 나는 서로 더욱 가까이 접
近하였다.

내가 그 배를 向해서 갈려고 허덕
이고 있을 때 큰 波濤가 나를 船尾와
「프로펠러」쪽으로 밀어 넣었다. 큰

일났구나, 救助되기 直前に 죽고
말겠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의 머리 위에서는 水兵들이 「로
프」로 잡아매어 놓은 救命裝具를 풀
어 내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 닿을 수
가 없었다. 氣盡脈盡해서 멎음을 저
어 船尾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時時刻刻으로 나는 回轉하는 「프로펠
러」축으로 끌려들어 가고 있었다. 그
때 갑작이 나의 고우 멎목이 나에게
서 벗어나거나 거 巨大한 「프로펠러」
의 입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瞬
間에 나의 全身은 갈기 갈기 찢어질
차태다.

그 때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물거
품이 멈추었다. 危機一髮에 動力을
끊은 것이다.

「거기 있으라」고 한 水兵이 웨치
면서 나를 向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왔다. 그는 한쪽 팔로 나를 움켜쥐고
배를 向해서 헤엄쳐왔다.

배에 타고 있던 軍醫官이 나를 診

察하였고 이어서 나는 굉장한 量의
「블랙·코오피」를 드시켰다. 한時間
後에 「브리네가」가 發見되었다. 그
는 「폴멧쉬라이트」로 信號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도 배위에 올라
왔다.

아침에 太陽이 바다를 붉은 색깔
로 물들일 무렵, 救助隊員들은 「벨슨」
中尉와 「히바아드」中尉를 發見하였
다. 「벨슨」은 「폴멧쉬라이트」를 使
用하기를 願치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는 상어떼가 덤벼들 것을 두려워 하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바아드」
는 그의 「폴멧쉬라이트」를 잃어서 使
用하지 못하였다. 그는 萬一 배위에
있는 사람들이 自己를 發見하지 못
한다면 배를 向해서 구두를 내던질
作定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케이우우드」만은 永永 發
見되지 않았다.

(詩)

귀뚜라미

李雪舟

城 같이 쌓인

倉庫를

酒池肉林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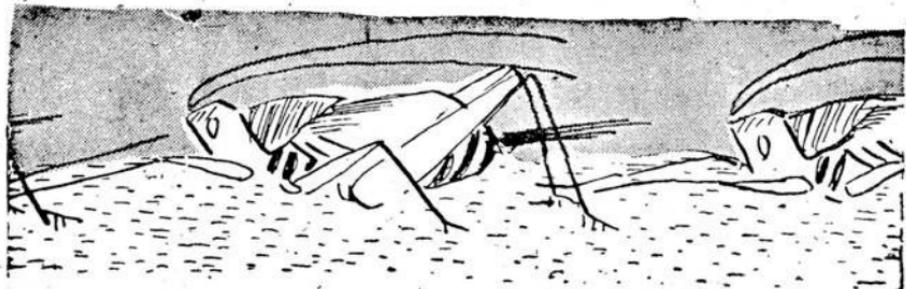
목이 말라도

목이 말라도

大理石 柱礎 밑엔

숨이 막혀

울지 않는다





落葉이

餓死한 냇이나

섞은 거미 줄

鼠族도

치량한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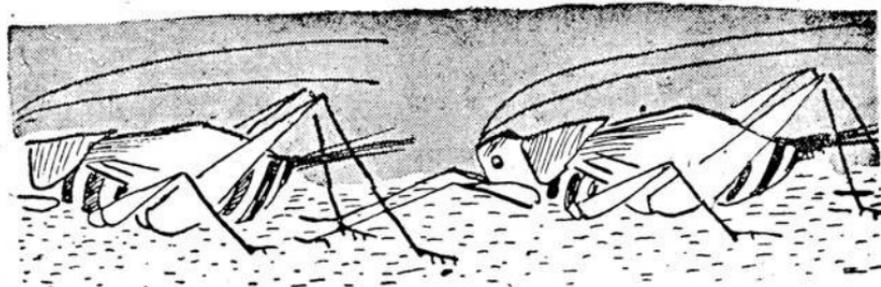
떨어진 벽 물

그런데서

울음도 보람인양

자지 않는다

—一九五六、一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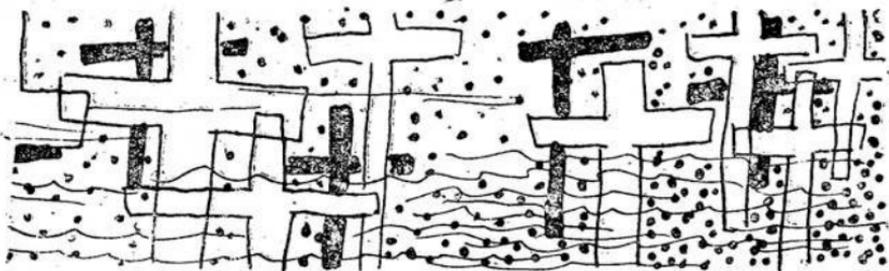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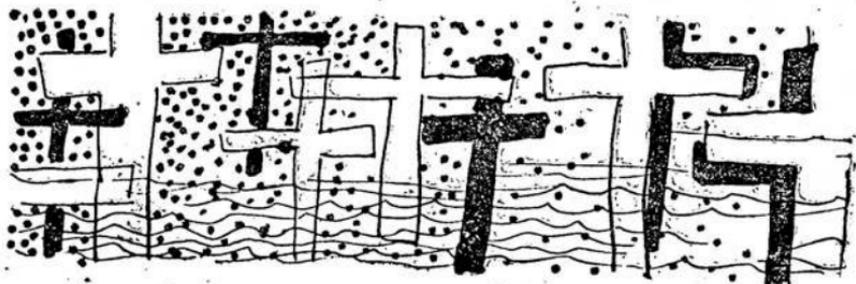
갈보리의 노래 Ⅲ

朴斗鎭

무엇이 여기서는 일어나야 하는가. 午前 아홉시의 갈보리는 여전 하고나. 하늘도 해도있고 여전 하고나. 음성이는 사람속, 지고 오른 나무틀엔 피와 땀의 기름, 하늘 아래 번들거려 고흘기도 하고나. ㄱ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V 내가 쓰는 면류관은 가시로 짜엿은 것, 무지개 처럼 이제야 들려 피는 圓光을 보라. 정...정...정... 내려치는 망칫소리 못소리 망칫소리, 하늘 가로 번져 가며 아름답고나. 진달래불 익이듯 네군데의 못자욱은 네군데의 꽃이임, 흘날리는 爛漫한 꽃깃발을 보라. 솟쳐 나는 고은 피



는 永劫의 長江 먼 하늘 銀河에도 피의 江이 선다. 푹 푹
푹 방울마다 地軸이 울고 푹 푹 땅을 쳐서 피가 흐르던
아으나는 목말라라. 목말라라. 목말라라. 목말라라. 海絨
에 적신 초는 너무 달고나. 하늘이어. 아우성은 높아가고
女人들은 우는데, 하늘이어. 무엇이 여기서는 일어나야 하
는가. 갈보리의 한낮이 캄캄해진다. 캄캄한 어두움이 먹
비로 돼 쏟아진다. 저 바람 소리: 海濫소리: 죽음소리:
어둠소리: 엘라: 엘리: 엘리: 엘리: 저 또 땅 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트는 소리: 아으나는 이제야 다시 한
번 사랑하게 하라. 사랑하게 하라. 사랑하게 하라. 진달
래꽃 짓이 이듯이 여진 가슴 피와 살로 너희들을 싸안게 하
라. 이제야 나는 이기게 하라. 죽음을 원수를 어둠을 밤
을 하늘마다 쏟아지는 죽지 않는 빛 가슴마다 솟아나는 죽
지 않는 빛 평 평 평 꽃빛발이 쏟아지게 하라.



(詩)

파 이 프 20

金宗文

나는城北洞골짜기와三角地사이를 일년 열두달을 하로같이

연기를 휘날리며 通勤하고있다

빌거숭이의 프라타나스의 街路를 타고

씨커스의 줄타기처럼 수 없는 사람들 사이를

서울驛前을 스쳐가고 올때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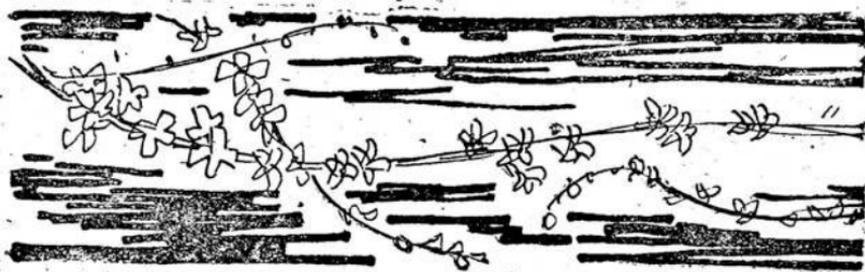
待合室과 廣場엔 어너서 밀려들었나

汽車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봄을 기다리는 街路樹처럼

항시



나의 呼吸이 연기를 한겨울식 내뿜는 生態는
누군가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을

어딘가

나를 기다리게 하는 季節을

나의 마음 가까이 발아드리우기 위해서

나의 靑안 思念의 「배일」을 한겨울식 벗겨버리는 것일 꺼다

그러나

나의 연기는 永遠과 같은 時空속으로 흘러지는 아뉴이와 니힐

언젠가 내게로 오야할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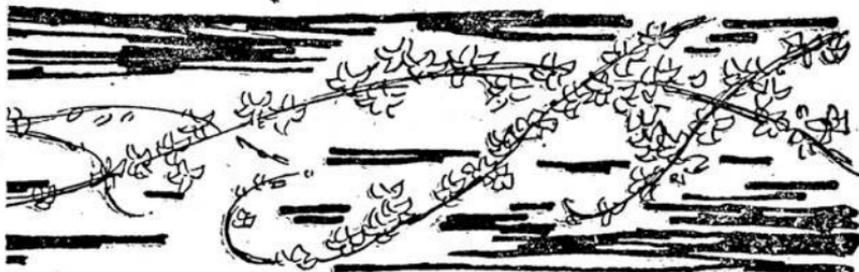
盛裝을 갖추고 닥아오는 봄저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꺼다

나 일찌기

장미의 뿌리로 래어나 파이프라고 命名 되어

都市의 길을 거닌 것도



海邊가와 山속을 헤매인 것도

뭔가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旅程이 있었께다

나 원래의 地熱을 품기며

어떤날엔

구름을 노래해본 것도

구름위로 솟은 摩天樓위에서 하염없이 앉아있던 것도

보다 높은 자리에서

뭔가 맞이하려던 方式이 있었께다

그러나

내가 이처럼 기다리든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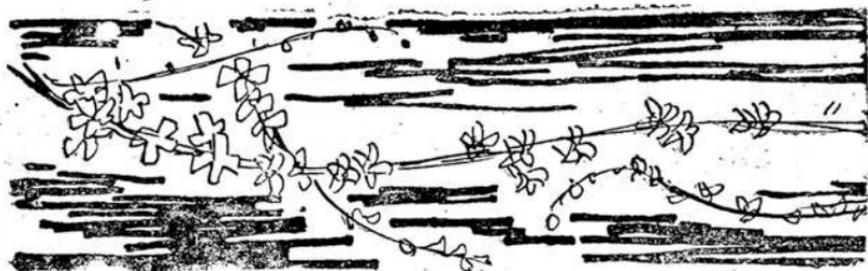
나의 五覺을 노크하는 機關區의 함머소리

언제부턴가 나의 곁에 와있는지도 모른다

나의 곁을 스쳐오고 가며

나를 감싸고 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 자선이 휘여잡을 수 없는 神祕와의 對決



나의呼吸이 내뿜는 연기와도 같이

歴史는

뭔가 기다리며 살고있는 사람들을 실고 왔지만

現代라는 이름의 「驛」에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이미 왔어도 찾아낼 수 없는 사람 사이에

깊은 煙幕이 가로 놓였고

그 넘어 들려오는 汽笛소리

그것은 사람이 만든 汽笛소리 였지만

연기에 거슬린 悲鳴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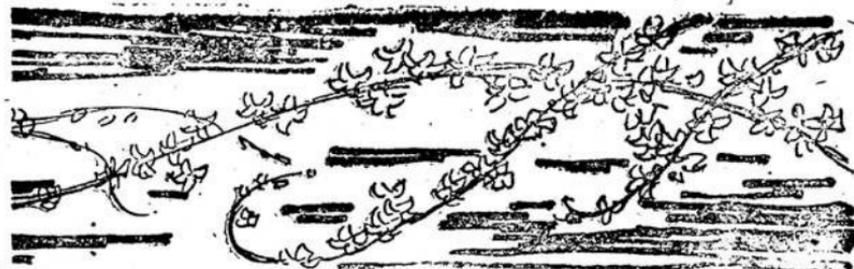
나는 이와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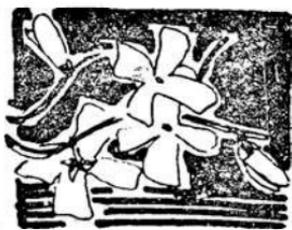
서울驛을 重心으로 한城北洞골짜기와三角地사이는 均衡을

잃은 天平秤

일년 열두달을 하로같이

나의 연기를 휘날리며 通勤하고있다





軍

人

과

社

會

邊 時 敏

戰爭있는 곳에 반드시 軍人이 있는 것은 贅言을 要하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社會學者는 歷史時代에 이러한 戰爭의 頻度와 年數를 調査하여 人類歷史는 戰爭의 歷史이며, 人類歷史의 過半以上이 戰爭이었다고 結論지은 일이 있다. 勿論 그 結論에 對해서는 여러 角度에서 再檢討할 必要가 있으나 人類社會에는 戰爭이 많다는 點만은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말한다면 社會가 原始乃至 未開의 段階에 朔及하면 朔及할수록 戰爭乃至 鬪爭이 輕微또한 少規模의 것이었으나 社會가 近代化할수록 戰爭은 더욱 苛酷 또한 廣範圍해지고 있다.

人類社會가 群族·氏族·部族의 段階를 거쳐 民族社會에 이르러 따라 戰爭은 廣範圍해지고 苛烈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라 社會에 있어서의 軍人의 必要度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 社會가 狹小未開의 段階에서 漸次廣大한 民族·國民社會로 擴大함에 따라 自衛攻擊·傭兵·職業軍人·國民皆兵의 段階를 밟게 된 것이다. 勿論 現代는 最後의 段階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戰爭發生의 過程에서 본다면 掠奪과 防禦·異民族에 對한 沒理解·利害衝突等 여러가지 段階가 生覺된다. 現代는 利害關係의 衝突과 思想的 對立에 漸次內容이 變化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特히 現在와 같이 國際的 緊張이 高潮되어 있는 時期에 있어서의 軍人의 存在意義는 重且大함은 두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筆者는 現今과 같은 戰時 或은 準戰時에 있어서 軍人이 社會에 對해서 取하여야 할 몇가지 點에 言及하려 한다. 于先 軍人의 社會的地位로부터 말한다면 一般的으로 軍人뿐만 아니라 사람의 社會的地位는 그 사람이 그 社會

의 存立發展에 對해서 어떠한 機能 或은 어떠한 職務를 遂行하고 있는가에 따라 決定되는 境遇가 많다. 戰時下에 있어서의 軍人の 職務 或은 機能은 社會의 存立發展에 對해서 가장 重要な 것이다. 그 社會의 盛衰를 決定하는 것이 卽 軍人인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가 戰爭의 危機에 處하게 되자 軍人の 社會的地位는 높아지는 法이다. 그리하여 戰爭하는 社會에 있어서는 軍人は 社會의 尊敬을 받고 軍人の 社會的 勢力은 強해지는 것이다. 그와 反對로 戰爭에 直接關係없는 者의 社會的地位는 低下되고 輕蔑·輕蔑의 對象이 되기도 한다. 例컨대 未開社會는 一般的으로 平和롭기 때문에 婦女·어린이·老人等의 地位가 높은데 反하여 戰爭하는 곳에서는 연제나 婦女·年少者·老人의 存在가 無視되어 왔다. 또 平和產業에 從事하는 者의 社會的地位도 僻났았다. 이와같이 戰時、或은 準戰時下에 있어서는 軍人の 地位가 向上되므로 軍人の 社會에 對한 發言權이 強해진다. 그리하여 軍人は 勢力이 있는 者로써 行勢하게 된다. 그러한 境遇 軍人으로서 特別히 注意할 것은 自己의 勢力이 強하다는 理由에서 一 殺人을 無視하여 傍若無人의 態度를 取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다. 過去の 戰亂亂世의 時代에는 人智가 未發達하여 軍人の 本來의 使命을 逸脫하여 專橫 或은 愚劣한 行爲로 民弊를 끼치는 일이 있었으나 그것이 通用하였다. 그

러나 現在와 같이 戰爭이 單只 軍人對 軍人の 싸움이 아니고 民族과 民族 或은 國民과 國民과의 싸움으로 變遷한 時期에 있어서는 軍人は 國民全體와의 統合關係를 잊어서는 안 된다. 軍인이 自己의 勢力이 強하다고 하여 一般社會人을 無視하거나 或은 그네들의 意思를 阻害抑壓하는 일이 있으면 그에 對한 社會一般으로부터의 不平不滿으로 말미암아 戰爭은 不利해지고 勝利는 커녕 民族、國家를 一大危機에 빠트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軍人は 恒常 國民의 尊敬의 對象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特別히 軍인과 國民一般과의 差別距離意識이 있어서는 안 된다. 戰爭이 近代化하기 때문에 一線과 後方과의 差異가 없어졌고, 國民全體의 總力에 依하지 않고서는 戰爭은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 매우 困難하다. 軍인과 國民全體가 渾然一體가 되어야만 有終之美를 見할 수 있으므로 戰爭으로 社會的地位가 向上된 軍人は 自己의 立場 乃至 地位에 對해서 自覺하고 國民의 指標가 되어 尊敬愛護의 對象이 되도록 恒常 留意하여 行動하여야 한다.

다음 留意할 것은 國防을 擔當하는 軍人は 恒常 戰力을 昂揚할 處에 있으므로 勝利를 爲한 힘의 昂進은 精神面에 있어서 存在하지 않은 새로운 價値를 發見하게 된다. 그러한 새로운 價値가 卽 戰鬪力을 高揚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文化的 創造를 意味하기도 하지만

極히 그를 戰鬪力高揚에 限定해서 말한다면 그러한 因素로서 敵에 對한 憎惡心이 있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敵愾心乃至 敵에 對한 憎惡心은 戰鬪力을 昂揚시키는 因素가 된다. 그런데 憎惡心은 反價值的인 것, 卽 換言한다면 敵에 있어서의 惡을 發見하면 發見할수록 敵에의 憎惡心은 높아지는 것이다. 또 敵보다 自己가 價値 높은 存在라고 意識하면 意識할수록 自己를 威脅하는 敵에의 憎惡는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敵의 惡을 發見하고 自己의 善을 自覺하는 것은 憎惡心을 昂揚하여 戰鬪力을 強化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戰爭에 對한 自己의 正常化가 成立하여 惡에 對한 善의 鬪爭으로서 敵에 對峙하는 關係上, 戰爭이 長期化하면 할수록 敵에 對한 惡과 自己에 있어서의 善을 發見하는 態度를 強化하게 된다. 이러한 일은 民族・國家의 存立發展을 爲해서 必要하다고 生覺되고 또한 當然한 處事라 하겠으나 그의 結果로서 敵에의 憎惡와 自己讚美를 上昇強化하여 冷靜한 客觀의 態度를 喪失하게 된다. 卽 換言한다면 敵을 冷靜히 또한 正當하게 觀察 或은 評價하는 態度를 잃고, 그 위에 自己自身을 正當하게 判斷하는 心조차 잃게 된다. 그리하여 自己의 일을 無條件 正當視하고 敵을 無條件 알잡게 된다. 그리하여 客觀性을 잃은 無謀한 言論과 行動이 社會內部에 盛行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戰爭에

不利한 結果를 가져오는 두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또 그러한 態度는 第三者의 反感을 사서 敵意를 誘發할 可能性이 濃厚한 것이다. 卽 興奮熱狂에 넘쳐 第三者에 對한 配慮를 잊어 버리거나 或은 無視하는 境遇에는 오히려 戰爭에 不利한 結果를 가져오는 法이다. 그러므로 冷靜한 態度를 잊지 말고 敵을 알고 自己의 正當性을 國內外에 널리 알리며 自國民과 第三國人之 是認과 同情을 얻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戰爭은 民族 或은 國家가 對外的으로 어떠한 目的을 이룩하기 爲한 하나의 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戰爭이 目的이 아니고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手段으로서 採擇되는 것이 卽 戰爭임으로 戰爭으로 말미암아 結果하는 非建設的인 犧牲과 戰爭의 意義를 恒常 比較檢討하는 態度가 軍人에 必要한 要素의 하나이다. 好戰的인 民族이 언제나 滅亡하고야 말았다는 歷史的事實을 잊지 말아야 하고, 戰爭을 爲한 戰爭, 征服을 爲한 征服은 極히 無價值的인 것임을 明記할 必要가 있다. 한편 戰爭은 民族 或은 國民이 다같이 協力結束하여 外敵으로부터 自己民族 或은 自己國民을 防衛하려는 共屬意識을 強化하는 境遇가 많은데 社會內部的 紛爭相克이 激化하여 社會內部的 統一이 破壞되는 境遇에는 社會內部的 對立鬪爭으로 莫大한 國民勢力이 消費되어 戰爭에 不利한 當然한 일이다. 軍隊도 社會集團의 하나이기도

하나 戰爭에 있어서는 社會集團內部가 一致團結하여、對立反目으로 消費되는 힘을 節約하여 그를 가장 有效適切하게 戰爭에 使用하여야 한다. 그런데 社會內部 一切의 힘을 外敵과의 鬪爭에 有效하게 使用하기 爲해서는 社會乃至 社會集團 內部를 命令系統的으로 體統을 세우고 上部命令에 社會成員 全員이 一糸不亂 그 命令에 服從하여 內부의 힘이 臨機應變的으로 活用되어야 한다. 命令系統的으로 體統을 세운다는 것은 命令者 相互間에 對立이 있어서 命令이 分裂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그러한 境遇에는 內部秩序는 紊亂해져서 全體의 團結力은 弱化되는 것이다. 이러한 缺點을 補充하는 方法으로서는 命令系統이 單一化되어야 한다. 極端의 境遇를 말한다면 모든 命令이 最高唯一者에 發源할 때 모든 命令사이의 矛盾衝突이 생기지 않고 社會內部는 統一되어 戰爭에 有利해진다. 그러므로 軍隊의 軍紀는 嚴正하여야 하며 軍人은 上部命令에 絕對服從하여야 한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戰時下에 있어서는 「內部結束의 原理」가 社會內部에 支配하여 社會成員은 國家가 要求하는 일에 對해서 服從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個人生活이 抑壓乃至 壓迫되는 일이 많아진다. 萬若에 그를 拒否하여 各個人의 自由를 保持하려 하면 적어도 그 個人은 그 社會로부터 離脫하지 않고서는 그의 實行이 不可能하다 그러나 戰爭이 長期에

걸쳐 持續하는 날에는 內部結束의 原理는 漸次強化되어 個人生活의 모든 領域에까지 干涉하게 된다. 例컨대 私的인 家庭生活 或은 個人의 生命財產에 이르기까지 干涉하게 되어 個人의 自由는 極度로 侵害된다. 그러나 國家權力을 代表하는 者는 一般的으로 軍人이기 때문에 軍人의 勢力은 強大해지고 그에 反하여 一般市民은 戰鬪員을 援助補給할 必要가 있으므로 그에 必要한 一切의 것이 動員되어 個人的 欲望은 一切 中止 乃至 拋棄되고 만다. 그러므로 戰時下에 있어서는 國民은 모두 一致團結하여 軍에 積極協力하지 않고서는 勝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敗北하는 날에는 自己가 存立하고 있는 基盤인 國家·民族을 敵에게 讓渡하게 되어 自己自身の 存立發展이 阻害됨을 生覺할 때 如何한 努力과 如何한 犧牲을 支拂하려도 戰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社會內部를 紊亂게 하는 要素를 除去하기 爲해서도 어느 程度의 社會統制가 絕對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그 統制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며 지나친 統制는 逆效果를 나타내는 境遇가 있으므로 國民의 指導의 立場에 있는 軍人은 國民에 對해서 지나친 統制를 삼가 하여야 하며 統制는 寬容을 併用함으로써 國民의 支持와 歡心을 얻도록 軍人으로서 努力하여야만 軍民一致 困難을 突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戰爭이 자주 일어나는 社會 或은 長期에 걸쳐 持續

하는社會에 있어서는 戰爭에 適合한 國民行動의 價値尺
 度가 自然히 成立하게 된다. 또한 그 價値尺度에 依해서
 國民全體가 規制되는 것이다. 換言한다면 戰爭이 持續하
 는 社會에 있어서는 어떠한 行動·行爲가 國民에게 要求
 되는가, 端的으로 表現한다면 그 社會를 滅亡으로부터 防
 衛하고 한거름 더나가서 그 社會에 戰勝을 가져오는 行爲
 그 社會에 繁榮을 가져오는 行爲만이 社會의 稱讚·尊敬
 ·感謝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戰爭에 있어서는
 勝利함이 最高的 榮光이며 軍人으로서는 勝利에의 要素
 를 具有하여야 하며 그를 缺乏한 軍人은 軍人으로서의 價
 値가 없는 것이다. 特히 軍人은 平時·戰時를 莫論하고
 恒常 勝利에 必要한 精神的인 要素를 平素로부터 涵養하
 여 有事時에는 그를 最高度로 發揮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勝利에 必要한 最高位의 精神的 德은 무
 엇인가? 그는 다름이 아니라 勇敢·沈勇·果敢·剛毅의
 德이다 이러한 德을 缺乏한 軍人은 如何히 知識이 있고
 好人이라 할지라도 軍人으로서는 充分치 못한 것이다. 例
 컨대 古代 埃及에서는 勇猛·愛國이 國民最高的 德이었으며,
 羅馬에 있어서는 勇猛·愛國이 最高的 價値였다. 또한
 거기에서는 戰爭에 勇氣없는 者는 價値없는 者로서 蔑視
 의 對象이 되었다. 또 歐洲中世의 戰亂時를 보아도 騎士
 들의 最高的 德은 어떠한 일에도 두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例를 보아도 分명한 바와 같이 生命
 을 걸고 싸우는 마당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두터워하지
 않는 勇氣가 必要한 것이다. 勇氣없는 者가 어찌 잘 싸
 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軍人은 恒常勇氣있는 者라야 하
 며 平素 그러한 要素를 涵養하는 데 專心하여야 함은 贅言
 을 要하지 않으나 勇氣있는 軍人이 되기爲해서는 正直
 ·自信·素朴·儉素한 面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軍事
 訓練이 徹底한 軍人은 戰鬪에 自信이 생기고, 勇敢해지
 는 것은 當然한 理致이다 軍人은 그러한 精神的要素를
 堅持함으로써 國民의 尊敬對象이 되어야 한다.

또 戰爭은 集團的인 鬪爭이기 때문에 鬪爭에 參與하는
 者와 그렇지 않는 者와의 區分或은 分析은 大端히 어렵
 운 일이다. 그러한 境遇 諸社會成員들이 지니고 있는 明
 白한 共通特質을 基準으로 삼아 適否를 判斷하는 境遇가
 많다. 例컨대 皮膚의 색·衣服·言語·其他 그러한 標準
 은 많으나 當面の 敵과 같은 特質을 가진 者를 全部 敵으
 로 삼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共通된 特質이 果然 敵性을
 띠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判斷하여야 한다. 무
 슌가 닮은 것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가 하면 三八線을 앞두고 또
 한 思想的對立이 있는 現實에 直面하여 同族間에 있어서
 의 敵否判斷이 表面上 매우 困難하기 때문이다. 非合理
 的인 識別判斷은 一掃되어야 하고 또 戰鬪員과 非戰鬪員

과의 識別에 特別한 注意를 하지 않고서는 眞實한 敵을 노치고 그와 反對로 良民을 敵으로 取扱하게 된다. 特別한 注意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편 戰爭같은 集團의 個人的인 것이 否定되어 團體에 歸一하기 쉽고, 따라서 生命·人格 등을 無視乃至 輕視하는 境遇가 많다. 그러므로 戰爭하는 社會에 있어서는 殉國殉死가 最高의 德으로 看做되고, 또 그러한 德을 養成하는 第二次인 德으로서 或은 個人的인 것을 輕視하는 나머지 儉素·簡素·廉潔 등의 德이 軍人으로서는 尊重되어야 한다. 또 上官과 下位者가 서로 一心協力할 必要가 있으므로 特別한 人에 있어서는 上官에 對한 下位者의 服從이 強調됨과 同時에 下位者에 對한 上官의 恩惠가 強調된다. 그러한 關係上 軍人에 있어서는 信義·忠節·恩惠의 德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와 反對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軍人이 自己의 私有物 或은 自己의 生命을 輕視하는 나머지 他人의 生命財產까지도 輕視해 버리는 境遇가 過去 歷史에는 많았다. 例컨대 良心의 苛責도 받지 않고 平然하게 家屋을 燒却하고, 財產을 剝奪하는 등 或은 殘忍 無慈悲한 兇暴가 公共然하게 行해지는 境遇가 많다. 例컨대 羅馬에 있어서는 捕虜死刑을 一般에 公開하여

一般市民들은 그를 즐겼다는 말이 있고, 또 封建社會에 있어서의 復讐가 容認되었고 또한 一般民의 義務가운데 큰 義務의 하나이었다. 勿論 軍人은 自己生命을 아끼지는 훌륭한 軍人이 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他人의 그것까지 輕視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은 當然하다. 自己의 生命財產은 輕視하나 남의 그것은 尊重해 줄 수 있는 雅量이 軍人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若干言及하였으나 戰國에 直接關係없는 것은 輕視되기 쉽다. 卽 羅馬에 있어서는 產業에 從事하는 奴隸가 賤視되었고 「스팔타」에 있어서는 知識을 求하는 所謂 哲學者는 輕蔑의 對象이 되어 學問·藝術에 卓越한 者가 「스팔타」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 歐洲中世에 있어서도 亦是 「스팔타」에 類似한 狀態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일도 注意하여야 하겠다. 現代에 있어서는 一見 戰爭에 直接關係없는 것처럼 生覺되는 것으로 間接的으로는 重大한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이 許多하다. 그러한 事情을 無視해서는 안 된다. 國民總力戰이라 하는 現代戰에 있어서는 國民全體의 生活領域 乃至 活動領域이 直接 或은 間接으로 戰爭에 關係없는 것이 없다 싶이 되어 있으므로 軍人으로서 社會全般에 걸친 聯關性을 無視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筆者 文理大教授)



웨이크스피어 眞否論

李 允 熙 譯
李 允 熙 作

『웨이크스피어』의 과연 『웨이크스피어』이 있는가?

『웨이크스피어』-『베이콘』同人論이 이 論說에 의하여 終止符를 찍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이 論爭의 아마도, 여기에서 釋然히 論破 되었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을 問題일 것이다.

보통 『스트래트포드』-『에이번』胎生의 『우일리아』

웨이크스피어의 作品이라고 알려진 戯曲을 누가 썼는가 하는 問題에 대한 論說은 지금에 있어서 一生을 두고 읽어도 다 볼 수 없을 程度에 達한다. 여섯 나라 말로서 四千卷 이상의 單行本과 論說의(故) 『조세프. 에스. 개만드』 教授의 書誌에 의한) 그 임지한 十七名의 作家를 내걸고서 그 主張을 擁護 또는 反駁하고 있는 것이다. 『씨터 더. 티부紙』는, 近來에 提議된 이 여러 作家에 對한 激烈

한 贊否兩論의 많은 書翰을 出版하였다. 그들 중에서,

『웨이크스피어』를 除外한다면, 『베이콘』과, 일약 『오크스포드』에서 나타나 地步를 獲得한 十七世紀의 『에드워드. 베일』伯爵이 으뜸자리에 서게 된다. 그 바로 뒤에는 『버트랜드』伯爵과 『더비』伯爵이 따라오고, 그다음 『에드워드. 다이어』卿, 『로버트. 버튼』, 『윌터. 로리』卿 『크리스토퍼. 마로우』들에 와서 支持者가 초터져 男女同 權主義者들의 贊同의 많은 『앤. 하사웨이』가 末序를 차

지하고 있다.

大體 國家들은 서로 그 나라의 英雄을 다루어 誇示하는 것이 常情이라 독일 사람들은 오매동안 그 戲曲의 作家는 실에 있어 「독일 사람」이라 主張해 왔고, 또 쓰면 사람은 그가 틀림없이 「스라브 사람」이라 지금도 斷定하고 있는 터이다.

作家 問題를 내걸고 여러 支持者들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이치(理致)에 맞도록 꾸며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教育도 받지 않은 시골뜨기가 어떻게 그 戲曲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廣範한 知識을 그처럼 가질 수 있었겠는가?」하는 데 對하여서는 모두 어떤 無理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疑問은 戲曲 作家를 讚揚하는 者들이 그들 偶像을 全知全能하다고 생각하는 神經質的인 要求에 基盤을 두고 있으며 「셰익스피어」는 「이 世上의 모든 것 모든 相關性」을 다 알고 있었다는 「슈메켈」의 말과 같이 어떤 主張은 「벤·존슨」 「一五七二—一六三七 英國의」이

대즉 高名한 批評家들에 의하여 斷然 拒否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치기 學者者들에게는 無條件 마음에 드는 主張으로 여겨져 온 것 같다. 그리고 이 假定을 立證하려고 여러 論爭家들이 「스트래트포드」 사람은 아

주 一字無識꾼이고 그가 사는 都市는 「도그렛치」의 郊外에서 低俗한 天狗의 한 구물이 언제나 영문모를 소리를 써부렁대며 흥진탕 뒷골목을 더더더 더 往來하는 것 같은 몽매한 곳으로 나타낼려고 애써왔던 것이다.

그러나 실재에 있어서 十六世紀의 「스트래트포드」는 아담하고 開化된 곳이었다. 아마 「셰익스피어」의 아버지가 버려지는 한 「존·셰익스피어」가 거리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罰金刑을 받은 것은 事實이며 이것이 가지는 意味는 쓰레기를 거리에 散亂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 쓰레기를 버리면 그 집안 家長이 罰金을 물었다는 그 事實인 것이다. — 이것은 市民의 한 프라이트로서 二十世紀 「시카고」 市民의 프라이트보다 저우기 앞서고 있는 한 證左라 보겠다. 이 都市는 公立中學校와 훌륭한 敎會 및 기타 여러 建物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現在 美國에 있어서 크기가 같은 各개의 都市에서 볼 수 있는 것들보다 健實한 것들이었고 아마도 文化面에 있어서 는 더 自足的이었음지 모른다. 모든 知識活動은 아직 首都에 吸收되어 있지 않았고 文化는 不安定한 그림자나 한몽치의 平凡事처럼 한場所에서 大量生産되어 시골로 傳播해 나가지는 않았다.

作者 自身에 대한 履歷을 알려주는 記錄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確實히 戲

曲을 썼다고 해서 그가 學識이 있었음을 證據해야 한다는
 必要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런컨』은 실제에 있어 學校
 를 다닌 적이 없었지만 그의 『게리스버그』 演說이나 두
 번째 大統領 就任辭는 도저히 教育을 받지 않은 사람이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참으로 만약 『셰익스피어』
 『가』가 조금이라도 無識한 시골뜨기였다면 그를 내려잡는
 사람들은 그가 무식쟁이라고 主張하였을 것이며 그를
 正정한 作家로서 조금이라도 前面에 내세울 理가 없다。
 이러한 盲目的인 方向으로 問題를 끌고 들어간 한 片目
 的인 泰斗인 『제이·토마스·푸니』도 이 陷穽을 認定하고
 서 무작정 자기를 따르는 弟子에게 『셰익스피어』가 낮
 은 血統과 淺한 才幹의 所持者며 格下된다 하더라도—
 『푸니』氏의 研究에 의하면 「어느 程度 下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結局에 가서는 「오르스포드」
 鄉의 補助官이며 적어도 尊敬할만한 人物이라는 것을 銘
 記케 하고 더푸니없는 冒險을 하지 않도록 注意시켰던 것
 이다。

이 커다란 『셰익스피어』 「神祕」로 말하자면 要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만큼 그 사람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그러나 우리는 『베이콘』을 除外하
 고는 다른 어떤 代置者보다도 『셰익스피어』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분명히 『셰익스피어』는 그

時代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市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것이라고 하는 戲曲은 그에 의해서 三十年 동안에
 걸쳐 發行되었고, 그들 著作權은 결코 侵害된 일이 없었
 을 뿐더러 當時의 二十名이 넘는 文人들은 여러 境遇에
 그에 관해서 이야기 했고 稱讚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天才를 評하고 있는 것이다。그의
 生涯에서 우리가 모르는 期間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셰
 이크스피어』와 代置할려는 거의 모든 사람 生涯에 있어
 서도 그러한 期間은 있는 것이며 『셰익스피어』의 社
 會的地位와 代置하려는 다른 者와의 社會的地位의 差
 異를 생각할 때, 『셰익스피어』에 대하여 고쳐 評 많이
 안다는 것을 우리는 僥倖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다。

모든 挑戰者 中文學의 時間的 量的 見地에서, 그리고
 支持者의 評判, 수효, 및 質에서 볼 때 제一人者는 『프
 덴시스·베이콘』이다。『베이콘』을 내세운 것은 一七八五
 年이며 그 根本論點은 戲曲 作家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
 을 것이라는 것과 『베이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知識을 獨占하고 있었다는 假定에 基
 盤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두 假定은 모두 眞實性이 없다。『셰익스피어』의
 戲曲은 틀린 곳이 많은 것이다。『보헤미아』가 海岸線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베로나』에서 배를 타고 『미라노』로 가는 것이라든지 『콜셋트』를 입은 『크메오파토라』女王이 撞球을 하는 것이라든지 『헤르더』(호머의 詩의 勇士)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하르텔』을 引用하면서 存在하지도 않는 大學校를 다니는 것이라든지, 古代『로마』

時代에 時計가 있고 또 『존』王(一六七?—一二二二)英國의 王(前에는 修道院이었으나 一四〇〇年頃 精神病院으로 使用)을 잘 알고 있었던 거라든지, 존 『고을』民族이 아

도 部分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 불란서의 王이 있었다 하는 따위의 誤謬를 많이 犯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誤謬를 列舉한다면 그것은 여러 페이지를 차지할 것이다. 三十年前에 많은 權威者들이 『레이크스피어의 英國』이란 題目의 座談會에서 그 作品들을 決定的으로 評價했는데 거기에서 『레이크스피어의 여러 知識分野를 檢討한 結果는 어떤 그의 驚嘆者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대하고 特殊한 知識을 『레이크스피어』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結論을 내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은 『베이콘』支持者가 기동으로 삼는 그의 廣範한 法律知識도 『에리자베스』時代 法律 權威者인 『아서 안더힐』의 調査에 의하면 『깊은 것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證明하였다.

『베이콘』의 全知性은 細密히 檢討하여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베이콘』이 그의 領域內에 모든 知識을 吸收해들었다는 것을 자랑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數世紀 동안의 研究者들의 意見은 그가 모든 領域을 占有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確實히 『베이콘』의 書籍을 通한 研究는 戲曲作家의 그것보다도 相當히 넓은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로 作者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많은 것을 『베이콘』이 著作해냈다고 해서 그를 厚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베이콘』은 『仙女王』(英國의 詩人) 및 『憂鬱의 解剖』(神學者인 로버트 버론의 스핀서의 作) 및 『憂鬱의 解剖』(神學者인 로버트 버론의 廣範하게 文學에서 많은 引用을 해가며 論한 것)마저 넣어서 모든 『에리자베스』朝 戲曲 著者라고 떠들어 왔다. 좀 더 合理性을 잃은 主張者는 (왜냐하면 確實히 누구의 作이라고 斷定을 지을 수 있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므로) 『온테뉴』의 隨筆 『愛路歷程』을 비롯하여 『어리석은 이야기』(조다산 스위

○四年) 및 『로빈슨·크루소』도 그의 著作이라고 하는 것

이다. 이들 중의 첫번 것은 젊었을 때 불란서어로 써본 것이라 하니 그렇다 해주고라도, 나중 셋은 아마 『베이콘』이 『센트 알벤스』에 埋葬된後 五二年부터 九三年間에 걸쳐 나온 것이기 때문에 傳記上의 問題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한 解明은 세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베이콘』이 原稿만을 남겨 두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는 다만 죽음을 假裝함으로써 아무런 干涉을 받음이 없이 이처럼 多量の 著作을 내는데 必要한 便宜性을 얻기 위하여 다른 者를(아마도 石棺에 넣기 위한 者를) 대신 發見하여 墳墓 속에 넣었을 것이라는 것, 셋째로는 그가 『산 프란시스코』의 『FCA 우인들』 女史와의 通信에서 特別한 暗號를 사용한 바와 것이 靈的世界에서 그들을 口授하여 著作시켰다는 것이다.

『베이콘』을 내세우는 者에게는 안되었지만 그가 『셰익스피어의』 戲曲의 眞作家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다. 그에 대하여 알려져 있는 職責의 範圍과 그의 認定된 著書의 量에 비추어 秘密로 더 三六篇의 戲曲을 暗號나 또는 平文으로 썼다는 것은 그 나라의 아주 教育없는 자가 썼다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文體가 관이하게 달라 같은 사

람이라고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베이콘』의 文體는 威嚴이 있고 沈重하고 簡潔하다. 『셰익스피어의』의 文體는 熱度와 光輝가 넘치고 豊饒하여 簡潔하지 못하다. 이 두 사람을 다 알고 있었던 『존슨』은 이야기하기를 『베이콘』의 演說은 아주 簡潔하여 만약 듣는 사람이 기침이라도 하고 옆이라도 돌아보면 그 뜻을 놓치지 않는 데 『셰익스피어의』 多辯은 程度를 넘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노상 抑制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베이콘』의 大研究者의 한 사람인 『스페딩』은 누구든 『베이콘』의 어느 著作에서든지 다섯 줄까지의 글이 『셰익스피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疑心할 바라고 말하였다.

『오크스포드』 伯爵은 그를 내세운 年數가 짧기는 하지만 지금에 있어 아주 重要な 자리를 차지하였고, 누나보다도 그가 아닌가 하는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만약 戲曲의 作家로서 伯爵을 主張하는 사람들 역시 그렇다고 보듯이 未詳人物이라면 『드 베일』 伯爵을 내세운 것도 또한 재미나는 假說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크스포드』 伯爵을 支持하기 위하여 내건 證據는 戲曲에 關한 限 『우이리암 셰익스피어』와 比較할 때 매우 薄弱한 것이며 그는 그 時代의 한 主要劇作家로서 알려져 있을 뿐인 것이다.

때로 論爭이 잠잠할 때에 아직도 핏대를 울려, 이 伯爵과 「스트레트포오드의 백정 아들」과는 그들이름의 小한 類似點 以外에 結付시킬 아무 根據도 없다고主張하는 者들에 依하여 이 伯爵을 진짜 作家라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호이크텐스톤』氏가 指摘한 바와 같이(一八九四年十一月六日 자 썬터데이 리뷰紙) — 以前에도 數百 사람이 言及했다. — 「스트레트포오드」사람 『레이크스 피어』의 遺言書에 依하면 그는 戲曲 初演時의 俳優 初版 編輯者인 「버베이지」와, 『헨인』 및 「콘필」들의 「친구」인 것이 確定的으로 밝혀져 있고, 戲曲의 많은 句節은 그가 劇作法을 아마튜어 이상으로 잘 알고 있었음이 明瞭한 것이다. 確實히 戲曲은 어느 것이나 自筆로 된 것이 없고, 또 이렇 이렇다고 그를 目擊한 이도 없고, 어떠한 때에 이 場面 場面을 만들었다는 確證을 주는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한 一般의인 推測에서 提起한 證據보다도 그 외에 남아 있는 것이 더 믿을 만한 힘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다. 참으로 만약에 二百年 또는 그 以前의 어떤 著作이 이것이 같은 이름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正말 써워졌다 하고, 모든 參考物이 一般적으로 著作者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면 이는 한낱 謀略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正統의인 位置를 證明하기는 거의 困難할 것이다. 만약에 『세

이크스피어』가 作家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정말 한번 써주해 볼 힘트는 對象을 願한다면 이제한 「번스워프」가 「어리석은 이야기」를 썼다」는 것을 證明해 보라. 아주 빈틈없는 偽證과, 여지껏 알려진 證人들을 널리 買受하는 것을 包含하여 著作者라는 것을 스스로 감추고 秘密에 부친 것은 戲曲을 쓴다는 것이 一般적으로 그때 切한 職業으로 간주되므로 그랬다고 說明하며 이것이 萬一 一般에 알려 진다면 著作家의 熱望인 宮廷人이나 政治家이 될 可能性에 終止付를 찍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針小棒大 格으로 誇張되어 있다. 이음 있는 舞台를 위하여 作品을 쓴다는 것은 確實히 『에리자베스』時代에 있어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地位가 政治家 밑에서는 것으로 생각되기는 했다. 그러나 作家를 천하게 보고 挑戰하는 者들의 뒤를 쫓은 關心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거개는 그 時代에 있어서 그들은 적어도 演劇의 道樂者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더비』伯爵은 「일반 俳優들의 戲曲作家」로서 알려졌으며 俳優들의 大後見人이 었던 『미리츠』는 一五九八年 『오르스프오드』의 演說에서 그를 「우리를 중에서 가장 喜劇을 잘 쓴 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버어리』 (二〇五

一九八、英國의 政治家에 리 자베스 女王의 最高 顧問)는 그러한 活動을 否認한 것 같고 또 『에리자베스』 女王도 어느 程度로 戲曲 活動을 하게 했는지는 疑問이나 『제임스』 (一五六六—一六二五)에 리자베 女王 다음의 英國의 王) 王은 이것을 承認한 것이 疑心할 바 없는 것이다.

『드·베일』이 설혹 自己 죽은 뒤에 라도 만약 戲曲을 自己가 썼다는 것이 偶然히 알려지게 될 可能性과 또 그와 對等해 나설 사람에게 대하여 措置를 講究해 놓지 않았다면 그러한 不名譽에서 그의 이름을 두었이 除外되게 할려고 努力했다는 것은 아무런 意味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綻露가 어떤 問題거리가 될려는 것을 正當히 評價하지 않는 世代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事實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戲曲이 그가 죽은 後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그 戲曲은 이미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것이 確定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또 만약 『셰익스피어』가 정말 戲曲을 썼다면 그는 그 出版을 친구나 俳優 同僚들 손에 맡기지 말고 그렇게 했다고 보고 좀더 自己가 關係했을 것이 아닌 가? 라고 問題를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論爭은 다른 『셰익스피어』 代置者들에게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문제

인 것이다. 글세 진작 作者가 그처럼 오랫동안 이름을 간취하여 했으면 왜 그는 그 出版을 좀더 確實히 하지 않았을까? 어째서 그는 적어도 證據가 될만한 것을 바로잡아 두지 않았을까? 戲曲의 全初版은 어떤 作者의 「펜 네임」일진정 그것이라고 歸一시킬 수 있는 程度를 넘어서 마구 손을 댈 句節이 많기 때문에 이런 疑心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著作者가 누구일 것이다.』하는 證據는 거개가 그 內容에서 오는 內的인 것이다. 즉 그것은 戲曲의 事件과 表現 間 및 著作者라고 主張하는 者의 生涯의 어떤 事實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性質의 推理는, 수백 가지의 다른 意見과 相反되는 思想으로써 成功을 본 따 위의 戲曲 作家를 다룰 때에는 危險하기 짝이 없는 方法인 것이다. 만약에 『오셀로』의 어떤 行動이나 思考가 『오크스포드』 伯爵에 適合한다고 해서—실제 그럴듯이—伯爵이 그 戲曲 作家라고 主張된다면, 그럼 『이아고』나 『드먼드』(헨리 六世에 나오는 人物) 그리고 『리차드 三世』는 어떻게 해서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인데도 그처럼 그럴사하게 描寫된 것일까? 그 사람은 어떤 種類의 怪物과 같은 作家이었을까? 또 『로온스』(베나의 두 紳士속에 나오는 種의 이름)

나 「보름」 (한여름밤에꿈) 이나 「오보」 (베니스의 商人) (에나오는 織工) 이나 「오보」 (에나오는 人物)

에 생각을 들릴 때 — 그는 어떤 種類의 어릿광대 作家이었을까? 「버어리」는 「보르니어스」 (하르멜에나) 의 모

델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르스포오드」 伯爵만이 「버어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버어리」만이 그때 살고 있었던 格言에 能通한 老人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이러한 種類의 狩獵이 시작되면 얻는 것은 어떤 野生의 거위 程度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푸니」 氏가 萬一 「에리자베스」의 顧問 「버어리」와 「크로디어스」 (하르멜에나) 間에 비슷한 點이 있다고 主張할 때는 어떤 知識있는 讀者는 그럴 것이라고 默認할 것이다 그러나 「오웨이리아」가 「안느 세실」이고 「오르스포오드」 伯爵이 「하르멜」을 모델 삼은 것이라고 하면 讀者는 不安을 느낄 것이며 또 首肯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

고 「포린부라스」 (하르멜에나) 가 제임스 一世라는 그의 結論에 이르러서는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필연 信憑性이 있는 內的 證據의 한 形式이 있다. 「셰이크스피어」 戯曲에서 종종 있는 바와 같이 「페터포어」는 그것을 使用하는 人物과 그 使用하는

곳에서 아무런 특별한 關聯性이 없으므로, 人物과 같이 생각할 수 없고, 그 作者 自身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그 예로서 「오셀로」가 「그것이 내가 싸워야 할 動機였었다면, 나는 「프롬프터」 없이 그것을 알았을걸」 (二場八三) 하고 말할 때 그는 分明히

俳優 休憩室 말을 使用하고 있는 것이지 戰爭터의 말을 使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人物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二場의 場面은 베니스의 한거리) 그때 이러한 不條

가 로 놓여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누구나 戯曲을 쓴 사람은 劇作에 能通하여 있었다고 하는 말을 正當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 比喩는 分明히 意識的인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마음 自然히 吐露하여 動機와 「프롬프터」關係가 日常的으로 使用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比喩는 戯曲에 많으며 이것들은 作家를 形成한 그의 性品、好、不好 및 經驗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런던 大學校의 「카로틴 · 스피지은」 博士가 蒐集하고 檢討 하였으며, 그의 「셰이크스피어의 이메지」는 아마도 著作者 問題를 손대려 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일 것이다.

예를 들면 戲曲 中에는 매사냥 庭球 및 其他 紳士들이 하는 스포츠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많치마는 (이러한 많은 引用은 다만 貴族만이 著者일 것이라는 證據로서 提出되었다.) 넓이 行하여진 球戲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다른 게임에서 가져온 것보다도 약 三倍가량 많은』을 『스피지온』嫌은 指摘하고 있다. 바다의 이미지는 陸地에서 보는 그러한 것이다. 造園에서 引用한 이미지는 庭園에서 일하는 일꾼이 보는 것이며, 庭園의 所有者가 보는 것이 아니다. (역시 많은 造園 이미지를 使用한 『베이콘』의 그것과는 거의 獨自의 이었다.) 戲曲의 作家는 그 이야기하는 제에서 村生活에 대한 親近한 知識과 가난한 사람과 賤待받은 사사람에 대한 유별난 同情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戰爭에 대하여는 아무런 直接的인 知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가 가장 能한 재주는 大木 技術인 것 같이 보인다. 그는 늘 變幻한 程度로 料理法을 잘 알고 있고, 일면 그의 家庭內의 이미지는 中流農民의 주방, 그때 裕福한 農民이나 또는 小市民의 料理하고, 食事하고 또 普通 休憩室로 쓰는 커다란 방에 集中되어 있다. 잘 換氣가 되지 않는 방의 불, 녹아내리는 촛불, 기름이 마른 燈 그리고 食事와 스토―부위에서 끓는 飮食物의 냄새는 언제나 失敗와 嫌惡의 比喩로서 그의 마음에서 떠올랐던 것이다. 이러한 形象은 그의 時代에 共通

의인 것이 아니며 아주 特異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貴族 侍從者의 子孫이나 또는 國家의 大臣 公爵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와위크사이어』의 시골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一般的으로 容認된 著者를 反對하는 사람은 그들이 그들의 論爭을 證明할만한 充分한 證據를 提示하지 않고서 여러가지 點을 集積한 結果만을 들고(「하레」氏가 말한 「사소한 事實의 방대한 集積」)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 自身の 論理는 그만큼 그들에 反對作用을 한다. 왜냐하면 事實과 可能性間의 差異는 不確性的의 差度이며 그들의 각 推測에서 일어나는 解明되지 않고 남는 疑問은 또한 加增되기 때문이다. 그 처음의 自明한 假定을 容納 못하는 「頑迷한 者」들은 그들이 攻擊하는 事實보다도 疑心한 것을 더 疑心하는 結論만 가져오게 될 것이다.

참으로 만약 失症과 狂증을 느끼면서도 모든 探究을 斷念하지 않는다면 그는 非常한 忍耐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고지한 熱誠에 대한 幻想도 처음 몇번은 辯明이 서겠지. 그러나 이들 漠然하기 짝이 없는 怪物이 남긴 많은 보이지 않는 足跡을 눈을 부릅뜨고 찾는 것은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아주 지루하고 아주 成果없는 일을 하고 있

을을 느끼게 할 것 뿐인 것이다.

×光線과 赤外線 寫眞의 『아슈부르느』 『셰이크스피어』
肖像畫 밑에 『오르크스포드』 『伯爵』의 肖像畫가 있음을 나
타냈다는 점이 流布된 主張을 들추어 생각해 보자 만약
에 『아슈부르느』의 그림이 『셰이크스피어』 肖像畫와 同時
代의 것이 증명되고 만약 그림에 다른 肖像畫가 있
음이 確證되고 그리고 또 만약 이 다른 肖像이 『오르크스
포드』 『伯爵』의 肖像임이 確證되었다고 하면 아무런 예
누리를 해서 생각해도 그것은 怪異하기 짝이 없는 일이
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假定은 하나도 事實로서 證明할
수가 없다。—— 특히 가장 重要な 바로 세 번째 假定이
全的으로 依持하는 두 번째 것이 證明되지 않는다。 모든
面을 집적거리면 後에 『아슈부르느』 그림 밑에 어떤 肖像
이 있음을 假定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冷靜한 探究者
가 寫眞의 이면 『發見事項』 (一九四〇年 一月의 『씨이엔
리피크』 아메티가) 四一八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의 眞
實이 밝혀진 後에 한 肖像이 다른 肖像 (一四世紀 『부리
타니카』 제一七卷 六四下 뒷 페이지 一圖의 『小 프렌츠
볼보스』가 아마도 그런 듯한 『婦人 肖像畫』를 여러가지
로 檢出해서 原畫를 複寫한 것 같은) 밑에 그려져 있는
것이 X光線에 의하여 그대로 나타난 것을 比較해 보고

서 問題의 肖像面에 있는 약간의 처음 運筆 자욱이나 사
소한 變更을 빼놓고 거기에서 어떠한 흔적이라도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물어보게 해 보라. 肖像畫 題目에 적힌
도장에 『오르크스포드 紋章』을 『發見』 했다고 해서 그것
이 바로 證據로서 믿을만한 것도 못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눈만이 類似點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熱狂的인 鐵面皮 漢단이
아무렇게나 친 畫面을 嚴肅한 記錄로서 내놓을 수 있었
던 것이다.

다음으로 『셰이크스피어』 反對論者가 그들에 同意하지
않는 사람을 論駁하는 말에는 『疑心할 餘地가 없다』라
든지 『異論을 부르짖을 수 없다』 따위의 말이 아주 흔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품었던 어느 疑問보다도 가장 끔
찍한 疑問을 가지고 씨름하는 者는 그저 한 말은 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疑心을 품지 않는다면 『스트래트포드』
胎生인 그는 大劇作家인 『셰이크스피어』로 남아있을 것
이며 우리는 그를 代置하기 위하여 提起된 어떤 사람들
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文學講座〉

現代詩와 時調

金奎東



時調은 우리 民族만이 가진 하나의 文學形式인 것이다。이 形式 속에서 우리 民族 固有의 傳統과 民族性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며 民族的인 情緒와 그 風俗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인데 時調의 오래인 形式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生命의 印痕을 풍겨 주고 있음은 否認 못할 일이다。

現代에 있어서도亦是 이러한 意味에서 時調文學은 創造되면서 있고 時調의 現代文學化는 하나의 運動으로서 提起되어도 좋은 問題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文學의 「장르」에서 時調를 어떻게 取扱할까 하는 問題는 오랜 동안에 걸친 우리들의 조흔한 課題가 아닐 수 없었다。

여기 몇편의 時調를 鑑賞 吟味하면 時調의 참다운 맛과 그 精神을 살피 보기로 하고 나아가서 이것의 時代的 背景을 文學史的인 角度에서 檢討해 보기로 하련다。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추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손이 눈물겨워 하노다」

이것은 「元天錫」의 노래인데 唐나라 「杜甫」의 詩 國破山河在하니 城春草木深이라 한 글귀를 생각하게 하는 詩다。

『홍하고 망하는 것이 다 분수가 있는 법이니 고려의 왕궁터 만월대에도 가을풀만 우거져 쓸쓸한 목동의 피리 소릴만 서글프구나!』

이러한데 누옛 누옛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홀로 길을 가는 나그네의 서름이야 오직이나 클까보냐!』 이것이 이 時調의 大意인바 「元天錫」은 人生의 無常을 平易한 言語를

通하여 잘 描破하였다.

누군들 그아니 쓸쓸하랴! 옛날의
영화를 생각하면 만월대의 가을풀
은너무나 쓰라린 情景이요, 게다가
가슴을 태우는 듯 쓸쓸히 울어대는 별
떼 울음 소리는 더한층 처량한 것이
니.....

이러한 애끓는듯한 감회를 「天錫」
은 오직 三行의 짧은 구절로서 표현
해낸 것이다.

「天錫」은 江原道 사람으로 高麗 나
타가 점점 간진들의 손에 넘어감을
보자 원주 雉岳山에 숨어 스스로 발
울감며 詩筆을 벗삼은 自然의 아들
이었던 것이다.

「天錫」의 이 노래를 읽고 생각나
는 時調가 또 한수 있으니 그것은 너
무나 有名한 저 「吉再」의 「五百年都
邑地」인 것이다.

— 73 —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
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잔디 없
네 어즈버 태평 연월이 꿈이던가 하

노라」

이것과 앞의 것을 비교하여 보면
그내용에 있어서 두 같이 인생의 無
常을 맞볼수 있는 것인데 이와같은
虛無感은 우리 時調를 一貫해서 호
르는 하나의 思想型態인 것을 發見
할 수가 있는 듯하다.

「정산은 내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
이 녹수 흘러간을 정산이야 변할손
가 녹수도 정산 못잊어 울어녀어 가
노고」

이것은 「黃眞伊」의 노래다. 이 열
마나 豊富한 情緒의 表現이라. 「푸
른 산은 늘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
속이요, 초록빛 강물은 떠나가는 임
의 정이니, 초록빛 강물은 흘러서 떠
나 간들 푸른 산이야 바뀔리가 있을
소냐. 아——저 강물도 정산을 잊지
못하여 울면서 떠나가는 것인가!」
또 다음 하나 더 같은 작자의 것을
플라볼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 아

나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물이 있을
소냐 인걸도 물과 같아야 가고 아니
오노매라」

이것 亦是 특수한 「黃眞伊」의 詩
情이요, 美德인 마음의 선율인 것이
다.

「眞伊」는 妓生이었다. 妓生이었
으나 그의 天才的인 詩才는 그로하
여 女流詩人으로서의 自立을 꾀지
는 않았다.

세상의 모든 구속과 박해를 견디
어 가면서도 오히려 붓을 들어 아름
다운 스스로의 마음의 노래를 點綴
하여간 그의 人生은 그러나 복잡하
고 괴로울기 限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내 언제 신이 없어 님을 언제 속
였판대 월침 삼경에 울듯이 전혀 없
게 추풍에 지는 잎소리야 내들 어이
하리오」

라는 비통하면서도 안타까운 노래
도 지어낸 것이 아나 있을까.

時調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情의 獨白에 이르르면 그내용도 단 순치를 잃고 現代詩의 그것에도 필 지할 수 있는 복잡성을 가지는 것이 다.

X X

다음은 「朴彭年」의 노래를 살펴 보 기로 하자.

「彭年」은 충신으로서 오히려 그 절 개의 깨끗 함에 당대의 사포가 된 분이 거니와 그의 作品은 亦是 이러 한 높은 절조를 읊은 것이 많다.

「가마귀 눈비 맞아 회는 듯 점 노매 라 야광 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라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 으랴」

「까마귀가 눈비를 맞으니 흰듯이 거 땡구나! 밝은 달이야 밤중이라고 그 빛을 잃고 어두어질리 있겠는가?

세상이 아무리 초려져도 입을 향 한 나의 맺힌 정신이야 바뀔 줄이 있 을까 보나!」

참으로 높은 지조의 予言이 아닐 수 없다.

또 다음 한편을 더 볼 것 같으면 「금 생여수라 한들 물마다 금이 나며 옥 출곤강이라 한들 물마다 옥이 나며 아무리 여필증부라 한들 님마다 꽃 울소나」

물에서 금이 난다 한들 아무런 물 에 사나 금이 나며 산에서 구슬이 나 온다 한들 산마다 구슬이 나며 아무 리 女子는 男子를 따라야 된다 하지 만 아무나 되는대로 順從할 수야 있 을 것이나!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하나의 엄 연한 諷刺이기도 한 것이요 또 하나 의 엄한警告이기도 하다.

「박팽년」은 세종 임금 때에 등조하 여 「成三問」 등과 함께 集賢殿에서 學問을 담고 訓民正音의 제정 研究에 참여한 사람이다.

단종 선위 사건 당시 慶會樓 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던 것이나 「成三問」

이 이를 만류 하였다.

忠淸道 관찰사 한해 동안에 올티 는 글에 臣이라는 글자를 안 쓰고 「巨」라고 썼으나 朝廷에서는 물랐었 다.

다음해에 형조 참판이 되어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잡히니 세조는 재 주를 아끼어 사함을 시켜 귀에다 대 고 「마음을 바로하면 벼슬을 주겠다」 고 피였으나 웃고 대답하기를 「않았 다고 한다. 세조를 향해 「나아리」라고 불렀다.

마침내 驚梁津에서 刑을 받아 죽 었던 것이다. 다음 「李鼎輔」의 時調를 보기로 한다.

「물노라 부나비아 네 뜻을 내 물래 라하나 죽은후에 또 한나비 따라오 니 아무리 푸세의 증생인들 너 죽을 줄 모르는다」

물에 함부로 뛰어드는 나비를 보 면서 지은 노래다.

아무리 초조한 풀속에 사는 짐승

인나비지만 어찌하여 제 죽을 줄을 모르고 이렇게 붙에 뛰어드는 것일까——하고 作者는 안타까워 못견디어 한다.

作者의 이러한 안타까움이 몇줄안 되는 글줄에 모하리만큼 正確하게 나타나 있다. 이것이 「이정보」의 뛰어난 技術이기도 한 것이다.

「있노라 즐겨말고 못노라 슬허마소」
영은이 우환인줄 못영은이 제알손가
세상에 영을이 구분하니 그물 우어
하노라」

같은 作者「정보」의 時調이긴 하지 만 이것은 아주 傾向이 다르다. 먼 저 것이 情的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批評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즉

「가진것 많다고 즐겨워 말고 영지 못하였다고 슬퍼 마시오, 영은 사람 은 입을까 할 근심만 하는 줄인지 못 한 사람이 스스로 알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는 영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시

고려우니 그것을 우스워 하노라!」

라는 大意인데 돈이 있거나 權力이 있는 사람이라 해서 반드시 幸福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스스로의 體驗을 거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時調의 妙味가 있다.

이러한 것을 쓰고 있는가 하면 또 아주 田園的인 樂觀詩도 그는 쓰고 있음을 본다.

「오려 논볼 실어 놓고 면화밭매
오리라 울밀의 외를 따고 보리 농거
점심하소 뒷집에 술이 익거든 외자
일만정 내어라」

——오려버심은 눈에 물을대어
놓고 면화심은 발은 김매오리다.
올타리 밀의 외를 따고 보리를 농거
서, 점심을 지으시오, 그리고 뒷술
집의 술이 익었거든 외상일망정 받아
다 내시오——。

이 얼마나 나 판적이요, 동시에 다
정스러운 文人의 會話이랴! 이는 우
리 民族의 牧歌的인 民族의 一面의

表現이기도 한 것이다.

「이정보」는 延安 사람으로 경주 원년(一七二二)에 進士가 되어 영조 八年文科에 올라 藝文館 교일을 지 나 司憲府持平이 되었다.

이에 앞서 영조께서 朋黨의 싸움

에 진저리가 나서 各黨을 아울러 쓰 니, 정보가 느끼바 있어 時務十一事

를 올리어 極言하였으니 가로되 任 事의 臣下가 洪範蕩平의 실을 빌려 써 그 사사로움을 이루고 忠誠과 사

특함을 분간 아니하고 順逆을 밝히 지 못하여 옛날의 四黨이던 것이 지 금에 九黨이 되어 조정이 朋黨을 없

이 하고자 하되 도리혀 그 당이 늘 었으니 이리하여서야 어찌 흥법을 행

하리오! 전하는이제 오히려 어진 선 비를 구하시면서도 아대 사람에게 접 하심이 그길로써 아니하시어 傲然하 게 스스로 聖되다 생각 하사 선비에 게 경양하시는 정의가 없으시어 學 問하는 이를 山人이라고 물리치시니

有德을 登進하여 儒林을 擧쳐 이르킴
이 어디에 있으리오……하며 절책을
입어 면직이 되었다 한다.

「정보」나 이 문에 좋하니 시호는
文簡이었다. 정보는 친성이 곧 세고
곧아서 걸치배를 일삼지 않는 사
람이었다. 그는 아첨하지 않았다.

그의 글은 거듭 되풀이 하여 만사
탐들의 사랑을 사는 바가 되었던 것
이다.

朝廷에 선지 三十五年 功제가 성
신하여 조정이 무서워했다고 한다.

그는 한때 三洲老人이라고 號한 일
이 있었던 것이라 전해지기도 한다.

以上에서 보아은 諸時調에서 각기
作者들은 固定된 形式에서 조금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담는 內容에 있어서는 自由로 쓸 수 있
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동시에
時調의 素材 或은 그 內容을 이루고
있는 것은 花鳥風月로부터 人生의
無常、或은 歷史의 變遷이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現代詩에 比한다면 縛束된
拘束된 느낌을 가지고 있거나 作
者를 따라서는 이러한 느낌이 덜한
것도 더러 있다.

「황진이」의 노래가 그렇고「吉再」
의 時調가 그러하다.

지금으로부터 四〇여년 전에 일어
났던 우리 新詩運動은 自由詩라는 이
름으로 提起되어서 從來의 四四五調
의 노래 形式을 깨트리고 日常會話로
서 詩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긴 하나
「하노라」「하나라」「하여라」「하니」
「있어라」등의 結句는 亦是 時調文學
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時調의 傳統과 그것이 구
사한 言語의 遺習은 뿌리깊은 싹을
심어 놓았던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時調도 現代文
學의 領域에 들어와서 現代文學으로
서의 한 分身되기를 바라고 있다.

時調의 形式이 現代의 詩精神을 表

現하는데 있어서 과연 足할 수 있는
技能——即 文學運動은 좋은 現象으
로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過去 三〇年 동안 이길에 從事하

여은「鶯山李殷相」氏 같은 分들의
努力이 바로 어떤 계열의 것인가 氏
는 時調의 定型을 지키면서도 그 思
考안은 現代속에 가지려는 姿勢를 가
지고 있는 것이다.

X X

이 試論에서 筆者는 결코 時調의
復興論을 쓰려는 것은 아니나 現代
詩가 그 一面에서 너무 難解한 方向
으로 가고 있는 反面에 時調(傳統的
國民詩의 한 形式)가 날로 衰退하여
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의 유감
스러움을 力說하고자 한다.

時調는 그 發祥의 初期에 있어서
는 흔히 兩班과 貴族과 선비들의 것
이었으나 時代의 오래인 變遷을 겪
는 동안에 그것은 어느새 百姓들의

것이 된느낌이 질다.

現代詩人들——가령 例를 든다면

英國의「T. S 엘리엇은」 「W. H. 오—
든」 「C. D. 루이스」 「스펜더」 또는 美
國의 偉大한 詩人인「칼·젠트버그」

「칼·자피로」佛蘭西의 「폴·바베리」

「폴·에류알」장크토「슈펠비엘」 같

은 詩人의 世界는 理解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나라의 時調文

學은多情스러운 親密感을 부여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定型에

對한 常識만 있으면 日常生活의 周

邊에 흠어져 있는 素材를 모아 作詩

할 수도 있는 容易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戰爭中에 우리들 사이에선 戰爭詩

의 運動이 提唱된적이 있다. 筆者도

戰爭을 主題로 했거나 戰爭이란 具

體의인 現象에 素材를 求한 詩를 많

이 썼거나 이와 같이 現代詩人들

의 課題가 復雜多難한 方向으로 가

고 있을 때에 보다 더 많은 사람의 參

與를 얻어 復活할 수 있는 時調에 對

하여 우리들의 認識을 一新로 이 하는

것은 文學의 社會參加라는 目的을 爲

해서도 多幸스러운 일이 아닐까 한

다.

勿論 詩史的으로 볼때 時調形式은

남은 形式임에 틀림 없다. 現代詩의

勢力앞에 이것이 그 자리를 양보하

고 물러앉은지 오래인 것이나 그렇

다고 하더라도 時調의 生命은 보다

넓은 詩人들의 詩作形式으로 새로운

復活을 보아도 좋을 것이 아닌가 한

다.

X X

印刷術의 發明과 發達이 없었던 古

代와 中世에 있어서는 詩는 單純히

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입으로 傳해지는 「口傳」의 形式으로

存在했던 것이 하나의 事實이었다.

그러므로 이 읊어진 詩는 自然히

지어진 詩或은 써어진 오늘의 詩—

卽 現代詩와는 그 性格이 다를 밖에

없었던 것은 勿論이다.

「五百年 도읍지를 匹馬로 돌아드니

山川은 依舊하되 인걸은 간대 없네어

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던가 하노라」

우리는 옛榮華의 그 리움으로 아로

재겨진 「吉再」의 詠嘆을 잠시 옆으

로 밀어 놓고 다음의 現代詩를 감상

하여 볼 것이다.

「壼 차고 뚜렷한 첫 宣言

베스튼의 캉캉한 陳述뒤에

더 서둘러지도 않고 女王처럼 미고

러져 急行列車는 정거장을 떠난다.

머리도 수구리지 않고 모르는척 능

능하게 그는 초라스레 밖에 다가 불

은 집들과 까스工場과

드디어 墓地의 碑石으로 印刷된

음침한 죽음의 글장을 지나간다.

거리 저편에 망망한 시골이 퍼져있

다.

거기서 速力을 내며 그는 시비를

大海에 뜬 배들의 눈부시는 무거울

갖는다.

그가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때다. 처음에는 아주 낮게 다음에는 높게 드디어 「짜즈」처럼 미쳐서 구비마다 소리치는 汽笛의 노래 귀막히는 줄 「브레이크」

수없는 쇠진 못의 노래를 — 그리고는 가볍게 바람처럼 쇠바퀴의 드높은 노래는 흘러간다.

철길 金屬의 風景 속을 김쫓으며 지나 그는 거친 幸福의 재 세대에 뛰어든다. 거기선 速力은 이상한 모양과 휘한 구비 대포 강철처럼 鮮明한 平行線을 튀겨 올린다.

드디어 「에딘바라」 또는 「로마」보다도 멀리 世界의 꼭대기를 지나 그는 넘노는 언더 낮은 燐빛 流線의 빛만 이 환

밤에 닿는다.

아아 불꽃을 뚫고 오는 별처럼 밤 아무새 노래도

달디단 순이 트는 어느 사자도 比할 수 없는

그의 音樂에 재여 醉한듯 그는 달린다.

이것은 「스티븐 · 스펜더」라는 現代英國 詩人의 作品 「急行列車」이다.

앞의 것은 소리를 내어 흘러서 재미 있고 뒤의 것은 보다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하는 어딘가 복잡하고 難解한 內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吉再」라는 사람의 노래는 한번 읽어서 곧 그 意味를 알 수 있는 內容으로 몇個의 漢字가 가지는 뜻만을 字典속에 찾아본다면 곧 그 全體의 內容에 親해질 수 있는 感情的 要素로서 이루어졌으나 뒤의 것은 그 內容이 무슨 뜻인지 일론 理解할 수 없는 要素로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앞의 것은 時調라는 一定한 形式을 빌고 있으며 外形上에 나타난 音樂的 氣分인 韻律을 그 生命으로 삼고 있는 듯한데 反하여 뒤의 것은 그런데 拘碍되는 기색이 없이 그야

말로 自由로운 形式으로 제작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現代詩는 보다 더 高次元의 敎養을 必要로 해서 비로소 成立되는 것이나 예컨대 「스티븐 · 스펜더」의 內의 世界를 떠받치고 있는 社會的 關心과 心理的 關心 같은 것, 더 具體的으로 말해서 現代의 經濟學이라든가 唯物論 같은 學問分野를 비롯해서 「푸로이드」의 精神分析學 或은 「D · H 로 — 렌스」의 새로운 宗教的 信念에 이르는 等等的 心理的 關心이야말로 現代詩의 內面에 接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反面에 있어서 時調는 좀더 單純한 思考狀態에서도 지어질 수 있다는

點을 쉽사리 體驗할 수 있는 問題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筆者는 時調를 國民文學의 새로운 典型으로서 삼려 보자는 提言을 하고 싶은 것이다. (筆者 · 詩人)



모짜르트의生涯

鄭世文

볼수록 피있게 보이는 세살짜리의
男兒가 自己보다도 다섯살 위인「마
리안네」라고 하는 누나(姉)가 피아
노 教授를 받고 있는 貌를 유심하
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瞬時 동안에 工夫를 끝마친 누나의
뒤를 이어서 椅子에 올라 앉아 장난
감을 만지듯이 「피아노」를 치기始
作하는 것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樂聖 「모짜르트」의 어린時節이었
다。(一七五七年 때)

이 어린 「모짜르트」의 아버지는
「페오폴드·모짜르트」라 하는 훌륭한
音樂家였으며 이 놀라운 天才 어

린이를 充分히 理解하고 사랑했으며
어려서부터 짧은 生涯이기도 하였지
만 「모짜르트」가 죽는 날까지 온갖 精
誠으로 育成하였던 것이다.

그는 自己의 아들 「모짜르트」가 不
世出의 天才作曲家로서의 天分을 타
고났음을 굳게 믿는 나머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모짜르트」를 세살되
는 해부터 피아노를 가르쳤고 또한
作曲工夫도 겸했으며 벌써 다섯살 때
에는 作曲工夫를 本格的으로 베풀게
됨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짜르트」는 네살때에
누나의 五線帳에 메뉴엘(악곡의 이
름)을 作曲記入했으며 여섯살 나
는 해에는 다른 사람은 칠수도 없으리만
한 어려운 協奏曲까지 作曲하게 되
었지만 「모짜르트」自身은 그가 自己
年齡에 符合도 안되는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點에는 조금도 認識이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當然한 일
이라 하겠다.

「모짜르트」의 아버지는 慈愛心이
 강한 분이였으며 아울러 빈틈이 없
는 사람이였었다. 따라서 그는 自己
의 아들 「모짜르트」가 뛰어난 「모짜

「포르」의 技術으로써 돈버리를 한번 해 보아도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따라서 그는 그 地域社會에서 大好評을 받기로 이를 더욱 넓은 社會에 알리게 하는 同時에 돈버리에 도마음이 앞서서 「핀」을 비롯해서 몇 地方에 演奏旅行을 計劃實踐하였다.

특히 「핀」에 있어서는 熱狂的인稱讚을 받았으며 旅行中の 어떤날 「모짜르트」가 皇后的 무릎 위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릴 程度로 입을 마춘일이 있다는 이야기는 音樂家의 挿話처럼 傳해 내려오고 있다.

그後 모짜르트의 아버지는 이보다도 더욱 큰 演奏旅行의 計劃을 세워 「파리」를 向하여 七세의 「모짜르트」와 十二세짜리의 그의 누나를 데리고 演奏旅行을 떠나 途中 여러 地方에 머물러 演奏를 하여 거듭해서 絶

讚을 받았던 것이다. 「파리」를 中心으로 해서 約五個月間에 걸쳐 熱狂的인歡迎을 받았으며 그後 이어서 「몬톤」으로 건너가 一箇年以上 滞在하며 數 많은 演奏旅行을 通하여 稱讚을 받고 돌아오는 途中 또한 各地

方에 들러 演奏會를 가지는 途中 三人中에서 한사람式 交代로 重病에 걸리게 되어 「몬톤」을 떠난지 一年半만 야 歸家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벌써 「모짜르트」는 十一歲며 歸國後는 꾸준히 工夫를 繼續하고 있었다.

一七七〇年과 一七七一年은 아버지 와 「이태리」에 旅行하여 同國 主要都市를 巡回演奏하여 놀라운 그의 才能을 보여 주었고 그後 두번째의 짧은 이태리의 旅行을 끝마친 것이 一七七三年 三月이 있었다.

그後 四年間은 이렇다할 만한 旅行이 없어 主로 自宅에서 作曲에 精通했으며 作曲技法의 發展이 눈부신

바 있어 十八歲때에는 이때까지 作曲出版된 曲만도 二〇〇曲이 넘는다고 한다.



「모짜르트」도 어느덧 成年期에 들어서게 되었다. 모든 世上事에 對한 見解가 轉換하지 않으면 안될 時機가 到達했다. 二十一세의 「모짜르트」는 十四歲때부터 任命되어 있는 大會堂의 指揮者로 있는 自己의 位置가 賤하게 보여 지는 데서 오는 憤慨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苦痛스러웠으나 그렇다 고해서 이에 分明한 反對意思도 表明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를 通하여 長期間의 演奏旅行을 申請하였으나 大會堂 僧正은 이를 頑強하게 拒絕하여 마침내 「모짜르트」는 指揮者로서의 位置를 不得已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後 「모짜르트」는 一七八一年까지 旅行으로 歲月을 보냈다.

이 旅行에서 그는 藝術上으로 어떠한 所得이 있었는지는 모르되 極히 貧弱했으며 經濟的으로는 하나도 렇다 할만한 것이 없었다.

一七七七年에 어머니와 「바마리아」에 旅行을 했던 것이 因緣이 되어 「아로이자」라는 女性을 알게 되었으며 「아로이자」는 「모짜르트」生涯에 커다린 影響을 주게 되었다. 卽直接的으로는 그 女性과는 첫 사랑의 苦惱를 가져왔으며 間接的으로는 「아로이자」를 알게 된 因緣으로 해서 그의 동생(妹) 「콘스탄체」를 알게 되었으며 一七八二年에는 結婚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보다 먼저 「모짜르트」가 「아로이차」를 精神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冷靜한 態度로서 이를 反對하였으며 「모짜르트」에게 「파리」에의 旅行을 命令하여 그 戀情을 잊어 버리도록 計策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約十年間의 「파리」旅行을 거쳐 歸家하였을때는 벌써 「아로이차」는 「모짜르트」를 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그의 戀情을 「콘스탄체」에게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一七七九年과 一七八〇년에는 놀라운 만큼 作曲에 精誠을 드렸으며 一七八一年에는 大僧正이 「모짜르트」에게 다시 自己앞에서 일을 할것을 命令하여 하는 수 없이 一旦 奉仕하게 되었으나 亦是는 날이 갈수록 또다시 屈辱的인 生活에 苦痛을 느끼게 되어 또다시 辭職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一七八一年 以後世上을 떠나가까지 約十年間은 「빈」에 자리잡고 活躍을 繼續하였다.

이 十年間의 生活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貧困과 싸우지 않으면 안될 生活이 繼續되었으며 貧困속에서도 不朽의 大作品을 多量的으로 發表하

게 되었다. 그가二十八歲때에는 그의 아버지가 끝까지 反對하는 가운데서도 「아로이차」의 동생 「콘스탄체」와 結婚하게 되어 精神的으로는 幸福한 生活을 했지만 亦是 經濟的으로 困難한데다 「콘스탄체」 또한 「모짜르트」의 어머니와 같이 살림에는 手腕이 없어서 그들의 生活은 困窮一路를 걷게 되어 「모짜르트」는 作品을 쓰는 외에 가장 싫어하는 音樂 個人教授를 하여 얼마 안되는 收入이나마 바라지 않을 수 없는 形便이었던 것이다.

一七七九年에 作曲한 歌劇 「피가로의 結婚」을 비롯한 여러 作品이 오늘의 有名한 「모짜르트」의 作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名聲은 이들의 樂曲과 더불어 全世界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卽 一七七七年에 歌劇 「돈 조바니」가 完成演奏 되었으며 一七八八年에는 三個月間의 짧은 期間內에 三개의 훌륭한 交響曲 (Ed. 8. C.) 을

作曲했으며 一七九一年에는 歌劇「魔
笛」을 비롯해서 驚異的인 「鎮魂曲」
等을 눈부시게作曲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의 名聲은 날이 갈수록 높
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살아지지
않는 貧窮의 重壓은 自力으로서는 어
쩔 道理가 없는 境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周圍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모짜르트」를 건져 주려는 사
람도 없었다. 이렇게 困窮속에서 생
活하고作曲해온 「모짜르트」의 苦生
도 끝을 막을 날은 닥아 왔다.

卽 그가 三十五歲(一七九一)에 歌
劇「魔笛」을作曲하고 있었을 때 그의
健康은 漸漸 나빠졌으며 歌劇을 作
曲完了와 더불어 「鎮魂曲」을 着手했
던 것이다.

「모짜르트」는 지나친 疲勞에서인
지는 모르나 「鎮魂曲」을 完成도 하
지 못한채 惡性「지브스」에 걸려 一七
九一年 十二月五日에 짧은 生涯로서
그의 一生을 마치게 된 것이다. 樂聖

「모짜르트」는 이렇게 悲慘한 生活속
에도 全人類가 즐겨 감상할 수 있는
不朽의 大作들을 數없이 남기고 들
아갔다.

物質文明이 最高度로 發展되고 있

IN THE YEAR 1910



人類의 美術과 現實의 小考

韓 舜 政

는 現代에서 呼吸하고 있는 우리 知
性人들은 이 「모짜르트」의 偉業에 다
시한번 머리를 돌려 봄이 어떠한가
생각된다. (筆者 晉大教授)

우리가 頭痛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極
히 平凡한 느낌이라도 表現하는 데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生覺하고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生理를

타고 世上에 나오게 마련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表現하려고 生覺한 것이 藝術
發生의 根源이 되었고 古代人類들은 意識
의 行動은 아니면서 하나의 藝術品으로
생각없는 遺物을 現세에까지 남겼으니

이것은 그들의 生活에서의 必要性 때문에
必然의으로 솟아나온 藝術意識以前의 藝
術이었다.

紀元二萬年前 magalathian 時代에 이
쪽했다는 Altamire 의 壁畫는 數世紀동
안을 거쳐서 發達해온 現代繪畫에서도 중
중 要素를 끌어오는 것을 본다면 生物
學에서 系統發生은 個體發生을 되풀이한
다는 理論과 마찬가지로 人類의 歷史도

IN THE YEAR 1910

個人的 生活를 反復하는 것이요 兒童畫의 特徵이 Alamine의 인 것임을 보아 더욱 確實하다.

人間이 世上에 태어나서 成年이 되기까지에는 時間이 必要하고 歷史와 傳統은 長久한 歲月을 要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文化가 完成을 보기까지에는 준비期間과 過渡期가 있어 Renaissance를 마치하기 爲한 中世紀가 있었던 것처럼 完全한 藝術으로서의 美術이 古代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人間의 머릿속에서는 藝術意識이 싹트기 始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意識의 造作한 것이 아닌 어떤 現象인 지라도 一段 人間의 눈에 비친 事實은 두 번째 段階에 들어서는 意識의 發展시켰고 이런 過程으로서 美術活動은 始作되었다. 그러면 藝術作品이란 무엇이 人가 生覺해 본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藝術이란 것은 人間의 感覺과 體驗을 材料로 해서 作家라는 機械의 性格을 포함하고 나타나는 創造物이라고 그 機械란 時代의 生産物이며 社會의 인

背景이 있으므로서 自然的으로 發生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Alamine의 野牛 壁畫에 例를 들어 본다면 그들도 壁面을 裝飾하기 爲한 커다란 建物은 없었으나 그들 生活의 豊足を 바라는 一種의 宗教的인 呪術 行動으로서 洞窟에다 壁畫을 그려 그것으로써 古代를 짐작할 수 있는 우수한 遺物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하나 埃及에 例를 들어 본다면 長久한 歲月을 두고 默黙히 흐르는 Nile 江邊에 한편으로 荒漠한 沙漠이 펼쳐있고 물다는 太陽이 뜨고 지는 건조한 自然環境에서 그들은 藝術的인 아름다움 motifs를 찾아 볼 수도 없는 고장에서 어떻게 偉大한 藝術을 建築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周圍의 大自然에 比해서 人生的 無常을 느끼게 되었고 長生不死의 宗教的인 信仰으로서 世체를 保存하기 爲해서 巨大한 Pyramid와 그의 마르는 모은 藝術의 基礎를 닦았던 것이며 피라미드의 內部를 아름답게 하기 爲해서는 裝飾이 많이 要求되었기 때문에 浮彫로부터 繪畫에 골없는 發達을 보게 되었으며 피라미드는

自然을 背景으로 建築되었으니 비록 그들의 生覺은 藝術을 爲해서 始作되지는 않았으나 結果는 豊富한 藝術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美術은 大개가 宗教的인 思想에서부터 派生되었다가 意識化한 以後의 藝術은 宗教와는 分離되고 따라서 獨立된 精神을 갖게 되었다.

初期에 나타난 藝術은 寫實的으로 나아가다가 차차로 抽象的인 手法 내지 精神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現實을 理想化하게 되었고 地域에 따라 그 特色은 달리 했지만 時代的인 思潮는 東西洋을 莫論하고 거의 같았다고 본다. 그리고 藝術은 어디까지나 現實을 떠나서 存在할 수 없으며 歷史가 있기 때문에 現在가 있듯이 現實이 있으므로서 人間은 理想을 꿈꾸고 藝術을 創造한다. 그러므로 藝術은 그 現實을 말하고 그러므로서 時代的인 혹은 地域的인 特色을 發揮하는 것이다.

그러나 藝術人이 理想을 꿈꾼다고는 하나 人間은 自己以上の 世界를 그릴 수도 없다. 機械文明이 極度로 發達한 오늘날에 서 藝術人은 복잡해진 生活과 精神보다

며 커다란 일을 해보려고 抽象을 向해서 熱中하고 있으나 人間은 人間에서 고치고 生活은 또 그 限界에서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現代美術은 西歐의 主流을 이루고 있어 우리 社會는 그 要素가 우리의 傳統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必然的인 產物이 아니었기 때문에 作家와 大家는 一心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現代의 美術은 現在로서 孤立할 수 없다 그 以前의 寫實主義나 自然主義 浪漫主義를 거쳐 印象派運動의 決算으로서 產出된 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頭腦는 항상 새로운 것을 實現하여 寫實을 깨뜨리고 나선 印象主義면서 또 그것에 不滿을 느낀 立體派野獸派가 또 그에 反對를 물고 이리저리 모든 交叉點에서 不均衡을 느끼는 것이 現代人이라고 말할 수 있다.

傳統的인 것에서 時代的인 特色은 찾지 못한 것에 비해서 傳統은 永久的인 性格을 띠우며 人間의 머릿속에서 永遠히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人間은 더욱 새롭고 進歩的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口味를 들구는 時代思潮와 歷史를 繼

承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歷史는 끊임없이 發展過程의 段階를 밟고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意識以來의 傳統과 지난 時代的인 風潮를 다 綜合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새로운 思潮를 이끌어 갈 것이며 現代에 盛長한 모더니즘은 어떤 觀點에서 方向을 물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態度로서 타아을 순환기를 맞을 것인가 하는 問題는 全人類的 課題로 生覺할 수 있을 것이다.

X X X

앞에서 우리는 簡單히 美術 發展過程을 生覺해 보았다. 그러나 時代的인 思潮보다도 더 直接的이며 現實的인 問題를 生覺하지 않을 수 없다.

現代繪畫가 一般과 距離가 멀다는 핑계로 一部 畫家들이 自身도 알 수 없는 말하자면 自己感情에서 일어나는 情緒가 아닌 無理로서 이루어진 것을 無責任하게 公開하고 이런것은 그 內容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렵다고만 生覺하고 自身도 實은 모으면서 混淆한 評을 해주기만 하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藝術人은 作品을

發表해야 할 境遇에 한番 깊이 生覺한 것을 말하고 싶었다. 구태여 理由를 說明한다면 藝術品이라고 이 들들은 앞에서 그 藝術의 意義를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精神的인 內容을 갖지 않은 되는대로 꾸며진 것을 藝術品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藝術은 作家에 依하여 製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의욕과 슬거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 自身만이 즐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一般은 作家를 向해서 어떤 藝術이 나온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作品을 통해서 그들의 知識을 좀더 높이오 生活이나 事業에 시달린 頭腦를 위로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藝術이란 우리의 生活을 떠나서 孤立해 있는 우상의 存在로 生覺할 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生活에서 美를 배워버린다면 얼마나 살風景하게 될 것이며 흔히 生覺하지 않을 問題지만 우리의 生活周圍의 모든 것이 藝術이라는 事實이다. 人間은 體溫을 조절하기 위해서 衣服을 着用하였으나 후에 그 服裝이 아름답다고 느꼈고 또 그렇게 느끼는 것은 本能的이며

美를 感想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볼 때 人間은 모두가 아름다운 것을 살피고 努力하며 아름다우려고 애쓰고 또 누구나가 다 藝術을 創作하고 있는 것이다.

生活에서 藝術은 不可分의 것이며 또한 藝術은 生活없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는 藝術에서 살며 藝術은 生活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한다.

그머므로 非寫實的인 繪畵라 할지라도 그것은 現實的인 內容을 가지고 있으며 自然을 떠난 現實이 있을 수 없고 藝術도

現實以上の 效果를 보지 못하는 것임을 말해둔다.

그러나 人間은 感情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用途의 生活品에서라도 感情을 느끼고 있어 藝術이란 것은 그 感情을 溫和하게 만들어 주기 爲한 態度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作家라는 名稱을 지닐 사람이 아니라도 各자의 生活感情을 부드럽게 하기에 努力해야겠고 저어도 知識層에서는 스스로가 顯명한 藝術的인 行動을 研究하고 實踐에 옮길 것이다.

그리고 美術의 分野에서 다시 한번 生

三男兒의 名을 달다

유-고의 新聞이 傳

한바에 依하면 「에질트

알렉산더」와 「사이도

아-벨·사이로」氏는 最近

出生한 三男兒에게 各各 유-

고-統領·인도首相에 질트로 大統

領의 名을 다시 디로-네-루-나

셀이라고 稱名하였다. 이들 둘은 디

로-大統領은 大歡迎하고 早速히

이 디로-小兒에게 金時計

를 보내 주었다 한다

에질트의 三男兒

할 때 우리는 現在에 살고 있고 여기 살면서 現代的인 思潮을 두고 우리의 傳統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이 無限히 주어져 있다는 것을 自覺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서 生活이 있고 藝術이 있으면 서로의 連絡을 지을 수 없는 空間이 없다. 예를 들어 본다면 生覺하고 있으면서 實行할 수 없고 藝術을 알면서 利用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잡한 問題가 대안같이 밀려있더라도 때로는 작은 일을 爲해서 큰 일을 회생하고 든든한 基礎 위에 더욱 크고 목직한 建築을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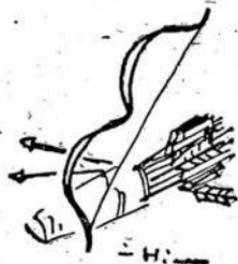
世紀的인 視野를 社會로만 돌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個人으로만 돌리라는 것도 할 수 없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힘이 미치는 限度內에서 自己의 職分을 正確히 처리한다면 다시 말해서 作家個人은 點點의 自己作品에 誠意를 다한다면 오히려 世紀的인 無理나 수치는 가져오지 않게 될 것으로 나는 生覺한다.

그리고 우리는 現實에서 살아야 겠고 또한 우리의 文化는 질서있게 자라야 할 것이다.

名將逸話

— 李舜臣將軍의 全人格을 말하는 逸話 몇 가지 —

白 大 鎮



一、權門에 됨의 탁을 不願

충무공 이순신(忠武公李舜臣)이 일찍이 무과(武科)에 급제한후 춘련원(訓練院)으로 들어가 말직(末職)을 차지하고 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병조판서(兵曹判書) 오눌의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은 김귀영(金貴榮)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느날 김귀영의 집을 자기의 집처럼 알고 무상 출입하는 김귀영의 집 문객 한 사람이 이순신을 찾아왔다. 그는 이순신과도 일면식(一面識)쯤은 있는 사람이었다.

『이공! 이공의 평판이 매우 좋군요!』 귀영의 집 문객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순신을 대하고 앉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요? 나를 찾아 주셨으니.....』

문객은 이 말을 듣고 싱그레 웃으면서 『사실은 이공께 기쁜소식을 전해드리고 저 재배사하고 찾아온 것이 을시다』 하고 쾌히 대답하였다.

『나에게 기쁜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재배사하고 오시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슨 기쁜 소식인가요?

『이소식은 이공께 대하여서는 평생을 두고 희소식(喜消息)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현병조판서(現兵曹判書) 김귀영 대감술하에는 뜻같은 따님 하나가 있는데 이 따님은 제이부인(第二夫人)의 소생이 을시다. 나이는 二九(十八세)쯤된 미모(美貌)의 처자 을시다. 대감께서 이공을 전도가 유망한 부인으로 보시고 그 따님을 이공의 제이부인을 만들 생각을 품으시고 나다려 중매 노릇을 하라 하심에 오늘 이공을 찾아온 것이 을시다. 이공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형의 말을 농담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말은 그만두시무, 판이야가나 하시죠!』

이순신은 이와같이 대답하고 더 들기를 싫어하였다.

『이공! 내 말을 농담으로 취급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왜 익은 밥 먹고 선소리들한단 말씀이요? 이공이 내 말만 들으시면 귀한 집 특판처자를 주척하시게 되겠고 또 따라서 현직 병조판서의 사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되신다면 이공은 유일승

천(旭日昇天)의 세(勢)로 출세를 하시게 될것입니다. 여덟달 마시고 내달말부터 두세요!

문제는 이와같은 말도 이순신의 대답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말을 듣고 세삼스며 허정색을 하고

「형장! 형장의 호의에 대하여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무인(武人)으로 처음 나선 사람이 아니라 이번사람이 권

문세가(權門勢家)의 따님을 작첩하고 그 덕에 출세를 하게 되면, 무엇이 그리 기쁘겠읍니까? 권문에 몸을 의탁하라는 말씀

은 나의 존재를 무시하고 모욕을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부(富)를 위하여 무인으로 나선것도 아니고 귀(貴)를 위하여 무인으로 나선것도 아니옵시다.

이 점을 살피시고 그런 말씀은 다시 두번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은 이와같이 준절히 말해들던 후 문과를 들떠보내고 말았다.

이에 의하여 이순신이 권력에 얽혀서 무인이 아였을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어느때나 광풍제월(光風霽月)같은 심경

(心境)을 갖고 소심(所信)에 살던 무인이었다.

二. 死生이 有命 무서울것 없다

죽도(鹿島)의 난(亂)이 있은후 이순신은 당시에 있어 상관(上官)이던 병사 이인(兵使 李繼)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을구렁에 빠져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순신은 아무 죄도없이 이일에게 참형(斬刑)을 받게 되었다.

이때 동료(同僚)이던 선거이(宣居怡)는 이순신의 죽는것이 애석해서 순신에게 대하여

「이공! 술이나 좀 자시우!」 하고 말을 걸었다.

순신은 이 말을 듣고 태연한 태도로 「술은 왜 먹오랴오?」

하고 반문을 하였다 「술이나 자시면 이공의 마음이 좀 진정 될것 같아서.....」

순신은 이 말을 듣고 세삼스며 정색하면서

「호의는 고맙소 그러나 죽고 사는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술은 먹어서 무엇을 하

겠소? 나는 오직 천명(天命)만 기다리고 있겠소!」

하고 술 권하는것을 거절하였다.

그러하여 선거이는 이번엔 물וג가자고

「그러면 물이라고 한무음.....」

하고 또 권하였다.

순신은 여전히 정색을 하고

「물이란 목이 말라서 먹는게 아뇨?

그렇다면 목이 앉말론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하고 물 권하는것을 거절하고 말았다.

순신은 이와같이 말한후 병사(兵士) 이일의 형문(刑問)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

순(不純)한 성격의 소유자(所有者)이일도 순신의 기백(氣魄)에 눌려 그를 죽일 용기내지 못하고 말았다.

또선조 정유(宣祖丁酉)년간에 있어서는 원균(元均)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순신이

서울로 끌려와 형문(刑問)을 받게 되었는데, 순신이 서울에서 형문을 받으려 할때

에 그의 지우(知友)의 한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이공! 큰일났소 왕노(王怒)가 지금 천(絶頂)에 달해있고 또 조론(朝論)이 이

동(沸騰)해 있음으로 여간해서는 무사해
해지지 않을것 같소 그런데 이공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러나 순신은 평시의 다름없이 태연한
태도로
『나의 목숨이 남의 손에 달렸는게 암중
오러한들 암중을수가 있겠소? 죽이면 나
는 쇠히 죽고 말겠소』
하고 선뜻 대답하였다.

그러한후 순신은 형문을 받고말았다 그
러나 그는 모함이 생기게된 전말을 개진
(開陳)함에만 그치고 모함한 자를 끌어내
원망한 일이란 없었다 그리하여 형에 참
석하였던 사там들은 이에 감동하여 그에
게형(刑)을 가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의하여 순신이 비겁한 무인이 아
니었음을 알수있을 것이다 그는 죽는 것이
무서워서 불의(不義)에 굴복하는 그런 중
류의 무인이 아니었음을 말하여둔다.

三、오만한 陳璘도 結局屈服

그리고 노략(鷹梁)의 대결전(大決戰)이
있기 직전에 명군(明軍)의 총사령관으로

우라나라를 도와주고 있던 진린(陳璘)이
왜적(倭敵)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왜장(倭
將) 소서행장(小西行長)을 은근히 일본으
로 돌려 보내려 하였다.

그리하여 진린은 행장과 대결할 생각을
버리고 행장과 판계없는 남해(南海)의 왜
적을 치려하였다 저간의 소식을 알게된
순신은 진린에게 대하여

『왜행장을 내놓고 급하지않은 남해의 왜
적을 벌공(伐攻)하는가? 이때서는 행장
이름을타서 돌아가고 말터이니깐 나는 그
전법에는 추종하지 못하겠다』
하고 불평을 토하였다

그러나 진린은 여전히 남해의 왜적만
치려하였다. 그러나 순신은 여전히 그전
법에 응하지않고 행장을 먼저 쳐부실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오만한 진린은 얼굴을 불히고
장점을 빼들면서

『이 장점이 안보이나? 이 장점은 황제폐
하(皇帝陛下)께서 나에게 주신것이다 이
장점만을 보려는가?』

하고 위협을 하였다.
그러나 순신은 이 위협에도 굴하지않고

태연자약한 태도로

『황제폐하께서 주신 칼이라면 그 칼은
불의(不義)를 응징하라고 주신것일 것이
다 그런데 그 칼을 탐부로 쓰려하는가?』

나는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다. 죽
이고 싶거든 죽어라. 그러나 내가 대장(大
將)으로 있으면서 행장을 그대로 돌려 보
내지는 못하겠다.』

하고 목소리를 호여 노호(怒號)하였다.

그리하여 수일치않은 진린도 그 이상
더 고집을 하지 못하였고 그 이상 더 위협
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의하여 순신의 담력이 어떠한가
또는 순신의 의기(意氣)가 어떠한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四、兔已精勵 仁愛의 武人

순신은 진중(陣中)에 머물러 있었음이
유계성상(六個星霜)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긴 세월사이애 한번도 여자와의 가까이
한일도 없었고 또 밤이 되면 의대(衣帶)를
풀고 편안히 자는일도 없었다. 그리고 어
느나나 수호의 소식(素食)으로 그날 그날
의 양식을 삼고 단 음식을 먹는 일이 없었

다. 그는 닭이 울기만 하면 불을 켜고 일어나 앉아 문서(文書)도 점열하고 또는 내일의 작전을 위하여 만을 써하고 지냈다.

선조갑오(宣祖甲午)에 이르러서는 순신이 엄병이 걸려 위중한 상태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루도 놀는일이 없이 여전히 모든 일을 보살피고 있었다. 그리하여 부하는 그의 병세가 한층더 위중해졌음을 염려하고.

『장군님! 그렇게 무리를 하시다가 병환

이 더 위중해지면 어쩌십니까? 모든 것을 잊고 요양을 하시옵소서』 하고 간곡히 진언을 하였다.

순신은 이 말을 듣고

『근사한 말이다. 그러나 지금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지 않느냐? 승패(勝敗)가 호 좁간에 있게된다.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상 누어 있을 수는 없다.』

하며 여전히 전투에 나와 지휘하기를 말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전진(戰陣)에 있을 때에는

百三歲의 老人離婚

百三歲의는 「로-브」老人과 八十五

歲의 그의 老婆는 結婚한지 三年밖에 되지 않는에 離婚하였다. 『妻는 수군

수군 잔말이 많다』는 것이 「로-브」

老人의 離婚理由·辯護士는 財産의

分割에 同意하고, 老婆는 月六〇달타

의 扶養料를 받기로 했는에 離婚承

認으로 裁判所가 전 條件은 「로-브

氏는 離婚後 六個月間은 再婚할기로 同意한다』는 것이다

美·南「다모다」州

「브레소」에의

이야기

로-브氏는

「아메리카

안다아」.



어는때나 밤만되면 군사를 조용히 자도록 해준후 자기 자신은 전우(箭羽)를 정리하였고 보선투(船頭)에 서있게 되는 때에는 자기가 친히 궁시(弓矢)를 갖고서 복을치고 대견하였다.

그러하여 부하들은 이를 방편할수 없어 순신에게로 나아가

『장군님! 위태합니다 자중하시옵소서 하고 탄원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순신은 이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말은 다시 두번 하지 마라! 그대를

이 시석(矢石)을 감수(甘受)하고 있는 데

내어찌 홀로 편안히 있던 말이냐?』

하고 선투에서 물러나기를 싫어하였다 한

다.

위에 말한바에 의하여 우리는 이순신을

극기자숙(克己自肅)의 인(人) 우국인념(憂

國一念)의 정면(精勵)의 인(人) 또는 애

인여기(愛人如己)하는 인애(仁愛)의 무인

이라고 부르고 싶다.

五、以私害公 할수는 없다

선조정진(宣祖庚辰)번잔에 있어서는 이

순신이 발포(오늘의 목포) 만호(萬戶)로 있게 되었었는데 당시의 좌수사(左水使)는 성박(成鎔)이란 사람이 있었다.

성박은 이순신에 대하여서는 상관중의 상관이었는데 그는 남달리 거문고 타기를 좋아하는 풍류광수사였다. 그런데 거문고는 오동나무로 만드는 까닭에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람 저사람을 자지로 보내 보았으나 모두다 흰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그의 지우 한사람이 성박을 찾아와

「여보 대감! 요즘엔 오동나무를 구해보지 않았소?」 하고 말을 걸었다.

「요즘에도 구해보기는 구해 보았으나 역시 헛수고만 하고 말았소. 그런데 어디 있던 짐 말해주소!」

성박은 이렇게 대답하고 그에게도 대를 었다.

「그더면 있는 데를 하나 알려들이지! 여기는 사람의 가기만 하면 당장에 얻게 되리다!」

「어디데?」

「발포의 만호판사(萬戶官舍) 정중(庭中)에 오동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람을 보내 얻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성박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은 그날도 사람을 발포로 보냈다.

성박의 사자(使者)는 발포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이순신 판사를 찾았다.

「이공! 수사대감의 분부를 받고 급작이 찾아 왔소이다!」

성박의 사자는 이와같이 말하면서 이순신 앞으로 자리잡았다.

「무슨 분부인데요!」

「이공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사대감께서는 거문고 타기를 좋아하시는데 거문고를 만들 오동나무가 없어서 백방으로 이를 구하고 있는 차에 수사대감께서 이공 관중에 오동나무가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를 여기에다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를 좀 얻으려 온 것입니다!」

이순신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다 들은후

「글세옵시다. 그러나 판사내에 있는 물건은 어느 것이나 다 판가의 물건이 옵시다!」

이 공물(公物)을 내가 어찌 마음대로 처분한단 말입니까?」

하고 준절히 대답하였다.

성박의 사자는 이순신의 거절하는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면서

「말씀만은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이공이 못배이게 해서 내가 빈 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보다도 이공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고 여전히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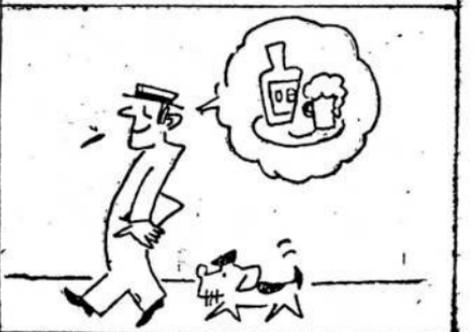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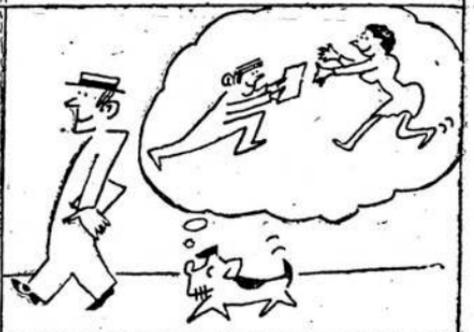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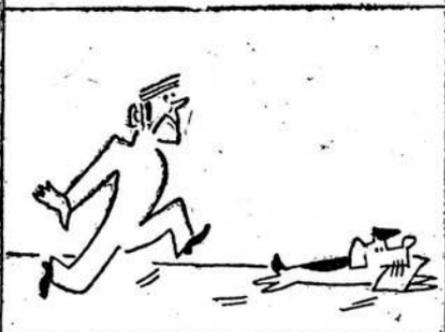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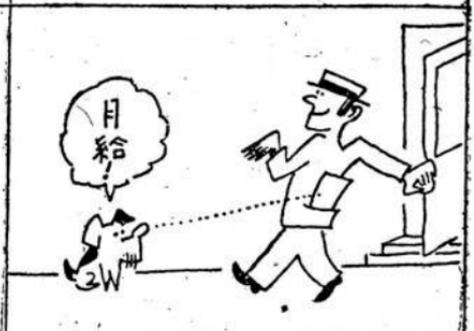
이순신은 이 말을 듣고 새삼스레히 정색을 하고

「하관으로서 상관의 요청을 부응하는 것 잘 못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리(私利)를 위하여 공(公)을 해하는 일은 못하겠읍니다. 이때문에 벌을 받게 되면 깨끗이 벌을 받겠읍니다!」

하고 여전히 사자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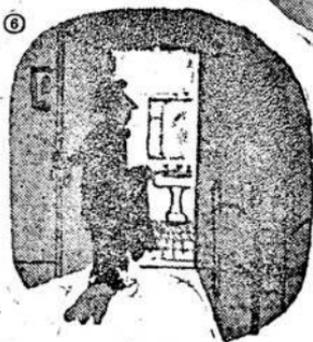
그리하여 사자도 더 요청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의하여 이순신이 이사해공(以私害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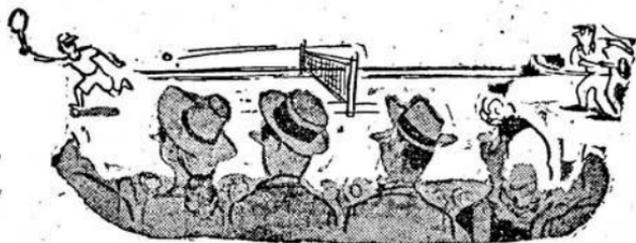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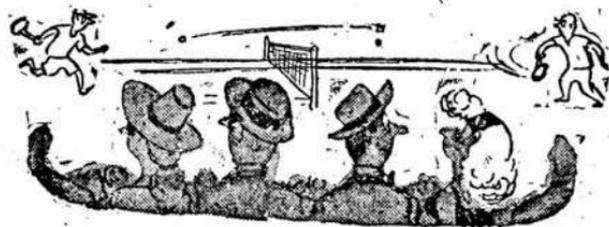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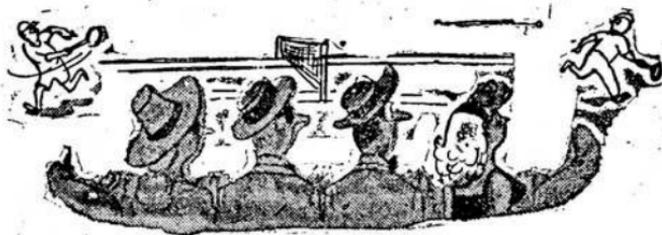
侵入者



어린아이



求景?
鑑賞?



바람에 부치는 글월

郭 鍾 元

식당에 들렀소.

내가 들어간 방에
는 마침 先客이 있
어서 한쪽 食卓에
남자 두사람과 여
자 한분이 식사를
하고 있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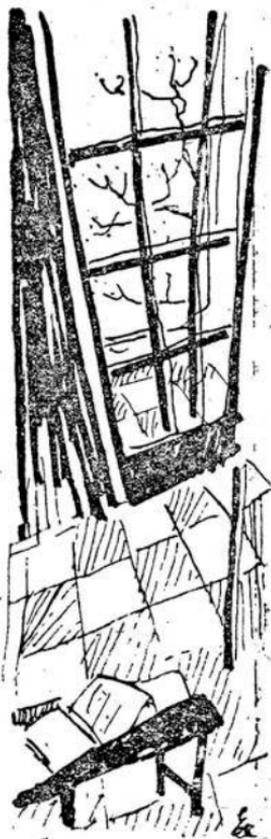
그들의 주고받는 話題로 밀우어
보아 空軍大尉는 △파이롯트▽입이
를 텅고 그 옆자리에 앉은 美貌의
女人은 그의 約婚女에 該當하고 맞
은편에 앉아있는 會社員風의 青年
이 오늘 그 자리를 배풀은 主人格
잡소.

△파이롯트▽가 오키나와(沖繩)까

자 飛行을 하고 어제 돌아왔다는 것
과 오늘 아침에 約婚女와 水原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會社員風의 그
친구를 찾았고 그리하여 그 친구가
遠來의 客을 위하여 대접하는 자리입
을 밀우어 알기에 어렵지 않소.

나는 여기에서 그네들의 관계를 따
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구나
물음치하게 열자리 손님의 이야기
를 엿들으려는 것이 내 본의 아님은
물론이요 마침 오후 네시가 지난 한
적한 자리가므로 피차간의 이야기가
자연히 귀에 들려오기 마련이오.

두 청년은 끝없는 이야기가 그칠
줄을 모르고 꼬리를 물고 잇달았소.



△파이롯트▽는 沖繩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會
社員風의 青年도 자기회사나 사회의
풍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요 어릴
때 같이 지내던 소꿉동무 시절의 애
기로 꽃이 피었소. 자네는 그때부터
말이 없고 무뚝뚝하였지? 자네는 공
부를 하라면서라니 도망을 가고 밤
낮 놀기만 하지 않았나? 하하
얕전해 보이는 大尉와 수다스러워
보이는 會社員風의 青年은 그때부
터 벌써 서로 대차적인 性格의 소유
자였던 모양이오.

그들은 또 자기네 동무들의 이름
을 열거하면서 누구는 장사를 하고

누구는 어느 관청에 있고 누구는 성
공을 했고 누구는 행방불명이 됐고
누구는 신세가 말이 아니고 또 누구
누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서로 아는 대로 소식을 전하기도 하
였소.

나는 옆자리에서 그들의 흥겨워하
는 애기 속에 점점 浸入되어가는 내
自身을 일마 후에야 意識하였소.

人間이 지나온 過去의 追憶 속에
서 自身을 위로하고 自己 滿足을 느
낀다는 것이 常情이라면 〽나나르시스
V가 물 속에 비친 自己 美貌에 혹
하여 마침내 물에 빠져 죽은 것과 무
엇이 다르겠소? 그러나 누구나가 다
홀려간 歲月 속에 自己愛와 自己戀
情이 기쁨이 있음은 속일수 없는 事
實인가 보오.

☆ 隨筆 ☆
그렇다면 더우기 착잡한 現實을 참
간 잊어버리고 自己 美貌에 滿足한
〽나나르시스V처럼 自己 過去에 滿足
을 느끼는 人間의 된들 무엇 그리 큰

잘못이 되겠소.

〽내가 만나는 모든 얼굴에 아로
사겨진 特徵

그것은 나약함과 슬픔을 곁할 뿐
이요 V

이렇게 〽브레이크V는 말했다고
하오. 現實의 不幸과 不合理와 갈등
과 싸움만을 보는 눈에는 해필 〽브
레이크V의 이 말에만 그치겠소.

지난날의 아름다운 꿈을 어루만져
보는 이에게는 가끔 現實의 不幸을
잊고 생각지 않던 自己 滿足을 느낄
수 있는 幸福이 기드는가 보오.

두 青年의 가식 없는 허탈한 우습
속에 문듯 내 눈 앞에는 그 時節의
幻像이 떠오르오.

K兄과 내가 걸던 그 길!
東西南北 四方을 둘러 보아도 山

이나 丘陵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曠
莫한 曠野! 또한 沙塵이 이는 大陸
에는 西녀 따글에 붉은 노을이 기울
고 瞬息間에 휩싸오는 大地의 어두

울을 눈 앞에 두고 들이는 어깨를 나
만히 하여 번쩍이는 두가닥의 鐵길
을 타박 타박 걸고 있지 않았소.

枕木을 밟을 때마다 발은 휘청그
려 저도 누구 한사람 입을 열려고 하
지 않고 물을 끼얹친 듯한 靜寂 속
에서 끝없이도 걷고만 싶던 時節.

마치 人生의 가는 길이 그 철길 처
럼 끝없이 뻗쳐 있는 것 같아 默黙
히 自己대로의 思念에만 사로잡혀 想
像의 날개를 펼치고만 싶던 時節이

새삼 눈 앞에 선하구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의 일을 잊지
못 하오.

더우기 遠征가 나 홀로 시골 길을
걸던 光景을

한 이령이 十里나 넘는 발이 兩쪽
에 주욱 잇닿아 있고 그 발에는 두
길이 넘는 〽고오양V이 길길이 무
성하여 지척을 가리키 어려운데 그
사이 좁다란 길로 걸어 가노라면 六
尺 未滿의 自身이 왜 그리도 보잘것

名言·哲言

★ 사랑은 電光과 같이 侵入해 오고, 友情은 靛靛이 맑은 달 빛같이 스며든다. 사랑은 穫得하고 所有하나마, 友情은 犧牲이 있을 뿐,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要求치 않는다.

(獨逸 詩人 게이벨)

★ 眞正한 幸福은 外部에서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内部의 知識과 德美로서 생기는 것이다.

(希 大哲人 소크라테스)

★ 健康한 肉體는 靈魂에 있어서 는 容室이며 病은 肉體는 監獄이다.

(英國 思想家 베이컨)

★ 「남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實 그半은 거짓말이다.

(英國 小說家 후러)

★ 如何한 男子도 그 妻에 있어서는 英雄이 아니며, 如何한 女子도 그 女子 自身의 英雄에 對해서는 妻가 아니다.

(無名氏)

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소?

☆ 隨筆 서처음으로 自己 自身을 안 것도 같았소. 戰爭을 좋아하고 奇蹟을 좋아하는 世上의 許多한 英雄들을 한번 凡人이 攄친 어떤 길에 홀로 견게 해 보고 싶은 충동이 문득 솟아 나곤 하였소. 그들이 自己가 믿고 있는 自身의 힘이 自然의 힘에 比하여 얼마나 보잘것없이 微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아차하고 참혹한 戰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 아닌가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오.

☆ 隨筆 그 뿐이 아니었소. 어떤 무시 무시한 홀로 가는 길이 나의 精神에 얼마만큼이나 살을 찌워주고 潤澤하게 하여 주었는가는 지금에사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 같소.

☆ 隨筆 오늘 나의 周圍가 錯雜해지고 번그러워질수록 그 時節이 그리워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一理가 있는 것 같소. 人間이 孤獨에 못이겨 허득이면서도 그 孤獨을 못내 그리워하

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소? K兄 벌써 우리가 그 때 헤어진 지도 二十年이 넘었나 보오. 四十고개를 넘어서 돌아다보니 까마아 특한 옛날 같은데 어찌도 나에게는 어찌 일처럼 생생하오. 獮이라는 動物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過去의 아름다운 꿈을 反芻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소.

그러나 不幸히도 우리 앞에 다닥친 現實은 過去의 꿈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게 마련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오.

옆자리의 제 男女가 일어서는 가보오. 그들의 주고 받는 追憶談에서 문득 兄과의 옛일을 連想하면서 바람에 부치는 글월을 몇마디 적어보았소.

나도 이제는 幻像의 날개를 멈추고 일어서야지요.

(筆者 評論家)

☆ 隨筆 ☆

季節엔 어떠한 感情意識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感線이 銳敏한 人間이 짜 증을 내듯 春夏秋冬이만 季節에서 영적이 아닌 二種의 狀態를 보아오는

베이것이 二十世紀 後半期라는 人類生活의 不安地帶에서 特히 느껴진다는 것은 무슨 따로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이 면서도 四月이만, 季節

不可能의 氣層에 머물러하는 位置를 느끼게 되는 것과 무슨 關聯을 지우고 싶은 것이 自然의 廻轉에도 反映된 것일까.

겨울살이에 人智가 지치고 疲勞가 極하였다 하는 것이 다만 世俗의 亂舞狀이 醸出한 것만도 아니고 지난 겨울의 風向이 非正常的이었다는 것

金 東 史

봄 · 四月



이 봄에 屬한다면 倦怠로 은 마음의 公園이 있어 벤치에 기대어 思索의 살마리를 풀다고 하여도 우리가 도모지 過去같은 아늑한 雰圍氣가 造成되지 않고 엉뚱한 原子雲같은

패 季節의 異狀이 神經症을 일으키게까지 오늘의 關係가 이다지 거창하면서도 까다로운 想念을 뒤쫓지 않을 수 없는 習性에 捕虜되고 마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壓力인가

오늘은 空氣가 무게를 가졌다 는 認識에서 解脫하지 못하는가 空氣의 移動性에서 存在를 感知하여야 하는가 非科學的인 思念을 어떻게 너두리 하여야 하는가

출다는 것과 따스하다는 것의 分別을 게울리 하는 線의 鈍感症이 왜 없는가.

과도 파어나나 깊은 關係가 介在된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을 요즘의 流行語인 무슨 「노이로제」로서의 망령을 겪은 뒷맛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心境이 무엇이 왜 이다지도 오랜 時間을 끌고 가는지 그것이 結果하는 終着地는 어느 經度를 되는 건지.

結局은 世俗的인 人事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글을 만든다는 苦役을 치루는 오늘의 現代人이란 層의 亞

☆ 隨筆 ☆

流辯을 든대도 들지 않으면 안 된다
 는人間悲劇乃至矛盾이 그대로是認
 되어야 하는 마당에서 反逆도 못하
 는無骨行勢를 하면서도 몇몇이戀
 愛하고 喫茶하고 流産하고 高尚해야
 하는實로 엄청난 僞證生活의 化身
 들이 構成하는 社會를 우리는 游泳
 하는 것을 슬피 하지 않고 輕率한 물
 질을 하는가.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귀찮은 季
 節을 겪어야 하는 마당에서 亂麻속
 을 헤매면서 正常意識을 恢復하는타
 苦悶하면서도 泰然해야 하는 體面問
 題를 內的으로는 未整理이면서도 建
 築物같이 規模가 갖추워진 것으로 表
 示해야 하는 것이 生活의 標準이라
 고 해야 할 오늘의 不幸은 잇다라 繁
 殖하여 種子는 種子를 낳아 來日은
 假飾무성으로 된다면 어찌될 것인가.

이런것을 哲學하는 品類한 部類에
 서 代를 이어가며 하나의 哲理라고

내세우는 데 이의 後進들은 이것을 安
 易하게 習得하려고 文字解得은 거의
 하치만 서블리 생기고는 泄瀉하는 즉
 들이 많이 생겨 딱한 風景圖가 濫發
 되는 生態의 縮圖가 어떠한 層의 高
 位에 位置하여 冊이나 저드랑에 끼
 고 다니는 高等學生의 幼稚性의 模
 倣꺼리가 되고 하는 것이 하나의 流
 行性처럼 되어 書齋보다도 거리가必
 要한 游泳部族이 들끓게 되는 人口
 過剩狀이 漫性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나 딱한 現實에서 逃避한 것도 許容
 되지 않는다.

봄 四月 正말 語感부터 좋다 그러
 나 이것은 종이 위에 써진 文字로도
 좋고 입속으로 외어보는 音律에도 좋
 다 그러나 한번 발을 매어놓아 거리
 에 나선다면 거기 展開되는 것이 무
 엇일가 말이다.

失業者란 特殊하지 않은 層이 이
 젠 完全히 한자리를 차지 하여 權勢
 가 아니라 똑똑하다는 層을 늘려대

는가 하면 달리는 自動車 電車の 輪
 生命의 消費를 催促하는 警笛에 혼
 들리는 心線 整居生活이나 冬眠에서
 萌芽하여 나태를 퍼는 生이 가장 新
 鮮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體質에는
 細胞의 緊張을 가져오지 않고 弛緩
 性을 撒布하는지.

겨울, 해가 짧다고 黃昏이 깃들면
 惡寒에 오물오물 떨고 한때가 진저
 리 나드나 왜이리 해가 긴고 嘆息
 聲을 들지만 봄이란 늘 아쉬운 季節
 이 되는 것은 東山에 꽃이 피기 始
 作했음일가 무거운 오-바를 벗은 女
 人의 봄丹粧이 魅惑의 이어서 일까 견
 디기 어려운 무더위가 닥쳐올 것이
 念慮되어서 일가.

모두가 宗잡을 수 없는 것 뿐이다
 도모지 意識하지 못하는 意識을 分
 析한다는 것은 헛된 勞役이다. 오늘
 의 生活이, 意識에서 出發한다 하여
 도 漠然한 것이 責任이 없다. 잇고 싶
 은 季節이면서 잇어지지 않는 季節

을 곧잘 意識해야 한다는 意識의 出發點에서 스타-트는 하지 않았으면 서도 이미 스타-트한 것을 뒤우칠 겨 물도 없이 살작지나가버리는 어찌 면 女人의 스카-트자락이 남긴 바 탐의 觸感을 느끼며 뒤로 돌아다 본 다해도 어찌 아지랑이가 끼웠는지 아 몰아몰보이지 않고 외로운 自己에게 도 돌아서지 않을 수 없는 圖表위의 點잖이 오뚝한 自己, 이런 季節에 迷 兒가 된다는 것을 救援받을 수 없는 原 罪같이 深刻한 것이 못되면서도 혼

하지 않는 呼吸속에서 헤매이 자니 절 로 의로워져 繁榮한 都市의 거리에 나선다 해도 櫛比한 建築物이 어지 로울뿐 마음의 定着地란 것이 보이지 않는 오히려 生소한 樹木이 情다운 世波속에서 무엇이든 愛情이란 것 의 技葉이라도 잡아불터면 잡히는 것 이라곤 一種의 虛無한 悲哀뿐, 이런 時가장 사귀기 쉬운 것이 바가 쓰란 麻醉의 神이니 여기 依支하고 산다 는 族屬이 부르는 노래란 어찌 定律 을 定하랴.

力마저 잃었다고 해서 조금도 羞恥 스럽다던가 계면적이 할 아무런 感覺조차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대로 自身만이 가장 올바른 線上을 確保하 고 있다고 하는 것이 可愛롭다고 할 가, 이런 制限된 紙面이 거의 매꾸워 저 極히 散漫하고 不條理한 것을 記 錄한 것이 罪스러지는 것이나 題目을 봄 또는 四月이란 것을 내걸고 보니 이것이 어떠한 年輪에서 오는 것이 지 모르긴 하나 事物이 아주 어릴 때 처럼 正常的으로 보이지 않고 正常 的으로 보이는 것도 오히려 비뚜러

자 붙어야 하는 불피리 소리같이 외 로운 餘音이 波紋하는 줄거리에서 서 성대는 그림자가 또다시 自身인양이 던 感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끝내는 무거운 숨을 뚫아고 할어 질 季節꽃 같은 목숨이라고 諦念도 하지 못할 것,

變調의 리듬을 누가 理解할 것이라 그러나 理解라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하는 따위의 定理에서 出發하지 않은 陶醉境이고 보면 어떻게 風船처럼 등 동머가는 自身이 가장 危殆로운位 置에 있다는 것을 잊고 좋아한다는 그런 아지랑이 思想같은 陰蔽幕이 가

진 것으로 評하고 싶은 一種의 아이 로닐한 心理에서 곧잘 自己와 그다 지 密接한 關係도 없는 일에도 빈정 거러 보는 습지 못한 習性이 生活化 되어 글을 이끌어 나가면서도 그것 이 처음 펜을 들 때 보다는 穩當한데 로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대 로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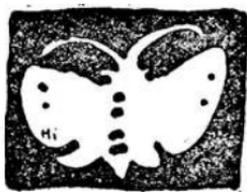
☆ 隨筆 ☆

흔자 있어서 외로운 心思만을 되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 層層 사람은 있고 해도 도모지 氣脈이 通

리워진 幕뒤에서 化粧도 잊고 사는 것이라 할가, 이만때를 가르쳐 病者 取扱한다 해서 그다지 怒여워 할氣

(筆者詩人)

空中危機에의 抵抗



李 光 來

現代意識은 危機의 意識이라고 한
다。不安思想、脅迫意識、恐怖意識、
絶望意識等等……。

日前 某紙에서 主催한 今年度 各
男女大學卒業生 座談會 速記錄을 읽
어 보면 너도나도 이러한 危機意識
때문에 不安한 것으로 全文을 재우
고 있었다。司會者는 자못 안타깝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느끼는
危機意識인지 그本質을 把握하려고
또는 그것을 認識케하려고 示唆하

暗示로서 誘導하였으나 그들의 論調
는 終乃 模糊하고도 漠然한 問答으
로 始終하고야 말았다。

二十世紀의 本質은 곧 危機이기 때
문에 그것을 感覺하였을 뿐이고 現代
人이나 特히 知性人에게는 何等の 責
任이 없다는 따위의 至極히 風潮의 人
病的 意識임에 俄然하지 않을 수 없
었다。實로 寒心스러운 風潮이기에
왜냐하면 大學의 最高 頭腦들이
이미 絶壁한 位置에 到達하였던 까

르르르나 까유—들도 〈回歸〉에로의
赤信號의 旗를 휘둘러고 있는 이때
세 남들이 신고 가다가 버린 廢履를
꺼내고 後進的인 風潮에 趨은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릿광대 같이 보이
기 때문이다。그들이 發音하고 表現
하는 孤獨이니 倦怠니 無責任이니
無意味니 하는 따위의 메코딩이야
말로 無意味하고 無誠實하기 짝이 없
는 虛榮이요 虛僞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의
〈願望과 欲求〉가 있을 것이다。이
무엇인가의 願望과 欲求야말로 그들
人生的 內容이며 眞實이 아니겠는가
? 바꾸어 말하면 이 願望과 欲求의
內容과 眞實에 對하여 具體的 狀況과
限界狀況이 다른 內容으로 距離와
矛盾과 不條理와 他界로서 絶望케 하
고, 恐怖케 하고, 不安케 하고, 脅迫
을 느끼게 하는 意識인 것이다。實로
人類의 歷史는 이 意識에 對한 克服

과 超越과 解放과 救援을 爲한 〈願望과 欲求〉의 歷史로서 嫌惡와 嘔吐로서 시작하였던 것이다. 古代의 文化가 運命에의 屈服과 抗拒로서 反覆하였고, 로마네스크文化가 하늘에 歸依하므로서 定着과 安定을 希求하였다. 그러나 近代에 出現한 칸트, 헤겔, 마르크스 등의 怪物이 神秘와 奇蹟을 科學의 方法으로 解剖하고 分析하고 實證하므로써 神의 實在을 否認하자 人間은 懷疑와 虛妄과 暗朦한 混淆속에 빠진채 絶壁한 運命에 허덕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科學은 스스로 破壞한 神의 領土위에 科學의 王國을 建設하기 爲하여 最高頭腦의 全知能을 動員하였다. 이 知能을 宗教는 善惡果를 먹은 아담의 原罪의 知能이라 警告하고 審判의 날을 豫言하였다. 여기에 對하여 니체는 〈哲學의 意志〉라는 말로 表現하고 超人間의 意志

로서 克服할 것을 提起하였다. 以來 科學은 必死의 總力量은 傾注하여 解剖와 分析에 迫頭하면서 化學, 物理學, 生物學은 勿論, 心理學, 哲學等 모든 科學은 物體 및 精神, 生命의 實體를 探求하려고 努力과 誠實을 다하였다. 이리하여 科學은 神秘와 奇蹟을 征服하였고, 다만 生命과 氣象과 音響을 管制하지 못한다는 段階에까지 到達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마저 征服하지 못한다는 理由는 成立되지 않는다. 最近의 新—스로서는 氣象을 支配한다고 하며 生命은 現實의 으로 延長되고 있지 않는가? 音響管制가 成功할 수 있다는 것은 「洪吉童傳」에서 볼 수 있는 玉響수의 眞術(?)이 아니라 科學的인 可能性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要는 科學이 아직 破壞過程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危機意識이라고 할 수 있다. 原子彈이니 水素彈이니 코

바바르트彈이 果然 全人類뿐 아니고 地球의 運命과 宇宙의 全存在를 뒤집어 審判의 날에 臨하고자 말 것인가? 아니면 人間의 理想과 憧憬이, 地球上의 惡의 秩序를 打破하고 久遠한 願望과 欲求의 內容과 眞實에서 幸福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哲學의 意志라기보다 차라리 人間의 意志가 決定할 段階에 突入하고 있는 것이다. 原子彈이 日帝의 惡을 審判하였을 때 基督敎는 「默示錄」에서 豫言한 일곱재 災殃인 것을 指摘하고 警告하였다. 〈공중에서 불이 날고: 地球 最後의 날이 온다고 하는 일곱재 마즈마 災殃이야말로 〈天堂〉과 〈暗示〉의 啓示와 暗號를 解譯한 사람들은 救援의 날을 맞이 하는지도 모르지만, 人類 大多數의 生靈은 最後의 悲劇을 맞이 하고야 말 것을 默示한 空中危機가 아닐 수 없다. 옛날 이야기 中에서는 善과 惡의

싸움은 眞術과 妖術로서 對決하고
 陸地에서 비롯하여 江으로, 江에서
 空中으로 가서야 決戰을 하고, 다시
 地上으로 回歸하여 善의 秩序가 成
 就되는 것으로 엮어진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어 왔다. 中國小說에도
 많지만 우리 나라 最初의 國文小說
 인 許筠作 「洪吉童傳」에서도 吉童과
 吉才의 對決도 그렇다. 古代고리시
 아 悲劇中 아이스큐로스作 「페르사
 人」中에서도 고리시아를 侵略한 쿠
 제르쿠세스王의 어머니 아투스皇后
 의 꿈에도 이러한 不吉한 豫示 때문
 에 戰戰兢兢하는 場面이 있다.

오늘의 空中危機는 도카비 같은 이
 야기나 꿈이 아니고 科學戰인 飛行
 機의 空中實戰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目擊하여 왔다. B29도 이미
 現在古典이 된 오늘에 젛트機보다 더
 빠른 速度의 飛行機가 바로 우리를
 의 頭上에서 威脅하고 있다. 飛行機

에서 投下한 原子彈의 불꽃이 空中
 에서 閃爍하는 瞬間 제스덤이가 된
 히로시마의 悲劇을 想起하여 보라.
 얼마나 淒慘한 일인가?

이러한 空中危機에 對하여, 現代人
 은 孤獨이니, 倦怠니, 嘔吐니, 無意
 味니 따위의 言語遊戲로서만 迴避하
 고 견딜 수 있는 노릇인가? 勿論

現代 頭腦가 만들어는 自業自得에
 對한 不信이오, 이 危機를 打開하고
 克服하고 超越하기爲하여 提起된 方
 法論이라는 것이 모두가 소리 나는
 팽가리처럼 느껴지는 虛妄과 絕望
 에서 오는 意識인 줄 안다. 一例로

구제품 타력에 배당에 오래 놓
 고 눈감으라 하고서 신발 혼자
 가더라.

구제품 탈려고 에 배당에 갔더니
 잠자히 쳐내 놓고 돈 달라고 하
 더라.

이것은 내가 사는 동리 뒷골목 대
 장들이 밤이면 메우리와 왜거리를 지
 어 돌아 다니며 고래 고래 소리 지
 루는 一종의 童謠다. 얼마나 기막힌
 現實이냐? 이 기막힌 現實은 迴避
 하고 批判하는 것만으로 免해, 지거
 나 解決되는 것은 아니다. 古代고리
 시아 文化史를 엮은 이는 누구나 다
 말하는바와 같이 「古代고리시아의
 生活는 地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地獄과 같은 生活 가운데서
 燦爛한 文化를 創造하지 않았던가?
 모름지기 知性人의 頭腦는 率直 大
 膽하게 現實을 接受하고 여기에 抵
 抗하고 創造하는 方向에서 새로운
 方法論을 探求하여야 할 것이다. 우
 리의 意識은 縱橫으로 歷史와 社會
 의 時間과 空間에서 呼吸하는 人
 間的 意志로서 危機를 克服하고 明
 白의 願望과 欲求를 느끼는 健全한
 것이어야 한다.

現代科學이 操作하는 危機를 不信

하기에 安定할 수 있는 科學의 完成

을 志向하고 知性人의 頭腦는 總集

結하여야 한다. 日帝末期에 某日本

雜誌에 發表된 飛行機制作責任者들

이 모인 座談會의 記錄을 읽었는데,

日本各地 工場에서 製造되는 飛行

機 部分品은 一日 數百臺나 되는 데

그것을 맞추어 보면 뜨지 않는 飛行

機가 大部分이 있다고 하는 記事다.

또 美國 飛行機가 波狀攻擊을 한창

할 무렵 日本 飛行機가 이것을 邀擊

한다고 數百臺나 몇다가 美國 飛行機

가 가고 나면 다시 基地로 돌아 오

는데 그때마다 軍報導部에서는 으

엄청난 戰果를 發表하였다. 그러나

實相인즉 邀擊한 것이 아니고 空中

避難을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이 敗戰

後에 暴露된 事實이다. 이러한 不誠

實과 廻避와 虛偽가 日本이 敗亡한

原因이라고 하는 것을 想起하여 보라.

切迫한 空中危機에 對하여 더구나

韓國의 立場에서 볼때 國境線아닌

三八線 上空에 미그機가 集結하고

있다는 最近의 情報에 接하였을 때

이 危機에 對하여 우리는 어떻게 抵

抗하여야 할 것인가? 또 이 危機를

切感하는 우리의 意識은 무엇을 願

望하고 무엇을 欲求하는가? 人間의

尊嚴性은 姑捨하고 生命마저 威脅하

는 恐怖아래 果然 孤獨이니 倦怠니

嘔吐니 하는 따위의 言語의 遊戲로

서 安閑할 수 있겠는가? 날지 못하

는 飛行機처럼 虛偽와 假裝의 한가

운데서 脫出하여 人間에로 回歸하는

힘찬 抵抗으로서 空中危機의 決戰場

으로 飛躍하여야 할 때는 到來하였다.

그것은 韓國의 空軍뿐 아니라, 全

世界의 空軍이, 아니 全體 現代人의

頭腦가 느끼는 漠然한 危機意識이

아니고 可能性을 참으로 느끼는 危

機意識에서 生動하는 科學의 意志도

哲學의 意志도 아닌 眞實한 內容과

意味를 지닌 (人間의 意志)로서 具

體的으로 抵抗하고 克服하여야 할

重大한 課題인 것이다. (끝)

(二二面에서) 못하였다. 送別會

에 나가 본 일은 한 두번이 아니지

만 그날 그 자리의 送別會만은 生

涯를 두고 잊을뻔야 잊을수 없는 光

景이었다. 내가 그런 榮光스러운 送

別會 받을 아무런 건덕지도 없지만,

머나는 날까지도 그렇게 나를 아껴

주던 분들의 모습은 언제나 잊히지

않는다. 別로 내놓고 자랑할 일이라

고는 하나도 없는 것을 억지로 짜내

서 쓰자니 밀도 끝도 없는 부질없는

이야기를 하여 버리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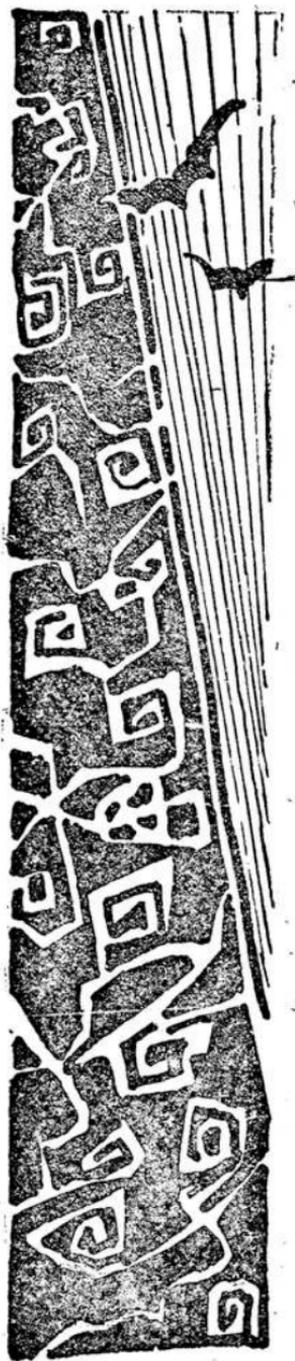
단 한가지 附言한다면 民族의 受

難期에 나같은 사람도 軍의 一員이

될수 있도록 門戶를 開放하여 主心

어려분들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하며

붓을 놓기로 한다. (筆者 高大教授)



日本防衛廳技術研究所現況紹介

國防部科學研究所 提供

序 言

第二次大戰直後 日本은 『武力戰爭은 이를 永久히 拋棄한다』고 憲法上으로 規定하고 壯談하였음에도 不拘하고 『保安隊』라는 名目下에 그들은 다시 軍隊를 創設하였고、至今은 陸海空으로 面貌를 갖은 堂堂한 最新式軍隊가 防衛廳 隸下에 『自衛隊』란 이름

으로 再出發하여 日益擴充一路를 걸고 있다. 半世紀 동안 抑壓을 받아온 韓民族으로서 이에 關心이 없을 수 없는바 이 小冊子는、이 疑問을 밝히기 爲하여 가장 基本이 되고 重要한 科學技術研究問題에 關하여 日本에서 發刊한 雜誌를 基準으로 本防衛廳 傘下 技術研究所의 現況을 紹介하려는 것이다.

日本軍은 卽 二次大戰終戰前까지는 陸軍 海軍이 서로 對立되어

있으므로 技術面에 있어서도 各其獨自의인 行動을 取하였으
니, 露日戰爭當時만 하더라도 同一의 目的을 爲하여 싸우는 同一國
家の 軍隊이면서 陸軍에서는 無煙火藥(發射藥)을 自給自足하였으
나, 海軍에서는 英國에서 輸入 使用하였고, 또한 海軍에서는 強
力炸藥으로 下瀝火藥(피크리酸)을 使用하였으나 陸軍에서는 한念
頭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對立은 마침내 二次大戰에서 日本을 敗亡케한 一原因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現 技術研究所는 이것을 完全히 革新
하여 防衛廳 直屬으로 陸海空을 單一化하고 三軍을 모두 一括
的으로 取扱하고 있다.

豫算面에 있어서 그들은 一九五六年度는 日貨 十七億 九千九百
萬圓(美貨 四、九九七、二〇〇弗「三六〇對一」로 換算함)의 豫算
을 執行하고 있고, 一九五七年度에는 日貨 三七億 七千二百萬圓
(美貨 十〇、四七八、〇〇〇弗)을 計劃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韓國에 比하여 懸隔히 優勢한 工業의 立地에서 長足的으로 發展해
나가는 日本을 無視할 수가 없으며 百萬大軍을 자랑하는 우리 韓
國의 研究費란 이에 比할바가 못되는 것이다. 이제 이 冊子를 編
리 紹介하면서, 斯界有志의 「軍科學研究」에 對한 積極的인 協助
을 바라는 同時에 實務擔當者들의 加一層의 奮發努力을 促求하여
마지않는다.

本文을 翻譯함에 있어서 昭和年度는 西紀로 訂正하였고, 日本
「圓」은 그대로 表示하고, 境遇에 따라 「三六〇對一」로서 美貨
로도 換算表示하였다.

(國防部科學研究所 企劃室)

★擴張되는 日本防衛廳 技術研究所

技術研究所는 保安廳法에 依하여 保安廳의 附屬機關으로서 一
九五二年 八月 一日에 創設되었고 保安隊와 警備隊의 裝備品等의
技術의 調査 研究 考察 設計와 試驗을 行하는 機關으로서 發足하
였다. 創設當時는 「越中島」의 保安廳內에 있었는데 一九五三年
六月 「川崎市」에 移轉하여 研究所로서의 整備에 着手하였으나, 火
災을 내어 資料等의 燒失事故를 내었다.

一九五四年 七月 保安廳이 防衛廳으로 改編됨에 隨伴하여 防衛
廳技術研究所는 名稱을 變更하였고 새로이 航空自衛隊의 發足도
있었으므로 從來의 陸海에 加하여 三自衛隊의 裝備品에 對한 研
究를 行하게 되었다.

「防衛廳 技研」으로서의 業務에 着手하게 된 同研究所는 一九五
四年 十月 「濱松」에 航空試驗場을 開設하여 航空機와 同機關의
性能試驗等의 事業에 着手하였다(左記 年度別定員表 및 年度別豫
算表參照)

年度別定員表

區分	年度別					
	一九五二 年度	一九五三 年度	一九五四 年度	一九五五 年度	一九五六 年度	
事、務官等	六五	一四〇	二二七	三七六	四四七	
自衛官	三五	四六	四九	九〇	一一二	
合計	一〇〇	一八六	二七六	四六六	五五九	

年度別豫算表 (第一表)

(單位圓七日本貨)

年度別	一九五三年度	一九五四年度	一九五五年度	一九五六年度
費目				
技術調査研究	三二、〇〇一圓	三九一、八八〇圓	八四、九七四圓	六九、八六五圓
委託費				
技術調査研究	—	—	七二〇、〇〇二	一、〇四三、二九四
試作費				
研究費用	八四、三三四	一六八、二四三	三五二、八一七	二〇八、五四一
機械器具費				
技術研究費	二六、〇〇〇	五三、〇八二	五九、六六三	五九、六六三
施設費	一八三、〇七二	—	四九、七九五	二七八、三一一
其他經費	一、三六〇	六八、三七三	一〇五、八四五	一三九、三五七
總計	三二五、七六七 (九〇四、九〇八\$)	一、八九三、二七二\$ 六八一、五七八	三、七八六、二八\$ 一、三六三、〇九六	四、九九七、三一四\$ 一、七九九、〇三三
其外에 國庫			(二七七、七七八\$) 一〇〇、〇〇〇	(九二七、七七八\$) 一三三、〇〇〇

그리고 一九五五年 三月에는 水中武器(機雷 爆雷 魚雷) 水中器
材(소나-聽音器)와 性能試驗을 實施키 爲하여 「橫須賀市(久
里濱)에 臨海試驗場을 新設하였다.

이와 같은 試驗場的 開設과 併行하여 計劃하고 있는 技研의 本
廳舍 健設이 一九五四年 十月 東京都世田谷區池尼町(舊駒澤練兵
場跡)에 推進되어, 一九五五年 八月에는 敷地 一萬坪 建坪 二、九
九〇坪의 四層 近代式 技研建築物이 「三宿」의 原野에 完成되었다.
「川崎」에서 「技研」이 移轉한 것은 同年 九月이며 新廳舍에 移轉
과 同時에 研究用 各種器材、器具의 設置도 大槪完了된 技研은、

이를 機會로 하여 本格的 研究業務에 몰두하게 되었다.
現在 技研은 所長 副所長 一室十部三課 二試驗場的 組織을 가
지고 이미 「目黒」에 舊海軍技術研究所의 一部를 利用한 「水槽와
風洞關係試驗을 하는 「目黒」試驗場도 附近 完成한 豫定이다. 또

한 車輛關係의 「相模原」試驗場、發動機의 運轉 計器의 試驗等을
하는 「立川」試驗場(都下立川市)、武器施設 通信 로켓 등의 噴進
試驗을 하는 「土浦」試驗場(茨城)、車輛 航空機 武器 通信等 諸般
裝備에 對한 耐寒試驗을 하는 「北海道」試驗場도 本年度末에는 完
成하여 業務를 開始할 豫定으로서 一九五八年度에는 新規로 彈道

試驗場도開設하기로 되어 있다. (本年度計劃으로 新設하는 立川 相模原 土浦 北海道의 試驗場 建設費는 日本貨로 二億 七千 八百 萬圓이다)

第二表 研究各部 및 試驗場의 主要內容

第一部 (理化關係)

- A、燃料 및 潤滑油
- B、裝備品等의 原材料
- C、原子力防護(原子力班에서 進行)
- D、光學器材

第二部 (施設器材關係)

- A、建設 및 土木
- B、測量 및 照明器材
- C、給水器材
- D、對地雷 및 爆破用施設器材
- E、築城 및 道路用 施設器材
- F、港灣施設器材
- G、飛行場用施設器材

第三部 (武器關係)

- A、火器
- B、射擊指揮裝置
- C、戰車 其他의 車輛
- D、半工品 및 化學器材
- E、火藥 爆藥 彈藥

- F、船舶의 武裝
- G、計測器材

第四部 (通信關係)

- A、有線 및 無線通信器材
- B、叫子 및 電子計算法器
- C、無線航法器材
- D、情報用器材
- E、氣象用器材
- F、電視器材 및 暗視器材
- G、電機裝置
- H、船舶의 電裝

第五部 (艦船關係)

- A、船體
- B、船舶用機關
- C、船舶의 偽裝 偽裝品 港用品

第六部 (航空機關關係)

- A、航空機의 機體
- B、航空機의 機關
- C、航空計器
- D、航空機의 偽裝 偽裝品
- E、飛行場用器材

第七部 (水中武器關係)

- A、水中武器 水測器材
- B、船體消磁

C、船舶에對한 水中武器 水測器材 및 船體消磁裝置의 偽裝
第八部 (GM關係)

A、誘導飛翔體 및 그 關聯器材(GM關係)

第九部 (衛生需品關係)

A、食糧 및 食料器材

B、被服 落下傘其他 絨維 및 皮革材料

C、衛生資材

D、豫備衛生 環境衛生 適性

E、需品

日本防衛廳의 技術研究現況

이 防衛廳技術研究所에서는 自衛隊의 裝備強化를 爲한 軍事科學의 研究을 하고 있다. 더구나 그 研究業務는 特히 強化하여 技術의 으로도 世界水準에 到達한 計劃을 가지고 있다. 豫算面에 있어서는 一九五六年度 約十八億(五〇〇萬\$)圓에 對하여 一九五七年度에는 約三十億圓(八、三三三、三三三\$)으로 增額하고 外部關係는 十三億圓(三、六二一、一一一\$) 施設費 六億圓(一、六六六、六六六\$) 器具費 約五億圓(一、三、八八八、八九九\$)이라는 巨額의 計劃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이 큰 計劃을 가지고 있는 「技研」이 都大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紹介하여 보자

九九%까지 外部에 研究를 委託

防衛廳技術研究所의 一九五六年度 研究項目은 全部 三〇一件의

多數에 亘하여 三〇一件中 大學研究機關을 爲始하여 民間研究機關에 委託研究로서 委託하고 있는 것이 一〇三件이나 되고 試作研究項目 總件數는 一九四件으로 되어 있다.

委託과 함께 試作研究自體도 大學과 民間機關에 委託하고 있고 全研究項目 三〇一件中 二九七件 即 九九%가 技研以外에서 實施되고 있다. 一九五六年度の 豫算으로 본다면 이 一〇三件(陸二〇、海五〇、空十三、共通二〇)의 豫算은 六千九百八十六萬五千圓(一九四、〇六九\$)이며 一九四四件的 試作研究費는 十億四千三二九萬四千圓(二、八九八、〇四三\$)의 巨額으로 되어 있다. 이 一九五六年度の 技術總豫算 十七億 九千九百三萬 三〇〇圓(四、九九七、三一四\$)中 外部關係豫算이 約十一億(三、〇五五、五五八\$)으로 된 點으로 技研이 얼마나 外部依存으로서 技術研究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다른 官廳에서는 있을 수 없는 特異한 것이다. 그러면 別紙 第一表를 보면서 技研의 內容을 豫算面으로부터 좀더 仔細히 檢討하여 보자 이것이므로서 現在の 技研의 全貌를 明確히 알 수 있는 것이다.

即 十七億 九千 九〇〇萬圓(四、九九七、二二一\$)의 總豫算中 約十一億圓(二、〇五五、五五八\$)은 外部委託研究費로서 支出하고 二億七千 八〇〇萬圓(七、七二二、二二二\$)을 新規 施設費、二億八五〇萬圓(三、八六、一一一\$)을 研究用 機械費로서 支出、人件費 旅費 廳費로서 一億三千 九〇〇萬圓(三、八六、一一一\$)을 消費하고 있다. 그런데 技研에서는 六、〇〇〇萬圓(一、六六、六六七\$)만이 (第一表中의 技術研究所費) 研究所內의 獨立的인 研究費로서 使用된 뿐이므로 全般的으로는 科學豫算이 不足한 形便이

라고 한다. 그러나 大學 研究機關에서는 舉皆 燃料費 등에 豫算이 充當되고 研究費는 全然 處地에서 研究을 하고 있는 情景에서 볼 때에는 防衛廳 技術研究所는 建物 設備 豫算 등으로 보아 決코 當局이 말하는 缺乏豫算은 아니며 外部에서는 豐盛한 研究所라고 보고 있다.

民間七割 大學三割

그런데 十一億(三、〇五五、五五八)이나 되는 試作과 研究費의 支出에 있어서 技術의 要求에 應하고 있는 民間 研究機關, 大學 研究機關은 어떠한 比率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技術」은 그 數와 名稱은 秘密로 하고, 다만 民間七割 大學關係三割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平和産業을 爲한 科學研究을 看板으로 하고 있는 民間會社를 爲始하여, 日本學術會議의 決定이 다하여 軍事的研究은 學園에서 하지 않는다고 言明한 學園機關이 現在 이 防衛軍事上의 研究를 더한層 힘쓰고 있는 事實은 理由의 如何를 莫論하고 重大問題를 惹起한 것으로 注視할 必要가 있다. 특히 「技術」에서는 大學等 研究機關은 研究項目 自體가 學問의 興味の 中心으로 되는 것이 많으므로 매우 熱心들이며 研究에는 積極의 이라고 말하고 있는 實情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現在 東京大學을 비롯하여 全國의 主要公私立 關係의 學園에서는 理科系統은 舉皆가 技術의 研究에 協力하고 있는 實情인데 이 技術의 說明은 많은 問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現代 日本 資本主義經濟의 發展에서 漸次늘어가는 軍事擴張의 動態에 着眼한 企業會社가 利益의 追求를 爲하여 軍事技術에 助力하고 있

는 現象은 어느程度 理解할 수 있으나, 戰後에 平和技術産業의 發展을 爲해서만 研究하되다 言한 明 學園 研究機關이 이와 같이 極的인 熱意를 表示하고 있다는 것은 軍事科學研究가 不斷히, 發展의 對像을 對象으로 하는 本質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必然의 理由로 보고 싶어하는 理由外에 學園 研究費의 窮乏으로 費用을 얻기 爲한 가장 빠른 手段으로서 덤벼들게 되는 弱點이 있기 때문이다. 이點 技術이 取하고 있는 方式은 技術의 現在의 能力으로서는 全部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基礎的인 것과 裝備品의 試作은 民間에 依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民間의 盲點을 捉은 充分히 一般 特別 計劃的인 것으로서 農民들의 窮乏狀에 便乘하여 自衛隊의 增加를 圖謀하고 있는 政府 및 防衛廳의 手法과 本質의 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에 二例를 들어 보기도 하자.

即 昨年の 일로서 東大新聞은 學園內의 工學部 船舶工學 研究室에서 船舶에 關한 軍事研究가 施行되고 있는 事實을 學園內의 一大問題로서 報導하였다. 一般 「자나리움」에서도 大新聞은 이것을 看過치 않았다. 그런데 問題로 된 것에 對하여는 學術會議의 基本方針도 있어, 學園當局은 銳利한 攻擊을 避하기는 하였으나, 事實은 船舶工學의 水槽가 老朽化된 데다가 補修豫算은 없고 困境에 處하여 있는 데에 마침 船舶의 水槽實驗研究을 「技術」에서 依賴하여 왔기 때문에 補修費에 對한 欲心과 研究의 興味에 이끌려서 技術의 一翼을 擔當케 된 것이 明白히 되었다. 이와 같은 事實은 東大뿐만이 아니라 다른 學園 研究機關도 같은 「케스」로서 特別 技術의 委託研究에 觸手을 댈치고 있는 傾向에 있다. 民間研究

機關과 學團研究行關의 比가 七對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前述한바
이나 民間의 研究機關中에는 直接間接으로 學團研究機關의 「명
비」가 多數를 이루는 實情을 考察한 때 關與하는 學團研究機關의
理科系統研究는 事實上 殆半이 軍事技術의 研究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보겠다.

또한 相當한 抵抗을 받으면서도 「技研」은 民間과 學團의 研究
機關 研究員을 以전으로 하여 그 위에 君臨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廣範圍한 研究項目

그런데 이와 같은 地位위에 서서 漸次로 組織과 豫算面에서 增
大의 一路를 걷고 있는 「技研」은 어떠한 軍事上의 研究를 하고 있
는 것일까.

第二表에 標示한 九部에서 行하고 있는 研究가 이 물음에의 對
答內容인바 다시 研究의 內容을 分明히 하기 爲하여 前述 一〇三
件의 委託研究中 特別히 重要 研究라고 보고 있는 것과 試作研究項
目一九四件中 特別히 重要項目으로 說明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기로
하자.

A. 委託研究의 重要項目

1. 陸軍關係

- 가, 非金屬地雷의 探知에 關한 研究
- 나, 放射線用 自動警報裝置
- 다, 瞬間的 輻射熱線의 各種物質에 미치는 效果의 研究
- 라, 濕地 測定法

- 마, 防彈鋼板
- 바, 無線通信 「메다」의 妨害 및 對妨害 通信機器

2. 海軍關係

- 가, C 裝置(潛沒 潛水艦을 電波에 依하여 探知하는 裝置)
- 나, 水測法의 研究
- 다, 「레디윌타」用 繫下式 對潛艦用 探知機의 研究
- 라, 對潛攻擊法에 關한 「오파메손」 「디사지」의 研究
- 마, KRT (獨逸의 살타-타야빙과 같은 輕最의 타이빙)
- 바, 潛水艦用 電波 機器
- 사, 潛水艦 構造의 研究

3. 空軍關係

- 가, GCA (電波誘導에 依한 着陸裝置)
- 나, ILS (着陸計器裝置)
- 다, 離着陸機構의 研究(狹窄한 場所에서의 離着陸에 對한 것)
- 라, 젓트機等 航空 適正에 關한 研究

4. 陸海空 共通의 것

- 가, 電子機器의 部分品 規格統一에 關한 研究
- 나, GM의 調査研究(一九五四年度以降 特別調査官室을 設置
하고 努力中)

B. 試作研究의 重要項目

1. 陸軍關係

- 가, 超音速 飛翔體의 基礎 研究
- 나, GM의 「오파메손리사아저」의 調査
- 다, 中特車(四人乘 35의 速力 40km/hr 30m의 火砲門과 機

統 550 HP의 「디젤엔진」의 것으로 三菱重工業과 東日本重工業에서 試作 本年內에 二台完成 豫定)

나, 105mm 日 自走砲의 改良(小松製作所에서 하고 있는데 二 次試驗도 終了)

다, 200m 日 長射程 로켓트 一萬미터의 上空을 겨누는 大型

로켓트의 基礎研究

라, 155mm 日 迫擊砲와 同彈藥

마, 非金屬 地雷

바, 新型無線機

사, 抗道掘壕 器材(原爆戰에 對備用)

아, L型機(連絡用機)의 耐寒性

2. 海軍關係

가, 遠距離保信機(對潜水艦用)

나, 호밍 그 魚雷(相對便의 스티븐 훅아서 上下로 槽를 잡으

며 나가는 究着魚雷)

다, 感應機雷와 同用 掃海機器

라, 潜水艦用 主電池

마, C 裝置(潜水艦의 海底所在位置를 電波로 飛行機에서 探

知하는 裝置)

바, 潜水艦用 電波 및 光學機器

사, 가스 타아빙

3. 空軍關係

가, 中間제트 練習機

나, F86 T33 (모다제트機)의 國産化

다, AAR (空對空 로켓트彈)의 研究

라, 후라이트 슈메에타 (遊擊訓練裝置)의 研究

마, 離着陸機構

4. 陸海空 共通關係

가, GM의 購入(瑞西 에리슨社에서 購入)

나, 電子機器의 部分品 試作

다, 落下傘(輕量投下用)

技研五個年 計劃作成

以上「技研」이 重要試作과 研究事項으로서 弄고 있는 것을 紹介 하였는데 이러한 項目中에서 特別 最重點 研究試作事項으로서 여기 고 있는 十二項目의 特別取扱이 있다. 이 十二項目中의 內容計劃에 對해서는 別途 紹介하겠으나 所謂 MWDPP (Mutual Weapons Development Program 相互武器開發援助計劃)에 依하여 研究 試作을 한다는 것이다.

防衛廳 技術研究所라는 存在조차 別로 알려져 있지 않는 實情임 에도 不拘하고 至今까지 紹介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相對方의 힘을 보다 더強力히 打倒하는 戰爭을 爲한 研究가, 큰 豫算과 人員으로 서 行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發足當初 美軍供與의 兵器 들 日本人의 體格 國土의 條件들에 맞도록 補正한다는 段階에서 漸次로 손을 떼지어 今年度부터는 MWDPP에 依한 研究도 包含 하여 防衛廳 五個年計劃에 平行한 長期間技術五個年計劃을 樹立 하고 새로운 段階에 들어가기를 爲한 準備을 서둘고 있다. 技研首 腦의 說明에 依하면 近代式의 人氣的의 GM (Guided missile)

의基礎的研究도 一但 充實하였고 船舶의 設計 陸上準備의 研究을 爲始하여 航空機에 關한 研究도 充實히 되었다. 여기서부터 本格的으로 再起的 現段階에 하여 大端히 積極的인 것이다.

그런데 一九五〇年 「맥아더」 將軍에 依하여 七萬五〇〇〇名의 警察豫備隊가 實上 軍隊로서 誕生된 當時의 小銃 戰車의 中古品으로서는, 陸上에서만도 來年에 十七萬으로 擴張되는 自衛隊에 게는 이미 問題가 안 되는 것이 事實이다.

MWD P와 十二項目의 新兵器研究

防衛廳에서는 今年六月 在日美顧問團을 通하여 日本의 獨創的 新兵器 十二項目의 研究計劃을 美國防省에 提出하였다. 其項目中 어느 것이 일마름이나 MWD P의 適用을 받을 것인가에 對하여서는 目下 外務省을 通하여 折衝中에 있으나 간단명의로 自處하는 防衛廳으로서는 MWD P에 依存하는 바가 큰 모양이다. MWD P라고 하면 美國이 MSA 協定國에만 締結하는 것이지만, 要는 新兵器에 對하여 優秀한 構想이 있는 境遇 그의 完成까지 資金援助를 하고 完成後는 美國도 그것을 써주게 해달라는 것이다. 防衛廳 技研이 作成한 MWD P의 一個 試案에 依하면 一九六〇年까지 五個年間に 戰車 裝트 로켓트等 數十點의 新兵器를 完成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要인데 費用은 日本側 五〇億圓(十三、八八八、九〇〇\$) 美國援助 一七六億圓(四八、八八八、八八八\$)을 豫定하고 있는 것이다. 勿論 이것은 一方的인 豫定이며 美國의 이만큼 支出할지 어떨지는 全然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防衛廳이 美國을 絶對로 信賴하고 있는 하나의 바로메라는 될 것이다. 그러던 新

兵器로서 相互兵器 開發援助計劃이 適用을 받기 爲하여 美國에 提出된 資料를 基礎로 其內容을 밝히어 보자.

自走105mm/無反動砲車

(美國에서도 期待하고 있음)

對戰車 戰團의 主體는 戰車라함은 常識으로 되어 있는데 이 境 遇 戰車는 集中使用을 하면 할수록 效果的이다. 그러나 日本과 같이 주름살이 많은 特殊地形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經濟的으로 보더라도 大量의 戰車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得策이 아니라 오히려 自走 105mm/無反動車를 設計한 것이다. 이것은 11카타 필라 11로 달리는 小型戰車의 型과 같은 것으로 名稱의 標示와 같이 105mm/對戰車砲 二門을 積載한다. 特徵은 砲를 가지고 있는 것과 輕便한 機動性과 複雜한 地形에 對한 踏破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將來 陸上自衛隊의 對戰車砲의 主力으로 될 이 砲車는 日本人 體格에 適合하게 키가 적은 것으로서 奇襲의 兵器라고도 하고 있다.

이 砲車에 對하여서는 昨年末 三菱日本重工業과 小松製作所의 二社가 各其 試作品을 完成하여 其間 陸上自衛隊 富士學校에서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現在 小松의 것이 採用되어 同社에 對하여 大量發注할 可能性이 強하다 한다.

그 主要項目으로서

1. 重量約 6噸 全長 42m 全幅 2.2m 全高 1.25m
2. 最高速度 一時間 50km以上
3. 登坂能力 60% 起壞能力 110까지

4. 行動距離 150km

5. 接地壓 0.5kg/cm²

6. 105mm/m 無反動砲二門 連裝(擊發은 電磁式) 砲架는 高低兩姿勢로 하고 俯仰 左右의 角度變換도 自由 對空 防禦에 必要로 20m/h 對空砲를 備置함

7. 攻擊後의 迅速한 退避를 考慮하여 後向 操縱도 可能케 함
8. 製作費는 같은 威力의 戰車의 1/10을 目標로 함

豫算 計劃

日本單獨으로 하는 境遇로서, 一九六〇年까지 完成할 計劃으로 大體生産에 이르기까지의 總豫算은 八億六五萬圓(二,二三九,三〇六\$)인데 現在까지 使用한 費用은 三,四三一萬圓(九五,三〇六\$)이다. 美國의 援助가 있을 境遇에는 (一九五六年度以後) 日本의 總豫算은 二億一,一六二萬圓(五八七,八三三\$)이 되며 美國支出 期待額은 五億八千九二二萬圓(一,六三六,六六七\$)으로 될 것으로 이 境遇에는 約三年의 短縮이 될 計劃이라고 한다. 이 計劃에 對하여는 在日 美軍 事項周圍에서도 相當히 큰 關心을 表示하고 있다고 하며 이 砲車는 日本國法에 合致될뿐더러 各國과도 原水爆戰에 對備하여 重量兵器보다 離合集散이 容易하여 機動力이 豊富한 輕兵器이기 때문에 一發의 原爆에 對하여 損害를 最少限으로 하기 위하여 兵器 輕量化에 依한 機動性 重視의 傾向으로 注目되고 있는 바이다.

中特車——實用性에 疑問

1. 高性能의 機械機關을 研究 開發하여 日本의 燃料資源에 適應

한 中特車體形을 製造 燃料補給을 能率化 한다.

2. 機械機關特有의 定偶力 特性에 依하여 不整地에 對한 性能을 增大함과 同時에 日本의 地形 橋梁 鐵道에 適應한 輕量의 것을 製造(三五以下로 抑制)

3. 裝甲의 不足은 迅速하고 正確한 照準과 強力한 火力으로 補充케 하고, 또한 空地에 對한 死角을 없이함과 同時에 直射 曲射 對空火力을 가지게 함

以上 主要한 三點의 主張에서 中特車의 試作研究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決定되기까지에는 近一年間이나 甲論 乙駁을 되풀이 하였으니, 卽 日本의 地形 特히 橋梁 條件 등으로 防衛廳 最高 幹部는 國產戰車는 二五以下로 하기로 하였는데 對하여 舊陸軍軍人을 中心으로 한 制服組가 二五 程度의 小戰車로서는 卽 聯의 T34戰車에는 對抗할 수 없다. T34(35t, 85m/m 一門 時速 48km)에 對하기 爲하여서는 적어도 30m/m 砲를 裝備지 않으면 안 된다. 實例로서 MSA 供與兵器로 美國에서 받은 M24戰車(18t, 75m/砲 一門)는 韓國戰線에서 卽 聯製 戰車 앞의 품작도 못 하지 않았으나 強硬히 主張하였기 때문에 二五級 戰車로서는 30m/m 砲를 裝置할 수 없으므로 三五級 戰車로 着着된 것이다.

日本의 橋梁과 鐵道는 極히 不充分하여 建設省의 統計에 依하면 鐵橋 콘크리트 木製等 全國橋梁數 一二五, 三二一個 普通의 自動車가 通行할 수 없는 것이 四, 六七二個所 六以上의 戰車가 通行할 수 없는 것이 二〇, 七四四個所로 되어 있다.

이 調査統計에 依하면 約十萬은 安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調査는 二五이나 三五이나 되는 戰車에 對한 安全度를 調査한

것이 아니므로 이 十萬橋梁中 얼마程度나 割正없이 通過할 수 있겠느냐 하면 相當히 問題가 있는 듯하다. 特別 外國의 國土를 戰車戰場으로 하지 않고 國土防衛를 부트짓는 自衛隊이다. 아무리 強力한 戰車를 가져보아도 十分 달릴 수 없게 된다면 그야말로 眞스이다. 試作費로서 一九五〇년까지 二九億四、〇〇〇萬圓(八、一六六、六六七\$)을 豫算한 이計劃이 돈에 계을 헛된計劃이 되지 않으리라 할 수 없다. 特別 對戰車砲의 主力으로서 먼저 紹介한 無反動砲車를 有利한 兵器로서 들고 있는 當局의 態度로 본 때, 이 中特車의 問題는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九〇日 砲一門 四〇m對空砲連裝 曲射火器로서 105m/ha 155m/ha의 砲를 裝置한 三五\$이라는 中特車의 主要目을 보기도 하자.

- 1、低燃料費 高出力 輕量化를 爲하여 六〇〇馬力 디젤機關 燃料方式을 取할
- 2、日本の 材料資源에 맞는 防彈鋼材質의 研究
- 3、30m/ha砲의 材質과 性能上에 關한 研究
- 4、高能率의 半自動裝彈機構의 研究
- 5、輕量、小型、高能率의 11엔스 화인다 // 노크트비중 // 砲와의 連動機關 研究
- 6、노크트비중 投光機 리모트론트를 研究
- 7、40m/ha對空砲用 簡易의 메크리(照準裝置)의 研究
- 8、同 메이다 리모트론트들의 研究
- 9、放射能에 對한 研究

等으로서 만드라는 式인데 알기 쉽게 말하면 이 戰車의 特徵은 디젤을 採用하여 火力을 크게한 것이다. MSA供與의 M24(22)

PP)도 어느 것이나 가스팅 엔진인데 가스팅은 引火하기 쉽고 危險하며, 高價이다. 이와 같은 缺點을 가진 가스팅 엔진에 比하여 디젤을 採用하면 輕油는 同量의 燃料로서 가스팅의 二倍는 달린다. 價格은 가스팅의 半價로서 된다. 그러므로 四分之一의 燃料費로서 된다고 하여, 六〇〇馬力의 高性能 디젤 엔진을 裝置키로 한 것이다. 이것은 現在 三菱日本重工業 東京製作所에서 試作中으로서 本年中에는 試作 第一號가 完成할 豫定이다.

豫算計劃 現在까지의 經費 二億九千一四五萬圓(八〇九、五八三\$)으로 一九六〇年 까지의 總豫算은 二九億四千一〇七萬圓(八、〇六六、八六八\$)이며, 美國援助가 있을 境遇에는 一九五六年以後 日本側支出 十六億二六七萬圓(四、四五一、八六一\$) 美國側支出 十八億七千 八〇萬圓(五、二二一、六六七\$)을 期待하고 一九五九年까지에는 完成할 計劃이다.

(C) 裝置——日本에서 考案한 探知機

普通水中에서 潛沒中인 潛水艇의 所在은 上空에 微弱한 電波攪亂이 있을 때에 航空機에 裝置한 特殊探知機로서 發見할 수 있다. 이 方法은 戰時中 菊地秀之博士가 着想하여 舊 帝國海軍의 어느 程度 實用化하고 있었다. 現在 諸外國에서는 實用化되어 있지 않은 듯하고, 日本의 獨特의 研究인 듯이 말하고 있다. 技術의 計劃으로서는 特定의 波長의 電波가 水中에 透入하는 것과 또한 地中水中 鐵塊의 미치는 上空電波攪亂作用 現象에 關한 正確한 數值資料를 組織的 實驗으로서 求하여 이것을 基礎로 最適의 探知裝置를 設計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飛行機에 積載하는 各種條件에 對한 性能 限界를 確認한後 制式機械化로 되는 豫定

이다. (11C)라고 하는 字에 特別한 意味는 없다.)

豫算計劃 現在까지의 支出는 委託調查費를 包含하여 二三萬圓으로서, 完成의 一九六〇년까지의 經費는 九、七〇〇萬圓(二六九四四四\$)이다. 또한 이 豫算計劃은 一九五六年度以後 美英의 援助가 있을 境遇는 日本側 六、八六五萬一、〇〇〇圓(一九〇、六九七\$) 美國側 六億二、四四五萬圓(一、七三四、五八三\$)이라는 見積이다.

特殊 輕量 타빙 潜水艦의 高速化

第二次 大戰末期부터 潜水艦의 水中高速力의 要求가 強調되고 있으나, 이 要求에 應하고자 하는 것이 特殊輕量 타빙의 研究이다. 大戰中은 潜水艦의 水中速力이 겨우 一〇 노트 程度이던 것을 二倍의 二〇 노트 까지의 速度로 하기 爲한 計劃이 여기 저기서 研究되어 獨逸에서는 알타 타빙이 計劃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過酸化水素가 高價인물이며 危險性을 가지고 있는 點이다. 또한 最近 進歩하고 있는 原子力 엔진에 依한 것도 高價로서 日本에서는 生覺할 形便이 못된다고 하여서, 이 二點을 補充하기 爲하여 高出力의 動力으로서 特殊輕量 타빙에 着眼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現在 三菱長崎造船所에서 試作 研究中인데 液體酸素를 燃料로 한 三、五〇〇馬力의 特殊타빙으로 할 豫定으로서 이것이면 六〇〇級의 潜水艦에는 充分히 效果가 있다고 한다. 現在까지의 이 研究는 五、一〇〇萬圓이 使用되었다. 一九六〇년까지에는 五億三千六〇〇萬圓이 所用될 豫定이다. 그러나 美國外 援助를 받을 境遇에는 日本側 一億七千萬圓 美國側 支出 三億一千萬圓으로서

一年間의 期間이 短縮된다고 한다.

호오밍구 魚雷 一〇〇億圓(二七、七七七、七七八\$)의 研究計劃

호오밍구 魚雷는 潜水艦과 같이 水中으로 달리는 것과 水上艦船에 對하여서도 效果의 이라고 한다. 반드시 發射 할 때에 正確한 照準이 必要치 않고 反動도 적으므로 小型의 艦艇에도 裝備할 수 있다는 것이 特徵이다. 魚雷自體에 內藏된 裝置로서 目標船을 自動의 追尾(호오밍구) 한다는 것이다. 다시 研究를 推進하여 四種類의 호오밍구 魚雷를 製作할 計劃을 가지고 있다.

a、聽音方式(G-1)

目標船이 내는 音響을 利用하여 그 目標을 自動의 追尾로 追아가 命中케 하는 發射부型式의 것으로 이것에는 三次元 追尾를 爲한 自動操舵를 진다.

b、探知方式(G-2)

魚雷에서 起音波를 내어 其反射波를 感知하여 目標을 追아가는 액티브形式을 採用 二와 같이 三次元 追尾를 爲한 自動操舵를 붙인다.

c、航跡 辨別方式

目標艦이 發生하는 航跡中에 魚雷가 묻어 왔을때 航跡의 音響의 特性等을 利用 目標艦에 命中시킨다. 勿論이 方式의 境遇에도 三次元 操舵를 自動의 追尾로 한다.

d、出合針路方式(G-4)

各種 自動追尾 魚雷에 應用하여 命中公算을 더할 수 있는 目標艦의 未來位置에 向하여 操舵할 수 있는 裝置

以上 現在까지의 使用 經費는 二億圓以上(二七七、七七八\$)으로
 로이中 G-1이 重點의 由로 採擇되어 目下 三菱長崎造船所에서
 研究試作中에 있다. 大端히 어리운 研究로서 一九六〇년까지 數
 個의 試作이 될 程度이며 量産은 六一年以後라고 하고 있다. 總豫
 算은 約一〇〇億圓이라는 尠大한 것이다.

豫算計劃 現在까지의 經費는 G-1(一億五〇〇萬圓, G-1二
 (六、七〇萬圓) G-1三(四五萬圓) G-1四(二萬八〇〇圓) 日本
 獨自의 힘으로 할 境遇의 豫算과 期間은 다음과 같다.

G-1, 一, 九九〇, 五〇〇千圓 一九六一年以後 完成
 G-1二, 一, 六一五, 七〇〇千圓 一九六一年以後 完成

G-1三, 八一七, 五八〇千圓 一九六一年以後 完成
 G-1四, 五八七, 一三八千圓 一九六一年以後 完成

共通 四, 七六四, 七〇〇圓 一九六一年以後 完成
 合計 九, 七六六, 六一八千圓(二七二, 二九五\$)

美國의 援助가 있을 境遇는 日本側 七億 五千 二二三萬圓(二、
 〇八九, 八〇〇\$) 美國側 八九億 四一〇〇萬圓(二四、八三六、〇
 六〇\$)의 支出이라는 것이 豫算計劃이다.

소나 雜音抑制方式——水中操信의 距離 增大
 最近 潜水艦의 水中速力의 增大에 依하여 소나(探信) 可探距
 離延長의 要求가 強調되고 있다. 그런데 이 可探距離는 海中의 音

波가 傳導될 때에 屈折海中의 自然雜音 艦艇의 航走에 依한 雜音
 等등으로 現在 各國에서는 水中音波 探器로서는 가장 좋은 條
 件이 四、〇〇〇미터 程度라는 形便으로서 그 距離의 增大가 強調

되고 있다. 그런데 이 計劃에 依하면 可探距離를 一萬미터까지

增大하자는 것이므로 여간 될 것 같지도 않다. 一九五四年부터 研
 究에 着手한 「技研」에서는 어느 程度의 成果를 얻었다고 하지만,
 現在까지 所要된 經費는 六四萬 二〇〇圓(一,七八三\$)이며,
 一九六四年까지 七億 三千 三二五萬圓(二,〇三六,八〇五\$)으로서
 完成할 豫定이다. 美國側 援助가 있을 境遇에는 日本側 五、〇六
 九萬圓(一四〇,七七三\$) 美國側 七億 七千九〇萬圓(二四、一
 三八九\$)을 各各支出 一九六〇년까지에 計劃을 完成하기로 되어
 있다.

제삼 中間練習機—第一機三 엔진을 輸入

現在 航空自衛隊의 訓練體形은 T33(푸로페라 日本産) T36(푸

로페라 MSA 供與) T33(제트 練習機 MSA 供與와 日本産 一部)
 F86(제트 戰闘機 AMS 供與와 一部 日本産)의 四段階로 나누어

져 있다. 이中에서 T33 T36 F86는 이미 國産化 日本에 着手
 하였으나, T36의 國産化는 없고 MDA P 供與도 一九五八年에 中

止될 模樣이므로 至急히 代替機를 製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며 제트 中間練習機가 計劃된 것이다. 이 計劃은 어디까지나

戰闘搭乘員을 養成하는데 經濟的이며 性能이 優秀하다는데 目標
 가 있다. 그런데 이는 會社가 日本 最初의 純國産 제트機를 製作하

는나가 問題인데 昨年末 新三菱重工業 富士重工業(舊中島飛行機)
 川崎航空機 新明興業(舊川西航空機)에 對하여 防衛廳이 要求性能

을 提示하고 青寫眞의 提出을 要求한 結果 今七月 富士重工業의
 것을 採用하기로 決定하였다. 同社는 이 제트機에 「TIF I」라

는 名稱을 붙였는데 其性能은 다음과 같다.

는 名稱을 붙였는데 其性能은 다음과 같다.

乘員 二名

全幅 10.5m

全長 11.955m

全高 3.57m

全備重量 3,300kg

最高速度 四五〇哩(高度二萬呎)

實用上昇限度 14,300m

上昇時間 十一分(一萬m까지)

航續時間 二時間

航續距離 六一四哩

離陸距離 388m

着陸距離 450m

問題는 機體보다 엔진인데 富士重工이 製作하는 것은 機體뿐이
며 엔진은 日本제로 엔진株式會社가 擔當하여 目下 試作中の 13
(推力 1, 115)을 裝置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13의 豫想대로
完成할지 어떨지 防衛廳 內部에서도 大端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중
인데 一九五三年以來 이미 一億圓이나 政府補助金を 내어서 日本
제로를 應授하고 있는 通産省은 自衛隊의 練習機에 國産 13을 採
用하도록 極力主張하는 등 相當히 힘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이 通
産省의 推進에 別로 贊成치 않던 防衛廳도 結局은 追從한 셈이다.
그러나 時期的으로 13이 實用品으로서 完成할 때까지에는 相當한
時日이 걸릴 것 같다 하여 來年十月에 먼저 製作된 富士重工의 機
體에는 爲先 英國 루이스 돌社製의 제트 엔진을 위이스(推力 1, 2
5)을 裝置하여 飛行케 할 計劃이다. 現在의 狀況으로서는 願調

로이 가서 一九五九年(昭和三四年)頃에는 機體와 엔진이 같이 國
産의 제트機로서 나올 豫定이다.

豫算計劃 經費面에서는 機體分으로서 今年度 豫算에 三億圓
(八三三, 三三三\$)이 計算되어 이것으로서 富士重工에서는 2
合을 製造할 計劃이다. 來年은 四億圓(一, 一一, 一一\$)(四
機分)이 計上될 豫定이며 11엔진 11은 13을 三基分 九千五〇〇萬
圓(二六三, 八八九\$), 威위이스 三基購入分 一億二千萬圓(三三
三, 三三三\$)이 割當되어 있다. 現在의 豫定으로서는 엔진輸入
은 一旦 中斷되어 있으나, 國産日本 13을 來年 다시 五基可量契
約하게 되면 一億五千萬圓(四一六, 六六七\$)은 必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對하여 無用한 經費와는 非難이 있는 것은 勿
論이겠지만 何如間 試作完了까지에, 一三億三千萬圓(三, 七〇五,
五五五\$)은 걸릴 것이라곤 하니 큰 일이다.

豫算計劃에 依하면 日本單獨으로 할 境遇의 總豫算은 十三億三
千四一〇萬圓(三, 七〇五, 八三三\$)인데 美國인 援助가 있을
境遇에는 日本側 十三億三千四一〇萬圓과 美國側 一〇億九千七
五〇萬圓(三, 〇四八, 六一一\$)으로 豫定の 一九五七年 末을 半
年 短縮시키코자 하는 計劃이다.

對航空 로켓 彈과 其發射 照準裝置

現在 航空自衛隊에서는 美軍 指導下에 F 86 戰闘機의 整備充足
을 急히 하고 있는데, 同機의 裝備 一二, 七日 日 機關銃 六門으
로서는 空聯의 中型 제트 爆擊機 I L 28(極東地域에 配置하고 있
다함)에 對하여는 所用 없나하므로 一二, 七日 日 機銃의 代身로

켓트를 裝置하자고 決定이 된 것이다.
가, AAR (Air-to-Air Rocket)

形 式 個體推進藥 로켓트彈

直 經 七〇mm 最大

全 長 一, 一〇〇mm

炸 藥 一kg

精 度 射程 三〇〇미터까지, 五〇% 散布界의 直徑 十미
우(千分之十)以內

速 度 一秒間에 六八미터(燃燒終了時)

實用最大 飛翔距離 三〇〇〇미터

全重量 八, 五kg

推進藥 無煙火藥

信管 着發 近接 時間의 三機能併有

나, 發射照準裝置

發射方式 定交着角發射方式

예 다 自動追尾 距離는 十一十五mm

計算裝置 照準器 指示器와 兼用

照準器 부타운管 指示式 Zero method GIC 指示器와 兼用

합

모란 經費는 双方에서 現在까지 五千五八二萬圓(一五五, 〇五

五\$)을 使用 總豫算은 一億八千五〇〇萬圓(五一三, 八八九\$)

으로 一九五八年末까지는 完成을 豫定이다. 그러나 美國의 援助

가 있을 境遇에는 日本 一億三千五八二萬圓(三七七, 二七八\$) 美

國 一億八千九〇〇萬圓의 支出로 一九五七年까지에는 完成한다는

計劃이다.

誘導彈——爲先簡單한 空對空이며부인

誘導彈에는 普通 高射砲와 같이 地上에서 飛行機를 쏘는 것地
上에서 地上의 것, 飛行機에서 地上의 것을 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研究試作코자 하는 것은 空中에서 空中을 쏘는 空對空의
것이다. 그것도 比較的 簡單한 施動型 空對空 誘導彈인 것이다.
이것은 緩慢한 施動을 줌으로써 彈道가 定하여지며 發射初期의
誘導을 必要로 하지 않으므로 製作費도 廉價이며 裝置도 比較的
簡單하다고 한다.

現在까지의 經費는 四〇萬圓(一, 一—\$) 一九六一年까지에
는 三億六千一三〇萬圓(一, 〇〇三, 六一—\$)을 投入할 計劃이
다. 美國의 援助가 있을 境遇에는, 日本側 一億三千, 九〇萬圓(三
六三, 六一—\$) 美國側 四億七千四〇〇萬圓(一, 三—六, 六六
六\$)의 支出計劃으로 一九五九年末까지에는 完成하고자 한다.

高馬力の 船用 가스라이빙

防衛廳이 一九五四年(昭和二十九)年度以來의 豫算으로 建設中인
潜水艦에 搭載하는 五〇〇〇馬力의 船用 가스 타아빙을 처음으로
로 日本서 製作하는 高馬力의 船用 가스 타아빙이라고 하므로 安
全第一을 爲主로 하여 製作하였기 때문에 容量 容積 其他의 點에
어려가지 不滿意,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 段階로서는 性能의
向上을 目標로한 高級의 가스 타아빙을 試作해야 한다하여, 이
研究試作을 計劃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試作機의 主로 燃料器와
空氣壓縮機의 輕量小型化를 圖謀하는 同時에, 溫度를 높이고 燃
料消費率을 좋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技研」에서 생각하고 있는
試作機와 完成一番機의 主要한 性能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試 作 機	一 番 機
出 力	五,〇〇〇馬力	五,〇〇〇馬力	
燃 料 消 費 率	36gr/SHP/hr	四〇〇	
全 長	五,五 M	五,八 M	
全 重 量	七 TONS	十 TONS	

모한 以上의 要求性能을 내기 爲하여 左記와 같은 構造를 採擇 하기로 하였다.

一、環狀燃燒器

二、十二段軸流 空氣壓縮機 壓力比五、五

三、空氣壓縮機에 輕合金 材料을 使用

四、起動用 가스스타아빙의 使用

五、가스 溫度 八〇〇度(攝氏)

豫算計劃 現在까지 研究에 使用한 金額은 四,〇〇〇萬圓(一一一,一一一,〇〇〇\$)으로 完成한 豫定이다. 그러나 美國援助를 期待할때의 計劃으로서는 日本側 一億四〇〇〇萬圓(二八八,八八九\$) 美國側 一億五〇〇〇萬圓(四一六,六六七\$)으로 一九五七年까지에는 完成하였다는 腹案을 가지고 있다.

迎擊 시류 레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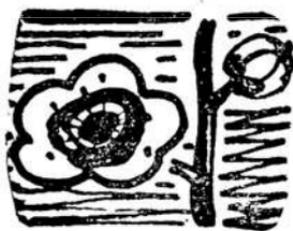
GM(誘導彈) 原水爆 ジェット機 등의 兵器는 只今부터 앞으로의 戰爭에서는 아마 人氣의인 兵器로 될 것이라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兵器를 演習에서 實驗을 한다는 것은 不可能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全然 할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기로 한다면 이야말로 演習地의 選定과 費用이 큰 問題이다. 爲先 日本에서는 無理이다. 그러나 近代戰의 人氣兵器에 對한 演習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시류 레에리인 것이다. 시류 레에리는 ジェット機의 飛來誘導彈의 發射等을 實戰과 같이, 地上의 機械裝置로서 正確히 計算하는 것이 教育 演習用에는 不可缺의 것이란 것이 當局의 主張이다.

「技研」이 바라고 있는 시류 레에리는

- 1.我方機 操縱裝置
- 2.機上射擊照準裝置
- 3.敵機 操縱裝置
- 4.位置計算裝置
- 5.메다 시류 레에리
- 6.相對 位置計算裝置
- 7.指揮 計算裝置
- 8.射擊 判定裝置
- 9.各種 記錄裝置
- 9.各種類로 되어 있고, 이 機械을 움직이면서 어떤 一定時에 있어서의 彼我的 動態를 正確히 捕捉 攻擊防禦의 演習을 行하는 것이다.

即 舊軍隊의 圖上作戰의 近代的 要素에 이 裝置인 것이다.

豫算措置에 對하여는 現在까지 이 研究試作費는 三千二二〇萬圓(八九,四四四\$)이며 이 機械 完成豫定의 一九六〇년까지에는 合計 三億三千九二六萬圓(一,〇五三,五〇〇\$)이 必要하다고 한다. 美國의 援助가 있을경우의 當局의 腹案은 日本側 一億三六〇六萬圓(三七七,九九四\$) 美國側 二億一千三〇〇萬圓(五九一,六六七\$)이다. 以上 防衛廳이 MWD의 援助를 期待함과 同時에 이 제부터 最重要 研究項目으로서 採擇하고 있는 것을 紹介하였는데 이 外에 ZC엔진이 있다. 이것은 이미 紹介한 바 있으므로 省略하였는데 防衛廳에서는 二,〇〇〇馬力의 것을 三菱日本重工에서 一台一,三〇〇萬圓(三六,一一一\$)으로 十二基計 五億一千六〇〇萬圓(一,四三三,三三三\$)(分을 購入하고 있고, 이 제부터 앞으로의 分으로서 三,〇〇〇馬力 最高水準의 것도 完成하였다고 하는 것이 現實情이다. 以上의 新兵器 研究計劃과는 別途로 美軍에 要請하는 供與兵器의 리스트를 在日軍事顧問團에 提出하였다. 리스트中에는 나이가 페리아 스타로 등 美軍에서도 機密로 하고 있는 誘導彈 七-八種을 爲始하여 富士山 등의 美軍基地에서 問題들이 드린 原子로켓로 오베스트론도 包含되어 있다. 또한 懸案中이던 瑞西에리프社의 對空誘導彈 타이프五六의 購入計劃도 推進하여 一九五六年(昭和三十一年)度 一億六千萬圓(四四四,四四四\$) 三二年度 一億九千萬圓(五二七,七七八\$)의 豫算計劃을 더욱 擴充하여 GM研究를 主要한 것의 하나로서 크게 해보려고 熱을 올리고 있다.



나의 空軍時代

玄 勝 鍾

참으로 거창한 題目이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렇게 생각된다. 「나의 空軍時代」라고 하면 그때도 일핏 머리에 떠오르는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렇다 할 별 功績도 없었고 저렇다 할 큰 過誤도 없었으니 이런 글을 써야 할 나의 處地가 可憐해진다. 그저 記憶에 남는 것이라고는 잔잔한 물결의 連續밖에는 없었으니 그것이나마 그려내 보는 수 밖에 다른 도리는 있을 리가 없다. 이럴 때 마다 나의 平凡한 性格과 行動이 언제나 限없이 恨嘆된다.

나의 空軍時代는 空軍의 閻羅大王 職에서부터 시작된다. 世俗的으로는 남들이 「백다구왕」이라고 부르던 職業이다. 가장 嚴肅하고 高貴한 任務임은 두말할 必要도 없지만, 그러나 率直하게 告白한다면 過히 氣分 좋은 일은 아니었다. 내 男便, 내 아들, 내 동생을 잃은 遺家族들의 애끓는 슬픔에 接할 때 마다, 나 自身 一種의 罪人이 되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慰勞의 말을 하느라고 애를 써야 하는 것도 좋은 일은 못되지만 遺骨函을 만지고 때로는 遺骨 그 自體까지

도 손에 대야 하니 처음에는 아주 까
림칙한 노릇이었다.

第二次 陸海空軍合同 追悼式 때라고
記憶된다. 式日이 가까워서 英顯을
모시고 式場인 釜山으로 갈 準備를
마치고 있는데 급작스레히 遺骨函의
規格을 一定하게 하라는 指示가 있
어, 모든 遺骨을 그 規格에 맞는 재
函에 옮기게 되었는데 時間은 없고
사람의 손은 모자라고 하여 덤비는
관이라, 나도 한 몫 끼어 그 作業을
시작하였다. 遺骨이라고는 처음으로
손에 대어보는 셈인데 操心 操心 재
函에다 遺骨을 옮겨 모실 때, 그 가
무가 달아 들어 그것을 餘地없이 마
서 버리고 말았다. 그 後 얼마동안은
무에 무엇이 걸려 있는 것만 같던 記
憶이 새삼스러히 난다. 이런 일이
몇 번 있는 다음부터는 遺骨函을 보
아도 심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빈
函같은 것은 事務室에 쌓아 놓고도 無

感覺하게 되었다. 一種의 書類函을
 놓아 두었음과 마찬가지로 생
 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
 에게는 그것이尋常하지는 않은 모
 양이었다. 한때는 나의 事務室에서
 는幽靈이 나온다는 所聞이 났었다.
 적어도 X X 局士兵들은 밤에 혼자서
 그 房에 드나드는 것을 아주 꺼려한
 다고 들고 혼자서 苦笑을禁하지 못
 하였다.

이런 일이 나의 空軍時代의 물결
 의 한트막이다. 그 밖에도 이런 토
 막 토막을 그리자면 相當히 많이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一一히 적을 생각은 없다. 다만 空
 軍時代를 清算하여 볼 때(後悔되지 않
 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
 가 空軍에 服務한 三年八個月을 通
 하여 적어도 直接 내 밑에서 나를 도
 아주는 분들에게 한번도 큰 소리를 치
 지 않고도 能히 任務를 遂行하여 나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軍隊에서 큰
 소리를 지르지 않고 무슨 일을 하였
 겠느냐고 反問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도 모르나 나의 記憶에 남아 있는 것
 을 더듬어 보는 限 큰 소리를 지르며
 일을 시킨 일은 全然 없는 듯하다.

아마 처음에는 한꺼번에 大尉의 階
 級章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軍
 隊에 익숙하지 못한 탓으로 그랬는
 지도 모른다. 또 分에 넘치게 新任
 者가 대번에 課長자리에 앉기는 하
 였으나 軍의 行政業務에 낯서른 탓
 으로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하나, 理由는 어찌하였던 간에 밀
 에 있는 사람을 내댤 놓아서 밀의 사
 람으로 하여금 他律的으로 일을 하
 게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느라니
 始初에는 多少 고되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밀의 사람이 하지 않으면, 또
 는 밀의 사람이 바빠서 미처 못하면

아무리 機械的인 일이라도 그렇고 아
 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내 自
 身이 하였다.

그것이 무슨 不自然스러운 일도 아
 니었고 또 不平을 품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高喊이라도 질러면서 強壓的
 으로나도 시키고 싶다는 氣分을 가
 지면서도 참아 그럴 勇氣가 없어 내
 自身이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일은 나의 責任下에 하여야 할 일
 이니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나
 도 해야 하는 至極히 가벼운 생각
 에서 내 自身이 하였다. 그러는 동
 안에 누가 무엇이라고 하지도 않았
 건만 밀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또
 積極的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것
 이 簡單한 文句로 表現한다면 所謂
 率先垂範이라는 것이 있을는지도 모
 른다.

그러나 그 率先垂範에는 몇 가지 要
 素가 더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

진다. 아무리 위에 있는 자가 自進하여 먼저 模範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아마 밑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따르는 되지도 않을 일이다.

적어도 그것이 模範이 되려면, 그 模範은 옳아야 할 것이고 바야 할 것이다. 옳고 바른 模範, 다른 말로 表現하면 總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 總鑑은 부러져서 만든 總鑑이 아니라, 自己의 本心에서 自然的으로 흘러 나오는 옳고 바로 착한 模範이라야 總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空軍에 服務하던 時節의 나의 態度였다. 勿論 내가 現實적으로 그 總鑑이 되었다는 것은 決코 아니다. 또 事實上 되지도 못하였다. 다만 내가 그러는 軍에서의 하나의 理想으로서의 態度에 지나지 않았다. 그 理想이 어느 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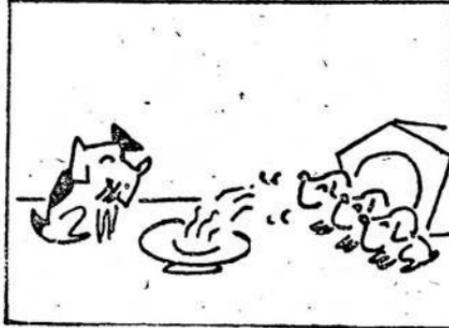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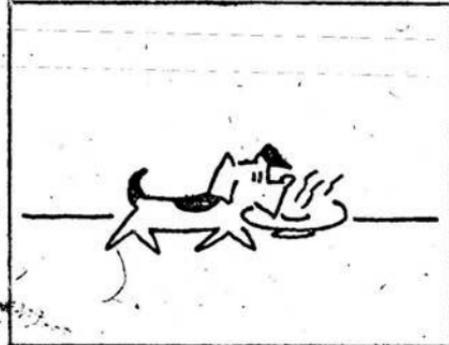
度로 現實에 接近하고 있었던가는 큰 疑問이다. 그러나 그와같이 큰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큰 허물없이 지낸 것을 보면, 現實에서 完全히 동떨어진 理想은 아니었나 보다 하고 自慰를 하여 볼 따름이다.

方向을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自慰할 程度나마 되었던 것은 決코 나의 탓은 아니었다. 나 같은 無爲無能의 허수아비 밑에서도 조금도 싫은 얼굴을 짓지 아니하고 나를 받들어 주던 분들의 바탕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참으로 그때 같이 일하던 분들의 모습은 내 記憶에서 사라질 줄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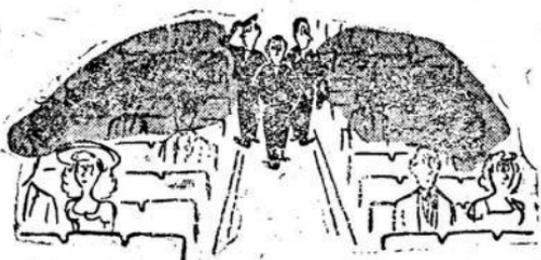
任官以來 오래동안 勤務하던 X X 局을 떠나서 國防部로 자리를 옮기게 된 때의 일이다. 多年間 오부속하니 조그만 家族을 이루었다고 自處하던 곳을 떠나려고 하니, 더욱이 그동안 情들은 課員들과 막상 作別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몹시 서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課員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었던 모양이다. 밍은 품은 얼마동안 같이 일하던 課長이라 구하여 送別宴을 베풀어 준 다기에 서슴치 않고 參席하였다. 場所는 어떤 조그만 飲食店의 二層 廂다라 房이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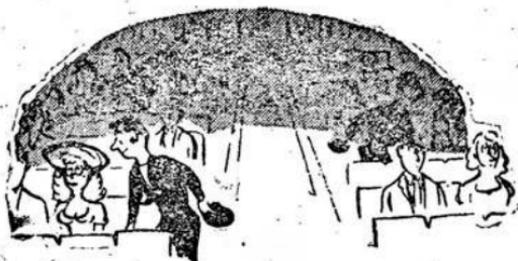
나온 飲食이라고는 너더치 못한 사람들이 모아서 내놓은 것이니 그리 좋을 것은 없었다. 그러나 정성어린 飲食임에는 틀림 없었다. 또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過分한 饗宴이었다. 보내는 人事, 가는 人事가 끝난다 음한 두 잔의 술이 돌아가지 그만 座席은 보내는 설음, 가는 설음으로 마치 初喪집같은 울음판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軍人아 눈물을 흘려서 될 일은 아니지만 多感한 人情은 흐르는 눈물을 抑制하지는 (一〇三面으로)



海外漫畫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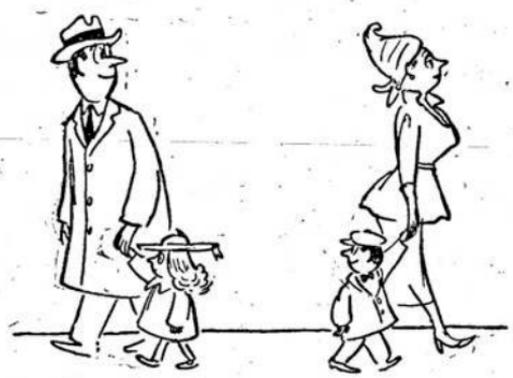


甜 音(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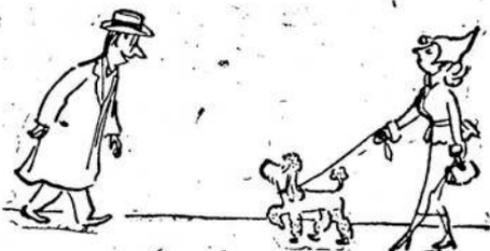


個人的幸福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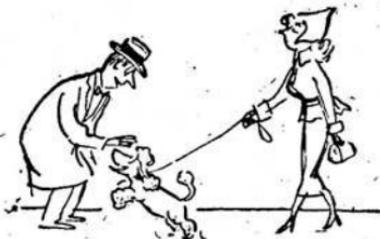




逆
反
應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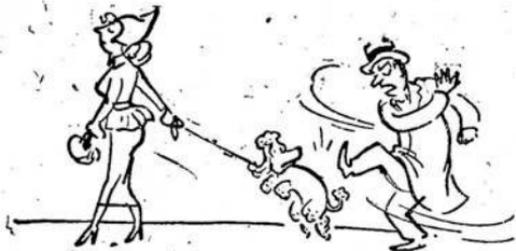
④



⑤



⑥



第六感

①



②



③



④



⑤



⑥





操縱士의 아내

金 泰 嬉

펜을 들어본자가 너무나 오랜 옛날처럼만 느껴지는 平凡한 저에게 「조종사의 아내」라는 원고를 쓰게하는 無理함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공포마저 느낍니다. 글썄요.

보통사람보다 색다른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등 別다른 刺戟으로 느껴지지 않고 無心히 지나고 있는 지금이기에 새삼스럽게 내 생활을 파고들어보면 역시 하나의 실없는 짜증으로만 꼬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사람이란 平凡하고 單調한 生活속에서 쉬히 권태를 느끼지만 몇달이지난후 지난날의 그 권태로움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를 뼈아프게

느낄수 있듯이 항상 내몸 가까이 그의 호흡을 느낄수있고 또 그 生活속에서 苦樂을 함께 할수 있기에 남들처럼 새삼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솔직한 心情이 아닐까요.

에민한 神經과 민첩한 感性으로써 男便을 도우고 받들어 나가는 것은 비단 조종사의 아내만이 가지는 本分이 아니겠지요만 보통 地上근무를 하는 一般人보다 오히려 空中근무에 시달리는 그와 함께 生活하기란 적지 않은 神經을 써야하는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自身의 問題로나 살림사리에 자참구체한 불만을 마음놓고 터놓지 못함도 오히려 순종과 인내를 주추르

하로하로를 원만히 이끌어 나가야함은 男便의 정신적 노동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無限히 크고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수 있는 그들에게는 家庭이란 때두리가 좁고 답답하게만 여겨짐도 無理는 아닌 줄 짐작합니다. 一見 무질서한듯한 그들의 生活도 너무나 굳게 이루어진 전통과 궁지에서 오는 變形일 것이며 이것이 남들과 다른 性格을 形成해내는 요소가 아닐런지요.

호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담백하고 쾌활하면서도 때로는 진실에 울수 있으며 正義와 信義를 生命처럼 重히 여기며 男子이면서도 가달픈 情에 이기지 못하는 熱情的인 그들, 이기에 人間本性 그대로의 表現을 아낌없이 펴보는 듯 가슴 찢듯한 흥분을 느낍니다.

지난날 그 어떤 아가씨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전 어쩐지 眞心란 語句가 무척 맘에 들어요, 어떤이는 막 면도하고 단점은 男子의 과한 矜持에 매력을 느낀다지만 그러한 感情과 흡사한 매력을 조종사에게서 느낄 수 있어요」

그 후 이 아가씨는 그렇게도 매력 을 느낀다는 Pilot로부터 떠나고 말았읍니다. 單純히 Pilot란 語句에게만 매력을 느꼈기에! 조종사의 깊은 참마음과 人間性에 부딪쳐 보지 못했기에! 또한 그들의 生活을 眞心으로 짓씌어 보지 못했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권태를 느꼈으리라 生覺합니다.

한번 그들의 眞心에 부딪쳐보고 또 조종사의 生活이 그 얼마나 曲藝의 인위대로움이 따르다는 것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감히 그들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슬어하는 것이 人間の 常情이라지만 조종사의 生活속에서는 즐겁고 기쁜일보다 불안한데 감에 위중일을 초조하게 보

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三年前 남편과 多情히 지냈던 K大尉의 不幸한 通告가 있었을 때에 그 원통함과 슬픔은 이 무表現하기 어렵읍니다만 그때의 이 슬픔과 초느끼는 비단 K大尉 個人에 對한 것보다 오히려 조종사의 아내들만이 가질 수 있는 哀絶한 슬픔이 었읍니다. 이러한 體驗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갈 때마다 神經이 무디어 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날카로워만 같은 어쩔 수가 없군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家庭主婦로서 不安과 초조한 生活보다 平溫하면서 變動은 없으나마 오묘한 살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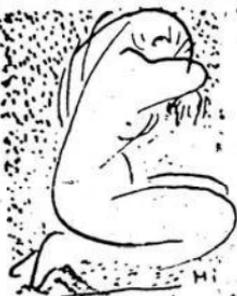
그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종사의 아내 역시 多情多感한 女子이기에 그 어떤 刺戟的인 生活보다도 그저 담담하게 지날 수 있는 행복이 늘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종사에 對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이 生活이 남보다 월등하다는 우월감을 버리지 못

하는 모습속에 泰然히 살고 있는 자 신에 對해 회의를 느낀다만이 모순된 감정이 바로 조종사의 아내들의 슬직한 心情이 아닐까 生覺합니다.

어제도 黃昏이 깃들면 한껏 피로해진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男便을 오묘한 분위기와 따뜻한 마음씨로 포근히 감싸듯 맞아 드려서 하로의 피로를 잊게 하여주는 그때만이 가장 행복된 시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살림사리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不安과 불만이 있고 의로운 날이라 하더라도 이 환경에 뛰여든 것을 조금도 후회는 하지 않읍니다. 그의 對語속에서 넘치는 「젊음」을 보고 느낄 때 그와 함께 웃고 있을 수 있는 現在를 오히려 감사히 生覺하면서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生活속에 권하여 맞아드리고 싶지도 않읍니다. 오늘도 하늘에서는 來日을 爲해 自己를 修養하는 넓고 푸른 道場을 맘껏 달리는 젊음이 입을 봄니다.

(끝)



知性俳優

잉그리트·버어그만

빌·데이슨

「뉴욕」영화평론가협회에서는 一九五六년도 최우수여우(最優秀女優)로서 「잉그리트·버어그만」을 선정하였다. 그러면 「힐리웃드」를 떠나 八년만에 미국영화야 나 스타시아에 출현하느냐 그의 심경(心境)은?

그 누구 보담도 훌륭한 감수성(感受性)과 총명(聰明)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犧牲)한 여성— 그가 바로 「잉그리트·버어그만」이다. 남편과 가정, 그리고 「힐리웃드」에서의 명성(名聲),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타리」의 명감독(名監督) 「롯데리니」의 아내가 되므로써 세상사람들의 화제(話題)가 된 것은 몇해전, 一九四八年 여름의 일이었다.

『사랑은 폭탄보다도 무서운 흉기(凶器)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파괴해버린다』고 「다닌끼오」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시인(詩人)의 말에도 예외(例外)는 있다. 「잉그리트·버어그만」의 정신은 파괴되지 않았다. 아니 이 쓰라린 인생의 시련(試練)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더 단련시켰다. 얼마나 심한 양심(良心)의 가책(苛責)에 고민하였던가, 그것은 오직 그녀 자신이 알고 있다. 사랑의

열매는 시다고 한다. 쓰다고 말할 사람도 있으리랴. 그러나 그 여자의 경우는 그 무엇에도 굽히지 않는 의지(意志)와 단호한 행동으로 마침내 승리의 꽃이 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은 모두가 과거(過去)의 일이다. 지금의 「버어그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現在)인 것이며 또한 미래(未來)인 것이다. 八년동안 부군(夫君) 「롯데리니」와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일해온 그는 지금 다시 오랫동안 미국영화에 등장(登場)하게 되었다.

『二十세기 폭스』사가 〇〇만불의 영화화권(映畫化權)을 투입하였다는 「브로우드웨이」의 「히트」극 「아나스타시아」에 그는 살해(殺害)된 「로시아」황제의 딸이라고 자칭하는 「아나스타시아」의 역(役)으로 나온다. 『버어그만』, 미국영화로 다시 돌아오다』의 뉴스는 전세계의 영화팬과 「저널리즘」을 뒤흔들었다. 그들의 눈은 일제히 이 영화촬영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아나스타시아』는 대부분 「런던」에서 촬영되었다. 그리고 「버어그만」이 「런던」에 있는 동안, 「롯데리니」는 그로서는 최초로



와 영국영화 『씨어와이프』(「씨·코린즈」) 「티차아트·버어튼」(主演)의 「로케」를 위 해서 「자마이카」로 갔었다. 그런데 그 촬영을 개시하기 직전에 자본(脚本)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롯데리니」는 감독(監督)을 사퇴하고 「런던」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바로 그때 나는 「버어그만」을 만날 수 있었다. 그가 「인더뷰」를 승락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 자리에서 그는 지난 八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 장소는 「런던」의 어느 「웨스트말」이었다. 「데이블」 저쪽

△어린 소녀 「버어그만」 아버지와 함께▽

에 앉아 있는 그는 八년 전과 조금도 다름 없이 아름답고, 젊고 맑은 눈은 전장과 만주감에 빛나 있었다. 그는 먼저 「롯데리니」의 돌연한 「런던」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고했다.

「남편은 완성된 자본 그대로를 따라서 일하는 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는 그때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대사(台詞)나 역할을 변한답니다. 연기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몹시 싫어 하지요. 나도 처음에는 그의 수법(手法)에 약간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이태리」에 있는 한(限), 순수한 「이태리」 영화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연기를 하는 사람 즉 배우(俳優) 보다는 그때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롯데리니」의 일에 대한 그의 비평에는 세계적인 대감독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아내로서의 자망과 존경의 넘(念)이 숨어 있었다. 그가 이때까지 몇해 동안이나 수많은 영화와 「텔레비전」 출연을 거절해 온 것도 그것이 「롯데리니」와 함께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니.

급사가 가져온 「빵」은 거절하고 달걀을 조금 들었다.

「아니에요, 별로 감식(減食)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먹어요. 그렇지만 「이태리」요리에는 조금 질렸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태리」요리만 먹게 되니까요.」

「네, 어린애를 맡을지요? 글세요, 애들(여섯살의 「로벨티노」, 배살의 쌍둥이 「이사벨라」와 「잉그리드」)과 떨어져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만 남겨둔다는 것은 가엾게 생각되었지만 그러니 모처럼 좋은 계절을 「런던」의 「호텔」에 가두어 둔다는 것은 더욱 가엾습니다. 「산타·마리베라」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후(氣候)거든요. 남편과 나는 매일밤 같이 어린애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애들에게 날마다 전보(電報)를 쳐도 독일의 농장이지만 아직 어리니깐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전보가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았나 하죠 무척 걱정합니다.」

입술연지 이외는 「레이크·언」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버어그만」의 얼굴에 웃음

이 떠오르니 저번날을 이따아은 「메스토랑」의 방안은 갑자기 환해진다. 생각하던 것보다 말랐지만 「윌리웃드」에 아직도 전설적(傳說的)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의 아름다운 옛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 윈손의 약손가락에 낀 결혼반지가 번쩍거렸다.

「윌리웃드」를 떠나간 이후 「버어그만」이 「롯데리니」이외의 감독 밑에서 일을 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첫째는 「장 무노와 아르」감독의 「프랑스」영화 「봄은 카아네이손」인 데 작년 봄의 일이다. 그러나 이것도 「롯데리니」자신의 열렬한 권고가 없었던들 그는 아마도 출연을 승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노와 아르」는 「롯데리니」의 옛친구이며 세계적인 명감독이고 이 영화의 「스토리」는 「버어그만」과 「롯데리니」에게 다같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번이나 계속해서 그가 다른 감독의 작품에 출연하게 되자 골이 락한 소문이 떠돌았다.

「버어그만」은 이제 다시는 「롯데리니」와 함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는 따다른 종류의 이르른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서 「버어그만」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그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마 내년에도 「로베르트」와 함께 하나 촬영할 것입니다. 「봄은 카아네이손」이 나의 마음에 든 것을 알고 그는 이번에는 「코메디」를 해본생각입니다. 「로베르트」는 희극(喜劇)은 처음이지만 반드시 재미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따로 따로 한다고 들으니 세상에서는 골 두 사람의 사이에 대해서 이터니 저터니 말이 많다. 들은 여타가지로 변명을 하여야 하고, 터무니 없는 억측이나 소문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언제 나 상당한 「롯데리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처와 나는 행복합니다. 일을 하는 데에도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따로 일을 한다는 것도 그건 인생에서서는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난가요.」

「따로 따로 일을 한다——이것은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비길데 없는 청량제(淸涼劑)이다. 때로는 다른 공기를 마시는 것

이 필요하며 서로 재평가(再評價)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롯데리니」부처와 가까운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잉그릿트」와 「로베르트」는 서로 사탕할 운명에 있는 것이다. 물론 성격의 차(差)는 있다. 이 둘 때면 여기에 벽물담이 있다. 「롯데리니」는 그 벽을 돌아간다. 「잉그릿트」는 그 벽을 뚫고 나간다. 둘 다 저 쪽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이와같은 여타가지 증언(證言)에도 불구하고 하지않은 것으로 골 소문이 떠돈다. 정말 세상이란 귀찮은 것이다. 작년 봄, 「칸」영화제의 「라메일·파아티」에 「잉그릿트」는 혼자 출석하였다. 「『버어그만』, 「롯데리니」와 이혼?』이라는 「까실」이 골 되었다. 「잉그릿트」는 「로오마」로부터 기자로 왔고 「롯데리니」는 그가 애용하는 「스프오스·카아」로 그 뒤를 맡아 왔던 것이다. 「버어그만」은 애를 쓸 때 미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탈 수 없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터무니없는 소문을 일으키는 좋은 실증을 보거나 소개한다. 「아나스타시아」의 의상주문(衣裳注文) 때



<남편 「롯데리니」와 함께

문에 그가 「롯데리니」를 「런던」에 남겨두
고 「파티」에 가게 되었을 때 일이다. 그는
모다 시머무니없는 소문이 날까봐 이 두
도시를 하루 전더 왕복하였다. 『나는 탈

것에는 약속해요. 침대에서 보람도 잠야
잘은답니다.』 하고 그는 웃지만..... 그
리고 「롯데리니」도 자기의 제작의 일을
연기해서까지 「아나스타시아」의 「파티」

「로케」에 동행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나는 「셋트」도 「아나스타
시아」촬영중의 「버어그만」을 방문하
였다. 마침 유계시장이어서 그는 공
연자(共演者)인 「올·부런」과 함께
자미있게 이야기할 하고 있었다. 「메
이크·업」을 한 그의 얼굴을 보고 놀
랐다. 평소의 아름다움과 젊음은 찾
아 볼때야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파
인 불, 고압아되는 눈, 완전히 만 사
람이었다. 만약 언제나 변함없는 그
명량한 웃음이 없었면 나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었다. 곧 「티트백」 작곡
이 알려와서 「셋트」앞에 선 그가 「스
타아트」의 신호와 함께 하는 일거일
종과 포정은 이미 「버어그만」이 아니
었다. 「니코라스」왕제의 딸 「아나스
타시아」공주(公主),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밝에는 느껴지지 않았다. 「셋

트」안은 조용하고 주위(周圍)의 사람들은
바삭하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마침
내 「셋트!」. 주위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
어나왔다.

『인그릿트는 천부(天賦)의 재능을 가
진 여배우이다. 그와 같은 배우는 그리
흔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레타·가르
보」이 때의 명배우인 것이다. 어떠한 역할
이라도 당당히 해낸다. 그것은 연기력(演
技力)이라는 것을 초월하고 있다. 하나의
대사(台詞), 하나의 움직임, 그 모든 것
이 역할속의 인물 그대로인 것이다. 완전
히 그 역할의 인물이 될 수 있는 여배우
그것이 바로 「버어그만」인 것이다.

이와같이 「루노와아르」감독도 최대의
참사(讚辭)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완
전히 그 역할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은 그가 그 역할의 인물을 그대로 흉내내
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버어그만」 자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나스타시아」의 인물에 대해서는 여
러가지 저술(著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저술(著述)만 보든 읽은 일이 없습
니다. 편제 「복인」의 살모 있는 「아나스

타시아」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짓을 하면 오히려 나는 곤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아나스타시아」니까요……」

이 말에서 그가 뭘내고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카메라」앞에 있을 때 「버어그만의 피(血)는」 「아나스타시아」의 피인 것이다. 어떠한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을 때 배우에게는 오직 한가지의 할 일이 있을 뿐이다. 그 역할을 그 역할 그대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잉그리트」는 「아나스타시아」 그 사람인 것이다.

「무노와아르」는 그를 천부의 재능을 가진 배우라고 하였다. 그렇다. 「잉그리트·버어그만의 배우로서의 재능, 위대한 배우가 될 피(血)는, 이미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체내(體內)에 초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두살 때 이미 나는 여배우가 될 것을 결심하였읍니다.』 이렇게 그는 말한다.

요항인 「스웨덴」에서 보낸 소녀시절(少女時節)은 고독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가 아직 잔잔해 있을 때 죽었으며 아버지 그는 그가 연두살 때 세상을 떠났다. 「잉그

릿트」는 겁이 많고, 자기의식(自己意識)이 과잉(過剩)한 소녀였다. 특히 키가 남달리 컸기 때문에 그것을 몹시 고민하고 있었다. 주로 시(詩)나 소설을 읽고는 그 속어나오는 주인공을 자기라고 가정하고 자기만의 연극을 즐기곤 하였다. 연두살 때 「스톡홀름」의 극장을 구경한 그는 자기의 장래를 뚜렷이 결정하였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했읍니다. 지금도 나는 여배우를 그만두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잉그릿트·버어그만」이 아내로서의,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위대함,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나, 자람에 있어서나, 알에 있어서나, 일보(一步)도 타협하지 않는 그의 정직함에 있는 것이다 라고 「장·무노와아르」는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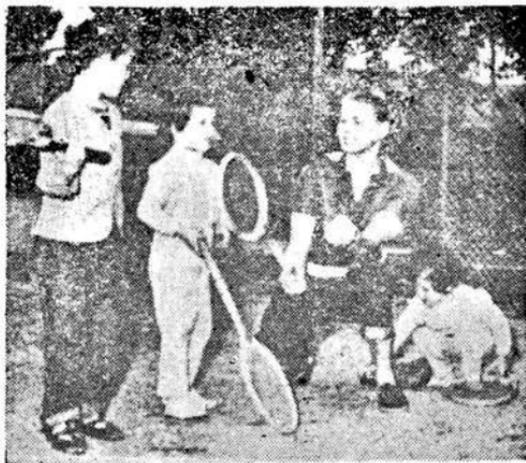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가 나의 「푸덴치광장」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나는 그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상세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솔직하고, 그러면서

도 정확한 비평이라 할가의 절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는 말하자면 투바로 「붉은 강철(鋼鐵)의 칼이다. 절대로 굽히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완고하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의 정직함, 자기의 마음에 대한 정직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버어그만」이 거칠고 차디찬 여성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야기 가 있다. 「아나스타시아」의 감독 「아나로울·리트벨」이 촬영 첫날 「릿트」의 자기의 자에 앉으려고 하였다. 그때 「버어그만」은 바로 그 옆에 조그마한 사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농담을 하였다. 『「리트벨」 씨이 위에 올라가서 저를 감독할 작정이세요?』

五「피이트」八「인치」라는 그의 키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보통 그는 「리브·씨인」이나 그 밖에 「씨인」에서 상대역(相對役)과 나란히 설 때에는 두루를 벗는다.

『붉은 「카아네이손」에서는 공연(共演)의 「펠·피어터」가 충분히 六「피이트」는 되기 때문에 맨발이 되지 않아도 좋았지



마블 「로베르노」(老) : 쌍봉이 「이시벨라」와 「잉그리트」와 함께

만 이터한 일은 드물 정도이다.

여기에서 그는 「헌드·텍」에서 담배를 끄내어 불을 붙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로서는 일을 할 때가 휴가와 같은 것이랍니다. 일이 없을 때에는 친구들이 차(茶)나 물건사거나 혹은 「파아티」에 초대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거절할 구실(口實)도 서지 않아요……』

그러한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그는 바쁜 것을 좋아 하는 것 같다. 언젠지 무엇이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제 「아나스타시아」의 촬영과 동시에 「파티」에서 상연(上演)될 「茶와同情」에 출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출연분만이 아니다. 영아의 자문을 「프랑스」말로 번역하는 것이나 무대장치 혹은 의상(衣裳)에 대해서도 의논을 받는다. 대체로 미국의 연극이 「프랑스」에서 성공한 예는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는 꼭 성공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프랑스」말이 좀더 특색해야 될 텐데……」 하고 말하지만, 친란에 그의 「프랑스」말은 훌륭한 것이다.

영어나 「이태리」말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소 「스웨덴」사투리가 있기는 하지만.

『영화의 일만 하고 있으면 배우에게 무대(舞臺)가 열어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관중과의 접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영화의 일을 위해서도 무

대의 수련(修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무대라면 영화보다 자유로운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과 마음놓고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올겨울에는 마음껏 애들과 함께 놀려고 합니다. 네, 애들은 「파티」의 학교에 넣고 싶어요. 정말한 「아파아트」를 골라서, 아니요, 「호텔」이라도 상관 없지만 부엌이 없는 것이 불편하지요. 역시 애들에게는 가정적인 식사를 해주고 싶어요.』

애들의 이야기 못할 때의 「잉그리트」는 정말 즐겁고 행복할 듯하다. 작년 겨울 「파티」의 「호텔」로 그를 찾아갔을 때 「롯데리니」의 전처(前妻)의 애를 합해서 어릴 때 빛이 부모와 함께 단란한 가정생활을 기고 있던 것이 생각난다.

그런데 「二十세기」(폭스)에서는 「아나스타시아」의 공개를 맞이해서 그를 미국으로 초청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올겨울이면 「茶와同情」의 관계도 함께 페티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하고 그는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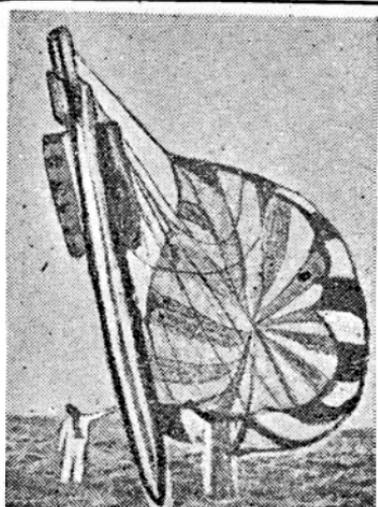
「폭스」가 「一九五七년도」의 「아카데미」상을 노라고 말했더니 「아나스타시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니 「그것은 훌륭한 일인군요!」하고 소리쳤다. 「릴리웃드」에 대한 약의 같은 것은 조금도 느낄 수 없다. 정말 명량한 웃음이다.

그가 「롯데리니」이외의 감독의 작품에도 출연한다는 것이 뚜렷해진 오늘날 「릴리웃드」에서는 「비어그만」주연의 영화를 제작하려고 애쓰고 있다. 「파라마운트」에서는 「브로우드웨이」와 「런던」에서 크게 「윗트」한 「조오크가아른」에 그를 끌어들이고 하고 있으며 「무노와아르」도 될 수 있으면 「릴리웃드」에서 다시 한번 그와 함께 일할 것을 원하고 있다.

「한꺼번에 여러가지 일은 할 수 없읍니다. 현재는 여하한 「茶와同情」이 문제입니다. 한수일(週日)도 끝나게 될지 「롱·런」(長期公演)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울겨울은 경기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리」의 극장의 출연료는 싸니까요.」하고 그는 웃었다.

「임그윗트·비어그만」의 길은 결코 평

☆ 「英國 로켓트彈」 출현 ☆



英國의 「브리스틀」飛行機製作會社와 「브리스틀」航空엔진會社에서 製作한 新兵器 「로켓트·로켓트彈」 「로켓트」의 實驗이 南 오스트랄리아의 우메타 實驗場에서 行하여졌다. 「로켓트」의 特徵은 高空으로 向해 發射한후 파라솔의 自動裝置에 依하여 느린速力으로 下降하고 再次使用할수있는 點에 있다고 한다.

「사진은 「로켓트」이 파라솔로 下降하고 스파이크를利用하여 安着한 場面」

탄한 것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운 숲속을 지나 이제 밝은 희망의 길에 나온 것이다. 그가 다시 제2의 고향 「릴리웃드」로 돌아갈 날도 멀지 않은 것이다.

「앗참, 너무 시간이 오래 되었어요.....

지금 나는 「茶와同情」의 빈객자와 같은 「아파아르」에 붙어있어요. 지금부터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만 질레하겠읍니다...」

다정한 악수, 부드러운 미소(微笑), 그

리고 그가 나간 후의 방안은 마치 공기가 빠진 것 같은 쓸쓸한 것이었다. 그 따뜻한 손과 그 명량한 얼굴을 나는 다음에 「릴리웃드」에서 그를 만날 때까지 그리 간직 하리라.

— 끝 —



銀幕위의 詩

伊太利映畫의 新寫實主義

伊太利映畫界의 新寫實主義란 무엇이니?

映畫評論家들은 이 새로운 傾向에 讚辭를 보내고 美國의 監督들은 이를 模倣하고 있으며서도 이 新寫實主義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說明해 주는 사람은 別로 없는 것 같다.

新寫實派 監督들 중에서 가장 有力한 「비로티오·페·시카」氏가 「인리부」席上에서 이에 關係 말해주고 있다. 「슈자인·보이」 「自轉車盜賊」 「미라노의 奇蹟」 그리고 「음베르토·D」를 監督한 「페·시카」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新寫實主義란 銀幕위의 詩다. 이는 人間相互關係를 敘情詩와 같이 表現한다. 이에 對해서 많은 誤解를 사고 있다.

佛蘭西監督 「드네·크레이」氏는 新寫實主義를 「뉴스 報道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으나 實은 그런 것이 아니다.

新寫實主義는 참된 人生을 銀幕위에 詩的으로 表現하는 것이며 그 위에 달콤한 修飾을 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作品은 「아마유어」俳優들을 相對로 製作되는 수가 많다. 흔히 생각하듯 이 台本없이 自由로이 製作되는 것이 新寫實主義는 아니다. 도리어 나는 精誠스텨 써서진 台本을 使用한다. 一部 人士들은 新寫實主義映畫는 製作費가 덜 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決코 그렇지 않으며 一般映畫와 같은 費用이 든다. 一流俳優가 아닌 新人俳優를 登場시킨으로써 우리는 참된 眞實과 誠實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問題는 作品이지 製作費가 아니다. 우리는 新寫實主義者들은 우리의 獨自의 表現法에 關한 問題를 世界가 關心을

가지게 할 수 있는 方法으로 說明하는데 있어 運이 좋았다.

그러나 伊太利에서 製作되는 映畫中 新寫實主義에 屬하는 것은 百本中 겨우 四、五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記憶하시라 아마도 이제 우리들은 「하티웃드」를 模倣하는 映畫製作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하티웃드」의 富力과 俳優들과 撮影所와 尅大한 消費市場과 맞서서 競爭할 수는 없다. 新寫實主義는 우리들만의 分野다」

「페·시카」氏는 新寫實主義 映畫製作이 힘든다는 事實을 率直히 認定하면서 「伊太利 映畫界는 十名에 不過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卽 「페나로·카스메타니」 「무지노·비스몬티」 「로베르토·롯세리니」 「무지아노·에메르」 「페데리고·페리니」等等이라고 말하였다.

약바르게도 「페·시카」氏는 十名을 다 列擧하지 않음으로써 남의 挑戰을 避하였 다.

☆ ☆ ☆

지붕 (IL TETTO)

—「데·시카」監督의 新寫實映畫—

세자레·자바티니 原作
朴 龍 華

☆ 結 婚 ☆

교회의 앞뜰에 여러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방금 결혼식이 끝난 가족들이다. 「자, 자진사, 어서 찍어주구려. 나히쿠 「루이자」씨구, 그티구 아버지와의 어머니도 함께!



이렇게 말한 것은 신랑인 청년 「나탈레」다. 「루이자」가 새 하얀 결혼의상을 입고 밝은 미

소를 띄우고 있다. 젊은 두 사람은 이 「로오마」의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저 우 오늘에야 숙망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여기서 식이 끝나면

곧 지금부터 「나탈레」 근처의 해변촌 「타루타치이나」에 있는 「루이자」의 부모의 집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사실을 말하자면 「루이자」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결혼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젊은 것이다. 장래의 희망을 잘 말해서 세복하면 반드시 물이 줄 것이다. 여하튼 식은 올렸으니까——「나탈레」의 가슴은 희망에 가득차 더질것만 같았다.

이어서 미리 말해놓은 「텍스」가 왔다. 「나탈레」는 신부의 영령이를 밀듯이 차안으로 몰아넣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울타란다. 어물거리다가는 바다로 가는 「텍스」가 출발해 버린다.

그러나 「텍스」는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창문의 안밖에서 여자들이 아직 작별을 성실히 여가고 있다. 「루이자」가 지금까지 하녀로 일해오던 「바이」소령 부부가 오늘은 축하를 하려 와주었다.

「루이자」는 자기가 떠난 후의 하녀로서 친구인 「지이나」를 추천하고, 가야만 한다. 「아주머니, 「지이나」는 나보다 일을 잘한다우!」

「알았어요. 「루이자」도 가끔 놀러와줘

☆ 許若받지 못하는 男便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택시」 안에서 「루이자」는 골재하얀 결혼의 상을 벗어 버리고 속옷바람으로 되었다. 아니,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결혼의 상은 세물 얻은 것이었다. 그는 좁은 라석 안에서 겨우 양복을 갈아 입었다.

「어머니. 이 옷을 잊지 마시고 일곱시까지는 돌려보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하루치 물 더 내야만 하니까요」

거기까지 세세히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이제부터 하루도 살아가지 못할 두 사람의 생활.

—— 겨우 두 사람은 「피스」의 발차자간 전에 달았다. 라석은 벌써 만원이어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 여하튼 여기에서 「나탈레」의 부모와도 헤어져 겨우 단 둘이만이 되었다. 단 하루밤의 신혼여행. 오솔밭은 「루이자」의 부모의 집에서 자고 내일 밤은 또 「로오마」로 돌아오지만 그때도 즐거운 신혼여행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해변의 마을에서 「루이자」의 어머니가 말없이 두 사람을 맞이하였다. 무엇인지 귀찮은 듯한 표정이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고 물으니 「바다에 갔단다. 아버지는 몹시 역정을 내고 계시단다.」 하고 대답한다. 완고한 남편과 가련한 딸의 틈에 끼어 이 불상한 어머니는 힘없이 보

아버지는 정말 노하고 있었다. 「로오마」로 내보낸 딸이 아무런 장대성도 없을 것 같은 청년과 결혼하는 것이 몹시 마땅치 않은 것이다. 그는 바닷가에 나온 두 사람을 보기도 말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때도 그는 바다로 고기잡이하며 나가 버렸다.

집에 돌아와 「루이자」는 열심히 어머니를 세복하였다.

「자, 「나탈레」는 지금은 벼들을 팔는 견습공이지만 하루에 千 「리라」 받고 있는 걸요. 골 바지한 직공이 되면 한시간마다 四十 「리라」가 붙거든요. 집에 돈은 보내 드리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직공이면 바가오면 할당 아니냐? 거기에다가 너 어린 것이 나 생겨봐라. 그만이지」

「어머니 두 참. 우리는 얘기는 좀 더 기대기 무야 약속했어요」

「.....여하튼 좋다.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쉬도록 해라. 내일에는 아버지가 고기잡이에서 돌아오실테니. 그때까지는」

☆ 이것이 新旅行?

이리하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루이자」의 어머니의 전송을 받으며 다시 「피스」를 타고 「로오마」로 돌아왔다. 표의의 길가에는 새로운 고층 「아파아르」가 자꾸만 서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나탈레」의 일터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그들의 힘으로는 그럴만한 곳에 살 수 없다. 그들이 살 곳은 「나탈레」의 부모의 집이다. 양친 이외에 누이내외의 식구도 함께 살고 있는 방울에도 랍아 흡식구의 복잡한 가정이다.

정말 「루이자」는 와보고 크게 실망하였다. 남아라진 돌집의 좁은 방울에다가 짐대도 부엌도 변소도 함께 붙어 있는 것

이 「나탈레」의 집이다. 이것이 두 사람이 앞으로 살 집이다. 누이의 애물이 감기가 들어 누어 있고 울면서 야단법석이다. 그러한 침대의 하나를 「이것이 우리의 잠자리야」하고 가르쳤을 때 「무이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여보, 좀 떨어져 있게 무엇이든 좋을 수 없을까요?』

그러나 간막이 조차 놓을 곳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이 밤에 하나의 침대속으로 들어가니 누이의 애는 호기심에서 신통부 부를 들여다 보는 것이었다. 『빌어먹을 것.』 「나탈레」는 화를 내는 것이었으나 화를 내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잠다 못하여 「나탈레」는 안개의 어찌를 찢거리고 밖으로 나가자고 눈짓을 하였다.

물, 그곳에는 밤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 「로오마」는 잠들고 있다……. 「나탈레」는 가까히 오는 「무의자」를 잡아당겨, 두 사람은 힘껏 깨어났다.

☆ 정미의 안개의 고통

「나탈레」의 일인, 「노충」 「아파하트」의 집

속장소에서 벽들을 싸올리는 일인데, 이것은 대부분 「체칼레」가 구해준 것이었다. 이 때부는 인쇄하고 잔소리가 심해서 공장에서서나 집에서나 「나탈레」에게 잔소리를 피우는 것이다. 「나탈레」는 이제 습관이 되어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새로이 집에 들어온 「무이자」는 이사나이 때문에 거의 신경쇠약이 될 것만 같았다.

「무이자」는 참다 못해 마침내 그들의 침대를 남하로 내놓기로 결정하였다. 남하라고는 하지만 입구에서 방으로 통하는 좁은 통로를 말하는 것이다.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침대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체칼레」는 이것을 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처남의 아내를 본 다시 마구 꾸짖었다.

그날 저녁 「무이자」는 혼자 「페스」정거장에서 있었다. 무엇인지 다시는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페스」에서는 일을 마친 「나탈레」가 내려온다. 「무이자」는 말없이 남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갔다.

『왜 그때, 「무이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가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 원인도 대략은 알고 있다. 『여보, 「무이자」, 우리는 지붕 밑에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넌은 광장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해요.』 「라기는 그렇다. 「나탈레」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소프트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듯이 언덕의 비인 터로 올라갔다.

밑에는 넝은 「로오마」의 거리가 끝없이 전개되어 있다. 그 수만이라는 지붕 밑에는 모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가 살 지붕은 이 넝은 하늘 아래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 사람의 북을자리를 찾아서

며칠 후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 일터준 대로 찾기를 찾으러 나섰다. 물론 단 한 간 방울. 창밖에는 월세없이 고가선(高架線)의 전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리고 있고 벽은 크게 금이 간 방이었다.

『집에는五千』리라』하고 들었지만 三千



<「데·시가」감독과 「브리엘라·팔롯티」女優>

「리타」로 안 되겠어요? 「무이자」가 집주인에게 물었다. 「그것은 그저 탈라는 것 파 마찬가지로 가지지요.」 「집주인은 막 무관이었다. 「나탈메」가 걱정이 되는 듯아 금이 간 벽을 어루만지니 「걱정없어요, 나

머지지는, 얇을때니까」 물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전쟁중의 폭격으로 이렇게 금이 간 것이다. 언제 와트록 무너질지도 모른다.

결국 「나탈메」는 좀더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집주인에게 말하고는 「무이자」를 데리고 방을 나가 버렸다. 그에게는 이런 방에五千「리타」나 팔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었다. 여하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좁으나마 자기 집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기분은 「무이자」는 알 수 없다. 「무이자」의 기분은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당신에게는 펜잡아요. 아침에 집을 나가서 밤에 돌아오니까요. 여자인 나는 하루종일 저 집에 있어야 하잖아요.」

두 사람은 몇몇은 침묵을 지키면서 거리를 걸었다. 거리의 「타디오」상점에서는 「펠레비손」이 파랗강연을 방송하고 있다.

「인류는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원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 전에 지구에 일이나 먼저 해결하라!」 「나탈메」는 큰 소리로 「펠레비손」을 향해서 고함을 질렀다.

☆ 獨 立

마침내 어느날, 집에서는 「체갈레」와 「나탈레」사이의 싸움이 벌어졌다. 요새 전기세와 「가스」요금이 굉장히 높았다고 「체갈레」가 잔소리를 한테서 일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꼬박 꼬박 내고 있어요!」 「나탈레」가 뉘쳤다.

「아무렴, 그 여자는 네가 하라는 대로니까!」 「내 처의 말은 말아요!」 「뭐라고? 네게 일자리를 구해준 것은 누구를 알아?」

가는 말에 오는 말. 여자들이 열에서 벌벌 떨고 있는 동안, 처남 매부는 마치 며살이라도 잠을 못이 싸웠다.

이윽고 「나탈레」는 뜰에서 손구루마를 끌고 나와 말없이 자기네 침대를 심기 시작하였다. 이제 五千「타라」의 다 쓰러져 가는 방이라도 이렇다 저렇다 트집을 할 수가 없다. 「부이자」도, 길으로는 밟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남편이 잘 싸워주었다고 좋아 하였다. 그는 함께 짐을 심기 시작

하였다 — 사람이 좋은 「나탈레」의 어머니만인, 이제 제발 싸움만은 그만두어 달라고 밖으로도 뛰어 나온다. 그 모습을 뉘에 남기고 발걸음도 가볍게 손구루마를 끌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전날의 비인 방앞에 당도해 보니 이전도 웬일인지 일구는 판자로 타러 있고 감시하는 경관이 서 있지 않은가 「여기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모두 이사했소. 二, 三일 중에 이 집은 헐리게 되요. 폭탄으로 못쓰게 되었으니까!」

물론 손구루마도 마필수 없다. 두사람은 오솔로 이 구루마를 곤채로 완전히 집없는 천사가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두 사람은 여하튼 저녁때 상의하기로 하고 거티에서 헤어졌다.

「나탈레」는 손구루마를 일터로 끌고 갔다. 직공의 대기실에 우선 도구를 따끼기 위해서였다. 조수는 꽤히 승락해 주었다.

「그리고 조수님, 또 한가지 청이 있는데 나의 일자리를 매부 「체갈레」와 따로 해 줄 수는 없겠어요!」

「싸움이라도 했나? 그렇지만 그 작자는 한달후에는 계장이 되어서 딴 곳으로 간다!」

계장이라구, 그 다음에 조수, 기사..... 윤이 좋은 자는 어디까지나 출세한다. 그때서 좋은 집에 산다. 이 나는 어떠한가 이 가난한 나는.

☆ 庶 民 들

「부이자」는 어떻게 된 이상, 혼자 힘으로 집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뜰내에서 몇사람을 찾아간 여자가운데 「부치아」라고 하는 친절한 아주머니가 함께 알아보고 주겠다고 말하였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은 가난한 사람이 알아준다.

합계 걸어가는 도중, 두 사람은 교외의 빈터에서 가엾은 일을 만났다. 무단히 빈터에 오막집을 지한 가정이 경관에게 물려 헐어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붕도 없이 벽만 있는 집에 틀어 있는 남자가 경관한테서 「골 철거하라!」고 야단을 맞고 있다.

「가엾게우. 저때두 지붕이나 있었더라면 아무리 순경이지만 그다지 쉽게 틀어설수

는 없지.」「루치아」아주머니는 「루이자」에게가드쳐 주었다. 그 동안에 지붕없는 오락집에서는 곧 남자가 쫓겨나고 벽은 텅텅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때 일터로 남편을 맞이하려던 「루이자」는,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였다.

「어보, 「나탈레」 골와주어요. 만약 조금만 돈이 있으면 우리는 곧 집을 질수가 있어요.」

「뭐라고?」
「만 사람은 十萬」티타」쯤 묻지만 당신은 벽돌공이니까 훨씬 싸게 물어요.」

「나탈레」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다. 「루이자」에게 물어 「루치아」아주머니의 남편 「프란체스코」의 집에 가보고 비로소 그는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즉 「프란체스코」는 그의 오락집 앞에 있는 시장의 비인터에 경관이 안보라는 틀을 타서 집을 지어 버린다는 것이었다. 허가 같은 것은 얻지 않더라도 집만 지어서 물어 버리면 아무리 경관이랄 할지라도 남의 집에 침입하거나 손을 댈 권리는 없다. 무리가 건축의 벌금만으로 끝난다. 지금은

그 정도도 여자를 쓰지 않는다는 가난한 사람은 집에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프란체스코」와 「루치아」부부, 그리고 「루이자」는 일이 많도록 「나탈레」를 세복하였다.

「그렇지만」하고 「나탈레」는 말하였다. 「그럴라면 벽돌 공장, 기와 三百장, 그리고 화산회토(火山灰土) 한 「추더」은 필요하군.」

「게다가」하고 「프란체스코」가 말하였다. 「밤중에 공사를 끝마추려면 일꾼을 아껴서는 안되네.」

「네, 일꾼은 있어요. 필요한 것은 돈이지요.」
「그보다도 용기예요!」 「루이자」가 힘줄 북을 아 주었다.

그러나 「나탈레」가 겨우 결심을 하고 앞에 있는 비인터로 나와 보니, 짐상같이 생긴 자나니 하나가 타아왔다. 「때에 서 집을 건다면 싸게 해드리지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탈레」가 거절하자, 갑자기 그 자나이는 태도가 변하였다. 「젊은 친구, 여기서 있는 말투이 보이 지 않나? 이젠 내가 박아 놓은 거야, 내

가. 여기는 내가 먼저 점명한 땅이란 말이.」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힘차게 「나탈레」의 어깨를 탁 쳤다. 「거절한 것 없네 여기는 시소유지(市所有地)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네. 저기 분나쁜 놈 같으니라구.」

☆ 딸로 자는 夫婦

「프란체스코」의 오락집을 나와 「나탈레」와 「루이자」는 묵묵히 「로오마」의 거리를 걸었다. 결국 오늘날부터 두 사람은 파도 파도 자지 않으면 안된다. 「나탈레」는 일터에서, 「루이자」는 먼저 있던 「바이」소명의 하녀방에서. 두 사람은 약혼시대도 되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다.

「나탈레」, 기억하세요? 당신은 처음 나를 볼땐 곳은 바로 여기예요.」
두 사람은 코요한 길가에서 손을 마주 잡았다. 「루이자」는 다시 옛날의 「바이」소명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이」소명의 하녀방은 지금은 「지이나」의 방이었다. 물론 「지이나」는

그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의 침대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튿날 아침 떠보니, 「무이자」는 약간 속이 메속거렸다. 「나탈레」한테서 전화가 걸려 왔을때 그는 가만히 속삭였다.

「만나면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며 지금은 안 되요. 나중에.」

☆ 두 사람의 「좋은 일」

그날 밤에 「나탈레」의 일터에 「무이자」가 찾아 왔다. 「나탈레」는 기쁨을 감추고 약간 언짢은 표정을 해 보였다.

「뭐야? 집의 사람이 일터로 찾아오면 싫어하는 데.」

「집에서 다니는 일차리를 일터기에 알려 드릴 터구요.」

「아아, 좋은 일이란 그거야.」
「아니에요, 또 하나…….」

「나탈레」는 그를 자기의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기실로 데려갔다. 들어가자마자 문을 채웠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아내의 곁으로 가서 말없이 내려다 보았다.

「나탈레」, 나 임신했어요.」 「무이자」는 남편의 눈을 두터지게 바라다 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 工 事 政 行

이튿날 밤, 여덟사람 되었을 무렵, 「프란체스코」의 집 앞에 있는 비인 터에는 한대의 「추터」와 손구루마가 소리도 없이 멈추었다. 열사람쯤 되는 사나이가 후다닥 뛰어 내려 「프란체스코」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나탈레」의 일친구들이다. 그들은 「나탈레」에게 애기가 생긴다는 말을 들고 오를밤새로 이곳에 그의 오막집을 지어주기로 되었던 것이다. 손구루마도 부러움을 부리고 「추터」으로 부러는 벼물이 「틸테이」식으로 운반되어 비인 터에 쌓였다.

그러나 일에 열중한 그들은 요전날에 「나탈레」에게 땅문제물가지고 말성을 부리던 그 기분나쁜 사나이가 몰래 그의 오막집을 나와 어디로인지 달려간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어서 때아닌 「오오로바이」 소리가 들려오고 비인 터에는 두명의 경관이 달려

왔다. 보통때 같으면 그들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모두들 머뭇거리면서 로 일할만 쳐다 보았다. 물론 일은 좋지 않다. 「나탈레」는 무단전축으로 千七百리라」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만일 일에 착수하였더라면 짐은 즉시 무너져서 재로는 하나도 못쓰게 될번 하였다.

이 뜻밖의 일에 노한 것은 「나탈레」보다도 「프란체스코」였다. 누가 오를밤에 공사를 믿고한 것이다.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 「프란체스코」는 노발대발하여 그 말생구터기의 사나이의 집으로 뛰어 갔다. 경관이 놀라서 그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 「스파이」를 때려죽였을지도 모른다.

「나탈레」와 그의 친구들은 땅위에 흩어진 흙과 벽돌을 무목히 다시 쌓아 실었다. 그러나 여기가 안된다면 대체 어디로 가면 좋은가. 이 벽돌과 흙도 두 사람의 저금과 친구들에게서 얻은 빚으로 겨우 손에 넣은 것이다. 친구들도 일부러 밤에 나와준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를 밤안으로 어디 땅을 찾아서 오막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

☆ 突擊作業

「추렴」과 손구부마의 열(列)은 「타이르」를 고요 「산타·아니에제」의 낮은 땅을 돌아 왔다. 그 절로 열의 습지에 시스 유(市所有)의 비인 터가 있는 것을 「나탈메」는 생각하였다. 감시하는 철도원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사람들은 재빠르게 벽을 파기와를 좁은 비인 터에 내뿜 놓았다. 때때로 열을 초특급(超特急)의 호화로운 열차가 지나갔다. 벌써 새벽 두시다.

「루이자」는 속이 메스거리는 것을 참으면서 바로게 뛰어 다녔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벽을위에 놓인 「렘프」의 불을 끌으면서 남편과 그의 친구들이 집을 지어가는 것을 옹크리고 쳐다 보고 있었다. 전부미 살고 있는 오막집의 부부가 빨리 온 눈을 부비면서 나와서 열의 비인 터에 서 시작된 이 플연한 공사를 감작 놀란 모정으로 쳐다 보았다. 그들의 요구로 「나탈메」의 오막집은 겨우 좁은 장소밖에 차지할 수 없다. 「머븐벳드」를 들어 놓으면 그것만으로 절반은 차지될 정도의 단간방의 오막집이다. 일은 벽돌을 싸운터 그

하나 하나를 흙으로 붙여서 집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아침에 순찰경관이 올때까지는 지붕이 있는 비정한 집으로 만들지 않으면 즉시 불법건축으로 뒤물어 드리게 된다.

어두운 비인 터에서 하는 일이고 친구들도 모두가 전습용이다. 일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겨우 어깨 높이로 싸운 벽도 한 정년의 비를 거리다가 조금 다른 순간 와드르 무너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일은 다시 세시간이나 늦어졌다. 「나탈메」는 초조해서 말의 어조도 거칠어졌다.

「루이자」는 문득 생각이 났다. 그렇다 「체갈메」한테 부탁하자! 심은 사람이지만 일은 잘한다. 오븐밤 안으로 오막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무때도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루이자」는 그곳에서 구경하고 있던 어떤 사내애를 호위삼아 캉캉한 밤길을 「나탈메」의 부모가 있는 집을 향해서 달려 갔다.

뜻밖에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나탈메」의 부모를 비롯한 원시구가 잠을 깨었다. 「루이자」에게서 사정을 듣고 그 언제나 상을 찌꾸면 「체갈메」는 이렇게

한마디 하였다.

「좋아, 도구는 가지고 갈까?」

그리하여 「체갈메」는 자전거를 꺼내어 「루이자」를 함께 태우고 전속력으로 밤길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현장에 도착해서 「루이자」가 그에게 기운을 내라고 포도주 둘 잔만 달아 주었을때 그 무뎉뎉한 「체갈메」는 처음으로 빙그레 웃으며 귀여운 「루이자」를 쳐다 보았다.

일은 작업이 진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와 경쟁이나 하듯이 밤도 새기 시작하였다. 원밤 추위와 심한 운동으로 임부(妊婦)인 「루이자」는 완전히 지치고 말았으며 날이 새일 무렵 잠깐 졸았다. 그가 반짝 땅위에서 눈을 떴을때 눈앞에는 단간사방 정도의 새 오막집이 서 있었다. 절반이 완성된 지붕위에서 여전히 큰 소리로 지시하고 있는 「체갈메」의 소리가 들린다.

☆ 最後의 難關

드디어 어둡시. 매일 아침처럼 순찰경관이 왔다! 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붕이 남아 있다.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집』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경판이 들어와도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곰 친구들이 영머리(싸움을 시작해서 경판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물론 시간의 여유가 없다. 지붕은 다음으로 밀드라도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나탈테」는 급히 침대를 안으로 끌어놓고 구경하는 여인에게서 어떤 애을 빌려 「부이자」에게 안겨 주고 침대에 앉히기도 하였다. 이로써 제법 젊은 부부의 아침 풍경으로 보이지 않는가.

경판이 들 닥아 왔다. 친구들은 모두 귀도 물러섰다. 지붕은 아직 큰 구멍이 뚫려 있다. 「나탈테」와 「부이자」와 판집 애기와 그리고 급히 달려 온 「나탈테」의 어머니만이 오막집안에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있다.

「문을 여시요!」 마침내 경판이 오막집 앞에 서서 말하였다. 물론 어제 저녁까지는 보지 못하던 불법건축의 오막집이다.

「열지 마오! 경판, 거주권침해(居住權侵害)가 아니요?」 밖에 있는 친구들이 응화를 하였다. 「지붕이 달린 집에 침입할

수는 없지 않소.

경판들은 물론 주위의 공기에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직 벽에 들렸을 뿐인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 보고 말하였다.

「여하튼 재판을 받게 되니까, 조서(調書)를 꾸미겠소. 이름은요?」

「나탈테. 피론. 안르니오!」

「주소는요?」

「바로 여기입니다.」

경판의 눈은 천정에서 멈추었다. 지붕이 덮이지 않은 부분이 큰 구멍을 이루고 그곳에서 눈부신 아침햇살이 숨여 들어오고 있다. 그 경판의 눈은 셋은 웃이 부드러워졌다.

「좋아.」산타. 아니씨에게 「강변. 그러면 우선 벌금을 지불하시요.」

돈을 꺼내는 「나탈테」의 손은 기쁨에 떨렸다. 여하튼 경판은 인정한 것이다.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조서에 기록한 것이다! 친구들이 「야아!」 하고 환성을 올리며 닥아 왔다.

「잘 되었네, 「나탈테」.」하고 매부 「체갈메」가 말하였다. 「자 지붕을 해치워 보세.」

「내가 하였어요, 매부!」

「부이자」가 남편에게 근심스러운듯이 물었다. 「재판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탈테!」

「걱정할 것 없어 나중 일이니까. 지금은 우선 지붕을 완성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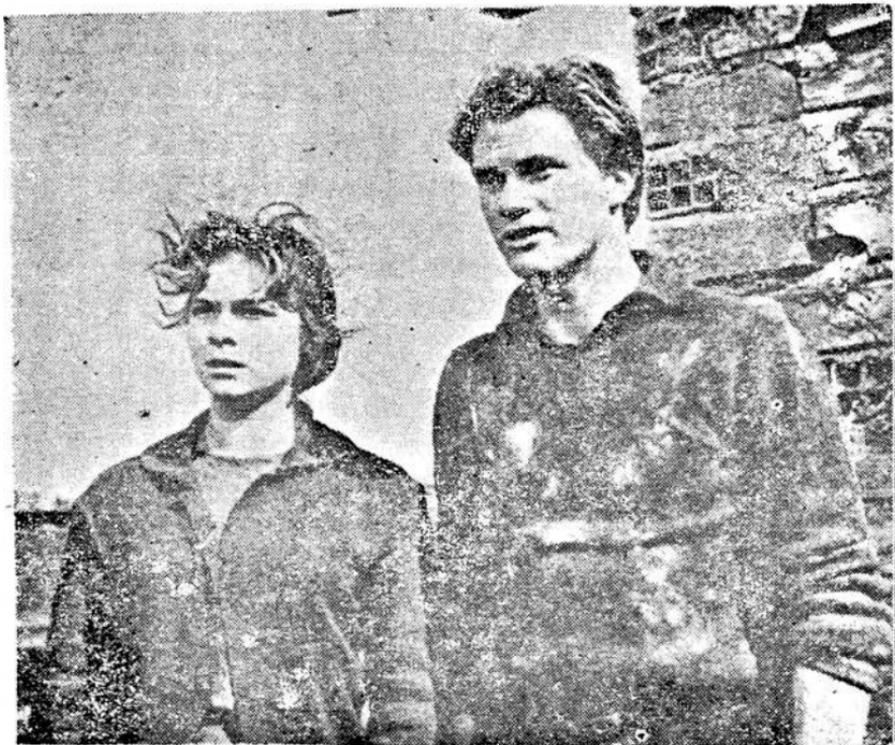
친구들이 돌아간 다음 어깨를 나란히 새집을 쳐다보는 젊은 부부의 등에는 오히려 노란 눈부신 「로오마」의 태양이 떠올라 있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은 마침내 「자기집」에서 꼬고지성(颯颯之聲)을 높이 울리게 될 것이다.

— 끝 —

伊太利映畫『지붕』의 解説

『지붕』은 『자전차도적』과 『종착역』 등으로 유명한 「빛로리오. 피. 시카」감독이 一九五五年 봄부터 一년이상을 걸쳐 제작한 「이태리」영화의 신작이다.

「이태리」영화는 전후(戰後), 고생스러운 현실생활을 역력히 묘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화제가 오르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모양이 달라졌다. 다른 나라처럼



<主演「조트지오·리스루씨」와 「브리엘라·필롯리」>

호화로운 「메로드 그 주류(主流)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페·시카」 감독은 거의 완고하다 말할 수 있을만큼 이전의 사실주의(寫實主義)를 일관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 수도 많

바와 같이 거짓말이나 허식이 없는 서민(庶民)의 생활 그걸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페·시카」는 근년의 「중화역」과 「나폴리」의 황금」에서는 세계적인 대스타아」를 썼으나 그 이전의 「구두담이」와 「자전차도적」에서는 완전히 「아마추어」만을 출연시켜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 작품도 그 전통을 따라서 직업배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영화에 탐고 많은 사람이 아닌 이들의 신선한 맛이 얼마나 이 영화의 현실감을 강하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특히 「필롯티」(「투이자」(投)의 서민적인 아름다움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페·시카」는 자기의 작품을 「생활의 시(詩)」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이 영화는 특히 그 아름다움이 인정되어 一九五六년의 「칸누」영화제에서 O.C.I.C 상을 획득하였다.

이 영화에 대해서 「페·시카」와 원작자(原作者)인 「세자페·자밋티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페·시카」의 의견

이 「지봉」이라는 영화를 나는 매우 좋아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이며 형식이나 「스타일」이나 주제(主題)가 몹시 단순하니까요. 나의 생각으로서는 「지봉」은 「자전차도적」과 「음베르토·D」와 똑같은 「스타일」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다음에 만을 비교하는 영화는 「죄수의 심판」이라는 일종의 희극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것은 「미라노」의 기적(奇蹟)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감독의 일을 좋아합니다. 배우로서는 배우서 온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자기의 감독작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작자인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봉」과 같이 직업배우가 아닌 「아마추어」를 쓸려고 하면 제작자는 반드시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직업배우의 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기억에 있는 주인공의 얼굴과 똑같은 사람을 골르는 것은 것입니다. 「가브리엘라·팔로티」 「지봉」의 「루이자」(役)는 수백명의 지원

자가운데에서 선출했습니다. 「조르지오·

리스투씨」 「지봉」의 「나탈레」(役)는 조그만 회사의 「포오터」였는데 내가 그를 만났을 때에는 마침 실직(失職)하고 있었습

니다. 둘이 다 자연스럽게 해주었습니다 아까 내가 자기가 제작자이면 자유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봉」이 완성된 후에

나는 「자바티니」와 상의해서 이 작품의 처음의 부분을 위해 「메이티」정도 다시 촬영했습니다. 그리하여 영화는 처음부터

명량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자기의 제작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파리」에서 「자전차도적」이 공개되었을 때 나는 과연 「프랑스」사람들이 이 영화

를 좋아할는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필판(封切館) 앞에서 「자전차도적」에 나

오는 소년과 같은 귀여운 아들의 손을 잡은 한 사나이가 서있는 것을 보고 이전

안심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떠할런지요?

☆ 「자바티니」의 의견

먼저 말해주겠지만 이 「지봉」은 정말

있는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내가 실지로 보고 아는 사실을 가지고 쓴 것이

입니다. 이 「씨나리오」의 동기가 된 것은 나의 집 바로 옆에 살고 있던 벽돌공 「나

탈레」가 한 말입니다. 그는 「루이자」(그의 아내)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 한 채가

있었으면, 지금 같아서 는 부부로서 아무런 구실도 못하니까요, 하고 말하였는데 그

것이 영화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나탈레」는 그리하여 명안(名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명안이란 이 영화에서 나오는

하룻밤새에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탈레」와 「루이자」는 집을 질 장소를

찾아나갔습니다. 「로오마」근교의 「오스티아」에 터를 발견하였읍니다. 그러나 나의

「씨나리오」의 결정판에서는 그 장소는 내가 좋아 하는 곳으로 변경하였읍니다. 물론 「나탈레」가 좋아할만한 장소입니다.

나는 그후 「나탈레」는 물론 여러 벽돌공과 이야기를 하고 「씨나리오」를 써갔읍니다.

이 「씨나리오」창작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나탈레」의 누이동생이

매일 벽돌공장 앞을 지나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뿐만아니 벽돌을 열어가져오는 오후에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 벽돌은 한장에 적어도 二十「티타」는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에 넣어서「무이자」로 하여금 벽돌공장 앞을 지나가도록 해서 벽돌을 한장 집어 들고 이걸 열마나 그 몸도룩할 작성이었으나 이것은 끝내 영화에 나오지 않았읍니다. 나는 벽돌의 값을 어떻게든지 영화에 나타내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영화제작에는 흔히 있는 것입니다. 완성되노 보편 그「이메이지」는 아무때도 나오지 않는일이.

우리는「인스피레이션」을 현실속에서 얻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것과 대중적 이익이 되는 것을 택해서 취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는 데 완전히 관심이 되어서 그것을 아무런 반응도 없이 받아들인다는 하나의 습관이 되고 말았읍니다. 주택문제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지붕」의 경우는 예외적인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 진심을 존중하여 주택문제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主演俳優紹介

「가브리엘라·플로리」
 「메·시가」감독이 수개월이나「이태리」전국을 여행해서 발견한 순전한「아마유어」. 금발에 녹색의 눈을 가진 귀여운 17세의 이 처녀는 순수한「로오마」태생이며 제조교사(體操教師)의 면허를 가지고 있고 아동용품점의 점원이었다. 처음「메·시가」감독으로부터 맡아 있었을 때 그는 깜짝 놀라서 주저했을 정도였다. 이 순진함과 훌륭한 지성이 이 영화에 나오는 선량한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조트지오·리수르씨」

이 청년도 역시 앞에 소개한 여성과 마찬가지로「지붕」이 처음 출연한 영화이다. 촬영개시 전날까지도 모하나의 후보자와 역할에 대해서 경쟁을 하였다. 「메·시가」는 두 사람을 써서 처음 장면을 무렵 촬영할려고 했을 만큼 망서렸는데 마침내 그가 선발되었던 것이다. 태생은「트리에스트」. 영화에 나오기 몇주일 전에는 축구선수 노릇을 하였다. 벽돌공으로 나오는 그는「아마유어」에게서 찾아볼수 없는 훌륭한 연기와 직업배우에게서는 찾아볼수 없는 신선한 맛을 보여주고 있다.

卅六萬圓의 짚

한잔 十센토(三十六圓)의 모·피를 마시러오는 손님으로부터(三十六萬圓)의 짚을 받은 웨이트레스가 있다. 가리후오루니아에 있는 샵에 그의 話題인바 모·피 店의 店主였고 웨이트레스도 하고 있는 게루다·V·오루손 夫人이 바로 그사람이다.「三月中엔제나 나의茶房에 모·피를 마시러

오는「손손」이라는 손님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손님과 똑같이 단지 모·피만을 분주히 나르며 웃는 얼굴로 대 한 것입니다. 그런데 五日의 날「손손」이분이「얼마 안되지만 당신에게 주는 짚이요」하고 말하였읍니다. 十말라의 紙幣가 一〇〇〇말라나 될 적에 나는 혼자 울며며…… 좋은 크리 스마스선물을 사오겠읍니다 라고

話 史 年 西 丁

—東方의 信仰의 答—

李 弘 植



— 1 —
今年은 丁酉年이라

이미 正初의 各新聞 에도 丁酉年에 關한 이야기가 많이 실리 어서 여기서 또 그런 것을 쓴다는 것은 김 이 빠진 感도 있는데 編輯者의 要請 으로 마치 못하여 펜을 들어 본다. 十千十二支의 思想은 東洋에서 古代 부터 널리 流行된 五行、陰陽說에서 빛어 낸 世界觀이며 宇宙觀이라고 할 수 있으며 十千과 十二支의 最少 公倍數의 配合으로 六十이라는 數가 나와서 六十年에 한번씩 같은 干支 가 돌아오게 하였으며, 오늘날의 科學 的 立場에서는 何等의 根據도 없지 마는 歷史의 循環과 反覆性을 여기 서 은근히 생각하여 온 것이 過去 東洋人의 思考方式의 一部를 찾아 하 게 되어 왔다. 이 干支에 依하여 그 해의 運數와 氣運이 定해지며 지금

도 같은 때에 出生한 사람들은 비슷 한 性質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있고 또 그러한 先入感으로서인지 同年生에서 그러한 點을 느끼는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人生觀으로도 되어 있다. 何如間에 只수도 우리가 답답 하면 占을 치고 觀相도 보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모두 陰陽說이니 五行說에 根據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十千十二支와도 關係되어 있는 것이다. 近代、歐羅巴人들의 思想은 歷史가 直線으로 無限히 흘러가며 發展하여 가는 것인데 東洋에서는 아직 것이 十千十二支의 思想에 依해서 循環的인 史觀을 가지고 있다.

歷史에는 反省하여 본다는 要素가 勿論 包含되어 있는데, 無限히 지나 간 어느 때를 反省하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觀點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그런 中에 이와 같은 觀念에서 六十年을 一期로 같은 干支年을 한번씩 正初에 돌본다는 것도 하나의 滋味로

생각 된다. 人生은 苦海라고도 한다
즐겁고 幸福한 生涯보다도 苦痛과
不幸한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오는 해는 어떨가 해가 바
뀔때마다 그때도 一縷의 希望을 가
지고 사람들은 여러 方式으로 재해
에 對한 期待를 갖는다. 丁酉史를
생각하여 보자는 心理도 여기에 있
을 것 같다.

陰陽, 五行說에 依하면 丁은 火요
酉는 陽으로 日(해)로 보고 太陽속
에는 駿鳥라는 三足의 鳥가 있다 하
여(淮南子)「새」로 通하며 이것이 普
通家禽으로 親近한 닭으로 생각하여
오게 된 모양이다. 何如間에 丁酉年
은 十干으로 보나 十二支로 보나 光
明에 가득 찬 해인 셈이니 憂鬱한
요즈음의 世態로서는 于先듣기만 하
여도 마음이 밝아질 것도 같다.

二

光明은 東方에서 오며 무엇보다
먼저 이 새벽을 알려주는 것은 닭이

다. 그럼으로 닭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부터 神聖스러운 靈鳥로도 섬겨
왔다.

新羅 金氏王室의 始祖인 金闕智가
誕生하는 傳說에도 닭이 登場하고
있다. 昔脫解王의 九年三月條에 王
이 밤에 金城西便 始林의 나무사이
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서 새벽 일찍 當時의 宰相인 瓠公을
보내 보았더니 金色의 조그만 雞작
이나 무가지에 걸터 있으며 그 밑에
서 흰 닭이 울고 있었다. 瓠公은 들
아와서 그것을 報告하니 王이 사람
을 시켜서 雞작을 받아서 열어 보니
조그만 사나이가 그 속에 있었는데
大端히 훌륭하여 王은 기뻐하며 하
늘이 보내 주어 子孫으로 삼게 한 것
이라 하고 收養하여 그들이름을 闕智
(알지)라고 하며 金橫에서 나왔으니
姓을 金氏라 하고 始林을 鷄林이라
고 고치며 여기에 因하여 國號로도
삼았다 한다.

이것은 勿論 傳說이며 歷史的事
實로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傳說
은 傳說대로 생각할 길이 있는 것이

다. 新羅의 金氏王室은 新羅初期에
三姓(朴·昔·金)交立에서 最後로 王
位를 차지 하여 歷史時代에 들어 오
는 만큼 그러한 氏族이 慶州平野를
中心으로 옛부터 存續하여 왔을 것은
틀림없다. 이 氏族이 後에 中國式으
로 姓을 붙이게 될 때에 中國의 古
代의 神話에 나타나는 軒轅의 子孫
인 少昊金天氏의 後裔를 自稱하고
金氏를 主張한 것은 그럴 법도 하다.
그러므로 闕智가 金橫에서 나왔으니
가 金氏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는 王
室이 少昊金天氏의 後裔를 標榜한 後
에 꾸민 이야기 일 것이며, 이 傳說
의 이 部分은 後代的인 分子로 보아
야 할 것이다. 그것보다 闕智가 誕生
할 때에 흰 닭이 있었다는 것은 貴
重한 古傳이 숨겨지지 않을 까 한다.
所謂 金氏王室의 氏族社會 段階에

있어서 그氏族이 神聖視한 動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宗教民族學上 이와 같은 것을 古代社會乃至未開社會에서 볼 수 있는 現象으로 Totemism이라고 부른다.

新羅인들이 닭을 神聖視하였다는 記錄은 또 우리가 三國遺事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다.

三國遺事의 卷四、歸竺諸師라는條 下에는 新羅僧으로 天竺(印度)까지 求法하러 갔다는 여러 學僧에 對한 記事가 있는데 거기에 天竺人이 海東을 말하되 「矩矩吒鬻說羅」라고 하였다 한다. 그런데 「矩矩鬻」은 닭을 말하며 鬻說羅는 貴하다는 말이라고 說明을 붙이고 있다. 또 印度에서 相傳하되 新羅에서는 雞神을 공경하고, 貴尊히 여기기 때문에 재의 날 개를 머리에 꽂아서 表飾으로 한다고 말하였다. 三國遺事의 歸竺諸師의 이야기는 大概、唐代의 이야기로 보이는 데 唐代에는 勿論 新羅의 學

僧들이 唐土에 갔다가 다시 印度까지 佛經을 求하며 佛蹟을 찾는 者도 次次 생기어 그들에 依하여 新羅의 모습도 印度人에게 傳하여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三國遺事에 써 있는 印度人의 이야기는 結局 新羅人들의 이야기의 反映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唐代 卽 新羅統一期에 그들은 古代부터 닭을 神聖視하는 傳說을 지녀 온 것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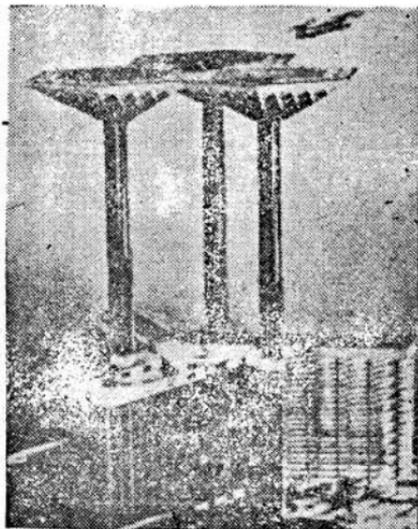
新羅의 國號의 別名이 鷄林이라는 것은 後代까지 有名하고 一般이 使用하고 있는데 여기에 對한 起源說도 앞서 본바와 같이 閔智傳說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卽 처음에는 慶州의 宮城(月城) 酉便의 숲을 始林이라고 하였는데 閔智가 나올 때 닭도 함께 있어서 그 後로 鷄林이라고 고쳐졌다 한다. 그러나 三國遺事의 金閔智條에는 始林을 「一作鳩林」이라고도 하였다. 이것을 볼 때에 原來 新羅古代에서는 아직 具體的으로 鳥

名이 分化되지 않았고 무엇이든간에 「새」로 다 通用한 것이 아닐까 짐작이 된다. 그러므로 「始林」에서 鷄林으로 고쳐졌다는 말은 後代人이 漢字에 拘泥하여 附會한 것이며 別號 鳩林 그 自體가 鷄林으로도 通하고 「새」나 「스」니 하는 鳥類一般에 對한 우리나라 古語는 日本에도 傳하여 鳥類의 一般名의 基本語가 되어 있는 것은 「가라스」(鳥) 「수스메」(雀) 「우구이스」(鶯)等屬에 그 痕跡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新羅初期에서는 닭도 「새」로 불렸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何如間에 새는 아침을 聯想하며 아침은 日出과 關聯하여 東方을 象徵하는 것으로 只今 우리나라에서 「새바람」이라 하면 東風을 말하고 있으며 「새벽」이니 「새롭다」는 말도 생겼으며 疲困한 前日은 어둠으로 混迷에 빠졌다가 다시 새날의 日出

의 光明과 더불어 天地는 新鮮한 希望과 勇氣를 얻어서 또 一日의 生活의 싸움에 突入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始林이니 鷄林이니 鳩林을 함께 우리 古語로 어떻게 불렀는지 林은 只今 우리나라 말로 「수풀」이

◎◎◎
空中프라이트·홈◎◎◎



라고 하는데 「古語」는 若干의 變化가 있었을 것이며 何如間에 「옛수풀」에서 옛분(벌)로 되어 徐羅(耶)伐이라는 慶州平野의 古代部落國名이 생겼을 것이고 거기서 斯盧나 新羅도 다 關聯이 있는 것 같다.

寫眞은 英國의 建築家 詹스·다 1드취1트氏가 2000年代의 런던에는 이러한 建築이 될 것이라고 想像하고 있는 空中프라이트·홈 建築物인바 그위에 位置한 五百畝의 空中空港도 그大部分은 發達한 硬質코타스로 만들어지고 乘客은 三個의 軸內部를 通한 에베베1다로 街路에서 直接 프래이트·홈에 갈 수 있고 飛行機와 헤리콧1터를 탈 수 있다.

寫眞은 英國의 建築家 詹스·다 1드취1트氏가 2000年代의 런던에는 이러한 建築이 될 것이라고 想像하고 있는 空中프라이트·홈 建築物인바 그위에 位置한 五百畝의 空中空港도 그大部分은 發達한 硬質코타스로 만들어지고 乘客은 三個의 軸內部를 通한 에베베1다로 街路에서 直接 프래이트·홈에 갈 수 있고 飛行機와 헤리콧1터를 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自古로 日出의 名勝地는 모두 東海岸에 있다. 關東八景中에 襄陽洛山寺의 日出은 特別有名하나, 비단여기 뿐만 아니라 迎日吐舍山口陵等等 到處에서 우리는 東海에서 떠오르는 雄壯한 日出을 驚異의 눈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環境에서 古代부터 살아 온 東部 辰韓人들 사이에 特別 太陽을 崇拜하고 太陽속에 있다는 世에 對하여 信仰을 가지며 그것을 「토티멘」으로 삼고 또 나라의 이름을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은 當然한 일이다.

地球의 歷史, 人類의 歷史는 太陽 없이는 생기지 못하는 것이며 人類의 科學은 極度로 發達되던가는 오늘날에도 역시 太陽을 지역하고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人類의 歷史에서 어느곳에서나 太陽에 對한 崇拜이 至極함을 볼 수 있다. 太陽없는 即光明 없는 暗黑世界는 破滅이며 罪惡이

跳梁하는 세계이며 光明있는 곳에는 罪惡이 끄리를 감출수 밖에 없고 健康의 인 生成과 建設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 過去 人類가 생각해낸 어느 宗教間에 그 要素가 된것은 結局 光明과 暗黑의 두 세계의 二元的인 構成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太陽을 사랑하고 純粹한 誠實을 指向한 속에서 新羅의 花郎徒의 精神도 나왔으며 國家는 隆盛하여 간에 對하여 남의 힘에 依持하고 利用하여 살자는 말은 智慧를 圓 百濟는 드디어는 滅亡의 길을 빨리 찾아간것을 볼 때에 우리는 또한 歷史에 거울 삼을 것을 다시금 느끼는 것이다.

三

우리가 이제 年表를 내놓고 過去의 모든 丁酉年을 살펴 볼수는 있으나 이것은 一種의 歷史의 遊戲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于先 가까이 六十年前 丁酉는 光武元年으로 高宗이 露國公使館에 播遷하였다가 다시 慶

運宮(德壽宮)으로 移御한 해며 八月에는 國號를 大韓으로 하고 皇帝號를 稱한 해다. 이것은 오랫동안 清國皇帝의 陪臣으로 朝鮮國의 王으로 封冊되어 왔던 羈絆에서 勇敢히 벗어 나고 甲午更張以後 近代의 國家制度를 推進시키는 途上에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民族의 自主的인 勇敢한 實力으로 推進되었던가.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日露兩國이 政治勢力을 서로 毗치려고 奔狂한 時期며 그 競爭은 一進一退로 兩國에서 冷戰해가는 段階이었다. 前年에 高宗이 俄館에 幽閉當하다싶이 하고 親露派를 中心으로 모든 政令이 俄國의 願使를 받았을 때에는 俄國이 勝勢한 時期이 었으며 日本의 猛反擊으로 다시 高宗은 慶運宮에 돌아와서 大韓帝國과 皇帝를 世界에 宣布한것은 背後에 日本의 工作없이 는 안 되었던 것이다. 歷史를 皮相的으로 보는者는 우리나라의 國格의

向上을 자랑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실속 없는 國格과 皇帝는 歷史上의 하나의 漫畫에 不過한 것이다. 萬若 陰陽、五行說에 依하여 六十年前的 丁酉年 역시 光明과 希望에 가득찬 해로서 우리 國土가 史上 처음으로 皇帝國이 되었다고 樂觀과 希望을 붙여서 말한다면 이 역시 歷史의 真相을 把握하지 못한 淺見이라 아니 할 수 없다.

人間每事는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自己自身에 달려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東洋古來의 五行思想을 잠시 許容하고 丁酉年이 좋은 해라고 친다면 그 좋은 해를 實際로 좋게 만들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國民自身的 健實한 努力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銘心할 것 밖에 없다. 바라건데 光明으로써 罪惡의 어둠을 排除하고 他力依存의 精神을 棄揚하도록 새해에 決心할 것이다.

(筆者 延大教授)



14.52

△小説▽

征服되지 않는 人民들 (2)

W·자마셀·모음

李 基 錫 譯

처녀는 의자에 덜켜 주저 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울기 시작했다.

「이 망신술, 이 망신……」

그자는 처녀에게로 달려가 두 팔로 껴안았다.

「어보오.」하고 다점스터리 외쳤다.

그러나 처녀는 벌떡 일어서며 그자를 떠다 밀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말어. 저리가, 저리가. 이만큼 남의 신세를 망쳐 왔으면 그만이나?」

처녀는 방밖으로 훌쩍 나가버렸다. 그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기가 맥했다. 머리속에 가지 각색의 생각이 선회하는 가운데 오-토바 이로 쓰와똥을 향하여 서서히 돌아갔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으나 몇

시간씩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아네트와 그 부프르요론 때 모양만이 머리속에서 맹맹 들었다. 테이불을 앞의 놓고 앉아서 두 눈을 퉁퉁 붓게 하며 울고 있던 그 여자의 모습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으리 만큼 비참하였었다. 처녀의 배속에 있는 것은 그자의 자식이다. 그자는 꾸벅 꾸벅 졸기 시작하다가도 또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잠이 깨었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난데 없는 총소리에 놀라 산산히 부서진 꿈속에서 깨어난 것이다. 처녀에 대한 사랑을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wedge 속크V요 놀라움이기도 하였다. 그자가 아네트 생각을 많이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치극한 생각이 든 적은 없었다. 처녀가 자기에게 반하도록 한다는 것은 큰 능담일 것이라고 그자는 생각해 왔었다. \wedge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을 처녀가 자진 청해오는 때가 온다면 그것은 대성 공일이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처녀를 만 여자 이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단일 순도 없었다. 도대체 처녀는 그자가 좋아하는 타인이 아니었다. 미인도 아니었다. 처녀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이처럼 갑자기 처녀에게 이같은 우수 짙스런 감정 을 느껴야 할 만 말인가. 그것은 아무튼 기분 좋은 일만 아니었다. 두통끼리였다. 그러나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그자는 푹 바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인 것이

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인 것이다. 처녀를 두 팔 안에 끼어안아주고 싶었다. 어루만져주고 눈물 어린 그 두 눈에 키스해주고도 싶었다. 자기가 처녀를 욕구(慾求)하는 것은 솟음이 압음을 욕구하는 것과는 달르다고 그자는 생각했다. 처녀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처녀가 자기에게 미소를 던져주기를 바랐다——이상한 노릇이다. 처녀의 미소를 본 적이 없으니——그자는 처녀의 아름답고 고상하고 상냥스러운 눈동자가 보고 싶었다.

사흘간 그자는 쓰와쑹을 떠날 수 없었다. 사흘간 밤낮으로 아네트와 배속의 아이 생각만을 했다. 그후 농가에 갈 기회를 얻었다. 프리에 마나님만을 조용히 만나고 싶던 차 마침 좋은 기회에 부딪혔다. 농가에서 좀 떨어져 길가에서 마나님을 만난 것이다. 마나님은 산에서 떨어 나무 부스럭기를 뜻어 모아가지고 등에 한 짐 질머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자는 오—토바이를 멈추었다. 마나님이 자기에게 정답게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가 갖다주는 식료품 덕분이라는 것은 그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자는 그런것은 문제로 삼지도 않았다. 무슨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마나님이 자기에게 예모 있게 대해줄 것이며 또한 그러한기를 애쓸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다. 좀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하고 그자는 마나님에게 말하며 나무 짐을 내려놓기를

권했다. 마나넴은 권하는 대로 짐을 내려 놓았다. 호리
고찌프린 날씨였으나 춥지는 않았다.

「진아네르 몸을 알고 있어요.」 하고 그자는 말했다.
마나넴은 기절경풍을 했다.

「어떻게 아셨우? 그애는 당신이 눈치 찰까바 성화를
했는네.」

「따님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날 밤 저지른 그 거룩한 것의 덕택이죠.」

「진물랐어요. 왜 제게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마나넴은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다. 비통한 표정을
하는 것도 아니오 그자를 원망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모
두가 다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다가 죽는 경우나 매서운 봄서리에 맞아 죽
는 파실나무와 곡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념(諦念)과
공손한 마음으로, 인간이 감수(甘受)하여야 하는 팔자소
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몸서리치던 날 밤 이

후 아네르는 며칠 동안이나 고열(高熱)로 신음하면서 병
석에 누웠었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아네르가 제 정신을
잃지나 않을까 염려했었다. 몇시간씩 계속적으로 고향을
질르곤 했던 것이다. 당시 의사란 그림자도 볼 수 없었
다. 동리의 의사는 모두 소집(召集)되어 군대로 나가버렸
으며 쓰와쑹같은 도시에도 두명밖에 남아 있지 않는 형

편이었다—— 그것도 모두 다 흩어빠진 분들뿐이었다. 그
러니 환자측에서 의사선생님을 모시려 갈 순 있었다 하
더라도, 어떻게 그 노인들이 왕진을 올 수 있었겠느냐 말
이다. 더군다나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판국이였다. 아네르는 열이 내린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
날 수 없으니 만큼 몸이 편치않았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때에도 무척 쇠약하고 안색이 나빴다. 가련할 지경이었
다. △속크V가 몸서리 칠 정도로 컸던 것이다.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몸에는 별로 이상이 없었으므로
아네르는 그저 무관심하게 세월을 보냈었다. 본지부터
월경은 고무지 못한 편이었다. 좀 수상하다고 아네르의
몸을 맨 먼저 의심한 것은 프리에 마나넴이었다. 마나
넴은 딸에게 물어 보았다. 모녀는 할라점이났으나 확실
한 것은 몰랐다. 그때 프리에 영감에게는 아무말도 안했
었다. 석달이 잠아를자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
다. 아네르는 임신한 것이었다.

전쟁전에 프리에 마나넴이 한주에 두번씩 농작물(農作
物)을 싣고 아침에 쓰와쑹 장터로 달리던 뱃은 △씨트로
앵V차 한대가 있었다. 그러나 독일군 점령후로는 차를
물고 쓰와쑹까지 가서 팔고 술물건도 없었거니와 또 까
소령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
나 이제는 판 도리가 없었으므로 그들 세식구는 그 차를

「고집어 내서 읍까지 달리었던 것이다. 독일군 군용차량만이 거리에 범람하고 있었다. 늑들은 공연히 쓰짚로는 것이다. 거리거리에는 독일어로 쓴 포식이 붙어있고 공건물에는 독일군사령관의 싸인이 들은 포고문이 걸려 있었다. 많은 가게 문이 닫혀 있었다. 그들 세 식구는 안면 있는 늑은 의사를 찾아가 그들의 의심을 확인하기는 했으나 의사 선생은 독일한 캐도릭신자였으므로 그들의 정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울며 애원해왔으나 의사는 어깨를 으쓱 치켜올리며,

『당신 혼자서만 당하는 일은 아니요. 일포·썬프리어(사람은 경난을 하여야 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한분의 의사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리로 가 보았다. 현관 초인종을 눌러도 참동안 댓구가 없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슬픈 얼굴의 여인이 다가 나왔다. 선생님을 피려왔습니다. 하니 그 여인네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의사 선생은 비밀결사원이라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인질(人質)로서 유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군 장교들이 자주 드나드는 카페에서 폭탄이 폭발하여 두명이 죽고 수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을 일정한 시일까지 넘겨주지 않으면 선생이 총살당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선생의 사모님은 상냥한 얼굴의 부인네였으므로 빨리에 마

나님은 자기네의 고민을 하소연했었다. 『저런 가엾어라, 개 돼지 같은 늑들.』 하며 부인은 동정어린 눈초리로 아네트를 바라보았다.

부인은 그들에게 읍내 산과 주소까지 알려주며, 자기에게서 왔노라고 말하면 잘 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산과를 찾아 갔더니 무슨 약 한봉을 주었는데 그것을 먹고 아네트는 죽을번하게 앓았다. 그러나 그후 아무런 신통한 효력도 없이 아네트의 배는 여전히 불러만 갔다.

프리에 마나님이 한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상과 같은 것이었다. 한스는 잠시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 『내일이 공일이죠. 할 일도 없구 하니 내일 또 와서 의논 드립겠읍니다. 좋은 물건 가져다 드립죠.』 하고 그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바늘이 없는데 좀 구해다 주시구려?』
『네, 구해봅죠.』

마나님은 나 무짐을 걸머지고 터터터터 길을 걸어 내려갔다. 한스는 쓰와쑹으로 도라가 버렸다. 이를 낚은 오토바이를 달리고 싶은 생각도 없구 하여 자전거를 타고 왔다. 뒤집질튼 곳에 식료품 한 보따리가 매달려 있었다. 그속에 샴펜주 한병이 들어있었으므로 만날보다 보따리가 더 커 보였다. 그자가 능가에 도착한 것은 어둠이 짙어가고, 그들 세 식구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그자가 집안에 들어서자 부엌 공기가 따듯하고 아늑함을 느낄수 있었다. 프리에 마나남은 음식을 만드는 중이요 영감님은 파리·쇼와(Paris-Eveing)라는 잡지를 읽고 있었다. 아네르는 양말을 꿰매는 중이었다. 『이보세요, 바늘 가져왔습니다. 그리구 여기 당신을 위해서 가져온 것이 있소, 아네르.』 하고 그자는 보따리를 끌리며 말했다.

『난 그런 물건 싫어.』

『이것 봐요? 당신 잦난애 소용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지 않겠소.』 하고 그자는 생긋 웃었다.

『그때 그림잡으냐 아네트야. 그리구 우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아네르는 저를 보지도 않고 바느질만 하고 있다. 프리에 마나남의 시장한 눈이 보따리 속으로 달린다. 『샬렌이 다 있네.』

한스는 낄낄 웃어댔다.

『지금 제가 왜 그것을 가져왔는지 말씀드리죠. 제간엔 그때 두 생각이 있어서요.』 그자는 망설말설하더니 의자 하나를 끄내 아네트와 마주 앉으며 말했다.

『뭐라고 말문을 열어야 할지……내가 그날 밤 저질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는지요 아네르. 그러나 그건 내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때 환경때문이었어. 날 용서해주구려?』

아네르는 증오에 찬 눈초리를 그자에게 던졌다.

『절대 안돼. 왜 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이만큼 남의 신센 망쳐왔으면 고만이지 뭐야?』

『그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당신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이 말야. 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

『자랑하고 싶다고?』 하며 처녀는 악의에 찬 눈으로 그자를 흘려보았다.

『난 당신이 아이를 갖기를 바랐던 거야 아네르. 당신이 아이를 때 버리지 않아서 난 기뻐.』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아가리로 지꺼련담?』

『그러나 내 말을 좀 들어봐. 난 그 일을 안 이후로는 그 일만을 생각해 왔어. 육개월후면 전쟁은 끝나. 봄에는 영국을 하복시킬 거야. 놈들은 여태껏 호기(好機)를 다 놓쳐 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난 제대해서 당신과 결혼하겠어.』

『뭐……? 뭐라구?』

햇빛에 익은 그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참아 불어로는 말 못할 심정이므로 독일어로 말했다. 처녀가 독일어를 한다는 것을 그자는 알고 있었다.

『잇히·티이베·뫼히. (난 당신을 사랑하오)』

『뭐라는 거냐?』 하고 브리에 마나님이 물었다.

『날 사랑한대요.』

아네트는 고개를 뒤로 제치고 한바탕 깔깔 웃음을 터뜨리더니 점점 목청을 높여 웃어댔다. 웃음은 꼬칠콜물렀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브리에 마나님이 팔의 두 뺨을 모지게 후려 때렸다.

『내버려 둬요. 그앤 히스테리니까요. 몸이 성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수.』 하고 마나님은 한스를 보고 말했다.

아네트는 숨이 막힐듯이 흐느끼었다. 가까스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다.

『우리 약혼의 축배를 들려구 삼편을 가져 왔는데.』 하고 한스는 말했다.

『정말 제상에도 원통한 일이야. 저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다니.』 하고 아네트는 말했다.

한스는 여전히 독일어로 계속했다.

『난 당신이 어떤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비로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청년의 버림처럼 갑자기 사랑이 느껴졌어. 내가 늘 당신을 사랑해 왔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뭐라는 소리냐?』 하고 브리에 마나님이 물었다.

『대단찮은 소리에요.』

그자는 다시 불어로 말했다. 아네트의 양친에게 꼭 자기 심정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전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 하고 싶습니 다만 어른들이 허락지 않을 켜니다. 절 아주 쌍둥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의 어르신께는 부유하시며 우리 고향에서는 그때 두 대접을 받고 있는 집안이랍니다. 제가 장남이구요 부족한 건 무엇 하나 없읍니다.』

『캐도릭 신자시우?』 하고 브리에 마나님이 물었다.

『네, 캐도릭입니다.』

『거 됐구먼.』

『저 시골은 아름답고 토질도 좋습니다. 유닛히 1인스 부둣 사이에서는 우리 고향보다 더 좋은 농던 없어요. 이 농터가 우리 개인 소유지만 말씀입니다. 조부께서 칠십년 전 정후에 사신 것이랍니다. 이외에 저의 집엔 차도 한대 있고 태피오도 가지고 있고 전화도 매 뵈지요.』

아네트는 고개를 아버지에게로 돌리었다.

『저자는 비상한 수단꾼이예요.』 하고 비교는 어조로 되치면서 한스를 노려 보았다. 『정복당한 나라로부터 서출(庶出)의 자식을 안고 온 계집, 왕 저같은 년에게는 알맞은 과일거예요. 그래서 내게 행운의 찬스가 왔단 말이 지. 그렇죠. 그 거룩한 찬스가 말예요.』

본시 말이 뜬 브리에 영감이었지만 이번만은 입을 열

었다.

『당신이 지금 야량(雅量)을 보여 주셨다는 건 나도 절대 부인치 않겠소. 나는 지난 전쟁을 겪어왔고 또 그동안 평화시 같으면 못할 일도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인정은 역시 인정입니다. 아들 자식이 죽어 없어진 지금에 와서 는 아네트는 우리 늙은 내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되었으니 어찌 그애를 내보낼 수 있겠소.』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럼 전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의 용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 고 한스는 말했다.

아네트가 그를 흘깃 쳐다보았다.

『귀국(貴國)에는 사람이 모자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날 쏘와쑤에서 강연한 자에 말 을 들으면 농토의 삼분지 일이 노동력 부족으로 놓고 있 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리에 영감 내외는 서무시선을 주고 받고 했다. 아 네트는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알았다. 여 세고 힘이 장사라고, 그들 내외가 늙어 꼬부라져서 일도 못하게 되면 그들의 뒤를 이어나갈 테릴사위, 이거야 말 로 아들이 없어진 후 그들 내외가 바라고 바라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시다면 또 문제가 달른데요. 고려할 여지가 있어

요』 하고 프리에 마나님이 입을 열었다.

『잠잠고 있어요.』 하고 아네트가 거침은 어조로 외쳤다. 고개를 앞으로 제치며 노기에 찬 두 눈으로 독일군을 쏘 아보았다. 『난 내가 다니던 읍내 소학교 선생과 약혼했 어요.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기로 되어있어. 그이는 당신 처럼 키도 크지 않고 힘도 없고 또 미남도 아냐. 키도 적고 약질이야. 그이의 단 한가지 미점은 얼굴의 빛나는 지적적 향기뿐이야. 그이의 단 한가지 강한 점은 정신의 위대함이야. 그이는 야만이 아니고 문화인이야. 그이의 혈통적 배경에는 수천년의 문화(文化)가 깃들여 있는 거 야. 난 그이를 사랑하고 있어. 온갖 몸과 정성을 다 하 여 그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한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네트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은 천만 뜻 밖이었다.

『그래 그는 지금 어디 있소?』

『어디 있다고 생각해? 독일에 있는 거야. 포로병이야. 굶주리고 있어. 당신이 우리 기름진 나라 것을 배불리 먹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당신을 저주하고 있단 이야길 도대체 몇번해야 알아들겠느냐 말야? 날 보구 용 서하랴? 안될 말씀. 절대 안되지. 저질은 죄를 갚겠다 요? 어리석은 소리.』 처녀는 다시 얼굴을 뒤로 제껴 들 었다. 전될 수 없는 고민의 기색이 얼굴에 감돌았다.

『왜가 당신! 그이야말로 날 용서해 주겠지. 그이는 상냥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강제로 당한게 아니고, 바타나치—스나 비단 양말 따위에 내 몸을 팔았을 것이라고, 그이가 의심하지나 않을까 생각하던 괴로워 죽겠어. 물론 나 혼자서만이 당한 일은 아니지만 당신 자식, 독일군의 자식을 낳으면 그이와 나와 의 생활이 뭐가 되겠어. 당신같이 키 크고 당신같이 금발 머리에 당신처럼 푸른 눈동자를 가진 자식. 오호, 하나님 난 무슨 괴로이 따위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처녀는 일어서서 냉큼 부엌 밖으로 나가 버렸다. 잠시 동안 방안에는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한스는 월통하다는 듯이 삼편병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벌떡 일어섰다. 프리에 마나님이 그의 뒤를 쫓아 나갔다.

『당신이 그애와 결혼하겠다고 말씀한 것은 정말이었나요?』 하고 마나님은 낮은 목소리로 그자에게 물었다.

『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정에서 울어나온 말이었어요. 전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애를 버리지 않겠지요? 그리고 여기 머물러서 농사일을 하겠단 말이지요?』

『네 맹세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영감이 영생 일을 계속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당신 집에선 재산을 아우님과 분배할 수도 있을

지만 우리 집에선 은은매기 할 사람도 없는 처지가 아니겠수.』

『그도 그렇군요.』

『우린 그 선생과 결혼하겠다는 아네트의 의견에 찬성할 순 없다우. 그편 아들놈이 살았었으니까, 네가 좋아하는데 뉘 뭐라겠니, 하고 영감이 말했었지만. 아무튼 아네트는 그놈에게 미쳤어요. 그러나 자식이 죽은 지금에 와서는 이야기가 다르지요. 참 우리 자식놈은 불쌍하지요 딸년이 그 선생녀석허구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도 우리 영감이 혼자손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말이에요?』

『팔아 버리신다면 창피하실 겁니다. 전 농민이 자기 땅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압니다.』 한스와 마나님은 어느듯 큰 길까지 나왔다. 마나님은 그의 손을 잡고 지긋이 힘을 주었다.

『곧 또 오시구려.』

한스는 마나님이 자기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쏘와쑹으로도 타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아네트가 떠난 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골치아픈 일이다. 그자가 포로라는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석방된다 하더라도 그 훨씬 전에 어린애가 나올 것이다. 애를 낳면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 여자의 마음이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참 한스의 고향 동리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동리의 웃음끼리가 될만큼
 지극히 남편을 사랑했다. 자연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남편이 보기도 싫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렇다면 또한 그 정반대의 일이 안 일어난단 법도 없을 것
 이 아닌가? 더군다나 자기가 처녀에게 청혼까지 했으니
 처녀도 자기를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
 다. 아아 하느님, 고개를 뒤로 제치고 있던 그 처녀의
 모습이 그 얼마나 가련했으며 그 처녀의 독백(獨白)이
 그 얼마나 멧떨어진 것이 었던지요! 그리고 또 그 얼마
 나 근사한 말이 었던지요! 아마 무대배우도 처녀의 표현
 앞에선 무색해 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느 한구절 하
 나 부자연스러운 때도 없었고. 불란서 부인들의 말솜씨
 를 인정치 않을 수 없지요. 오호, 그 처녀는 참으로 현
 명한 여자입니다. 처녀가 제게 독설을 퍼부었던 그 순간에
 도, 처녀의 말에 귀를 기울리는 것은 즐거웠으니까요. 한
 스 자신도 상당한 교육을 받은 자였지만 처녀에 비하면
 어림도 없었다. 교양, 이것이야말로 처녀의 미천인 것
 이다.

『참 내가 바보야.』하고 그는 길을 가며 큰 소리로 중얼
 거렸다. 자기를 키 크고 힘 세고 미남이라고 처녀가 말
 하지 않았던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처녀가 했을까? 그
 티고 아이는 자기를 탐아 금발에 푸른 눈일 게라고 말하

지 않았던가. 자기 용모에 깊은 인상을 갖지 않았으면
 결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자는 혼자서 길
 걸어 갔다. 『시간만 있으면 된다. 참아라. 그리고 일
 되어가는대로 말거라.』

몇 주일이 지나갔다. 쏘와쑹의 사명관은 중년이 좀 넘
 은, 성미 누긋한 작자였는데 청춘이만 아껴야 할 것이라
 는 견지에서, 부하를 혹사(酷使)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지극히 만족을 느끼고 있는 자였다. 「부후트밧취(空申誘
 導彈)」의 위력으로 영국은 과멸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
 은 공포에 떨고 있다고 독일신문들은 떠들어댔다. 독일
 잡수함이 대성공리에 영국선박을 격침시키고 있어 굶어
 죽게 된 판이라는 것이었다. 혁명이 눈 앞에 임박했으니
 여름전까지는 단사가 다 끝장이 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독일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한
 스는 고향집에 편지를 보내, 불란서 처녀와 결혼하여
 이곳 훌륭한 농촌에서 살겠노라고 부모에게 전하였다.
 자기 목아치로 되어 있는 가산(家産)에서 돈을 빌려주면
 전정과 환율(換率) 관계로 헐값에 땅을 살 수 있으니 자
 기 소유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고도 적어보냈다. 또 그
 자는 브리에 영감과 같이 농터를 돌아 보기도 하였다.
 영감은 한스가 자기 이상을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농장에 새로운 기계를 사 들여야 한다는 것이었

다. 독일 사람처럼 제초기(除草機)도 가져야 하며 트럭터어도 남았으므로 독일에서 하얀한 새 농을 사드릴 것이고 모오더가래도 사올 것이라 하는 것이었다. 농사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대적 기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뿌리에 마나님이 후에 그자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영감이, 그 사람 참 꽤 짧은 젊으니 입디다,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라고 말했다. 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마나님이 그자와 아주 친해졌다. 그래서 공일 날이면, 우리 힘으니 내외와 같이 점심을 해야만 하겠다고 권하기 까지는 것이었다. 마나님은 그자의 이름을 불탄서식으로 고쳐서 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자는 언제나 이 늙은 내외에게 기꺼히 손을 빌려 주었다. 점점 탈이 차가매 따라 아네트가 일을 못하게 되자 주위에, 일 하는 것을 성가셔 하지 않는 남자를 갖는다는 것은 해롭지 않은 일이었다.

아네트는 여전히 치열한 적의를 품고 있었다. 그자가 직접 묻는 말에 뱀주하는 외에는 그자에게 말한마디 거는 법 없었다. 피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방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자기 방에 있을 수 없는 때에는 부엌 난로 옆에 앉아서 뜨게질과 독서를 했는 때 그자가 없는 거나 다름없이 본척 만척했다. 처녀의 얼굴은 건강색이었다. 두 뺨에는 화색이 돌았다. 그래서

한스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다. 밀잡아서 어머니가 된다는 그것이 처녀에게 이상하게도 위엄(威嚴)을 갖추게 해주었다. 그래서 처녀를 바라볼 때면 그자의 가슴은 환희에 뛰놀았다. 그후 어느날 그자가 농가로 오는 도중, 뿌리에 마나님이 길에서 손을 흔들며 발걸음을 멈추라고 하는 것을 만났다. 그자는 급(急)부레이크를 밟았다.

『한시간이나 기다렸다우. 난 안오지나 않을까 했지. 부대로 도라가야 해요. 베일이 죽었어요.』

『베일이 누굽니까?』

『베일·가방말요. 아네트와 약혼한 그선생말야.』

한스의 가슴은 뛰었다.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이나. 이제서야 그자는 찬스를 얻은 것이다.

『따님은 다 미칠지경이겠죠?』

『그애는 울지도 않고, 내가 무슨 얘길 할라고 하니까 그냥 날 해치려 덤벼 들겠지요. 오늘 당신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일려고 할거예요.』

『그가 죽은 건 제 탓은 아닌데요. 어떻게 소문을 들으셨나요?』

『그이 친구인 같은 포로 한명야 스월져어랜드로 해서 도망쳐 나와 아네트에게 편지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편지를 받았어요. 충분한 급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용소내에서 폭동이 일어나 주모자들이 총살 당했대요』

『파엘도 그중한 사람이었대요.』

한스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건 파엘에게 마땅한 처벌이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놈들은 도대체 포로수용소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반항이란 것을?

『그애의 △속크V가 사실때까지 시간의 여유를 주시구려 그애가 좀 진정해지면 내 타일르리다. 편지를 벨터이니 그때 다시 오시란 말예요.』하고 프리에 마나넴은 말했다 『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읍니다.』

『이젠 자신을 가져도 좋아요. 우리 영감과 나는 찬성하고 있어요. 의논한 결과 우리가 취할 길은 단지 하나 현실을 받아드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 영감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지금 불탄서를 위한 최상의 찬스는 협조하는 것이라고 영감은 말했어요. 난 영감의 의견이라면, 소중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당신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그 선생보다 아네르의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아이도 생길 것이구 그만하면 됐지요.』

『전 아들을 낳으면 해요.』하고 한스는 말했다.

『아들일 거예요. 확실해요. 커피—찌기로 점도 쳐보고 또 화톰점도 쳐봤는데 언제나 아들이 나왔어요.』

『아침, 잊을뻔 했네 여기 잡지를 가져왔어요.』하고 한스는 오—트바이를 돌려, 탈 준비를 하며 말했다.

그자는 파리·쑨와트(Paris-Eveing)라는 잡지 세권 을 마나넴에게 내밀었다. 프리에 영감은 이 잡지를 저녁마다 읽었다.

그 잡지에는, 불탄서 인민은 현실적이며 야 하며 히틀러가 창설하는 구라과신질서(歐羅巴新秩序)를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 독일 잠수함이 바다를 휩쓸고 있으며 독일 잠모부(參謀部)에서는 전쟁을 영국의 패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최말단부대까지 조직적인 단결을 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은 너무나도 전쟁준비가 안되어 있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여론이 분열되어 영국을 도울 수 없으니 불탄서는 신이 보내주신 이 호기(好機)를 잃지 말고 통치자에 대한 충성된 협조로써 신구라과에 있어서의 영예로운 자리를 다시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사등이 실려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사는 독일인 아닌 불탄서인들이 쓴 것이었다. 재벌들과 유대인들은 멸망될 것이며 불탄서의 빈민들은 결국 자기네 몫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사에 이르러서는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때때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었다. 불탄서는 본질적으로는 농업국이며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근면한 농부들이라고는 과한 현명한 인사의 말은 과연 지당한 말씀이며 참 훌륭한 생각이기도 하였다.

파엘·가파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온지 열흘이 지난 어

느날, 저녁 밤상을 물린후 브리에 만나님은 영감과 짜고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장에게 내일 오라는 편지를 몇일전에 보냈단다.』

『미리 알려주셔서 고맙군요. 난 방속에 꼭 박혀 있었어요.』

『오오, 이것봐라 애야, 어리석은 짓을 앉겠니. 베일은 죽었고 장이 너를 사랑하며 나와 결혼하자는게 아니냐. 더구나 그는 미남이 아니냐. 그를 남편으로 삼을수 있다면 못처녀가 다 자랑으로 여길 것이다. 그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찌 이 농장을 재로 정비할수 있겠니? 그는 자기 돈으로 트러터어와 가태도 사드리겠다고 하지 않니. 과거는 과거가 아니냐.』

『어머니, 어머니 헛된 소릴하고 있어요. 전 전에도 제 생활빌 벌었으니까 또 다시 벌수 있어요. 난 그자가 미워요. 그자의 허식과 거만이 싫어요. 그걸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자가 죽으면 내속이 다 후련하겠어요. 그자가 날 괴롭힌 것 처럼 나도 그자를 괴롭혀 주고 싶어요. 그자가 새 몸을 양치준 것 처럼 나도 그자를 망쳐줄 방법

이 발견된다면 난 속도록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애야, 온넌 너무 미련하구나. 딱한 애같으니.』

『애야, 너의 어머니 말이 맞다. 우린 전쟁에서 패한 것이니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복자들과 가능한 가장 좋은 타협을 해야 하느니라. 우린 그자를 보다 심산이 따르니 노름을 잘만 한다면 미친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불만서는 썩어 빠졌느니라. 우리 나라를 망쳐놓은 것은 유태인이요, 재벌들이다. 잡지를 좀 읽어 보라. 너도 절로 알게 될터이니.』 하고 브리에 영감이 말했다.

『그따위 잡지에 실린 것을 내가 한마디라도 믿을줄 아세요? 그자가 왜 독일군에게 파는 잡지를 아버지에게 저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사를 쓴 자들은 반역자, 매국노들이예요. 오 하느님, 이 목숨이 살아 남아서 그자들이 우리 애국자들의 쫓기(厥起)에 만나, 갈같이 찢겨 죽는 꼴을 보게 해 주소서. 그자들은 매수된 거예요, 모두 매수된 거예요——독일 마르크에 매수된 개들이예요.』

— (次號完結) —



△小說▽

傷痕

朴榮濬

문호(文虎)가 탈수(達洙)의 재혼을 권한 것은 석달전부터의 일이었다. 얌전한 처녀가 있다고 하면서 일부터 찾아와서는 병이 나기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강권하다시피 말했다. 그러나 탈수는 문호의 말을 들은 척도 안했다.

사실 문호의 말처럼 탈수는 자기가 병이나 열지 않나 걱정되었다. 무슨 병이 생기고야 말것같은 생각이 들만큼 몸과 마음이 수척해 갔던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생각만해도 가슴이 답답해 오고 몸이 저린것 같이 재혼을 권하는 문호가 무슨 원수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나간지 며칠도 안되는 날부터 재혼을 권할 까닭이 없을것 같았다.

그래서 문호가 울적마다 쓴 오이를 보듯 말뎀구도 잘 해주지 않았건만 그는 오늘날도 또 찾아왔다.

『일찍 들어 왔구만……』

문호는 달수가 집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것 처럼 첫 말을 꺼내었다.

『일찍 들어 오지, 뭐 할일이 있어……』

달수는 조금도 반가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소 잃고 소양간 고치기로군……』

아내가 이혼해 가지고 나가기 전에는 일찍암치 들어오는 일이 없던 달수를 비꼬는 말이였다. 그래서 달수의 분통을 다시 건드리는 것이였다.

달수는 정임이가 어떤 남자와 배가 맞아 나간뒤 하루도 마음편한 날이 없었다. 자기 모르게 어떤 남자와 치정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분한 생각이 글수에 박혀 밤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거리에 나가면 보이는 여자마다가 정임이처럼 남자를 속이는 여자로 보였다. 그런데 문호가 들어 와서 포울 화를 치밀어 놓고 말했으니 참을수가 있을 것인가?

『왔하러 온거야 빨리가!』

달수는 문호를 향해 주먹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직도 도망간 부엌을 못 잊는가 보군……』

문호는 달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심술 심술 웃기만 했다.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으니깐 빨리가!』

그러나 문호는 달수에게 약을 올리려온 것이 목적이 아닌만큼

『왜 있어 버티질 못하는거야? 죽은 사람도 있어 버티는게 싫다고 나간 사람을 무엇보다문에 생각하나 말이야?』

하고 달수의 마음을 진정 시키려 하기 시작했다.

『거울을 좀 보게, 그러다가 병이 나면 누가 손해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 가지구 잊도록 하란 말이야. 이번 색씨는 그런일 절대부 없을테니까 안심하구……』

『한번도 지긋지긋해 정말 그런 소릴 말어.』

『못이 빠진 자리에는 새못을 박어야 구멍이 메워지는 거야 좌우간 내가 색씨를 메리구 올테니까 한번 보아 두기나 하세.』

『정 그러면 자네하고 싸울테니가 그런줄 알어.』

달수는 애원하다 지피 말했다.

『고집도 이젠 그만 부리게 여자는 새것이 좋다고 장가를 한번 더 들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남없는 팔자를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 봐.』

문호는 달수의 고집을 무너트리려고 말 모양이었다.

문호가 그렇게 까지 극성스러운것은 오직 달수를 생각하는 우정에서였다. 소개하겠다는 색씨가 먼 친척집 딸로 삼십이 거의 되는 노처녀라 치위 달라는 색씨 부모

의 정도 없지는 않았지만 문호는 색채편 보다는 달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두터웠다. 달수는 남달리 가정에 충실했다. 따라서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다. 그런만큼 아내가 치정사건을 일으키고 집을 나갈 때 달수는 죽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문호는 달수를 모른척 할 수가 없을뿐 아니라 달수의 상처를 고쳐 주는데 재혼이 무엇보다도 약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문호는 그것을 우정의 의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달수는 문호의 우정을 끝내 받아 들이지 않았다.

『여자가 싫어졌어, 싫은 것하고 어떻게 같이 살란 말이야?』

『개도 정을 붙이면 귀여운 거야. 여자란 의복과 같아서 더워도 입어야 하는 것이거든 입기 시작하면 점점 호호로운 것이 입고 싶어 지고……』

문호는 이날도 달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완전히 실패 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다음 일요일 문호는 다시 달수를 찾아 왔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세.』

이번에는 달수를 끌고 밖으로 나갈 모양이었다.

『술을 사다가 집에서 먹세.』

달수는 나간다는 것이 싫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나다니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일 없는 일요일에야 나갈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아따 바람도 좀 쐬어야 않나! 젊은 사람이 품작 거리를 싫어하면 금시 죽어.』

『술이야 집에서 먹으나 나가서 먹으나 마찬가지로 아닌가?』

『술을 한잔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맛이 어떤지를 모르는가 보군…… 좌우간 나가……』

문호는 남의 집에서야 자기가 어떻게 술을 살 수 있는냐고 달수를 끌어 내고야 말았다.

달수는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벽에 걸린 옷을 내려다 입혀 주며 잡아 끄는 때는 할 수가 없었다. 사실은 달수도 정임이를 잊으려고 안하는 것은 아니었다.

구경도 다니고 술을 마시려도 돌아다니고 싶었지만 그것이 되지가 않을 뿐이었다. 모두가 귀찮고 모두가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그런만큼 문호가 끄는 것을 기회로 한번쯤 술을 마시려 나가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하고 따라 나섰다.

그러나 문호는 가까운 술집을 두고서도 종로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달수는 아무데서나 한잔하고 돌아 가는 것이 어떠냐고 했지만 문호는 자기가 아는 집이 있다고 하

면서 어디라는 말도 안하고 그냥 걸었다. 그리고는 화선 근처 어떤 다방앞에서 우선 한잔 마시고 가자고 했다.

달수는 싫었다. 다방이란 남녀들이 모여 수군 거리는 곳이다. 그런데를 간다면 또 정임이가 생각 날것이 분명했다. 자기 모르게 남자를 끼고 드나들던 다방.

『술이나 먹으러가 차는 무슨 차』

그러나 문호는 달수의 마음을 알은척도 않고 그의 손목을 끌고

『오분만……』

하고 다방으로 들어 갔다.

다방으로 들어 가자 문호는 달수의 손목을 놓지도 않고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갔다. 무슨 약속들이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문호는 『내가 여길 어떻게 왔니?』 하고 그 여자를 우연히 맞났것처럼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여자는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인채 대답이 없었다 『죄우간 앞세. 내일가 죽한테……』

문호는 달수에게 앉기를 권했다. 그리고는 그 여자더러 달수에게 인사를 하라고 했다.

달수는 그 여자가 전부터 결혼하러던 바로 그 여자임을 알고 얼굴을 유심히 바라 보았다.

스물 일여덟살은 됴직해 보였다. 감추한테가 없는 것이 순박한 여자 같았다. 야무지게 포득스러운 메도 없는 것 같아서 남을 속이고 나쁜짓을 할 성격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름은 명희야 나이는 들었어도 아는 것은 없어. 그저 마음이 고을뿐이지.』

문호가 명희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러나 달수는 그런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다. 아무 리 인상이 좋은 여자라고 해도 그가 여자인 이상 남자를 속이고 남자의 속을 써우고야 말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지금 생각하면 정임에게는 야무지고 어딘가 포득스러운 배가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것을 느끼지도 못했다.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여자만 다 마찬가지로 지각이 러니만 알았다. 그리고 결혼생활 사오년동안 정임은 과연 다른 여자와 다름없이 아내로서 자기 할일을 다했다. 집을 떠나는 날 까지도 정임은 자기를 사랑하는척했다. 다른 사내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간쪽같이 속이었던 것이다.

— 여자란 두개의 마음을 가진 생물(生物)이야 —

달수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있다. 그 먼만큼 명희가 암전하게 보이고 개성이 누그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에게는 역시 두개의 마음이 있을
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차를 마시는 동안 문호가 날도 좋고 하니 시외로 산보
나가는 것이 어떨겠느냐고 말했지만 달수는 문호의 속이
몰려다 보며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술이나 먹으려가」

달수는 명회의 존재같은 것은 안두에도 두지 않고 일어
섰다.

「시외에 나가서 술을 먹으면 윤치가 더 있지 않아...」

문호는 명회와 같이 시외로 같이 갈 모양이었다. 달수
는 정말 싫었다.

「술이야 아무데서 먹으나 맛이 다들라고...」

문호는 그뒤에도 여러가지 말로 달수를 꼬이려 했지만
달수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자 명회가 면구스리웠던지

「그럼 명회 너는 집으로 가라.」

하고 명회를 돌려 보내고 근처 술집으로 갔다.

「명회가 그렇게 나쁜 여자 같지는 않지? 내가 보증하지
만 정임이 같은 일은 없을 걸세...」

하고 명회 이야기를 꺼냈다.

그말을 듣자 달수는 먹은 술이 갑자기 깨는 것 같았다.

「여자는 다 싫다니까.」

「여자가 다 싫을게 어디 있어? 정임이 한때 손을 빼었

다고 세상 여자가 다 정임이 같은 술아나? 그때도 이
세상엔 정숙한 여자가 더 많다는걸 알아야 해!」

「어쨌든 여자는 싫어!」

술집을 나오자 달수는 골장 집으로 왔다. 돌아와서는
이불을 쓰고 누워 버렸다.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자기 몰래 돈을 내다 쓰면서도 면전에서 남인인 자
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야양을 떨던 정임이가 생각났다.

밤늦게 돌아와서는 자기가 입을 열기전에 무어라 퍼들
어 대며 이불속으로 끌고 들어 가던 정임이 생각이 났다

사랑하는 처 하면서 자기를 속이던 정임이!

생각할수록 기막힐 뿐이었다.

달수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가슴이 아픈 생활을 해 나

가야 하는가 생각했다. 필수 있으면 정임이 따위를 생각
도 말아야겠다고 마음 먹지만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은 이 더욱 가슴 아프기만 했다.

공장에 출근해서 일을 할 때도 그의 머릿에는 정임이

생각뿐이었다. 어떤 때는 정임이를 생각하면 출근하게 되곤
하던 지난날이 그리워 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분하고

기막힌 생각뿐이었다.

밤일이 많은 생산공장(生産工場)이라 야근이 유달리

많다. 전에는 야근수당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늦게 돌아
가는 것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 생활을 조금이라도

유쾌하게 하려면 돈을 벌어야 했다.

그러나 그 야근통에 정임이가 밤에도 외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는 야근도 싫어졌다. 자기는 야근을 하는 동안 정임이는 만 녀석과 사랑을 속삭였을 것이 아닌가?

지금은 자기의 야근을 틀라 자기를 속이고 돌아다니는 정임이가 없어졌다. 그래서 핑계를 만들어서 까지 야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술을 만드는 양조장 총무로 있는 만큼 언제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직책이지만 달수는 될 수 있는 대로 야근을 안하고 있다.

어떤날 달수는 역시 야근이 싫어서 일즉암치 집에 돌아오려고 할때 양조장 주인이

『요새 좋은 일이 생겼나? 좋은 일이라면 일즉 성사를 시켜야지 밤낮 그렇게 마음이 들떠서야 쓰겠나?』 하고 핀잔같은 것을 주었다.

『좋은 일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달수는 기막힌 말이라는 듯이 대답을 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

『짜우간 자리를 너무 비면 회사일은 누가 보지?』 하고 회사가 곤란하다는 말을 했다.

그 말에 달수는

『네 앞으로는 조심하겠읍니다.』

하고 자기가 직무에 태만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했다.

직무에 태만해서야 주인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나이가 삼십을 이제 겨우 넘었지만 그래도 달수가 주인에게 신용을 얻은 것은 남보다 충직하게 일을 한 때 문이었다. 태만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면 주인이 나라고 할지도 모른다.

달수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억지로 마음을 붙이려고 하던 어떤날이었다. 밤일을 하고 있을 때 정임이와 어떤 늑패이가 소근거리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발가 벗은 채 부끄럼도 없이 히히닥 거리는 것이었다.

달수는 눈을 감아 버렸다. 바늘로 찌르듯 가슴이 아팠다. 앉아 있을때야 있을 수가 없었다.

할수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다. 종로를 걸어 오고 있을 때 앞으로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다. 틀림없는 정임이었다. 어떤 남자와 같이 팔목을 끼고 오는 것이었다. 달수는 가슴이 터렷했다. 몸이 쏠어질 것 같았다.

겨우 몸을 지탱하고서 있을 때 정임이가 달수에게 시선을 던지었다. 그러나 그 눈초리만 본 일도 없는 사람울 보는 그런 눈초리였다. 차라리 경멸에 찬 눈초리라고 하는 것이 좋았다.

정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수는 그대로 서 있었

다.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몇달 뒤 달수는 명회와 결혼을 했다. 그것은 종로에서 정임을 본 뒤에 생긴 달수의 마음의 변화에서 온 것이었다.

자기를 정결하는 듯한 그 정임의 눈초리가 미웠다. 다른 남자와 제미있게 지나는 모양을 보아만 듯이 걸어가던 정임이가 미웠다. 여자에게 버림을 받아서 초라하게 사는 못난 사내를 보라는 듯이 같이 가던 남자에게 소근거리던 정임이가 미웠다.

정임이가 미워서 결혼한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자 달수는 첫날로 명회에게 과거를 물었다. 연애를 몇 번이나 했느냐는 것이었다.

명회는 연애를 한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정말 일것 같지가 않았다.

『스물 일곱이나 되도록 연애 안해본 여자가 어디 있어.』 사실 요즘 여자치고 연애를 안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못해 봤어요.』

했다고 해도 무관한 일을 가지고 안했다고만 우기는 것은 확실히 거짓을 꾸미는 것이었다.

『했다면 어때! 앞으로만 나를 사랑하면 되지!』

『안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달수는 명회가 두 마음을 가진 여자라고 단정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자기 모르게 외출을 못하도록 했다. 명회는 시장 이외에는 갈 곳도 없다고 했다.

달수는 시장에 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고 밤하는 처녀를 하나 구해다 놓았다. 시장 가서 물건을 사고 하는 중에 장사꾼하고 마음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였다. 그래서 시장에도 밤하는 애만올 보내도록 했다. 어떤날 명회는 전기값 받으러 온 사람이 어떻게 썼기에 전기값이 배나 늘었나 하더라 말을 했다. 그리고는 신혼을 하시더니 밤가는 줄도 모르는 모양이라고 농담까지 하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달수는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보였으면 처음 보는 남자가 남의 부인에게 그런 농담까지 한담!』

달수는 명회가 그렇게 보였기에 그따위 농담을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아무 말도 안했는데 혼자서 심정계 그런 소릴 하지 않아요.』

명회는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을 달수가 이상하게 잡아 꼬집는 데 도리어 놀라는 표정이었다.

『남자에게 만만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도 다른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어떻진 무엇이 어때요?』

『이게 큰일난 제집엔데……』

남자를 경계할 생각은 안하고 도리어 심상케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를 원동력이 된다.

달수는 명희의 뺨을 한대 후려 갈겼다.

『왜 때리는지 알았어?』

명희는 눈물을 주룩 흘렸다.

그리고는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무얼 잘못했어요?』

『남자를 대할때 조심하란 말이야.』

명희는 아모 대답도 안하고 울기만 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달수는 사과를 제출했다. 골목길에

나마 집이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집을 고쳐 가게라도 낼

생각이었다.

가게를 열고 앉아 있으면 집을 빌 필요가 없다. 집에

만 붙어 있다면 아내를 혼자 있게 하지 않을 수 있다. 혼

자 있게 하지만 않는다면 남의 꼬임을 받을 기회가 없다

아무때도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일 것 같았다.

더구나 그 직장에 그대로 있으면 야근이 번출나게 있다

또 정임이 같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명희도 거짓말을 하는 여자다. 반드시 연애를 했을 터
인데도 안했다고 딱 잘라 맨다. 그뿐 아니라 조금만 꼬
이면 넘어갈 소질이 다분히 있는 여자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달수는 집을 고쳐 구멍가게를
냈던 것이다.

가게를 낸지 며칠 동안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
무리 속이기를 잘하는 여자라 해도 수물네 시간 동안 내내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
음이 든든했다.

그러나 며칠이 안되어 달수는 명희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회만 있으면 가게로 나가 물건을 팔기 때문이
었다. 명희가 나갈때마다 손님은 남자였다. 남자 손님에
게 얼굴을 보이고 한마디라도 말할 기회를 주고 싶어하
는 그 마음속이 었던 것이다.

방안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도 명희는 손님만 오면 달
수보다도 먼저 손님에게로 뛰어갔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하루 아침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손님이 왔다. 달
수가 일어 서려는 때 어느새 명희가 뛰어 나가는 것이었
다.

남자손님이었다. 달수는 눈물 사남개 바라보고만 있었
다. 그랬드니 명희는

「거얼마 되지도 않는걸 가지구 그러세요?」

「에누리는 안하는 데요.」

「그럼 다음에나 또 와주세요.」

하고 지나칠 정도로 애교를 부리고 있었다. 달수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었다. 더구나 다음에나 또 와주세요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 견딜 수 없었다.

정말 바람이 날 소질이 다분히 있는 여자였다. 정임이 도 못남자들에게 그런 교태를 떨었을 것이 아닌가?

달수는 명희가 물건을 팔고 들어오는 것을 붙잡고

「이년 다시 오면 어떻게 작정이냐 응?」

하고 멧자 못자 따귀를 갈겼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보고 다시 와 달라고 할 것이 아무런 잘못도 아니련만 달수에게는 다시 와 달라는 말이 장사꾼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떤날은 도매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더니까 어떤 남자가 가게 안에서 사과를 깎아 먹고 있었다. 사과를 먹으면서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쓸데 없는 소리를 지껄리며 먹고 있었다.

「장사가 잘 됩니까?」

「다음부터는 딱하고 거래를 터야겠군요?」

「의상을 줄 수 있겠지요? 나는 X X 에 다니는 사람인
의……」

달수는 싱거운 친구라 생각하면서도 빨리 물어가 주었으면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명희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았다. 조금도 귀찮다는 얼굴을 짓지 않고

「늘 오시는 손님이면 의상을 안드릴라구요?」

하며 언제까지라도 응수해줄 태도였다.

달수는 내위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를어가 봐?」

하고 손님이 민망할 정도로 신경질을 썼다. 그리고 손님이 돌아간 뒤에는 안방으로 달려가서

「물건과는 가개지 사과 먹으며 노닥거리는 멘줄 알아? 남자면 그저 오금을 못써……」

하며 또 명희를 갈겼다.

그 뒤부터 명희는 가개로 나가지를 않았다. 그 대신 하루는 집엘 다녀 오겠다고 웃을 갈아 입고 나섰다.

처음에는 무엇때문에 가느냐고 가지 못하게 했으나 명희는 오랫동안 가 보지를 않아 어머니가 싫지나 싫나 걱정 된다고 하며 꼭 갔다 와야 한다고 고집을 세웠다.

생동한 핑계를 꾸며 가지고 의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거짓말을 잘하는 여자— 달수는 그런 거짓말에는 속지를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달수는 명희를 보내

되 밤하는 애를 따라 보냈다. 혹시 가서 안들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잔다는 친정에는 안가고 옛날 중

「아하던 사람을 만나려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 밥하는 예를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명희는 몇시간 안되어 곧 돌아왔다. 도리어 이상스러울 정도로 빨리왔다. 그때서 밥하는 예를 개개로 불러다가 어디를 다녀 왔느냐고 물었다. 틀림없이 친정에 갔다 왔다고 했다.

달수는 계집애까지 아내의 편이 되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서

「바른대로 말해 친정엔 갔다가 그렇게 빨리와!」
하고 말하는 애에게까지 딱딱 거렸다.

그럴때 손님이 와서 더 물어 보지를 못했지만 명희도 안심할수 있는 여자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문호가 찾아왔다. 한참동안 잠담만 하다가 돌아갈 무렵쯤

「자네 손질을 잘한다지?」
하고 정색한 얼굴로 물었다.

「왜 그래?」

「죄없는 사람을 때려서야 쓰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말로 타이를 것이지—아직 모르는 것이 많을 테니까 눈에 차지 않을지는 모르겠네만……」

「더자는 때려서 질을 드러야해」

달수는 문호가 명희의 인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꺼림없이 했다.

「글쎄 때릴때 때려도 좋지만 자넨 명희를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 같아……」

「의심 안할수 있어?」

문호를 명희가 의심받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말로 설명했다. 그러나 달수는 잠시라도 감시를 게을리하면 헛길로 나가는 것이 여자라고 하며 자기의 소신이 옳다는 것을 고집했다.

문호는 정임에게서 받는 타격 때문에 좋은말로 타이틀 뿐 그냥 돌아 갔다.

그러나 문호가 돌아간 뒤부터 달수는 또 다른 말로 명희를 못 살게 굴었다.

「내가 싫어했지? 나와 이혼하려고 문호에게 가서의 논을 한게 아니구 뭐야? 돈이 없다고 나를 잘보는 거지?」

명희에게 있어서는 생벼락이었다. 그러나 달수는 틈만 있는 대로

「결혼한지 몇달도 안돼서 이혼을 해?」

하고는 명희를 괴롭혔다. 그런 생각은 가져본 일도 없었고 설명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화장을 하고 있으면

『어떤놈 한테 골짜기 뵈려구 화장을 하는 거야?』
하고 생트집을 잡았다.

어쩔든 하무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명회는 정말
달수와 결혼한 것을 후회했다.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하무같이 불안해서는 살아갈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불안은 고사하고 매일처럼 들볶는 데는 잠시도 잠을
도리가 없었다.

명회는 다시 문호를 찾아가 그야말로 이혼을 해야 하
겠다고 말했다. 그때 문호는 명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한편

『이왕 결혼을 했으니 그사람의 의처증을 고쳐주도록 하
자. 전처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지 본사 나쁜 사
람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야. 연극이라도 한번 꾸며 보
자.』
하고 정말 그럴듯한 연극을 고안해 냈다.

명회는 자기들의 의심하는 마음만 안 가진다면 달수를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결혼한 남편이니 문호가 시키는 대로 연극을 꾸며서 라
도 그의 의처증을 고쳐놓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 있다
면 거기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명회는 문호가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을 약속하고 집으로
갔다.

이삼일이 지난 뒤 남편이 물건을 사려고 밖에 나가서
시골사는 인천 오빠가 찾아왔다. 그리고 달수가 지계꾼
에게 집을 메우고 돌아왔을 때 부터 연극은 시작되었다

『이놈! 내가 누군출 알고 합부로 덤비는 거야?』

남편이 있는 여자야. 남편밖에 모르는 여자야. 남편이
오기 전에 썩 썩 나가지 못해? 안나가면 썩는다. 썩
터!』

명회는 가개를 향해 일부러 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남편이 뛰어 들어 올 때에는 식도를 쥐고 일가 오빠에게
달려 들기까지 했다.

달수가 명회의 일가 오빠를 붙잡고 때려 줄려고 할 때
는 명회 오빠가 어느새 도망을 쳐 버렸다.

달수는 밖으로까지 뛰어 나갔지만 그때는 밖에 지켜
섰던 문호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사정 이야기를 묻는척 하며 달수를 꼭 붙잡았다.
달수는 말도 않고 몸부림을 쳤으나 문호는 말을 해야 알
지 않느냐고 달수를 품작도 못하게 붙잡았다.

따라가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 달수는 집으로 들어
갔다. 집안에 들어서자 명회가

『이젠 물건 사려도 가지마세요. 무서워요.』
하고 달수에게 메 달렸다.

달수는 아무말도 못하고 한참동안이나 멍멍해사!

『그년이 나뻗어, 정임이란 년이 나뻗어. 그년때문에 당

다가

『알았어. 잘 알았어.』

신까지 의심했던 거야. 그년을 어떻게 해야 써낼지.』

하고는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이사람을 기는? 여자때문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

자 것 연극 구민것이 미안하고도 웃어운 생각이 들어

는 사람이 어디 있나? 사내답게 살어 믿을건 믿구 있을

명회는 벼을 향하고 돌아 앉았다.

『사잇구 알았나.』

그러나 달수는 명회가 울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지

하며 달수의 어깨를 툭툭 쳤다.

명회의 어깨를 쓸어 주면서

—(끝)—

後記 編輯

昨年(去年)에 每月 한卷씩 내놓기로 約束(약속)하였던 것이나 軍豫算(군예산)關係로

應(應)하려고 豐富(부유)한 內容(내용)과 優秀(우수)한 體裁(체재)를 갖추고자 努力(노력)을 하나마 좁은 紙面(지면)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編輯(편집)자의 알고도 못하는 노릇(노릇)이다.

氣分(기분)과 新鮮(신선)한 抱負(보부)로 닥쳐온 障礙(장애)와 困難(곤란)을 克服(극복)하고 大空軍(대공군)의 傳統(전통)과 建設(건설)을 爲(위)하여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늦게 나와서 讀者(독자) 여러분을 氣(기)다리게 한 것은 不得已(不得已)한 일이나마 大端(대단)厚顔(후연)함을 禁(금지)키 어렵다.

벌써 立夏(立夏)이다. 各(각)已(已) 無限(무한)한 希望(희망)과 抱負(보부)를 가지고 自然(자연)을 맞이하자. 春(봄)夏(여름)秋(가을)冬(겨울)의 季節(계절)의 바뀌임과 變動(변동)이 없다면 그 일마나 無味(무미)乾燥(건조)하라!

끝으로 우리 祖國(조국)과 우리 同胞(동포)에게 繁榮(번영)과 祝福(복록)이 있기를 祈願(기도)하며 讀者(독자)諸(여)彦(彦)의 健康(건강)을 빈다.

허나 오늘날 우리의 財政(재정)이 如意(의의)치 못하다는 一因(일인)을 豫(여)히 諒察(량찰)하여 주소서.

우리는 여름을 맞이함께 晴快(晴快)한

(編輯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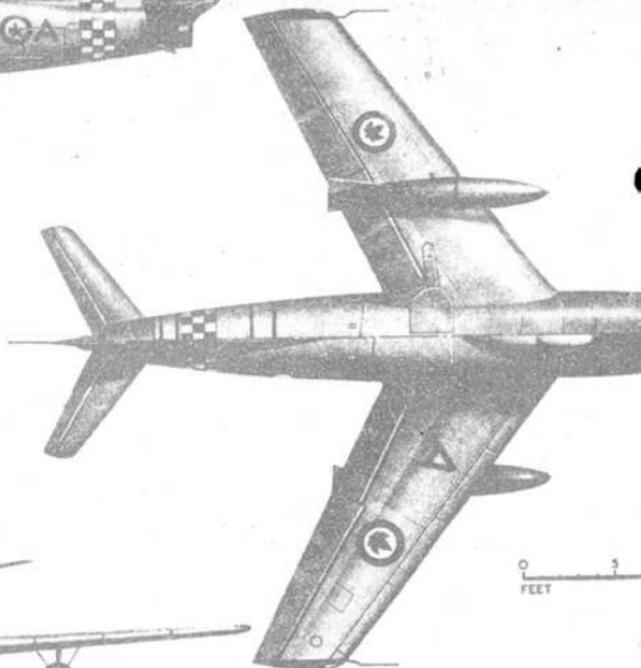
「코페트」는 여러분의 要請(요청)에 酬(응)하

우리는 여름을 맞이함께 晴快(晴快)한

(編輯者)



CANADAIR-BUILT
F-86E SABRE MK.2



NORTH AMERICAN
TF-86F

NORTH AMERICAN F-86D
SABRE



NORTH AMERICAN F-86H
SABRE

코 메 트

種 行 處 · 空 軍 本 部 政 訓 監 室
發 行 兼 編 輯 人 · 空 軍 大 領 李 鍾 勝
印 刷 處 · 空 軍 本 部 高 級 副 官 室 印 刷 所
印 刷 人 · 空 軍 中 領 李 繼 煥

祝
發
展

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